

I. 근대 교육운동

1. 근대 교육의 성립
2. 근대 교육의 발전
3. 근대 교육의 확대
4. 교육 구국운동의 추진
5. 근대적 교과서 편찬

I. 근대 교육운동

1. 근대 교육의 성립

1) 근대 교육 성립의 역사적 배경

한국 근대 교육은 19세기 후반 조선 사회가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에 맞서 근대적 국민·민족국가로 발돋움하는 과정에서 성립 발전되었다. 근대 교육이 성립되기 이전 조선의 재래교육은 유교적 가치관을 교육하는 經史교육이 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 초기 정부는 중앙인 서울에 四部學堂(처음에는 5부학당)과 성균관, 지방의 부·목·군·현에 향교를 설치하여 지배층의 자제들을 교육하였다. 관학이라 불리는 이 곳에서는 경사교육을 통해 유교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국왕을 보필하고 백성들을 통치할 관료 군을 양성하였다.¹⁾

정부가 세운 이들 교육기관 외에 서당·서재·정사·서원 등으로 불리는 사설 교육기관 역시 그 교육은 경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관료가 되기 위한 과거시험 준비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다. 특히 서원은 재지 양반지주층이 그들의 정치·경제적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조선 후기 사회는 농업생산력의 증대와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에 따라 신분제의 혼탁이 심화되고 있었다. 농공상업으로 富를 축적한 자들이 신분상승을 도모하는가 하면 유민화한 사족들의 일부는 몰락하여 정치·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1) 백성을 통치하는 일반 관료 외에 법률·회계·천문·통역 등 각종 실무를 집행하는 관료들은 해당 부서에서 양성되었다.

그리하여 유형원 이래 실학과는 사족이 벼슬말고는 생업을 기피함에서 비롯되는 유민화 현상을 제거하기 위한 수많은 제안을 하였다. 星湖 李瀾은 士農合一論을 제안하였고, 茶山 丁若鏞은 士의 農工商 등으로의 전업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성리학 중심의 교육과 학문이 正德만을 내세우며 利用厚生의 실학에 어두워 국가사회에 아무런 기여를 못하고 있었으므로 燕岩 朴趾源은 후세에 농민과 工人과 商賈가 업을 잃게 된 것은 곧 사족이 실학을 하지 않은 허물이라고 지적하고 사족의 학문은 농공상에 관한 것을 모두 포함하여 士가 농공상업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해야한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湛軒 洪大容은 四民간의 신분적 차이를 부정하고 인재등용에 있어서 능력본위, 교육에 있어서 기회균등의 원칙을 주장하였다. 신분을 뛰어넘는 인재등용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었으므로 담헌은 초등교육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능력본위의 교육을 실시하고, 초등교육의 의무교육제를 실시하자고 주장하였다.²⁾

다시 말해서 실학자들은 조선 후기의 사회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성리학의 정덕 일변도의 교육체제를 비판하면서 이용후생과 사민평등의 교육을 실시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실학자들의 교육개혁론은 조선정부에 수용되어지지 않은 채 개항을 맞이하게 되었다.

(1) 개화정책의 추진과 신교육 수용론 대두

중상주의와 산업혁명을 통해 그 부를 축적해 온 서구 자본주의 열강의 끊임없는 통상요구를 거절하던 조선은 1876년 서구와의 교역을 먼저 시작하여 힘을 기른 일본의 강압적 요구를 수용, 강화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새로운 국제질서에 편입되었다. 조선은 이후 서구 여러 나라와 수호조약을 체결하고 통상교역을 계속 확대하게 되었고, 영토의 확장과 식민지 개척을 도모하고 있던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 위협에 직면하였다.

농업중심의 자급 자족적 경제와 유교적 가치관에 기초한 사대교린의 국제질서에 자족하던 조선사회는 근대 자본주의와 국민·민족국가들간에 전개되

2) 姜在彦 著, 鄭昌烈 譯, 〈實學思想의 近代指向의 性格〉(《韓國의 開化思想》, 比峰出版社, 1981), 79~121쪽.

고 있던 약육강식의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하여 자강을 통한 국가와 민족의 독립을 지켜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었다.

조선이 부강한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구의 선진기술을 배워들여 근대 산업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무기로 무장된 군대를 양성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따라서 조선정부는 서구문물을 먼저 수용한 일본과 청나라의 실상을 파악하는 한편, 이들 나라들이 서구문물을 수용했던 방식에 따라 서구의 새로운 문물을 수용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정부는 이른 바 개화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서구와의 교역을 확대하고 새 문물을 수용하기 위한 개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의식과 많은 인재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재래의 성리학적 가치관과 교육으로 길러진 인재들은 오히려 개화정책의 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개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하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교육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1876년 일본과 근대적 수호조약을 맺은 조선정부는 같은 해 4월 金綺秀를 정사로 하는 제1차 수신사를 일본에 파견하였다. 김기수는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던 근대 일본의 많은 지도자와 교류하고 또 여러 시설을 시찰한 뒤 그 견문을 상세히 기록한 《日東記游》를 국왕 고종에게 제출하였다. 여기에서 김기수는 같은 시기의 일본교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³⁾

이른바 학교에서 사람을 가르치는 방법은 사대부의 자제로부터 민의 준수한 자에 이르기까지 7, 8세 때부터 가르치는 데, 책을 배우고 글자를 익히게 한다. 먼저 일본 글자를 가르치고 다음에 한자를 가르친다. 16세가 되면 다시는 경전을 읽히지 않으며, 크게는 天文, 地理, 句股(數學)의 學, 작게는 農器, 軍器 도형의 說을 눈으로 조사하고 손으로 점검하며 잠시도 그치지 않는다. 또한 여자에 이르기까지도 학교가 있어서 크게는 天·地·兵·農, 작게는 詩·文·書·畫에 대하여 모두 한 가지 재주를 오로지 한다. 美日和親條約 체결 이후 일본은 이미 의무교육제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이를 김기수가

3) 金綺秀, 《日東記游》 권 4, 還朝(《修信使記錄》, 國史編纂委員會, 1971, 108쪽).

견학한 것이었다.

제1차 수신사에 이어 1880년 金弘集을 정사로 하는 제2차 수신사가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의 새로운 문물을 시찰하고 귀국하였다. 김홍집은 일본방문길에 중국의 사상가 鄭觀應이 쓴 《易言》을 얻어 돌아왔다. 이는 개화와 자강에 관한 저술로 복간본과 번역본까지 간행되어 국민들에게 보급됨으로써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조선정부는 이 해 말(1880. 12) 새로운 정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관제개혁에 착수하였고, 다음해에는 청나라에 金允植을 領選使로 하여 38명의 학도와 工匠을 파견하여 군기제조를 학습케 하였다. 한편 일본에도 紳士遊覽團을 파견하여 일본의 새로운 문물을 시찰하게 하였다.⁴⁾ 일본과 청이 받아들인 서구의 새로운 문물을 배워 국가자강을 이루려는 의도에서였다. 개화사상의 鼻祖인 朴珪壽로부터 일찍이 청나라가 서양문물을 받아들여 실리를 얻고 있음을 보고 받은 고종은 이들 나라로부터 서양의 문물을 배워들이려 하였다.⁵⁾ 그리하여 고종은 개화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개항 이후 국왕과 개화파 정부의 개화정책에 불안을 느낀 유생들은 김홍집이 가지고 들어온 《朝鮮策略》을 구실로 위정척사운동을 강렬하게 전개하였다. 서구사상과 자본주의세력의 위협에 대항하여 성리학적 가치와 그에 기초한 조선왕조를 지키려 했던 보수 유생들은 정부의 통상·개화정책이 국가와 민족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구미제국과의 수호·통상에 반대하는 상소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와 더불어 개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소외된 구식군인들이 민씨 척족들의 부정부패를 계기로 이른바 壬午軍亂을 일으켜 대원군을 옹립하고 개화정책에 반항하였다.

그러나 청나라의 무력지원으로 임오군란을 평정한 고종은 개화정책의 계속적 추진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다.

저들의 敎는 사특하니 마땅히 음탕한 소리나 치장한 여자를 멀리 하듯이 해야 하지만, 저들의 器는 이로우니 진실로 이용후생을 할 수 있다면 농업·양잠·의약·병기·배·수레의 제도는 무엇을 꺼려서 피하겠는가. 그 교는 배척하

4) 李光麟, 〈開化思想의 發生과 그 展開〉(《韓國史講座》V, 近代篇, 一潮閣, 1981), 121~136쪽.

5) 姜在彦, 〈朴珪壽의 思想과 開國問題〉(앞의 책), 176~191쪽.

되 그 기는 본받는 것이 진실로 병행하여 거스르지 않는 것이다. 하물며 강약의 형세가 이미 크게 차이가 벌어졌는데, 만약 저들의 기를 본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저들에게 모욕당하고 저들이 욕보이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高宗實錄》, 고종 19년 8월 5일; 金允植, 《雲養集》 권 5, 綸音布諭·曉諭國內大小民人 임오).

즉 고종은 김윤식 등의 도움을 얻어 東道西器論의 입장에서 서구의 문물을 배워들여 국가자강을 이루려 하였다.

일찍이 박규수의 문하에 출입하면서 개화사상에 눈을 뗀 김윤식은 1881년에는 영선사로 청나라에 건너가 새로운 무기 제조술을 배워들이는데 진력하고 있었다. 김윤식은 영선사로 청나라의 天津에 파견되어 양무파 인사들과의 접촉을 통해 그의 생각을 더욱 가다듬게 되었다. 김윤식은 許其光과의 필담에서 富民 위주로 추진되는 일본의 개화자강정책에 의문을 품고 서양과 사정이 다른 우리 동양은 서양과 같은 법을 수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일본의 부는 國債로 채워졌다는 劉畚芳의 지적을 듣고⁶⁾ 일본의 개화자강방식을 따르려는 金玉均·朴泳孝 등과는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다. 즉 김윤식은 청나라의 양무론적 개화방식이 조선에 적합하다고 보아 김옥균 등과는 달리 점진적 개화노선을 선택하게 되었다.

김윤식 등을 중심으로 하는 양무론적 개화파는 기존의 전통적 지배질서와 이해관계를 온존시키면서 외형적 부국강병을 이룩하려 하였다. 즉 군주전제권을 강화하고 양반지주와 봉건적 특권상인층을 근대적 자본가로 전환시켜 농업증산과 상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에 대응하고 독립을 지킬 수 있는 부강한 근대국가를 이룩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서구의 사상과 사회체제의 수용은 거부하고 서양기술의 수용과 시설의 도입만을 추진하였다. 즉 동양의 사상과 사회체제는 유지하면서 서양의 기술만을 도입하자는 주장이었으므로 이를 東道西器論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동도서기론의 입장에서 개화를 추진하고자 한 대표적 인물 중의 하나인 김윤식은 서양의 부강이 학교교육이 성한데 있다고 보고 먼저 時務

6) 金允植, 《陰晴史》 상, 是日軍機所與劉鄉林談草(《韓國史料叢書》 6, 國史編纂委員會, 94~97쪽).

의 학으로 인재를 양성한 뒤 이들을 관인으로 등용하여 국가 부강을 이룩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⁷⁾

이와 같은 입장은 고종에게 올려진 개화파 유생과 전·현직관료들의 상소에 의해 더욱 뒷받침되었다.

충주 幼學 池錫永은 1882년 8월 서양의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그것을 연구하고 교육시키는 연구기관의 설치를 주장하였다. 그는 《萬國公法》을 비롯하여 《朝鮮策略》·《博物新編》 등 개화에 필요한 모든 서적들을 여러 사람에게 열람시키고, 또 수차 농기구·직조기·화륜기·무기 등을 사들여 각 도의 모든 고을로부터 유생과 관리들을 각각 1명씩 선출하여 개화관계 서적과 기계를 연구케 하자고 상소하였다.⁸⁾ 또 典籍 卞鎰은 국왕에게 기독교는 엄금하되 서양의 학문과 기술은 수용하여야 한다고 상소하였다.⁹⁾ 出身 尹善學도 군신·부자·부부·붕우·장유의 도는 지키고 舟·車·軍·農·器械와 관계되는 富國之術은 받아들이자고 상소하고 있다.¹⁰⁾

즉 이와 같이 일부 개화파 유생과 전·현직관료들은 동도서기론적 입장에서 정부가 하루 빨리 서구의 기술과 교육 등을 받아들여 개화자강을 이루어야 한다고 상소하였다. 이들은 개화관계 서적의 간행에서부터 외국어의 교수, 외국인 기사의 채용, 훈련원의 설치, 상회소와 국립은행의 설치, 탄광의 채굴, 화륜선의 건조, 군항의 설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부국강병을 위한 정책을 상소하였다.

이는 하루 빨리 서구 문물을 수용하여 부국강병을 이루어야만 국가를 보존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새로운 문물 수용을 위한 개화정책의 추진에는 새로운 의식을 가진 인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므로 고종은 1882년 12월 28일(음력) 8道4都에 綸音을 내려 양반도 상업에 종사하고 農工商賈의 자제라도 학교에 입학할 것을 허락하며 출신의 귀천을 논하지 말고 才學의 如何를 보도록 諭하였다.¹¹⁾

7) 金允植, 《續陰晴史》 권 4, 私議 16條, 養才編, 고종 26년 윤2월 8일.

8) 《承政院日記》, 고종 19년 8월 23일.

9) 《承政院日記》, 고종 19년 10월 7일.

10) 《承政院日記》, 고종 19년 12월 22일.

11) 《高宗實錄》, 고종 19년 12월 28일.

고종의 개화지지를 지원하는 개화상소가 이어지는 한편에서 보수세력의 척사운동도 강렬하게 일어나고 있었으므로 개화파 인사들은 《漢城旬報》를 창간하고 개화의 필요성을 계몽하는데 진력하였다.¹²⁾ 또한 개화파는 교육개혁을 통해서만이 개화가 가능하다고 믿고 있었으므로 《한성순보》는 서양의 근대 교육제도와 교육상황을 상세히 소개하였다.¹³⁾

《한성순보》에서는 첫째, 서양의 국민교육제도를 소개하면서 교육사무는 국가에서 장악하고 교육심의기관을 두어 자문을 구하지만 어디까지나 교육문제에 대한 결정은 국가에서 한다고 하며 국가위주의 교육을 소개하고 있다. 서양제국 중에서도 특히 국가의 교육통제가 강한 프랑스의 교육제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곁들이고 있다. 그리고 영국·프랑스·독일·스페인·오스트리아 등의 학교에 대해 소개하고 소학·중학·대학교의 단계적 진학이 제도화되어 피교육자의 발달정도에 따라 단계별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소학교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서양 여러 나라의 소학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소학교육이 국민교육의 기초로서 의무교육제도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실업교육기관인 농상공학교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¹⁴⁾ 다시 말해서 《한성순보》의 간행을 관장하게 된 洋務論的 개화파는¹⁵⁾ 서구문물의 수용을 통한 부강한 국가의 건설을 추구하면서도 교육에 있어서는 국가위주의 교육을 추구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국민계몽을 통해서 부강한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서구 여러 나라의 국민교육을 소개하고 실용주의 교육을 주장하였다.

(2) 동도서기주의적 신교육 수용의 실패

동도서기론의 이론적 뒷받침과 양무론적 개화파의 주도 아래 조선정부는 서양기술의 수용과 시설도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기관들을 설립하

12) 李光麟, 앞의 글 참조.

13) 《漢城旬報》, 1884년 3월 8일, 〈各國學業所同〉.

14) 魯仁華, 《大韓帝國時期 官立學校 教育의 性格 研究》(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88).

15) 李光麟, 〈漢城旬報와 漢城週報에 대한 一考察〉(《韓國開化史研究》, 一潮閣, 1969), 60~102쪽.

였다. 조선정부는 우선 영어교육기관으로 同文學을 설립하였다. 서양제국과 조약을 체결하고 교섭을 갖게 되자 서양어를 말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外衙門協辦兼 總稅務司였던 독일인 뮐렌도르프의 주도에 의해 동문학이 1882년 12월 외아문의 부속기관으로 설립되어 이듬해 개교하였다. 金晩植이 掌敎(校長)로 부임하여 당시 해관에서 일하던 중국인 吳仲賢과 唐紹威를 교사로 삼아, 40명의 학생을 오전과 오후반으로 나누어 영어를 교육하였다.¹⁶⁾

조선정부에 의해 본격적인 서양식 신교육기관으로 설립된 것은 育英公院이었다. 조선정부는 미국과 수호조약을 체결한 뒤 閔泳翊을 대표로 하는 보빙사 일행을 미국에 파견하였다. 미국시찰을 마치고 돌아 온 민영익은 미국의 발달된 문물에 대하여 고종에게 보고하였고 신식교육기관의 설립을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고종은 학교설립을 명하였고, 미국 국무성으로부터 헐버트·길모어·벵커 등 세 명의 교사를 추천받아 육영공원을 설립하였다. 육영공원은 왕명에 따라 內外衙門의 당상관과 낭청의 子壻弟姪族親과 연소한 문무관리를 가운데서 학생을 선발하여 讀書·習字·數學·自然科學·歷史·政治學 등 서양학문을 교육하였다. 철저하게 연소한 관료와 양반자제들로 하여금 서양학문을 배우게 하여 동도서기론적 입장에서 개화정책을 추진코자 설립한 신식학교였다. 그러나 이 학교는 운영상 난맥상을 보이다가 1894년에 이르러 완전히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즉 육영공원은 국왕 고종의 각별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이미 관료이거나 특권의식에 젖은 양반관료의 자제로서 서구식 교육방식과 학업에 열의를 보이지 않고, 학교 운영 당국자들의 부패하고 불성실한 학교관리에 대한 미국인 교사들의 불만으로 폐쇄되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이다.¹⁷⁾ 동도서기론적 입장에서 개화정책을 추진코자 한 조선정부는 또한 서양의 발달된 농업과 목축기술을 배워들이고자 1884년 農務牧畜試驗場(→農務學堂)을 설립하였고, 미국의 군사기술을 배워들이기 위해 1888년 鍊武公院을 설립하였다. 농무목축시험장 역시 그 경영에 열성적이었

16) 孫仁銖, 〈韓國近代教育의 類型 普及과 그 實態〉(《韓國教育研究》1, 韓國精神文化研究院 教育研究室, 1980), 139~272쪽.

17) 李光麟, 〈育英公院의 設置와 그 變遷〉(앞의 책, 1969), 103~133쪽.

던 최경석의 죽음과 뒤를 이은 영국인 재프리의 죽음 및 정부당국자의 불성실로 흐지부지되었다.¹⁸⁾ 이러한 현상은 연무공원의 경영에도 나타났다. 정부의 재정난, 담당관료들의 무능과 부패, 담당관료와 미국인 교관들과의 불화, 기성군인과 청나라 원세개의 방해공작 등으로 교관과 학생들이 의욕을 상실한 채 부진을 보이다가 동학농민전쟁을 계기로 조선에 진출한 일본군이 1894년 7월 조선군을 무장해제 시키는 한편, 신식무기를 약탈한 뒤 개혁을 강요함으로써 자연히 폐쇄되었다.¹⁹⁾ 이와 같이 조선정부가 개화정책을 추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시도했던 신교육 수용과 학교 운영은 실패를 거듭하고 있었다.

(3) 선교사의 교육활동과 교육평등의식 계몽

조선사회가 근대 서구의 신학문과 신교육을 수용하고 한국 근대 교육이 성립, 발전되는 과정에는 천주교와 기독교, 선교사들의 활동과 공헌이 또한 지대하였다.

조선에 제일 먼저 입국한 서양선교사들은 천주교 신부들이었다. 조선에 입국한 천주교 신부들은 한국인 교역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인 신도들을 마카오 등지에 유학시키거나 국내에 신학교를 비밀리에 설립하고 라틴어와 신학을 교수하기도 하였다.²⁰⁾ 천주교는 조선왕조의 척사정책에 의해 심한 탄압을 받으며, 비밀리에 성직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중심으로 성서를 읽히기 위해 신도들에게 글을 가르침으로써 천대받고 있던 민중을 일깨우고 있었다.²¹⁾

이들 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육활동은 조선의 척사정책이 이완되기 시작한 1890년대에 점차 학교교육체제로 이행되어 갔다.²²⁾

18) 李光麟, 〈農務牧畜試驗場의 設置에 대하여〉(앞의 책, 1969), 214~217쪽.

19) 李光麟, 〈美軍軍事教官의 招聘과 鍊武公院〉(위의 책), 178~193쪽.

20) 샤를르 달레 原著, 安應烈·崔奭祐 譯註(《韓國天主教會史》中, 분도출판사, 1980), 269·341·384쪽.

21) 李忠浩, 〈舊韓末 天主教會의 教育活動〉(《歷史教育論集》4, 1983), 63쪽.

22) 천주교계통의 초등학교가 1893년에 京畿道 華城郡 峰潭面 旺林里에, 1895년에는 江原道 橫城郡 書院面 六里에 세워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韓國天主教中央協議會, 《韓國天主教年鑑》, 1956, 233~249쪽).

천주교가 개항 이전부터 선교자체에 역점을 두고 조선사회에 침투하여 비밀리에 敎役者 양성과 신도교육을 도모했던 것과는 달리 개신교는 1880년대 중반 선교활동에 앞서 교육과 의료활동을 내세워 선교기반을 구축하여 갔다. 개신교 선교사들의 조선에서의 활동은 1882년의 조미수호조약체결과 보빙사 민영익의 1883년 미국방문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민영익을 만났던 가우처(John. F. Goucher)의 권고에 따라 일본에서 선교하고 있던 감리교 선교사 매클레이(R. S. Maclay)는 1884년 여름 조선에 입국하여 김옥균의 도움으로 고종으로부터 교육과 의료사업의 윤허를 받아내는데 성공하였다. 매클레이의 보고가 선교본부에 전달되자 이후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알렌(H. N. Allen), 언더우드(H. G. Underwood),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H. G. Appenzeller), 스크랜튼(M. F. Scranton)부인 등이 선교활동을 위하여 조선에 입국하였다. 이들은 조선정부가 척사정책을 취하여 직접적인 기독교의 선교활동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의료활동과 교육사업으로 선교사업을 시작하였다.

알렌은 미국공사관 의관의 직책으로 조선에 체류하는 가운데 갑신정변에서 부상당한 민영익을 치료함으로써 신임을 얻어낸 뒤 1885년 4월 광혜원을 설립하고 의료활동을 전개하다가 1886년 3월에 이르러 16명의 학생을 뽑아 의학실습교육을 실시하였다. 아펜젤러는 1885년 여름부터 두 명의 학생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하여 1886년 6월 고종의 도움으로 培材學堂을 설립하는데 성공하였다. 언더우드는 1885년 4월 5일에 입국하여 광혜원에서 화학과 물리학을 가르치는 한편 집으로 찾아오는 소년에게 영어를 가르쳤고, 1886년 5월 고아원을 세워 교육사업을 병행하였다(→경신학교). 한편 1885년 6월 입국한 스크랜튼 부인은 1886년 5월 한 부인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을 계기로 여자교육기관인 梨花學堂을 창설하였다. 이들 선교계 학교의 등장은 조선의 개화정책과 미국 기독교계의 선교정책의 화합물이었다. 선교사들의 활동에 대한 조선인들은 그 정치적 입장에 따라 대응을 달리하였다. 변법개화파였던 김옥균·박영효 등은 기독교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서구의 신문물을 수용함으로써 국민을 일깨워 부강한 근대국가를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개신교 선교사들이 조선에 입국하여 교육과 의료사업을 전개하고 기독교를 선교하려는데 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협력하였다²³⁾

그러나 이들은 甲申政變으로 실각하였고 선교사들의 조선내 활동에 크게 기여할 수는 없었다. 선교사들은 보다 개방적인 변법개화파들이 실각하고 기독교의 선교에 대하여는 거부반응을 보이는 동도서기주의적·양무론적 개화파들이 정부를 주도하는 가운데 조선에 입국하였다. 따라서 선교사들은 초기 2, 3년 동안 선교활동을 삼간 채 의료활동과 교육만을 내세워 활동을 개시하였다.

선교사들의 교육활동은 고종과 민비의 적극적인 배려로 정착되었다. 고종과 민비는 선교사들이 소수의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작하자 교명을 지어주고 하사금을 주어 격려하였다. 그것은 서구문물을 하루 빨리 수용하여 부강한 국가를 이룩하고자 하는 의욕의 표출이었다. 서구의 새 문물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어를 아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되고 있었으므로 자연히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자들이 이들 선교사들을 찾게 되었고 선교사들은 이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작하였다. 어떻게든지 교육사업을 통해 조선에 활동기반을 구축하려고 했던 선교사들은 기독교의 박애정신과 평등사상으로 신분과 문지에 관계없이 학생들을 맞이하였다. 그리하여 배재학당에는 자연히 신분이나 문지가 미약하여 육영공원 등에 입학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찾아들었다고 생각된다. 배재학당과 더불어 여자교육기관인 이화학당, 불행한 처지의 고아와 소년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작한 고아원학교(뒤의 경신학교)는 교육을 통해 신분평등과 남녀평등 사상을 전파하고, 민중의 신교육에 대한 열망과 평등의식, 민권의식을 싹트게 하는 기지가 되었다.²⁴⁾

그러나 선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순탄하게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었다. 조선내의 수구세력은 기독교사상의 유입을 염려하였기 때문에 미국 선교사들의 고아원과 학교운영을 방해하였다.²⁵⁾ 또한 청나라 역시 미국세력의 진출을 견제하고자 이를 부추김으로써 한때 미국선교사들의 교육활동은 위기에 처하였다.²⁶⁾ 또한 조선정부의 척사정책과 민간인의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상존하고

23) 孫仁錫, 앞의 글.

24) 培材學堂, 《培材八十年史》(1965).

梨花女子高等學校, 《梨花九十年史》(1975).

경신중·고등학교, 《경신사》(1991).

25) *The Foreign Missionary*, Vol. 451, No. 5, p 224(1886. 10).

있는 상태에서 선교사들이 은연중 선교활동을 함으로써 反宣教師 감정을 자극하기도 하였다.

동도서기론적 입장에서 서양의 ‘器’만을 수용하려고 했던 조선정부는 선교사들의 지방에 대한 선교활동을 파악하고 1888년 4월 미국 공사에게 정부가 승인한 자 이외의 학당설립을 금하도록 요청하였다.²⁷⁾ 이 요청을 받은 딘스모어(Dinsmore)공사는 평안도지방을 순회 전도 중이던 언더우드를 소환하여 이러한 금령이 내려진 원인은 “당신들의 경거망동한 순회전도가 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차후 이러한 사태가 재현될 경우 기독교 선교가 아주 불가능해질지도 모른다”고 경고하였다.²⁸⁾ 이에 선교사들은 동학농민전쟁과 청일전쟁이 일어나 조선사회가 동요를 일으킴으로써 선교기회가 확장되어 간 1894년경까지 선교활동을 자제하면서 기왕에 설립한 광혜원·배재학당·이화학당·경신학교를 중심으로 의료와 교육활동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결국 이들 개신교 선교사들의 교육활동은 1890년대 이후 한국근대 교육의 성립과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되었다.

(4) 변법개화파의 국민교육론 전개

국민적 기초역량을 배양함이 없이 지배층 중심으로 일부 인재를 배양하여 개화정책의 일꾼으로 삼고자하는 조선정부의 교육시책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표류하였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일부 지배층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서구의 발달된 산업기술과 문물을 수용하기 위한 일반 국민의 기초역량 배양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오군란과 청의 간섭으로 개화정책이 혼미를 거듭하자 김옥균·박영효 등은 급진적 변법개화를 통한 自修自強으로 자주독립을 이루고자 하였다.

급진개화파는 청나라의 간섭을 배제하는 한편 부패 무능한 양반세력의 발

26) *The Korean Repository*, Vol. III. No. 1, 1896, 1, p. 6.

27) 《舊韓國外交文書》10권, 美案 1, 耶蘇教傳道禁止의 件(高麗大 亞細亞問題研究所), 353쪽.

28) L. H. Underwood, *Underwood of Korea*, New York Fleming H. Revell, 1918, p. 70.

호를 억제하고 인민의 지혜를 개발하여 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자주독립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급진개화파의 주요 인사인 김옥균은 그의 친구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하였다.

자래로 청국이 자의로 (조선을) 속국으로 생각해 온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며 나라가 진작의 희망이 없는 것은 역시 여기에 원인이 없지 않다. 여기서 첫째로 해야 할 일은 기반을 철폐하고 특히 獨自主之國을 수립하는 일이다. 독립을 바라면 정치와 외교를 불가불 자수자강해야 한다(金玉均, 《金玉均全集》, 朝鮮改革意見書, 110~111쪽).

또한 갑신정변에 실패한 뒤 김옥균은 일본에 망명하여 국왕에게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臣이 여러 해 동안 見聞에 의하여 陛下께 말씀드린 바 있어온데 폐하는 이를 기억하시나이까. 그뜻은 금일 우리 나라의 소위 양반을 검제함에 있나이다. 우리 나라 中古 이전 국운이 융성할 시에는 일체의 기계산물이 동양삼국에 통하였는데 지금은 모두 폐절에 속하여 다시 그 흔적도 없음은 다른 것이 아니옵고 양반의 발호 전횡에 인하여 그렇게 되었나이다… 방금 세계가 상업을 주로 하여 서로 생업의 많음을 경쟁할 때에 당하여 양반을 검제하여 그 폐원을 없애는 일을 힘쓰지 아니하면 국가의 폐망을 기다릴 뿐이오니… 폐하 다행히 이를 맹성하사… 인민의 신용을 얻고 널리 학교를 세워서 인민의 지혜를 개발하고 외국의 종교를 유입하여 교화에 도움을 주는 것이 또한 하나의 방편이라 하나이다(閔泰琰, 《甲申政變과 金玉均》, 1947, 68~75쪽).

한편 박영효는 갑신정변에 실패한 뒤 일본에 망명하여 국왕 고종에게 建白書を 올려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만약에 군주의 전제권을 견고히 하려면 인민을 어리석게 함만 못하다. 어리석고 약해지면 실로 군주의 전제권이 견고해진다. 그러나 인민이 어리석고 약해지면 나라도 또한 이에 따라 약해지는 것이다. 천하의 만국이 모두 어리석고 약해진 연후에 가히 그 나라를 보존하고 그 지위를 평안케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어찌 그럴 수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진실로 한 나라를 부강케 하고 만국과 대항케 하려면 군권을 줄여 국민들로 하여금 응분의 자유를 누리게 하고 보국의 책임을 다하게 함만 못하다. 그런 연후에 점차 문명이 발달해지고 인민이 평안해

지며 나라가 무사해지고 종묘 사직과 왕위가 영구히 보존될 수 있을 것이다(《日本外交文書》21, 106 朝鮮國關係雜件, 〈朝鮮國內政ニ關スル朴泳孝建白書〉).

즉 이들 변법개화파는 양반제도를 타파하고 군주권을 억제하는 한편, 교육을 통해 국민적 역량을 배양하고 국민의 권한을 신장시켜 부강한 근대적 국민국가를 건설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교육정책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개혁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급진개화파의 교육이념은 앞에서 살펴본 박영효의 건백서에 반영되었다.

국정개혁에 관한 박영효의 건백서는 총론과 8개조에 걸친 각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제6조에 해당되는 ‘敎民才德文藝以治本’에서 교육·문화 및 종교에 관해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1. 소학교·중학교를 설치하여 6세 이상의 모든 남녀 아동을 취학시킬 것.
2. 장년학교를 설치하여 한문 또는 언문으로 정치 재정 법률 역사 지리 산술 등의 외국서적을 번역하고 소장 관료 및 장년의 선비를 교육하여 과거시험을 통해 문관으로 채용할 것.
3. 인민에게 국어·국사·국문을 가르칠 것.
4. 외국인 교사를 채용하여 인민에게 법률·재정·정치·의술·공리 및 여러 가지 재예를 가르칠 것.
5. 서적을 널리 인쇄·출판할 것.
6. 박물관을 설치할 것.
7. 집회 연설을 허락하여 고루함을 벗어날 것.
8. 외국어를 배워 교제를 편리하게 할 것.
9. 민간신문의 발행을 허락할 것.
10. 종교의 자유를 인정할 것.

(《日本外交文書》21, 106 朝鮮國關係雜件, 〈朝鮮國內政ニ關スル朴泳孝建白書〉, 305~308쪽)

《한성순보》가 양무론적 개화파에 의해 운영되면서²⁹⁾ 국가주의 교육에 역점을 두고 논지를 전개했던 것과는 달리 변법개화론자인 박영효는 의무교육과 국민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논지를 전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9) 李光麟, 〈앞의 글〉(앞의 책, 1969), 60~102쪽.

그러나 이들이 추구했던 근대적 국민국가건설을 위한 변법개화파의 국민교육에 대한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도서기론적 입장에서 신교육이 일부 실험적으로 수용되었을 뿐이었다.

2) 근대적 국민교육제도의 성립

(1) 교육제도와 관리등용제도의 개혁

동도서기주의적 입장에서 점진적 개화정책을 추진하던 조선정부는 동학농민전쟁으로 보다 적극적인 정치개혁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개항 이후 조선의 농촌사회는 자본주의 열강의 침탈과 지배층의 증가되는 착취로 피폐되어 갔다. 이로 말미암아 농민들의 불만은 증대되어 갔고, 동학이 그 교세를 확장하였다. 농민들은 동학의 인간평등사상과 사회개혁사상에 포용되어 갔고, 동학은 包接組織으로 농민세력을 규합하였다. 교세확장에 성공한 동학의 지도자들은 惑世誣民한다는 구실로 치형된 敎祖 崔濟愚의 伸冤運動을 일으킴으로써 힘의 결집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더 나아가 결집된 동학교도들을 중심으로 농민운동을 전개하여 농촌피폐의 원인이 되고 있었던 탐관오리의 숙청과 왜·양의 축출을 요구하였다. 드디어 고부군수 조병갑의 횡포와 착취를 계기로 봉기한 동학 농민군은 輔國安民과 除暴救民의 기치를 내걸고 반봉건·반제국주의전쟁을 전개하였다.

동학농민군의 봉기로 국가적 위기감을 느낀 고종은 1894년 5월12일, 부득이 兩湖지방민에 대하여 특별 윤음을 내려 大更張할 것을 약속하였다.³⁰⁾ 그리고 일본의 간섭 속에 새로 수립된 친일정권은 즉시 국왕으로 하여금 “사색당론을 타파하고 門地에 상관없이 인재를 등용하여 보국안민의 策을 도모할 것이라”는 詔勅을 내리게 하였다.³¹⁾ 이어 軍國機務處를 설치하고³²⁾ 일련의 정치개혁을 시작하였다. 김홍집을 총재로 하는 군국기무처는 이후 약 3개월간에 걸쳐 210건의 제도개혁안 내지 정책건의안을 의결하였다.³³⁾ 군국기무

30) 《高宗實錄》, 고종 31년 5월 12일.

31) 《高宗實錄》, 고종 31년 6월 22일.

32) 《高宗實錄》, 고종 31년 6월 25일.

처는 정부조직의 개편을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學務衙門官制도 새로이 제정하였다.

- 一. 學務衙門은 국내교육·학무 등의 행정을 관장한다.
 - 一. 大臣一員·協辦一員·參議六員·主事十八員 다음과 같이 各局을 分設한다.
 - 一. 總務局; 아직 설치되지 않은 各局의 서무 관장, 참의 1·주사 2·兼秘書官
 - 一. 成均館及庠校書院事務局; 先聖·先賢·祠廟 및 經籍 등 관장, 參議 1·主事 2
 - 一. 專門學務局; 中學校·大學校·技藝學校·外國語學校·專門學校 관장, 參議 2·主事 4
 - 一. 普通學務局; 小學校·師範學校 관장, 參議 1·主事 4
 - 一. 編輯局; 國文綴字·各國文翻譯 및 教科書編輯 관장, 參議 1·主事 4
 - 一. 會計局; 本衙門出納財簿 관장, 參議 1·主事 2員
- (《高宗實錄》, 고종 31년 6월 28일)

이와 같이 학무아문관제를 정비함과 동시에 문벌과 양반·상민의 등급을劈破하고 귀천에 관계없이 인재를 선용하기로 결의하였다.³⁴⁾ 그리고 국왕으로 하여금 조직으로 대소민인에게 유신에 적극 참여하라는 윤음을 내리게 하였다.³⁵⁾ 학무아문관제의 정비와 더불어 銓考局條例를 제정하여 관리의 선발방식을 개혁하였다. 과거시험과 달리 國文·漢文·寫字·算術·內國政略·外國事情 등을 策으로 출제하기로 하였다. 또한 選舉條例를 제정하여 朝野紳士·京鄉貴賤을 논하지 않고 품행이 바르고 재주와 슬기, 예술이 있고 시무를 아는 자를 선발토록 결의하였다.³⁶⁾

군국기무처의 구성에는 개항 이후 실무와 외국사정 등에 밝은 인물들이 필요하였고 그 결과 신분에 구애됨이 없이 여러 경로를 통해 당시 이러한 능력을 함양할 수 있었던 인물들이 선정되었다. 그리하여 金弘集·朴定陽·金允植·魚允中·趙義淵 등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한미한 가문과 지방출신, 양반의 서자와 중인 등 주변인들이 군국기무처를 주도했던 것으로 논급되고 있다.³⁷⁾ 따라서 모든 개혁은 신분제를 부정하는 토대 위에서 추진되었

33) 柳永益, 〈軍國機務處議案의 分析〉(《甲午更張研究》, 一潮閣, 1990), 134~177쪽.

34) 《高宗實錄》, 고종 31년 6월 28일.

35) 《高宗實錄》, 고종 31년 7월 4일.

36) 《高宗實錄》, 고종 31년 7월 12일.

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제도와 관리선발제도의 개혁에 있어서도 그대로 투영되었다.

(2) 근대적 국민교육제도 정립

관계개혁에 따라 학부아문대신이 된 박정양은 우선 소학교의 설립을 위하여 소학교 교과서 편찬을 추진하는 한편,³⁸⁾ 1894년 9월 서울 校洞에 師範學校와 소학교를 설치하였다. 박정양은 1881년 신사유람단원으로 일본을 시찰하였고 1887년부터 1889년까지 초대 주차미국전권대신을 지낸 바 있으므로 하루 빨리 신교육을 보급하는 것이 국가 부강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박정양은 학부대신이 되어 사범학교와 소학교를 설립한 이후 일과의 대부분을 학부와 校洞의 사범학교, 소학교, 그리고 이전부터 설립되어 있던 鑄洞의 日語學校와 磚洞의 英語學校에서 보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³⁹⁾

이 무렵 조선의 보호국화를 획책하던 일제의 수뇌부는 주한일본공사를 교체하였다. 일제의 수뇌부는 공사 오오토리(大島圭介)가 신중한 태도로 조선의 내정개혁에 적극적인 간섭을 하지 않는데 불만이었다. 그리하여 일제는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관철시키고자 내무대신을 지낸 거물급의 이노우에 카오루(井上馨)를 駐韓特命全權公使로 임명하였다.⁴⁰⁾ 이어 대원군은 일본의 압력 속에 정계은퇴 성명을 냈고 김홍집·박영효 연립내각이 출범하였다.⁴¹⁾ 오오토리의 뒤를 이어 부임한 이노우에 공사는 더욱 철저한 내정개혁을 요구하였다. 일본측이 내정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가운데 군국기무처는 폐지되고 국정에 관한 회의는 중추원에서 주관하게 되었다. 일본측의 지원을 얻어 새 내각에 참여하게 된 박영효 일과는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개혁

37) 柳永益, 앞의 글, 134~177쪽.

38) 《高宗實錄》, 고종 31년 7월 28일.

39) 朴定陽, 《從宦日記》 권 11, 갑오 9월~12월(《朴定陽全集》 3, 亞細亞文化社, 1984, 176~188쪽).

40) 柳永益, 〈清日戰爭中 日本의 朝鮮保護國化 企圖와 甲午, 乙未改革: 井上公使의 活動을 中心으로〉(앞의 책, 1990), 22~87쪽.

41) 《高宗實錄》, 고종 31년 11월 21일.

추진은 김홍집과와 심지어 그를 지원했던 일본공사 이노우에의 반발을 사기도 하였으나 이들은 개의치 않고 정치·군사·사법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근대적 國民國家의 기초를 마련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들은 국왕에게 개혁에 대한 결단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고종은 내정개혁과 청나라와의 관계단절을 포함한 정치의 기본 강령으로서 〈洪範14條〉를 宗廟에 誓告하였다.⁴²⁾ 조선국왕은 〈홍범14조〉에서 밖으로 조선이 자주독립국임을 선언하고, 안으로는 법에 의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관료등용에 대한 신분차별의 폐지 등을 임시방편으로서가 아니라 國是로 확정지었다. 이어서 중외 신민에게 칙령으로 다음과 같은 윤음을 포고하였다.

너희들 모든 관료와 선비와 서민들은 모두 朕의 誥를 들으라… 嗚呼라 너희들 庶民이 實로 나라의 근본이니 自主함도 오직 民이며 獨立함도 오직 民이라. 임금의 비록 自主코자 하나 民이 아니면 어디에 의지하며 나라가 비록 獨立코자 하나 民이 아니면 어찌하리오. 너희들 庶民은 이에 마음을 한결같이 하여 오직 나라를 사랑하며 너희의 기운을 함께 하여 오직 임금께 충성하라… 이제 인재 등용하기에 域이 없게 하노니 오직 너희들 民은 수양만을 생각하라. 너희들의 生命이 있고 財産이 있으니 朕이 그것을 지키며 편안케 하며 法이 아니어든 너희를 殺하거나 刑하지 아니하고 律이 아니어든 너희에게 賦하고 取하지 아니하여, 오직 너희의 생명과 재산을 한결 같이 法律에 따라 보호할 것이니 오직 너희들 民은 더욱 힘쓸지어다… 學識을 萬國에 널리 求하며 또한 技藝도 좋은 것을 좇아 취하여 卞 我的 獨立自主하는 基를 鞏固케 하라…(《高宗實錄》, 고종 31년 12월 13일).

새 정부는 철저한 법치주의를 내세우며 法律學校 설치를 추진하였다.⁴³⁾ 그리고 각 지방관에게 문지에 구애하지 말고 德行·才藝·賢能·方正한 士가 있거든 천거하도록 지시하였다.⁴⁴⁾ 이어서 국왕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국민교육에 관한 조칙을 내리게 하였다.

짐이 생각건대… 오호라 民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국가를 공고케 하기 심히

42) 《高宗實錄》, 고종 31년 12월 12일.

43) 《奏本》, 개국 503년 12월 16일.

44) 《高宗實錄》, 고종 32년 1월 29일.

어려우니 宇內的 형세를 돌아보건대 부강하여 독립옹시하는 諸國은 모두 그 인민의 지식이 개명하고 지식의 개명함은 교육의 善美함으로써인즉 교육이 실로 국가 보존하는 근본이라 … 짐이 교육하는 강령을 보여 허명을 버리고 실용을 숭상하노니 … 이 세 가지(德・體・智)는 교육하는 綱紀니 짐이 정부에 명하여 학교를 광설하고 인재를 양성함은 너희 신민의 학식으로 국가의 중흥대공을 찬성하기 위함이라. 너희 신민은 忠君愛國하는 心性으로 德・體・智를 기르라 … (《舊韓國官報》, 개국 504년 2월 2일(이하 《官報》)).

위의 교육조서는 국가자강주의교육을 추구하는 국왕의 입장과 국민자강주의교육을 추구하는 변법개화파의 입장이 절충되어 마련되었다고 할 것이다. 물론 변법개화파의 ‘國民’에 대한 사상적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위의 교육조서를 통해 변법개화파가 1880년대 이래 추구해 왔던 國民教育制度의 이념적 기초가 놓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박영효 일파의 주도하에 조선정부는 정부조직을 개혁하여 종래의 議政府를 內閣이라 개칭하고 各衙門은 部로 개칭하였다. 이에 따라 學務衙門은 學部로 개칭되고 다음과 같은 새로운 學部官制가 제정 공포되었다.

제1조 學部大臣은 學政教育에 관하는 사무를 맡아 관리함.

제2조 大臣官房에서는 官制通則에 揭한 자 외에 左開 사무를 맡음.

1. 公立學校 직원의 진퇴 신분에 관하는 사항.
2. 교원의 검정에 관하는 사항.
3. 본부 소관경비 및 諸收入의 예산・결산과 아울러 회계에 관하는 사항.
4. 본부 소관 官有財産 및 물품 맡음 其 帳簿調製에 관하는 사항.

제3조 (생략)

제4조 學部に 左開하는 2局을 둔. 學務局・編輯局.

제5조 (생략)

제6조 學務局에서는 左開하는 사무를 맡음.

1. 小學校 및 學齡兒童의 취학에 관하는 사항.
2. 師範學校에 관하는 사항.
3. 中學校에 관하는 사항.
4. 외국어학교・專門學校 및 技藝學校에 관하는 사항.
5. 외국 파견하는 留學生에 관하는 사항.

제7조 編輯局에서는 教科圖書의 編輯・翻譯 및 檢定에 관하는 사무를 맡음.

제8조 學部主事は 11인으로써 정원함.

제9조 (생략)

제10조 本令은 개국 504년 4월 1일로부터 시행함.

(《官報》, 개국 504년 3월 25일, 칙령 46호 〈學部官制〉).

새로이 제정된 학부관제는 철저하게 신교육과 관련된 조직으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학부관제에 이어 學部分課規程이 제정 공포되어, 秘書課・文書課・會計課・編輯局 등의 소관업무가 상세히 규정되었다. 개정된 학부대신에 유임된 박정양은 국민교육을 담당할 교사의 양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박정양은 國漢文稍解者를 시험으로 선발하고 苕泉洞에 학부 직할의 速成學校를 설립하는 한편 사범교육을 실시하였다.⁴⁵⁾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漢城師範學校官制가 마련되었다.⁴⁶⁾ 그리고 漢城師範學校職員官等俸給令도 동시에 마련되었다.

제1조 漢城師範學校는 敎官을 양성하는 곳으로 함.

제2조 漢城師範學校에 本科와 速成科의 二科를 둠.

제3조 本科는 2개년으로써 졸업기로 함.

제4조 速成科는 6개월로써 졸업기로 함.

제5조 漢城師範學校에 附屬小學을 두어 아동을 교육케 함.

附屬小學을 尋常科와 高等科의 이과로 하니 매과를 3년으로써 졸업기로 함.

제6조 漢城師範學校에 左開하는 직원을 둠.

學校長 1인(奏任), 敎官 2인 이하(奏任 또는 判任), 副敎官 1인, 敎員 3인 이하(判任), 書記 1인(判任).

제7조 學校長은 學部參書官으로 겸임케 하니 學部大臣의 명을 받아 교무를 장리하여 소속직원을 統督함.

제8조 敎官은 生徒의 교육을 맡음.

제9조 副敎官은 敎官의 직무를 도움.

제10조 敎員은 附屬小學校 兒童의 교육을 맡음.

제11조 書記는 學部主事로 겸임케 하니 學校長의 명을 받아 庶務會計에 종사함.

제12조 本科와 速成科 및 附屬小學의 學科 정도는 學部大臣이 정함.

45) 朴定陽, 《從宦日記》, 을미 4월 27·28·29일 및 5월 1·7일(앞의 책, 202~203쪽) 참조.

《議奏》 5, 漢城府에 敎員養成을 위한 學校를 설립하는 건, 개국 504년 3월 29일(《韓末近代法令資料集》 1, 國會圖書館, 1971, 279쪽).

46) 《官報》, 개국 504년 4월 19일, 칙령 79호 〈漢城師範學校官制〉.

제13조 本令은 개국 5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함.

(《官報》, 개국 504년 4월 19일, 칙령 80호 〈漢城師範學校職員官等俸給令〉).

그리고 이와 같은 國民普通教育을 위한 교육제도의 정비와 달리 국가를 관리할 관료를 시급히 양성하기 위하여 法部 소관으로 法官養成所를 설치하였다.⁴⁷⁾ 또한 칙령 제88호 외국어학교관제와 제89호 외국어학교 직원의 관등 봉급에 관한 건이 제정 공포되어, 1883년 同文學으로부터 시작된 외국어교육 제도가 재정비되었다.⁴⁸⁾ 더 나아가 박영효 일파가 주도하는 새 정부는 군비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군사권을 장악하자, 훈련대를 확장하고 工兵·輜重兵(輸送兵)·騎馬兵 등 特科隊 편성을 추진하였다.⁴⁹⁾ 그리고 일반 국민 가운데서 지원자를 모집하여 속성으로 사관을 양성하고자 訓練隊 士官養成所 관제를 마련하였다.⁵⁰⁾

내외로부터의 반발에 개의치 않고 과감한 정치개혁을 추진하던 박영효는 王妃弑害陰謀說이 구실이 되어 실각하였다.⁵¹⁾ 박정양·박영효내각 대신에 박정양·유길준내각이 성립되고, 궁내부 특진관에 鄭範朝 같은 보수적 인물도 포용되었다.⁵²⁾ 貞洞派와 宮廷派의 공격으로 갑오개혁파가 위협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⁵³⁾ 李載崐은 성균관이 교육개혁으로 버림받았다고 항의하고 성균관 재건을 상소하였다.⁵⁴⁾ 이에 이어 申箕善·李舜範 등이 재래교육의 전통을 존중하도록 상소하였다.⁵⁵⁾ 이에 국왕은 이 문제를 논의하여 품의케 하였고 정부는 성균관관제를 개정 공포하였다. 성균관관제는 그 제1조에 “成均館은 學部大臣의 관리에 속하여 文廟를 虔奉하고 經學科를 肆習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보수세력의 무마책으로 재래의 교육에 신교육을 병행토록

47) 《官報》, 개국 504년 3월 25일, 칙령 49호 〈法官養成所規程〉.

48) 《官報》, 개국 504년 5월 12일.

49) 《官報》, 개국 504년 5월 30일.

50) 《官報》, 개국 504년 5월 20일, 칙령 91호 〈訓練隊士官養成所官制〉.

51) 李光麟, 앞의 책, 360~365쪽.

《高宗實錄》, 고종 32년 윤5월 14일.

52) 《高宗實錄》, 고종 32년 윤5월 14일.

53) 柳永益, 〈甲午開化派 官僚의 執權經緯 背景 및 改革構想〉(앞의 책), 182쪽.

54) 《高宗實錄》, 고종 32년 6월 10일.

55) 《高宗實錄》, 고종 32년 6월 20·24일.

한 조치였다.⁵⁶⁾

외세와 국내의 각 정파들이 계속 세력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새로이 김홍집·박정양내각이 출범하였다.⁵⁷⁾ 이른바 제3차 김홍집내각으로 정동파 즉 친미·친로파가 주도권을 장악한 가운데, 학부는 다음과 같이 소학교·사범학교 관계법령 등을 제정 공포하였다.

小學校令(고종 32년; 1895년 7월19일, 칙령 145호)

官立 公立小學校敎員官等俸給令(고종 32년; 1895년 7월19일, 칙령 146호)

漢城師範學校敎員의 官等俸給令(고종 32년; 1895년 7월19일, 칙령 147호)

漢城師範學校 및 附屬小學校規則(고종 32년; 1895년 7월24일, 학부령 1호)

小學校敎則大綱(개국 504년; 1895년 8월15일, 학부령 3호)

위와 같은 교육법제의 정비와 더불어 조선정부는 우선 漢城府內 4개처에 관립소학교를 설립하였다. 즉 학부는 告示를 통해 壯洞(梅洞으로 이설), 貞洞, 桂洞(齋洞으로 이설), 廟洞(惠洞으로 이설) 등에 소학교를 설립하고 한성부민들에게 자제들을 입학시키도록 권유하고 있다.⁵⁸⁾ 이후 학부는 다시 한성의 銅峴과 安洞에 관립소학교를 증설하였고⁵⁹⁾, 지방공립소학교를 설립할 곳으로 漢城府·水原·忠州·公州·全州·光州·大邱·晉州·海州·平壤·定州·春川·咸興·鏡城·開城府·江華府·仁川港·釜山港·元山港·慶興港·濟州牧·楊州郡·坡州郡·淸州郡·洪州郡·林川郡·南原郡·順天郡·靈光郡·慶州郡·安東郡·安岳郡·義州郡·江界郡·成川郡·原州郡·江陵郡·北靑郡 등을 지정하였다.⁶⁰⁾

이로써 근대적 국민교육제도의 기초가 놓이게 되었고 교육근대화의 제1보를 내딛게 되었다. 즉 근대화 추진에 요구되는 근대적 법치질서 확립에 요구되는 법관요원의 양성을 위한 법관양성소의 설치, 해외문물의 도입에 필요한 외국어교육을 위한 외국어학교의 설치, 재래교육에서 근대적 고등교육으로의

56) 《高宗實錄》, 고종 32년 7월 2일, 칙령 136호.

57) 《高宗實錄》, 고종 32년 7월 5일.

58) 《官報》, 개국 504년 9월 30일, 학부고시 4호.

59) 《官報》, 건양 원년 8월 5일.

60) 《官報》, 건양 원년 9월 21일, 학부령 5호.

점진적 전환을 의도한 성균관 경학과의 정비, 국방요원의 양성을 위한 훈련
대사관양성소의 설치, 국민보통교육을 위한 사범학교와 소학교의 설립 등으
로 근대적 국가운영을 위한 국민교육제도가 법적·제도적으로 일단 정립되
었다.⁶¹⁾

〈邊勝雄〉

2. 근대 교육의 발전

1) 근대 교육의 이념

(1) 실용주의 교육 지향

한국 근대 교육발전에는 실용주의와 자강주의가 표리관계를 이루며 그 발
전의 이념적 바탕을 제공하였다고 생각된다.

조선정부는 개항 이후 국제관계의 확대와 근대국가로의 발전과정에서 각
종의 근대학교를 설립하고 실용주의 교육을 표방하였다.

1880년대의 교육실험을 거쳐 갑오년 이래의 개혁과정에서 정립된 조선의
근대 교육은 농업중심, 성리학적 가치관이 중심이 되어 있는 재래교육과는
그 교육이념을 달리하게 되었다. 조선사회가 근대 세계자본주의 질서 속에서
국가와 민족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선진적 서구문물을 수용하여
자급자족의 농업을 위주로 한 경제체제를 극복하고 근대산업을 개발하는 것
이 급선무라고 생각되고 있었으므로 국왕 고종은 갑오개혁에 이어 을미교육
개혁에서 다음과 같이 利用厚生의 실용주의 교육을 표방하였다.

- 교육도 그 道가 있는지라 虛名과 實用의 분별을 먼저 세워야 할 것이니
- 이제 朕이 교육하는 綱領을 제시하여 虛名을 버리고 實用을 是崇하노니

61) 李元浩, 〈甲午改革期の近代教育定立과 그 展開〉(《開化期教育政策史》, 文音社, 1987), 59-93쪽.

- 風教를 扶植함으로써 人世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의 행복을 증진하라.
(《高宗實錄》, 고종 32년 2월 2일)

교육에 있어서 실용주의 채택은 근대 교육이 재래의 제도교육과 달리 지배층 중심의 엘리트교육체제에서 벗어나 근대 국가의 일반 국민을 교육하는 보통교육체제를 지향하게 될 때 필연적으로 초래될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었다. 이제 조선의 교육이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새로운 교육을 지향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보편적 가치교육에 심혈을 기울이는 正德 위주의 학문 대신에 이용후생의 실질적 학문을 가르치고 배워, 현실적 대응능력을 배양하고자하는 自強主義가 그 바탕을 이루고 있었다.

(2) 자강주의 교육

한국 근대 교육에서 자강주의는 교육을 실현하는 주체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국가자강·국민자강·민족자강을 지향하였다.

가. 국가자강주의

개항 이후 조선정부는 서세동점의 위기 속에서 국가의 독립과 자존을 지키기 위하여 개화정책을 추진하였다. 고종과 집권세력은 부국강병만이 조선의 자주독립을 지킬 수 있으며, 이는 서구의 문물 특히 산업과 과학기술 군사무기의 수용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서구의 문물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재의 양성이 필요하였고, 그것은 새로운 교육에 의해 가능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정부와 집권 개화파 세력은 여러 유형의 근대학교, 즉 동문학·육영공원·연무공원·경학원·농무학당 등을 설립하고 일부 지배층 자제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개화정책의 원동력을 배양하기 위한 1880년대의 이러한 교육실험은 기대한 성과를 이루지 못한 채 지지부진하였다.

집권세력의 부패와 무능, 수구·보수세력의 저항으로 개화정책이 혼선을 일으키고, 외세의 경제침략으로 민생이 도탄에 빠지면서 동학농민전쟁이 야기되어 국가는 위기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고종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갑오개혁을 선언하였다. 개혁의 추진에는 무엇보다 교육개혁이 중요하

다고 생각되었으므로 고종은 1895년 2월 교육 조칙에서 “오호라 民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국가를 공고케 하기 심히 어려우니, 宇內의 형세를 돌아보건대 부강하여 獨立雄視하는 諸國은 모두 그 인민의 지식이 개명하고 지식의 개명함은 교육의 善美함으로써인즉, 교육이 실로 국가 보존하는 근본이라… 朕이 정부에 명하여 학교를 광설하고 인재를 양성함은 너희 신민의 학식으로 국가의 中興大功을 이루기 위함이라. 너희 신민은 忠君愛國하는 심성으로 德·體·智를 기르라”¹⁾고 선언하였다.

조선의 재래교육이 성리학적 가치에 입각하여 군왕을 보필하고 백성을 통치할 관료를 양성하고, 성리학적 질서에 순응하는 국민을 양성하고자 했다면, 위의 조칙이 지향하는 바는 교육으로 인민의 지식을 개명하여 국가를 보존하고 국가중흥을 이루고자 하였다. 즉 현실 대응능력이 있고 군주에게 충성하는 신민을 양성함으로써 국가자강을 이루려 하였다.

그리하여 위의 조칙은 교육에 있어서 이용후생을 위한 실용주의를 강조하면서도 첫째로 ‘五倫의 행실을 닦아 풍속과 기강을 어지럽히지 말고 교화에 힘써 세상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의 행복을 증진하도록’ 德養을 앞세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현실 대응능력이 있으면서 군주에게 충성하는 신민을 양성하여 국가자강을 이루고자 했던 조선정부의 교육정책은 建陽·光武연간에 이르러 經本藝參의 교육정책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갑오개혁정부는 재래의 학문과 교육을 허명파 무용의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과거제도를 폐지하고 관료임용제도를 개혁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유생들은 관료와 스승이 될 자격을 박탈당하였다. 이에 분개한 유생들은 이를 천지대변으로 규정하고, 성균관교육을 비롯한 재래교육의 존중과 聖學守護를 외치며 을미사변을 계기로 갑오개혁정부와 왜의 타도를 내세워 의병전쟁을 일으키기에 이르렀다. 이에 고종은 정부를 개편하고 舊本新參정책을 내세워 재래의 것을 기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작하는 점진적 개혁정책을 표방하여 보수유생들의 반발을 무마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군주권을 더욱 강화하

1) 《舊韓國官報》, 개국 504년 2월 2일(이하 《官報》).

고자 하였다. 이는 大韓國制의 선포로 나타나게 되었다.

구본신참정책이 전개되는 가운데 교육에 있어서는 經本藝參정책이 추진되었다. 정부는 공립소학교 부교원제를 마련하여 유생이 교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성균관관제를 개정 강화하였다. 학부대신 申箕善은 성균관경학과 교육을 강화하여 유생들이 구학문과 겸하여 신학문을 공부하도록 하고 그 위치를 높이는 한편, 유생들이 관료로 진출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조치하였다.²⁾

새로운 국제로 출발한 대한제국 정부는 황제권력 강화를 통한 국가자강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였으므로 교육에 있어서 도덕 특히 충효를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학부대신 신기선은 공립소학교에 훈령하여, 교원은 한자 文字·藝術敎育으로 능사를 삼지 말고 학동들에게 먼저 예절과 도덕교육을 실시하고 과정에 이르도록 지시하였다.³⁾ 이는 광무 3년(1899) 제정된 중학교관계에도 반영되어, 중학교관계 제1조는 “중학교는 實業에 就코져 하는 인민에게 正德利用厚生하는 중학교육을 보통으로 교수하는 處로 정함이라”⁴⁾고 명시하여 정덕을 선행의 교육지표로 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황제권력을 강화하고 실용중의 교육으로 국민적 역량을 배양하여 부강한 국가를 건설하여 자주독립을 이루려는 국가자강주의 교육은 개신유학과 학자와 保皇主義者들의 사립학교 설립과 신교육운동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개신유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었던 《황성신문》은 유생들에게 소학교 과정이 經·史·文·算이므로 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였고,⁵⁾ 유교적 가치관으로 양성된 상당수의 유생들이 자신들의 지식을 바탕으로 신학문을 익혀 신교육에 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들 유생들이 忠君愛國교육에 앞장서는 가운데 일본 등지에 유학하고 돌아온 인사들도 문명개화의 실용주의 교육으로 황제를 도와 대한제국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을 그들의 직분으로 여기며 국가자강주의 교육에 앞장서고 있음을 볼 수 있다.⁶⁾

2) 邊勝雄, 〈大韓帝國政府의 經本藝參政策과 儒生層의 新教育參與〉(《建大史學》 7, 1989), 89~119쪽 참조.

3) 《皇城新聞》, 광무 3년 3월 13일, 잡보 〈訓令各校〉.

4) 《官報》, 광무 3년 4월 6일, 칙령 11호 〈中學校官制〉.

5) 《皇城新聞》, 광무 5년 2월 4일, 논설 〈地方儒生勿自暴棄〉.

특히 관료임용제도의 개혁에 부응하여 많은 수의 전·현직 관료와 황제의 측근세력들은 신식학교를 설립하고 법률·경제·통상지식 등 현실 응용학문 교육에 정치적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은 자연히 황제권력을 중심으로 한 국가권력의 강화를 지향하는 국가자강주의 교육실현을 그들의 직분으로 생각하였다.⁷⁾

나. 국민자강주의

정부와 개신유학자, 정부파건의 유학생 출신 인사, 전·현직관료 등이 국민교육의 목표를 황제권력을 중심으로 한 국가권력의 강화를 통한 국가자강주의를 기본이념으로 삼았던 것과는 달리, 변법개화파, 독립협회의 민권파, 상인과 부농 등 신흥의 자산가, 서양선교사 및 기독교인들을 비롯한 종교계 인사들은 민권의 신장과 인민의 역량 배양에 교육의 목표를 둔 국민자강주의 교육을 지향하였다.

변법개화파 박영효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본 망명중에 고종에게 상소를 올려 “만약에 군주의 전제권을 견고히 하려면 인민을 어리석게 함만 못하다. 인민이 어리석고 약해지면 실로 군주의 전제권이 견고해진다. 그러나 인민이 어리석고 약해지면 나라도 또한 약해지는 것이다 … 그러므로 진실로 한나라를 부강케 하고 만국과 대항케 하려면 군권을 줄여 국민들로 하여금 응분의 자유를 누리게 하고 보국의 책임을 다하게 함만 못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변법개화파는 교육으로 인민을 개명시켜 군주권을 억제하고 민권을 신장함으로써 참된 근대적 국민국가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변법개화파의 인민교육론은 독립협회의 민권파들에 의해 더욱 발전되었다. 독립협회 인사들은 국가 성립의 기초는 인민이고, 인민은 교육을 통해 강력한 국민으로 양성해야만 부강한 독립국가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⁸⁾

6) 呂炳鉉, 《親睦會會報》, 勸學說.

李吉相·丁淳佑 共編, 《韓國教育史料集成》開化期篇 1(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26쪽.

7) 邊勝雄, 〈韓末私立學校 設立動向과 愛國啓蒙運動〉(《國史館論叢》 18, 국사편찬위원회, 1990), 29~55쪽.

8) 《大朝鮮獨立協會會報》 7호, 1897. 2, 〈教育의 急務〉.

그리하여 독립협회는 ‘인민교육이 조선의 최우선 급무임’을 환기시키는 한편, 국민교육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인 사업으로 소학교와 여학교의 설립을 강조하였다.⁹⁾ 독립협회의 민권자강운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萬民共同會 역시 정부에 대하여 각 학교의 설립을 요청하고, 특히 인민의 생명을 구원하여 살리는 醫學校의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였다.¹⁰⁾

인민의 권리를 신장시키고 개명한 국민을 양성하여 열강의 간섭과 침략으로부터 나라의 자주독립을 지키려고 활동하던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는 광무황제의 조직으로 광무 2년(1898) 12월 25일 해산되었다.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가 군주주권을 부정하고 국민주권에 입각한 공화정치를 획책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탄압하고 해산을 명하였다.¹¹⁾ 이로써 조직적인 민권자강운동 즉 국민자강주의운동은 일단 중단되었다.

국민주의는 국민이 국가성립의 기초요 국가의 부강과 자주독립은 국민의 힘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상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이 힘을 자각하면서 국민의 권리의식 또한 잉태되고 성장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사회는 을미사변과 아관파천의 와중에서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운동으로 외세와 부패관료의 만행을 어느 정도 견제하는데 성공하면서 국민의식과 민권의식이 민중 속에서 배태되고 발전되어갔다.

외세와 부패 관료의 침탈로부터 자신들의 이익과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는 자강의식이 국민 속에서 성장하였다. 국민의 자강의식은 개항이후 외국상인과의 접촉이 많아진 개항장의 상인층과 지방 수령들의 불법적 수탈대상이 된 지방의 부농층을 중심으로 먼저 성장하였다.

외국 상인이 출입하는 이른바 개항장에서는 국제법이나 통상지식에 어두워 치외법권을 내세우는 외국인과의 거래에서 손해 보는 일이 발생하여도 정부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¹²⁾ 이에 개항장의 상

9) 愼鍾廈, <신교육론> (《獨立協會研究》, 一潮閣, 1976), 223~229쪽.

10) 《獨立新聞》, 1898년 7월 18일, 잡보 <사민편지>.

11) 鄭 喬, 《大韓季年史》 상, 402~403쪽.

12) 李鉉淙, <開港場·開市場·開放地·雜居地의 性格> (《韓國開港場研究》, 一潮閣, 1975), 18~26쪽.

《皇城新聞》, 광무 4년 1월 19일, 잡보 <通漁章程과 津浦船價>.

인과 시민들은 자신들의 권익을 스스로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이는 신교육의 수용과 사립학교의 설립으로 나타나게 되었다.¹³⁾

개항 이후 날로 증가하는 외국문물과 상품유입은 관료들의 사치와 부패를 더욱 조장하였고, 이는 관료들의 농민에 대한 수탈로 전이되어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다. 조선 후기 이래 성장해 온 경영형 부농들은 서당을 설립하여 자제들을 교육하고 지식함양과 신분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지방 수령들의 수탈에 항거하여 소청과 벽서운동을 전개하기도 하고 때로는 집단적으로 소요를 일으키고 민란을 지원하거나 주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동학농민운동과 갑오개혁으로 일단의 개혁이 이루어진 가운데 지방민들 가운데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 새 학문과 지식으로 힘을 키워, 법에 근거하여 수령들의 불법 수탈에 대항하고자 과거의 詩나 賦를 공부하는 서당 대신에 새로운 학교를 설립하고 신교육을 수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¹⁴⁾

또한 국민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는 취지의 국민자강주의 교육은 선교사들의 신교육활동을 통해 민중 속에 깊숙이 뿌리내리기 시작하였다. 선교사들은 ‘하느님 앞에서 만민은 평등하다’고 복음을 전파하였고, 전도의 목표를 상류층보다 근로계급에 두는 한편, 초등학교와 여학교 설립에 역점을 두고 청소년과 부녀자 교육을 실시하였다.¹⁵⁾ 기독교 선교의 방편으로 시작된 선교사들의 교육활동은 한국 민중을 계몽하여 국민자강의식을 배양하고 근대 교육을 발전시키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선교사들의 이러한 교육활동은 국내의 뜻 있는 인사와 기독교신자들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정치범으로 투옥되었다가 1904년 초 석방된 이상재·이원규·홍재기 등 상당수의 인사들이 연동교회에 입교하였다,¹⁶⁾ 이들은 연동교

《皇城新聞》，광무 2년 9월 17일, 잡보 〈豈能盡善〉.

13) 《皇城新聞》，광무 4년 9월 15일, 잡보 〈仁港創校〉.

《皇城新聞》，광무 7년 12월 15일, 잡보 〈報請設校〉.

趙璣濬, 《韓國企業家史》(博英社, 1973), 373~375쪽.

14) 《皇城新聞》，광무 3년 3월 7일, 잡보 〈法規類編〉.

《皇城新聞》，광무 3년 4월 7일, 잡보 〈去舊從新〉.

15) 孫仁銖, 〈近代學校設立의 類型과 展開過程〉(《韓國教育研究》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6), 155~193쪽.

16) 李能和, 《朝鮮基督教及外交史》(朝鮮基督教彰文社, 1928), 203~204쪽.

회를 중심으로 1904년 8월 國民教育會를 조직하였다.¹⁷⁾ 국민교육회는 ‘국민교육회규칙대요’ 제2조에서 “본회의 목적은 일반국민의 교육을 면려하여 지식을 발달케 하되 완고의 폐습을 혁거하고 유신의 규모를 확립할 사”라 하고 국민교육운동을 전개하였다.¹⁸⁾

국민교육회가 조직되어 국민교육운동을 전개할 무렵 국민교육을 위한 또 하나의 움직임이 서울의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1904년 10월 한인 목사 全德基가 재미교포 姜天明이 성금을 보내오자 유지들의 추가지원을 받아 尙洞靑年學院을 설립하였다.¹⁹⁾ 상동청년학원의 설립 취지서는 다음과 같이 교육을 통해 인민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 인민의 가장 긴급한 일이 생활방도에 있지 않은가. 각국과 통상한 지수십년래에 본국 대상인들이나 재산가, 식량이 풍부하던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어 빈곤이 날로 심해지고 재원이 날로 고갈되니 가난하고 직업이 없는 사람들은 더욱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 까닭은 다만 학업을 먼저 힘쓰지 못하고 당장 생계만 구차히 도모한 데 있는지라. 지금 천하의 사람들이 모든 일에 학문으로 자본을 삼지 않는 자가 없다… 우리 동지 여러 사람은 상동회당 안에 청년학원을 설립하고 內外國 語言文字와 物理・算術・地誌 등 필요한 학과를 교육하는데… 大韓人의 공익을 藉코져 함에 실로 罕有한 사업이더라(《皇城新聞》, 광무 9년 2월 13일, 잡보 〈學院趣旨〉).

위에서 살펴본 민권확충을 위한 인민자강 즉 국민자강주의 교육이념은 러일전쟁 이후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되면서 각종의 계몽단체와 학회의 민족자강교육 교육구국운동이념으로 발전하였다.

다. 민족자강주의

러일전쟁에 일본이 승리하면서 한국을 보호국화하고 한국교육에 대한 식민지화 작업을 전개하자 국민교육회 인사들은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국민사범학교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일제가 획책하는 교육식민지화 작업에 대항하여 한국 국민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교육 내지 민족주의교육

17) 《大韓每日申報》, 1904년 8월11일, 잡보 〈국민학교〉.

18) 《大韓每日申報》, 1904년 9월 9일, 10일, 12일, 잡보 〈국민교육회규칙의 대요〉.

19) 韓圭茂, 〈舊韓末 尙洞靑年會의 설립과 활동〉(1988,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을 담당할 교사의 양성이 시급하다고 느낀 국민교육회는 교사 양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범속성과를 설립하고 교사양성에 진력하였다.²⁰⁾

국민교육회 활동에 이어 한국 계몽주의세력은 大韓自強會・西北學會 등을 비롯한 각종의 계몽단체와 학회들을 조직하고 민족자강 교육을 통한 구국운동을 전개하였다.²¹⁾

이 시기 한국의 지식인들은 청일전쟁과 을미사변, 러일전쟁 등을 겪으면서 ‘優勝劣敗’・‘적자생존’의 사회진화론에 영향 받아 “천지창조 이래 ‘생존경쟁’ ‘우승열패는 계속되어 온 것으로, 처음에는 인류와 짐승간의 경쟁이었으며, 인류의 승리 후에는 인류간의 경쟁으로, 지금에 이르러서는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간의 경쟁으로 확대되어 우수한 민족・국가가 열등한 민족・국가를 약탈 침략하기에 이르렀다”고 보아 弱肉強食・우승열패의 현실 속에서 우리 민족이 살아 남는 길은 스스로 힘을 길러 강자가 되는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이들은 “현금은 세계인류가 智力競爭으로 우승열패하고 약육강식하는 시대라, 吾族의 智力이 他族을 대적하지 못하면 짓밟히고 삼킴을 당해 도태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보고²²⁾ 한국이 종래 自強之術을 강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이 어리석어지고 국력이 쇠퇴하여 외인의 보호를 받게 되었으니,²³⁾ “오직 교육을 넓혀 民智를 발달하게 하는 것이 가장 힘쓸 일이다… 교육의 힘이 타락한 국운을 만회하고 죽음에 이른 인민을 살어나게 할 것이다”라고 역설하였다.²⁴⁾

당시에 있어서 계몽주의 지식인들의 최대 조직이었던 대한자강회는 약육강식・적자생존의 국제사회에서 교육을 통한 국민의 개명과 문명의 고도화가 약자를 강자로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교육자강을 위한 의무교육운동을 전개하였다.²⁵⁾ 그런데 대한자강회가 전개한 의무교육운동은 정부는 재정

20) 《皇城新聞》，광무 9년 10월 19일 광고, 20일, 잡보 〈師範募集〉.

21) 趙東杰, 〈韓末啓蒙主義의 構造와 獨立運動上의 位置〉(《韓國民族主義의 成立과 獨立運動史研究》, 지식산업사, 1989), 97~140쪽.

22) 《西北學會月報》，창간호, 1908년 6월 1일, 〈論說〉.

23) 《大韓自強會月報》，제1호, 9쪽, 〈大韓自強會趣旨書〉.

24) 《大韓每日申報》，1906년 1월 6일, 論說 〈務望興學〉.

이 어려워 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국가차원에서 의무교육령을 반포하고 국민이 경비를 분담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하자는 것이었다. 대한자강회가 구상한 의무교육실시안은 (1)적당한 행정구역을 단위로 학구를 정하여 區立소학교를 설치하고 (2)구립소학교의 설비와 유지비용은 구내주민이 부담하며 (3)구내주민은 학무위원을 설치하여 교과서의 선정 등 학무일체를 담당시키며 (4)의무교육의 연한은 5년간으로 한다는 것이었다²⁶⁾

대한자강회의 이러한 의무교육안에 대하여 《만세보》와 《황성신문》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그런데 이 의무교육안은 일제의 식민지화 교육정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항하여 교육권을 한국의 민간인이 장악하려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정부가 교육재정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구실 하에 지역주민이 교육비를 부담하고 학무위원을 선출하여 교과서의 선정 등 학무일체를 주관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西友學會를 비롯한 계몽단체와 각처의 유지인사들도 의무교육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사립학교 설립을 통한 민족자강교육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는 관·공립학교 교육이 일본의 관료주의 및 동화정책 실현의 장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으므로 이에 저항하여 민족보전과 애국정신을 고취하고자 함이었다.²⁷⁾

청소년의 교육과 국민지식의 계발에 주안점을 두고 전개되던 사립학교의 설립과 교육은 일제의 국권침탈이 자행되어 국가와 민족이 위기에 처하자 자주독립을 위한 민족주의정신에 기반을 두고 진행되었다.²⁸⁾ ‘국가는 민족정신으로 구성된 유기체’라고 인식되고 있었으므로²⁹⁾ 민족이 강해지면 국가는 다시 소생될 수 있는 것이었다. 민족은 혈통·국가·종교·어문·역사(전통)·풍속 등에서 공통성을 매개로 하여 응집력을 갖는데 당시에 있어 한민족은 종교적으로는 응집력을 보일 수 없었으므로 민족정신을 배양함에 있어

25) 柳永烈, 〈大韓自強會와 新民會의 民族運動〉(《大韓帝國期の 民族運動》, 一潮閣, 1997), 180~210쪽.

26) 《大韓自強會月報》, 제8호, 41~42쪽, 〈義務教育條例大要〉.

27) 孫仁銖, 〈韓國 近代 民族主義 教育運動研究-舊韓末 近代私學의 民族保全理念과 教育救國運動을 중심으로〉(《近代 民族教育의 展開와 葛藤》,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2), 5~46쪽.

28) 孫仁銖, 위의 글.

29) 申采浩, 《大韓每日申報》, 1908년 8월 27일, 〈讀史新論〉 敍論.

서 단군 이래 동일한 혈통을 이어오며 언어와 역사를 같이한 공동체임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였다. 그리하여 구국계몽운동 세력은 국학·국어·국문·국사의 연구와 교육에 진력하였다.³⁰⁾

그 결과 학생들은 ‘만란을 무릅쓰고… 우리 이천만 동포가 각기 그 집을 보존하고 의무를 다하여 국권의 타락을 회복하여야 한다’, ‘우리가 거주하는 이 반도는 선조로부터 이어 받은 것이다… 우리 민족을 멸하려는 저 원수를 강철과 같은 마음으로 殺滅하지 않으면 안된다’, ‘臥薪嘗膽 인내하여 훗날의 부강을 가져오도록 분발하자’고 민족자강과 국권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민족자강주의 교육은 일제 강점기에도 사립학교와 한인교사들에 의해 줄기차게 전개되었으며, 3·1운동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일제의 皇民化 교육정책에 대한 현실적 저항운동으로 전개된 조선인본위교육운동의 이념적 바탕을 제공하였다.³¹⁾

2) 근대 학교의 설립

한국사회에 새로운 교육을 위해 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한 것은 1880년대부터이다. 그러나 이 시기의 학교의 설립은 근대적 국민교육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구의 학문과 기술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조선정부의 동도 서기론적 개화정책이 낳은 산물이었다. 그리하여 1880년대의 이들 학교는 기대할 만한 교육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가. 정부의 근대학교 설립

근대학교의 설립과 발전은 조선정부가 동학농민전쟁을 계기로 추진한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전개된 을미교육개혁에 의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조선정부는 1895년 2월 국민교육을 위한 <교육입국조서>를 발표하였고, 뒤이어 서 근대적인 국가·국민교육체제를 위한 각종의 학교관제와 규칙을 제정 공

30) 조동걸, 앞의 글.

31) 변승웅, <소위 문화정치하의 민족교육운동> (《한민족독립운동사》 8— 3·1운동 이후의 민족운동 1, 국사편찬위원회, 1990), 108~140쪽.

포하고, 한성사범학교(1895)를 필두로 일반 국민교육기관으로 서울을 비롯한 각지방 주요도시에 소학교를 설립하였고, 1899년에는 수업 연한 7년의 중학교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와 법률·기술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외국어학교(日語학교, 1891, 英語학교, 1894, 法語학교, 1895, 俄語학교, 1896, 漢語학교, 1897, 德語학교, 1898), 법관양성소(1895), 電務學堂(1897), 郵務學堂(1897), 상공학교(1899), 鑛務學堂(1900) 등을 계속적으로 설립하였다. 또한 국내외의 각종 기술을 교육하기 위하여 1899년 3월 24일 의학교관제를 공포하고 京城醫學校를 설립하였다.³²⁾

조선정부는 근대학교를 설립하는 한편으로 유생들을 무마하기 위하여 성균관관제를 개정하고, 성균관경학과규칙을 제정하여 유생들에게 실용에 필요한 새 학문을 학습하도록 조치하였다.³³⁾

나. 전·현직관료 및 황제 측근세력들의 사립학교 설립

정부의 학교설립에 이어 중앙과 지방의 전·현직관료 및 황실과 측근세력들도 각종의 학교를 설립하였다. 정부가 갑오개혁으로 관료선발방식을 바꾸어 새로운 銓考局條例와 選舉條例를 제정하고,³⁴⁾ 과거의 經·史 대신 새로운 학문에 밝은 자를 선용하자 중앙의 관료와 실력자들은 새로운 학문을 가르치기 위한 신식의 시무학교를 설립하였다. 흥화학교·광흥학교·낙영학교(한성의숙←을미의숙)·중교의숙(←시무학교)·사립법률학교·광성학교(→광성상업학교)·우산학교·사립철도학교 등을 설립하였다.³⁵⁾ 즉 이들은 정부의 국가자강주의 교육정책에 발맞추어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였다.

대체로 중앙의 실력자들이 이들 학교들을 설립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였다고 생각된다.

32) 손인수, <한국근대 교육의 유형·보급과 그 실태>((《한국교육연구》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155~193쪽.

33) 《官報》, 개국 504년 7월 4일, 칙령 136호 <成均館官制>.
《官報》, 개국 504년 8월 12일, 학부령 2호 <成均館經學科規則>.

34) 《高宗實錄》, 고종 31년 7월 3일·13일.

35) 姜在彦 著, 鄭昌烈 譯, <教育的 開화와 近代學校의 성립>((《韓國의 開化思想》, 比峰出版社, 1981), 303~306쪽.

첫째, 개항 이후 국가경영에 참여하면서 현실적으로 재래학문이 아닌 서구의 실상학문인 법률·경제·기술 등에 밝은 관료의 양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즉 이것만이 제국주의 열강의 정치·경제적 침략을 극복하고 국가의 독립을 지킬 수 있는 국가자강의 방책이라고 생각한 데 있다. 둘째, 이들은 구래의 봉건적인 양반지주제를 주축으로 새로운 자본가적인 지주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수립하려 하였으므로³⁶⁾ 이를 위한 인재의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 때문이었다고 보아진다. 셋째, 누구보다도 사회경제적 변화를 신속하게 감지할 수 있었던 이들은 현실적으로 재래의 학문이 아니라 새로운 실상학문을 알아야 새로운 사회에서 지배적 위치를 계속 향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고 하겠다. 넷째, 신교육과 학교설립을 명분으로 義捐金과 贊成員을 모으고, 정치적 실력자와 유대관계를 맺으려 한 경우도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리하여 이들은 의연으로 학교를 설립하고 국내의 신식교육기관과 외국 유학 등을 통해 신학문을 수학한 인물들을 교사로 연방하여 지배층 자체들을 모아 교육하였다.³⁷⁾ 그리고 이들 학교는 정부의 새로운 시책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정부와 약정을 하고,³⁸⁾ 특수학과를 설립하여 실무관료의 양성에 협력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사립학교 출신 서용을 위한 특별조치를 얻어내기도 하여 그 학교 출신의 관리직 진출을 도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³⁹⁾ 그리하여 광무년간 초기에 설립된 각종 사립학교 출신들 중 많은 수가 대한제국 관원으로 활약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⁴⁰⁾

실상학문과 신식의 시무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대외교역이 증대하고 제국

36) 金容燮, 〈甲申 甲午改革期 開化派의 農業論〉(《韓國近代農業史研究》, 一潮閣, 1975), 303~374쪽.

37) 광무년간 당시 《황성신문》 등에 보이는 학원모집광고를 살펴보면, 위의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薦主 및 보증인 또는 학교관계자의 보증이 필요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3인 이상의 보증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의 실력을 요구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반 민인 자체의 입학은 어려웠다고 여겨진다.

38) 《皇城新聞》, 광무 4년 4월 2일, 잡보 〈衙校成約〉.

39) 《官報》, 광무 4년 9월 16일, 法部令 2호.

40) 《大韓帝國官員履歷書》(國史編纂委員會, 1972), 참조.

주의 열강의 경제적 침략이 가중되어 감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갔다. 조선사회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1876년의 강화도조약에서 개항하기로 한 인천·부산·원산만이 아니라 전국이 개방되어 갔다. 조약과 통상장정에 의해 합법적으로 개방되지 않은 지역에까지 외국인들이 무상으로 출입하며 경제침략을 일삼고 있었다. 이에 대응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교육을 통하여 현실대응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각 지방에서는 돈을 모아 사립학교를 설립하고 학부에 인허가를 청하는 한편, 교원의 파견을 요청하기도 하였다.⁴¹⁾ 그런데 이와 같은 학교설립에 앞장서고 있었던 인사들은 지방사회의 유력자들이었다. 따라서 지방관들은 이들 지방사회의 유력자들을 포용하기 위해서도 학교설립에 진력할 필요가 있었다. 設校興學은 조선시대 이래 ‘守令七事’에 속하는 지방수령들의 임무이기도 하였으므로 상당수의 지방관들은 지방 유력자들과 협조 속에 사립학교를 설립하고 새 학문을 교육하는데 진력하였다.⁴²⁾

다. 개항장 상인 및 유지 신사들의 사립학교 설립

문호개방과 대외통상의 확대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은 무엇보다 상인세력이었다. 이들 상인세력이 외세와 주로 부딪히는 곳은 자연히 開放地·開市場·雜居地·開港場 등으로 일컬어지는 통칭 개항장이었다. 개항장은 외국선박이 도착하고 외국상품이 들어오고 외국어와 외국의 풍속과 복장이 혼효를 일으키고 고유의 것이 도전을 받는 곳이었다. 이 곳에는 외국인 거류지가 설정되고 치외법권이 인정되어 부분적으로는 외국의 식민지화된 곳이었다.⁴³⁾

문호개방 이후 인천·부산·원산 등 개항장에는 조선 후기 이래 성장해 온 객주·여각들을 비롯해 대소 상인들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자연히 외국상인들과 접촉하며 무역활동을 전개하였다. 개항 초기 외국상인들은 전관거류

41) 《皇城新聞》，광무 5년 2월 5일, 잡보 〈設校請師〉.

42) 《獨立新聞》，광무 원년 8월 28일, 잡보 〈라주군수〉.

《皇城新聞》，광무 3년 5월 1일, 잡보 〈南郡文昌〉.

《皇城新聞》，광무 3년 2월 16일, 잡보 〈可鎭海隅〉.

《皇城新聞》，광무 3년 5월 3일, 잡보 〈彬彬多士〉.

43) 李鉉淙, 앞의 글, 18~26쪽.

지에서 10리를 넘는 지역에서는 행상할 수 없었으므로 그들의 상거래는 개항장에 한정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언어도 불통했고 내륙의 상거래 관습에도 익숙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득이 개항장의 객주와 여각·거간·통역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물화를 수집할 수밖에 없었다.⁴⁴⁾

그러나 이들 외상들은 治外法權·沿海測量·任自貿易 등 조약·조항들을 내세워 경제침투를 강화하였다. 이들은 이 곳에 점포를 개설하고 은행지점들을 설립하고 상업회의소 등을 조직하여 경제활동을 증대시켰다.⁴⁵⁾ 이에 국내의 私商都賈·객주·여각·상회 등은 통역과 더불어 이들 외국상인과 이해관계에 따라 화응하기도 하고 대립하기도 하였다.⁴⁶⁾

이 곳 개항장은 능력 여하에 따라서 새로운 富를 획득할 수 있는 곳이었다. 즉 외국어의 통달, 상업거래와 무역지식, 만국공법과 통상약장 등 법률이해, 물화의 수집능력과 洋貨에 대한 분별력 등이 곧 부를 획득할 수 있는 길이었다. 그리하여 이 곳에서는 관료·유생·상인 등 재래의 신분제 구애됨이 없이 상업에 투신하는 자들이 증가하였다.⁴⁷⁾ 이와 같은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였다.⁴⁸⁾ 그리하여 개항장의 상인과 유지인사들은 돈을 모아 신교육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였다.

그리하여 개항장 원산에서는 한국 최초의 근대학교로 논급되고 있는 원산학사가 1883년에 설립되었고,⁴⁹⁾ 부산에서는 개성학교(부산상고 전신)가 1895년 설립되었다.⁵⁰⁾ 인천에는 정부가 1895년 관립 인천외국어학교를 설립하였으나, 광무 4년경에 이르러 유지 인사와 상인들이 인천거류 외국인들의 협조도 얻어 修齊學校(博文學校前身)를 설립하였다.⁵¹⁾ 러시아와의 통상장정이 체결되

44) 趙璣濬, 〈開港場の 民族商人〉(앞의 책), 34~37쪽.

45) 韓祐勣, 〈開港後 外國商人의 浸透〉(《韓國開港期の 商業研究》, 一潮閣, 1970), 45~55쪽.

46) 韓祐勣, 위의 책, 121~232쪽.

47) 韓祐勣, 위의 책.

48) 《皇城新聞》, 광무 7년 12월 15일, 잡보 〈報請設校〉.

49) 愼鏞廈, 〈우리나라 最初의 近代學校設立에 대하여〉(《韓國史研究》 10, 1974).

50) 《釜商 八十年史》(부산상업고등학교 80년사편찬위원회, 1975).

51) 《皇城新聞》, 광무 4년 9월 15일, 잡보 〈仁港創校〉.

《皇城新聞》, 광무 4년 10월 6일, 잡보 〈改稱博文〉.

어 개방된 경흥부에도 사립 俄語學校가 설립되었고,⁵²⁾ 鏡城에도 사립 咸一學校가 설립되었다.⁵³⁾

라. 요호·부민·유생 층의 학교 설립

조선 후기 이래 진행된 사회경제적 변화와 신분질서의 혼란에 따라 부를 축적하고 신분향상을 꾀하며, 서당 등을 설립하여 자제교육을 하던 지방의 饒戶·富民층은 개항과 기독교의 유입, 동학농민전쟁과 갑오개혁으로 변화된 사회상황에 발맞추어 새로운 학문으로 자제들을 교육하고 자신들의 권익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정부가 재정난으로 지방에 학교를 설립하여 국민 교육을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독교 선교사들이 설립한 학교에 자제들을 보내거나 자신들이 기금을 모아 학교를 설립하고 자제들에게 신학문을 교육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⁵⁴⁾

한편 지방사회에서 농업이나 상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가난한 교학자로서 만족하던 유생들은 을미교육개혁에 이어 건양·광무년간에 정부가 보조공립 소학교규칙을 제정하여 유생들로 하여금 공립소학교 부교원으로 활약할 기회를 제공하고,⁵⁵⁾ 성균관 경학과 교육을 강화하는 등 經本藝參의 교육정책을 표방하자 기왕에 익힌 유학실력을 바탕으로 신학문을 익히고 학교를 설립하여 교사로서 활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⁵⁶⁾ 또한 이들은 재래의 교육재원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학교를 설립하거나⁵⁷⁾ 교과운영을 한문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폐단을 낳기도 하였다.⁵⁸⁾

마. 선교사들의 학교 설립

한국의 근대 교육 발전과 학교 설립의 눈부신 성과는 개신교 선교사들에

52) 《皇城新聞》，광무 5년 3월 19일, 잡보 〈報得其當〉.

53) 조기준, 앞의 책, 373~375쪽.

54) 《皇城新聞》，광무 3년 3월 7일, 잡보 〈去舊從新〉.

《皇城新聞》，광무 3년 4월 7일, 잡보 〈法規類編〉.

55) 《高宗實錄》，건양 원년 2월 20일, 학부령 1호.

56) 《皇城新聞》，광무 3년 5월 6일, 별보 〈報請設校〉.

《皇城新聞》，광무 4년 1월 18일, 잡보 〈楊根郡 私立 永化學校〉.

57) 《皇城新聞》，광무 3년 2월 21일, 잡보 〈妖言毀校〉.

58) 《皇城新聞》，광무 3년 7월 11일, 論說.

의해 이루어졌다. 개화정책 추진 초기인 1880년대부터 고종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 기독교 선교의 기반 구축을 위해 선교사들은 서울에 배재·이화·경신학교를 설립하였고, 기독교 선교금지정책이 완화된 1890년대에는 지방도시로 그 범위를 넓혀 1894년 평양의 광성학교·송덕학교·정여학교, 1895년 서울의 정신여학교를 비롯하여 동래·인천·재령·목포·원산·개성·해주·공주·대구 등 전국 각지로 확대하였다. 1905년의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 사회가 국가적 민족적 위기에 직면하면서 한국인들의 교육 열이 팽배하자 천주교·장로교·감리교 구세군 등 각 교단 선교사들의 학교 설립과 교육활동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⁵⁹⁾

바. 구국계몽단체·학회 및 관련인사들의 학교 설립

일제가 통감부를 설치하고 교육권을 장악하여 식민지화 교육정책을 추진해 가자 광무황제는 신민들에게 사립학교를 설립하여 國威와 國光을 선양하고 국가중흥을 이룰 수 있는 교육을 실현하라는 조칙을 발표하였다.⁶⁰⁾ 이에 사립학교 설립을 통한 교육구국운동은 사회 각 계층과 세력을 초월하여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변법개화파의 교육이념을 이어받은 독립협회 민권파의 국민자강교육운동은 국민교육회로, 또 대한자강회·서우학회·한북흥학회 등으로 이어지면서 민족자강 교육구국을 위한 사립학교의 설립운동으로 나타나 많은 수의 사립학교가 설립되었다. 이들 학회는 우선적으로 민족교육을 담당할 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사범학교들을 설립하였다. 사범학교는 속성파로 설립하여 이미 舊學에 밝은 사람을 뽑아 산술·지지·역사·법률·물리학·교육학·외국어·작문 등 새 학문을 이수하게 하고 각지에 설립되는 사립학교 교사 수요에 응하였다. 그리고 이들 학회는 각지의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 및 교무를 지도하였다. 이렇게 설립된 사립학교들은 민족지도자 양성의 요람으로 자리잡아 항일민족운동의 진원지가 되었다. 특히 서북협성학교·대성학교·오

59) 孫仁銖, 앞의 글.

60) 柳漢喆, <1906년 光武皇帝의 私學設立詔勅과 文明學校 設立事例> (《韓國民族運動史研究》, 于松趙東杰先生停年紀念論叢 II, 나남출판, 1997), 136~140쪽.

산학교 등의 민족자강교육은 한국 근대 민족주의운동의 핵으로 기여하였다.

초기에 서북지방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지방의 사립학교 설립운동은 기호 홍학회·대한협회 등이 조직되면서 기호·영남 등 전국 각처로 확산되었다.⁶¹⁾ 이 결과 전국의 사립학교는 한때 5천여 개소에 이르게 되었다.

사. 불교와 천도교 종단의 사립학교 설립

사립학교 설립은 불교·천도교 등 기독교 이외의 종교에 의해서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조선왕조 5백년 동안 불교는 억불정책에 의해 산중불교로 변하여 세속에서의 활동이 억제되어 왔다. 그러나 문호개방 초기에 李東仁·卓挺植·李允果·車弘植 등 일부 승려들이 개화운동에 참여하면서 재래의 불교 교육기관인 講院에서 서양학문으로 개화세력을 양성했던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초기의 개화운동에 참여했던 이동인이 행방불명되고 탁정식이 1883년 일본에서 병사함으로서 불교계의 개화운동은 기대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였다.⁶²⁾ 그러나 광무년간에 이르자 李寶潭·洪月初 등이 일본 정토종 이노우에(井上玄辰)의 후원을 얻어 원흥사에 불교연구회를 조직하고 明進學校를 설립 경영하였다. 이후 전국 사찰의 재원을 이용한 사립학교 설립이 이루어졌다.⁶³⁾

명진학교에는 玄采·張志淵·尹孝定·申海永 등 국가자강주의 인사들이 출강하였고, 이 학교 출신의 한용운이 한국 불교가 친일의 늪으로 빠져들어 가는 상황에서 朴漢永·白龍城·白初月 등과 적극적인 민족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명진학교 교육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다.⁶⁴⁾

동학운동세력의 일부가 정부의 탄압을 벗어나기 위하여 진보회·일진회 등을 조직하고 친일세력화하자 1905년 12월 1일 손병희는 동학을 천도교라 개칭하고 친일세력을 축출하였다. 이어 손병희는 홍화학교·보성학교 등을 비롯하여 각처의 사립학교에 지원금을 제공하고, 경영난에 부딪히고 있던 보

61) 李松姬, 《大韓帝國末期 愛國啓蒙學會研究》(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85).

62) 南都泳, 〈近代佛教의教育活動〉(《近代韓國佛教史論》, 佛教史學會, 1988), 209~263쪽.

63) 남도영, 위의 글.

64) 金昌洙, 〈불교〉(《한민족독립운동사》 9, 국사편찬위원회, 1991), 494~529쪽.

성학교·동덕여학교 등을 인수 경영하여 민족 자강교육에 기여하였다.⁶⁵⁾

그러나 이 시기의 모든 사립학교 설립과 교육이 민족자강 교육구국만을 지향한 것은 아니었다. 청일전쟁 이후부터 일본인들은 동아동문회 등을 조직하여 한국 각지에 학교를 설립하고 일본어와 상업관계 학문을 교육하며, 친일적 매관세력을 양성하였고,⁶⁶⁾ 러일전쟁 이후에는 친일 매국단체들이 일본의 교육침략에 협조하고 종교계 학교와 기타 사립학교들도 국민교육 내지 민족교육을 외면하는 사태가 생겨남으로써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⁶⁷⁾

3) 근대 학교의 교육내용

을미교육개혁에서 국민보통교육을 위해 마련된 학교제도는 한성사범학교와 소학교였다. 국민교육을 담당할 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성사범학교는 그 편제를 본과와 속성과로 하고, 수업연한은 본과 2년(1899년에 4년으로 개정), 속성과 6개월, 학령은 본과 20세 이상 25세 이하, 속성과는 22세 이상 35세 이하로 규정하였다. 본과의 교과목은 수신·국문 및 한문·교육·역사·지리·수학·물리·박물·화학·습자·작문·체조 등이었고, 속성과의 교과목은 수신·교육·국문 및 한문·역사·지리·수학·이과·습자·작문·체조 등이었다.⁶⁸⁾

일반 국민양성을 위한 초등교육관인 소학교는 아동 신체의 발달에 비추어 국민교육의 기초와 그 생활상에 필요한 보통지식 및 기능을 수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종류는 관립·공립·사립·편제는 심상과와 고등과로 나누어, 심상과는 3년, 고등과는 2년 또는 3년을 수업연한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만 7세로부터 15세까지의 8년간을 학령으로 하여, 각 부·군은 그 관내의 학령아

65) 《皇城新聞》，광무 10년 3월15일, 잡보 〈敎主義助〉.

孫秉熙先生紀念事業會, 《義菴 孫秉熙 先生傳記》.

66) 邊勝雄, 〈清日戰爭後 日本의 對韓敎育侵略에 關한 小考〉(《建大史學》9, 朴永錫敎授 停年紀念論叢, 建國大史學會, 1997), 109~127쪽.

67) 《대한매일신보》, 1908년 9월 4일, 論說 〈打破家族의 觀念〉.

《대한매일신보》, 1909년 11월 24일, 論說 〈國民敎育을 施하라〉.

68) 《官報》, 개국 504년 7월 24일, 학부령 1호 〈漢城師範學校規則〉.

동을 취학시킬 공립소학교를 세우도록 하였다. 심상과의 교과목은 수신·독서·작문·습자·미술 및 체조 등으로 하고, 그 외에 한국지리·역사·도화·외국어·재봉(여자의 경우) 등을 가할 수 있으며, 고등과의 교과목은 수신·독서·작문·습자·산술·한국역사·한국지리·외국지리·이과·도화·체조 등으로 하고, 그 외에 재봉(여자의 경우)·외국어·외국역사·외국지리 등을 가할 수 있게 하였다.⁶⁹⁾

국민보통교육을 담당하는 초등교육기관이 점차 보급되어 가는 가운데 1899년 4월 4일 칙령 제11호로 중등교육을 위한 중학교관제가 제정·공포되었다.⁷⁰⁾ 중학교관제에 의하면, 중학교는 수업연한 7년으로 그 편제는 심상과 3년, 고등과 4년으로 하였다. 중학교관제에 이어 제정 공포된 중학교규칙에 의하면, 입학자격은 고등소학교 졸업자로 연령은 17세 이상 25세까지이었고, 교과목은 심상과는 윤리·독서·작문·역사·지리·산술·경제·박물·물리·화학·도화·외국어·체조 등이고, 고등과는 독서·산술·경제·박물·물리·법률·정치·공업·농업·상업·의학·측량·체조 등이었다.⁷¹⁾

위와 같은 국민교육을 위한 일반교육제도와 달리 시무에 필요한 사법관양성을 위하여 설립된 법관양성소는 20세 이상의 학생을 선발하여 법학통론·민법·형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기타 현행법률 등을 교육하였다.⁷²⁾

국민의 건강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서양의학을 수용하고 가르쳤던 광혜원의 경험을 살려, 대한제국 정부가 설립한 京城醫學校는 만 20세 이상 30세 이하로서 중학교를 졸업하거나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를 선발하여, 수업연한 3개년의 속성과로 동물·식물·화학·물리·해부생리·약물·진단내과·외과·안과·婦嬰·위생·法醫·種痘·체조를 교육하고 한두 과목을 증감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국내 의술이 발달한 후에 다시 연한을 정하여 더 심도 있는 의술을 교수토록 조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⁷³⁾

조선정부는 영어교육을 목적으로 1883년 동문학을 설립한 바 있었고, 1891

69) 《官報》, 개국 504년 7월 22일, 칙령 145호 〈小學校令〉.

70) 《官報》, 광무 3년 4월 6일.

71) 《官報》, 광무 4년 9월 7일, 학부령 12호 〈中學校規則〉.

72) 《官報》, 개국 504년 3월 25일, 〈法官養成所規程〉.

73) 《官報》, 광무 3년 7월 7일, 학부령 9호 〈醫學校規則〉.

년에 일어학교, 1894년에 영어학교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1895년 5월 10일 외국어학교관제를 제정하였다. 광무 4년 7월 2일에 제정된 외국어학교 규칙에 의하면, 외국어학교는 만 15세 이상 23세 이하인 자를 선발하여 일어학·영어학·불어학(프랑스어), 아어학(러시아어), 한어학(중국어), 덕어학(독일어)을 각각 설립하고, 일어학과 한어학은 수업연한 3년, 영어·불어·아어·덕어는 5년으로 하여 외국어로 보통학과를 가르치고 한문으로 독서작문과 본국역사 지지를 가르치도록 하였다.⁷⁴⁾

상공학교는 수업연한 4년으로 첫 일년은 예과, 후 3년은 본과로 해서 상업과 공업에 필요한 학과를 교수토록 하였다.⁷⁵⁾ 1904년 8월 제정된 농상공학교 규칙에 의하면, 예과과정은 본국역사·본국지지·만국역사·만국지지·화학·물리학·경제학·산술·도화·외국어 등을 교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⁷⁶⁾

우편사무를 담당할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郵務學堂은 15세 이상 30세 이하인 자를 선발하여 국내우체규칙·국내우체세칙·만국연방우체규칙·외국어·산술 등을 교수하였다.⁷⁷⁾ 또 電務學堂은 만 15세이상 30세 이하인 자를 선발하여 打報(전보치기)·번역·電理學·전보규칙·외국어·산술 등을 교수하였다.⁷⁸⁾

정부는 을미교육개혁에 반발하는 유생들을 무마하기 위하여 성균관관제를 개정하고⁷⁹⁾ 성균관경학과규칙을 제정하여 3개년 과정으로 20세 이상 40세 이하인 자를 三經·四書·諺解講讀, 綱目(宋·元·明史), 작문(일용서류·기사·설·經義), 역사(본국·만국), 衍文(본국지지·만국지지), 산술(加減乘除·比例差分) 등을 교수하였다.⁸⁰⁾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국민보통교육을 목표로 설립된 소학교·중학

74) 《官報》, 광무 4년 7월 2일, 학부령 11호 〈外國語學校規則〉.

75) 《高宗實錄》, 광무 3년 6월 24일, 勅令 28호, 〈商工學校官制〉.

76) 《官報》, 광무 8년 8월 22일, 학부령 16호 〈官立農商工學校糾飭〉.

77) 《官報》, 광무 4년 11월 5일, 통신원령 6호 〈郵務學徒糾飭〉.

78) 《官報》, 광무 4년 11월 5일, 통신원령 7호 〈電務學徒糾飭〉.

79) 《高宗實錄》, 고종 32년 7월 2일, 칙령 136호 〈成均館官制〉.

80) 《官報》, 개국 504년 8월 12일, 학부령 2호 〈成均館經學科規則〉.

교·사범학교는 인격도야와 일반교양을 위한 교과,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한 체조, 실제 사회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교과목들이 교수과목으로 채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895년 2월의 교육조직에서 신교육은 실용을 숭상하며, 德養·體養·智養 삼자를 교육의 綱紀라고 밝힌 데서부터 연유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기타의 교육기관들은 새로운 국제질서와 근대국가와 산업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는 실상학문과 기술 등을 습득하도록 교육과정이 구성 되어 있음도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사립학교에도 대체적으로 반영 되었다.

그러나 소학교 교육을 담당할 교사의 양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초기에는 교사들의 빈번한 이동과 더불어 보조공립소학교규칙에 의해 지방에서 학행이 있는 유생들이 부교원으로 활약하면서 공립소학교 교과과정이 한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였으므로 사립의 경우는 더욱 심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⁸¹⁾

중등학교 이상 전문·대학 정도의 사립학교들은 국가의 정책 실행과 대외 통상 등에 필요한 정치·경제·법률·외국어·산술·부기 등 근대적 실상학문을 주요 교과목으로 하여 학생들을 교육하였다. 광무년간에 김신영·민영환 등에 의해 설립되어 상당한 발전을 보았던 흥화학교 같은 경우 대한제국 정부가 재원 확보정책으로 量田사업을 전개하자 量地衙門과 계약을 체결하고 양지 속성과를 설치하고 측량술을 교육하기도 하였다.⁸²⁾

교육구국운동기의 민족주의 계열의 사립학교들은 국어·국사교육과 애국심 교양을 위한 작문·음악(창가)·체육(군사교련)교육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근대 교육은 1880년대의 서구의 신교육 수용과 실험을 거쳐 갑오개혁에 이은 을미교육개혁 이후 본격적으로 정립되고 발전하였다.

〈邊勝雄〉

81) 邊勝雄, 앞의 글(1989).

82) 《皇城新聞》, 4년 4월 3일, 〈興化學校 學員 募集廣告〉. 흥화학교는 1911년경 일제의 탄압으로 폐쇄되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3. 근대 교육의 확대

1) 통감부의 교육 침략

(1) 우민화교육 방침

을사조약으로 우리의 외교권을 탈취한 일제는 1905년 12월 統監府설치를 공포하더니, 계속해서 1906년 2월 통감부를 설치하고 고문정치를 실시하다가 次官政治로 바꾸었다. 일본인 차관은 해당 部의 실질상의 장관이었다.

1906년 2월 과도적 한국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통감부가 이 땅에 설치되자, 초대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부임했다. 그는 취임하자 곧 통감부 서기관인 다와라 마고이치(俵孫一)에게 교육사무를 위탁하였고 또 미쓰치 츠조(三土忠造)에게는 교과서의 편찬사무를 맡겼다. 이로부터 학부직원 총수의 거의 반수가 일본인이 되었다.

이 시기 일제가 쓴 한국관계 교육문헌으로는 오카구라 요시사부로(岡倉由三郎)의 《朝鮮國民教育新案》(1894), 가다 요이치(木多庸一)의 《朝鮮教育談》(1897), 츠네야 모리후쿠(恒屋盛服)의 《朝鮮開化史》(1901), 마츠미야 슌이치로(松宮春一郎)의 《韓國教育의 現在 및 將來》(1905), 또 일본인 관리의 손으로 日文中으로 씌어진 韓國學部編 《韓國教育》(1909) · 《韓國教育의 既往 及 現在》(1909) · 《韓國教育의 現狀》(1910) 등이 있다.¹⁾

한·일합병 전까지 통감은 3인이었는데, 초대는 이토 히로부미로 그 재임 기간은 1906년 3월에서 1909년 6월까지였고, 2대는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로 1910년 5월까지였다. 3대는 테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이었는데, 한·일합병 후 다시 초대 총독으로 부임하였다. 통감부시대의 교육정책상의 기본방침은 한국인에 대한 文盲政策과 동시에 사립학교의 통제에 있었다.

일제는 전대미문의 동화정책을 사용했다. 특히 교육정책에 있어서 일제는

1) 韓基彦, 〈日帝의 同化政策과 韓民族의 教育的 抵抗〉(《日帝의 文化侵略史》, 民衆書館, 1970), 7쪽.

서구 식민국가가 그 원주민들에게 행한 일련의 교육정책을 수립한 것을 배웠다. 그리고는 이것을 다시 일본 특유의 악랄한 식민지 교육정책으로 소화시킨 것이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통감부의 교육침략으로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1905년 11월 18일의 《報知新聞》조간에 東京府立 第一中學校長이 금후 한국유학생의 교육방침에 관한 기자질문에 대하여 “한국인에게는 고등교육이 필요없다”는 요지의 대답을 한 기사가 발표되었다. 이 때 황실 유학생으로 있던 崔麟을 비롯한 전 유학생은 당일 일제히 府立 제일중학교에 등교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동맹휴학은 한·일간에 국제문제로 등장하여 일본의 외무성·문부성·東京府의 세 기관 관계요인들이 한국공사관으로 몰려와 유학생을 불러놓고 설득을 하였다. 이 때 대부분의 학생은 다시 등교하였으나 崔麟·韓相愚·柳承欽·李承瑾·池成允·姜元求·郭漢卓·全宇榮 등은 끝내 항거하다 퇴학처분을 당하고 말았다.²⁾ 그러나 고종황제는 그들의 충절을 가상히 여겨 전과 같이 계속 황실비를 지급하라는 명을 내렸다.

우선 통감부는 우리에게 ‘民度’에 맞는 교육을 위한 혹은 ‘漸進主義’교육을 한다는 등 한국인을 우민화시켜 그들의 부림을 받는 하급관리·사무원·근로자양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實業’ 혹은 ‘實用教育’이다. 통감부의 교육방침은 우리 민족을 눈뜬 장님으로 만들려는 이른바 문맹정책을 사용했다. 즉 일제통감부의 공통된 의견은, 한국인은 교육시킬 필요가 없고 北海道의 아이누종족처럼 압박을 가해 멸망시켜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인 교원 역시 한국인들은 교육시킬 필요가 없으며, 한국인 학생들은 是와 非를 가려서는 아니 되고, “일본인이 비록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한국인은 머리를 숙이고 우리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통감부는 이 방침을 수행하기 위해 학제개혁을 단행하여 수업연한을 단축하였다. 1895년 공포된 小學校令에 의하면 수업연한이 6년(尋常科 3개년, 高等科 2개년 내지 3개년)이었다. 그런데 통감부는 1906년 종래 소학교

2) 鄭世鉉, 《抗日學生民族運動史研究》(一志社, 1975), 48~49쪽.

령을 폐지하고 칙령 제44호로 普通學校令을 공포하여 초등교육의 수업연한을 4년으로 단축시켰다. 통감부는 초등교육의 수업연한을 단축시켰을 뿐 아니라, 합병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는 中等學校令만³⁾ 공포하였지 高等教育令은 공포하지 않았다. 당시 통감부의 교육방침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중등교육 기관으로 하여금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도록 하여 사실상 ‘終結’의 교육기관이 되도록 한 것이다.

이는 학부대신 李完用이 1908년 7월 열린 관·공립 보통학교 일본인 敎監會議에서 행한 훈시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학교수를 늘리기 보다는 소수의 학교를 충실히 운영하여 그 效績을 올림으로써 ‘新教育의 眞價’를 국민에게 알려 이를 이해케 하려는 漸進政策을 취하려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등교육기관의 확충은 물론 일의 순서로서 당연한 일이지마는, 국가의 재정형편상 불가능하므로 당분간 보통교육에 힘을 기울이려는 방침을 보이고 있다(學部, <第2回 官公立普通學校 敎監會議錄>).

이처럼 통감부는 우리에게 우민화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중등학교 이상의 학교설립에 인색했다. 한국인의 자각은 그들 식민지수행의 기초공사에 장애가 되므로, 통감부의 관리 중에는 ‘한국인은 전연 가르치지 말라’는 주장이 대두될 정도로 우민화가 기본방침이 되었다.

(2) 동화정책의 방법으로서의 보통학교 확장

일반적으로 열강의 식민지정책의 유형을 보면, 영국이 원주민의 반항을 감소시키고 그 통치의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원주민의 관습·문화·사회조직을 이용하는 간접통치-自治政策-를 택했다면, 프랑스는 ‘同化政策’에 의거하는 직접통치방식을 취했다고 볼 수 있다. 일제는 프랑스형을 모방하여 직접통치적 동화정책의 원칙을 채용했지만 프랑스의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同化’라는 미명 아래 민족말살정책을 감행하려 했다는 점이다.⁴⁾ 이는 합병 후 그들의 식민지교육정책에 잘 나타나 있다. 실로 우리 민족의 말살을 위한

3) 1906년의 高等學校令과 1907년이 高等女學校令이 바로 이것이다.

4) 이에 대해서는 孫仁鉢, 《韓國近代教育史》(延世大 出版部, 1971), 88~97쪽 참조.

일제의 식민지교육정책은 그 어느 식민주의국가보다 무자비했다.

우선 이 시기 통감부는 그들 최대의 종국적 施政目標인 동화정책의 한 방법으로 관·공립 보통학교를 확장하였다. 초대통감 이토가 첫 번째로 한 일은 이른바 施政改善을 위한 借款의 도입이다. 그는 1906년 3월 500만원(실수금 450만원)을 가져 왔는데 그 사용계획을 보면 학교신축을 위한 수리비로 보통학교에 34만원, 중학교에 16만원, 도합 50만원을 교육시설에 투자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관·공립 보통학교가 설치되었다.

第1期(1906) 官立9校, 公立 13校

官立—校洞 齋洞 養賢洞 養士洞 仁峴 水下洞 貞洞 梅洞 安洞

公立—水原 公州 忠州 光州 全州 晉州 大邱 春川 平壤 寧邊 海州 咸興 鏡城

第2期(1907) 公立 27校

開城 仁川 安城 清州 江景 洪州 南原 群山 木浦 羅州 濟州 慶州 尙州 東萊

馬山 蔚山 黃州 鎭南浦 定州 義州 安州 原州 江陵 元山 北青 城津 會寧

第3期(1908) 公立 9校

靈岩 古阜 鎭南(慶南) 密陽 溫陽 宣川 驪州 江華 間島

(小田省吾, 《朝鮮教育制度史》, 朝鮮史學會, 1923, 71~72쪽).

이 같이 1906년에 22개 보통학교가, 이듬해에는 27교, 1909년까지 도합 60개 학교가 신설되었으며, 학생 총수는 11,237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이렇게 통감부가 관·공립 보통학교를 확장한 것은 우리에게 대한 민심수습책과 아울러 점진적인 동화정책을 사용하기 위함이었다. 즉 한국의 아동들로 하여금 그들의 식민지정책에 무조건 복종하는 인간상을 형성하려는데 있었던 것이다.

학부는 이 때 관·공립 보통학교에 대해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고 교과서를 비롯한 학용품까지 무료로 지급하였으나 학생 모집에 적지 않은 곤란을 겪었다. 그 이유는 일본인이 동화정책으로 세운 관·공립학교에 대한 불신에 있었다. 특히 중류 이상의 가정에서는 자제를 공립학교보다 도리어 설비가 불비하며 수업료를 징수하는 사립학교에 입학시켰다.⁵⁾

이상 언급한 각급 학교의 교육정책을 그들의 본국과 비교해 보면 엄청난

5) 學部, 《韓國教育》, 11쪽.

차이가 있음을 발견한다. 그들 본국에서는 1872년 이미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하였으며 또한 전국적으로 53,760개의 소학교, 256개의 중학교, 8개의 대학을 설립할 계획을 세웠다. 그리하여 이로부터 5년뒤인 1877년에는 취학율이 남자 53.5%, 여자 22.5%에 달했으며, 이 해에 東京大學은 法·文·理·醫學部를 갖춘 종합대학으로 출발했다.⁶⁾ 그러니 이것은 통감부의 한인에 대한 교육정책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일본어 보급

통감부의 교육방침은 그들의 글과 역사를 우리의 글과 역사로, 일본의 조상을 우리의 조상으로 만들려고 하였다. 특히 그들은 동화정책의 한 방법으로 일어 보급에 중점을 두었는데, 이것은 언어가 편의상 쓰는 기호일 뿐 아니라 민족동화의 주된 매개체였기 때문이다. 이는 學部승 제3호로 공포된 보통학교·고등학교의 각 학년 교과과정 및 매주 교수시간으로도 알 수 있다. 보통학교와 고등학교(중학교)에서 일본어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매주 6시간으로 우리의 국어에 못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사범학교에서도 4시간을 차지했다. 그러니 통감부의 교육방침은 일본어의 보급을 통한 교육침략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학부 서기관 미토는 1908년 6월 개최된 관립보통학교 직원회 석상에서 일어를 보통학교 초학년부터 부과하게 된 이유를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오늘과 같이 한·일 양국간의 교통왕래가 빈번하고, 양국인이 서로 제휴하여公私 사업에 종사하는 시대에는 한국인으로서 日語를 해독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생존경쟁상 현저히 이해관계가 있다. 즉 일어를 해독하는 사람은 관리로서도 樞要하고 유력한 지위에 오를 수 있으며, 상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또한 이익을 얻기 쉽고, 官民間에 직업을 얻는 데도 대단히 편리하다... 이와 같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을 생각하고, 한국 아동의 장래 행복을 도모하는 데 일어 교수가 가장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당국 大臣 이하가 學部에서 이를 의결하고 각의에서도 이 案을 채택하여 勅裁를 거쳐 결정한 것이다(高橋濱吉, 《朝鮮教育史考》, 帝國地方行政學會 朝鮮本部, 1927, 172~173쪽).

6) 金龍德, 《韓國史의 探究》(乙酉文化社, 1971), 169~170쪽.

또 학부차관 다와라는 일어의 실리적 가치를 강조하여 말하기를 “일어는 護身의 利器이며 또한 財産의 安固, 권리의 보전을 기할 수 있는 要具”라고 까지 망언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1910년 제2대 통감 소네가 일본외무대신에게 보고한 글을 통해서도 당시 우리 국민의 민족감정을 짐작케 한다.

輒近 도처에 教育熱이 勃興함에도 불구하고 世人의 다수는 舊學에 拘泥하여 인습이 오래되어 아직 新進의 교육을 이해하는 者가 稀少하여 왕왕 보통학교의 취학 권유에 응하지 않는 者 있는바 何等の 보통학교에 관한 感想을 窺視하면 …時勢에 어두운 儒生과 私立學校 관계자 등이 이들 보통학교를 중상하고 또한 일본어를 교육함을 특히 日本國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퍼뜨리고 있다(日本外務省, 《日本外交文書》42, 日本國際聯合協會, 1942, 9쪽).

(4) 교과를 통한 친일교육

통감부의 교육침략의 또 하나는 교과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친일교육을 강화하는 데 있었다. 이는 당시 학부가 편찬한 교과서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를테면 《日語讀本》 제7권에 일본에 관한 것이 5課가 있는데, 이것은 全課數 20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5과의 제목은 〈日本〉・〈朝鮮과 日本과의 交通〉・〈日本과 支那와의 交通〉・〈新橋 스테이션〉・〈東京〉 등이다.

그리고 제8권 〈日淸戰爭〉이라는 제하에 그 원인을 설명하는 곳에서, “일본에서는 한국은 독립국으로서 청국의 속국이 아니며, 만일 청국이 마음대로 군대를 보낼 것이면 일본도 군대를 보내어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을 보호할 것이라고 하며 군대를 보냈다. 이것이 日淸戰爭의 시초다”라고 하였다. 제8권에서도 일본에 관하여 5과를 제공하고 있다. 학부편찬의 《日本歷史》에 있어서도 임진왜란을 기술하는 대목에서 일본의 전승을 크게 다루는 반면에 한국과 명의 승리를 비교적 가볍게 다루었다.⁷⁾

교과를 통한 친일교육은 위에 열거한 《일어독본》이나 《일본역사》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학부편찬의 다른 교과서에서도 모두 이러한 방향으로 나

7) 吳天錫, 《韓國新教育史》(現代教育叢書出版社, 1964), 172~173쪽.

타났었다. 어디까지나 일본에 유리한 설명임은 물론이다. 이에 《大韓每日申報》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일어로 친일교육을 하는 학부방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논평하였다.

학부참여 幣原坦이 한국 아동의 초등교과를 日文으로 하는 사건에 대하여 … 若使幼穉之童으로 不學自國之言文하고 先習 他國之言文이면, 自國之思想이 不存하고 自國도 정신이 全銷하여 그 국가와 민족이 必永滅乃已니 … 今韓國學部에 소위 대신이니, 협변이니, 국장이니 하는 허다한 관인이 모두 한날 幣原氏 지도하에 굴복하여 莫敢以一辭抗論하니 이것은 韓國無窮之慘禍가 實原因於學部니 可勝切痛하며(《大韓每日申報》, 1906년 3월 29일).

이 같이 정부는 무력하여 통감부의 친일교육시책에 맹종하였으나 국민과 언론은 이에 완강히 저항하였다. 그리하여 교육면에 있어서 이 저항은 통감부가 세운 관립학교를 거부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통감부는 일본어 정책과 친일교육이 한국인의 반감을 사고 있음을 알고, 한국정부의 이름을 빌어 학부발간으로 내고 있는 《韓國教育》이란 책을 통하여 이를 아래와 같이 변명하고 있다.

日語를 필수로 하여 보통학교 초급년부터 이를 과한데 대하여 한국인은 이것이 한국언어를 말살하고 한국의 국민성을 말살하려는 기도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더욱 地方民 중에는 일어를 가르쳐서 후일 일본의 병정을 만들려는 저의가 있다고 보고, 또는 일본에 납치해서 노동자 또는 노예로 만들려 한다는 웃지 못할 천박한 오해도 많이 하는 모양이다(學部, 《韓國教育》, 1909, 10쪽).

또 통감부는 교육내용을 통제함으로써 친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모든 학교로 하여금 학부편찬의 교과서를 사용케 했다. 이러한 도서가 없거나 다른 도서를 교과용으로 사용하려 할 경우에는 미리 당국의 엄격한 檢定 또는 認定을 받도록 하였다.

(5) 일본인 교원배치

통감부는 또 교육침략의 방편으로 일본인 교원 배치에 중점을 두었다. 그들은 동화정책의 한 방법으로 일어교육과 동시에 보통학교, 고등학교, 사범

학교, 외국어학교 등 관·공립학교와 그리고 각급 사립학교에 일본인 교원을 초빙케하여 학교운영의 실권을 장악하도록 했다. 이는 물론 소위 ‘模範教育’을 실시한다는 명분하에서였다.

당시 학부차관 다와라는 이 모범교육과 이에 따른 일본인 교감의 필요성을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대저 모범교육이란 교육의 모범을 사실에서 보여준다는 것이니, 着實勤勉 다른날 善良한 국민으로서 그 본분을 그르치지 않을 청년자제를 양성함과 동시에 다른 여러 학교가 이를 따르게 되어 遊惰輕薄 쓸데없이 시사를 논의하던 고내의 폐습을 矯正하는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학과목은 처세에 필수한 것을 골라 국어·한문·일어는 물론 산수·地歷·이과 등 실제 생활에 適應近切한 지식기능을 가르친다. 특히 중요시하여야 할 것은 德育인데, 이에 관해서는 儒道の 기본인 五倫五常의 도를 주안으로 하고…이 취지하에 정부는 명치 39년(1906) 이래 전국 樞要地點에 보통학교를 세우고…1교에 만드시 1인의 일인 교원을 두어 教監으로 하여…경영의 主腦로 삼아서 한인 교원을 지도한다(倭孫一, 《韓國教育の現狀》, 學部, 1910, 6쪽).

그리하여 통감부는 특히 관·공립 보통학교와 보조지정 사립학교에 의무적으로 일본인 교원을 1명씩 배치하였는데,⁸⁾ 보통학교에 온 자는 ‘教監’이라고 하고, 고등학교 정도는 ‘校監’이라고 하였다.

당시 보통학교의 교장은 관찰사나 부윤 등이 겸임하고 따로 전임교장을 두지 않았는데, 각 학교에 교감은 일본인으로 배치하였던 만큼 사실상 학교는 일본인 지배하에 움직였던 것이다. 이러한 일은 중등교육기관—고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대해서 통감부는 또 아래와 같이 변명하고 있다.

신학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경험과 소양이 결여되어 있는 한국인에 방임하여서는 도저히 개선의 實을 올리기 어려우므로 일본인 교원을 교빙하여 학교경영과 교수의 任에 당하게 하였다(學部, 《韓國教育의 既往와 現在》).

이 말은 어디까지나 변명이다. 실은 한국의 교육을 그들의 지휘하에 둬

8) 學部, 《教科用圖書一覽》.

로써 친일교육을 강화하려는데 그 참된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이때 《大韓每日申報》 논설에서는 일본인교사의 학교에 대한 영향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학부에서 일본인 100명을 聘渡하여 전국 보통학교의 기관을 주장하게 한다고 근일 각 신문에 보도하였더라. 오호 此說이여 … 此說이 果信인대 此實 한국내의 2천만 喉가 일시 俱咽하며 4천만 目이 일시 俱당하여 放聲할 자로다(《大韓每日申報》, 1908년 2월 15일).

당시 일본인교사가 학교에서 차지한 영향력은 막대하였고 시간이 갈수록 그들에 의한 친일교육은 더 강조되었다. 이에 대하여 또다시 《대한매일신보》는 아래와 같이 말해주고 있다.

매일 아침에 다수 학생이 실내에 모이면 일인교사가 氣를 厲하고 兀立하여 呼名闕點한 후에 번역자를 左에 立하고 각 학과를 日語로 교수할 새 … 일본만 찬미하며 於是乎心腦幼穉한 한국 아동은 그것만 國仰하고 이를 믿으며, 자국에 대한 정신은 消融되며 자국을 위하는 기개는 퇴폐하여 表現히 自怪하며 公연히 自疲하노니, 오호라 我가 이것을 規함에 자연히 太息함을 不禁하니 …(《大韓每日申報》, 1910년 5월 12일).

그러나 당시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일본인이 교편을 잡는다는 것과 일본어를 가르치는 것은 그들의 이익을 도모함에 있다고 생각하여 자제들을 계속 사학에 보내었다. 이에 통감부 당국자들은 학부모 간담회를 갖는다든가 혹은 졸업식·입학식 등을 이용하여 학부모를 회유해 가면서 한국인 자제를 관·공립학교로 입학시키도록 하는 등의 온갖 교묘한 수단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통감부의 교묘한 수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일본인 교사에 대한 배척운동을 곳곳에서 전개했다. 그 한가지 예를 《대한매일신보》는 아래와 같이 전해 주고 있다.

청년학교 전문공업과 교사 日人 모씨가 과정을 교수할 시에 多有模糊說去處하므로 그 학도가 일제 반대하여 그 일인 교사 모씨를 解遣하였다더라(《大韓每日申報》, 1907년 5월 2일).

그런데 학부대신 이완용은 1908년 5월 열린 관찰사회회에서 “日語를 과하고, 일본인을 초빙하여 직원을 삼는 것을 비난하는 자가 있다”고 하고는 다시 “현재와 장래에 있어 일어 修得이 가장 긴요한 일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신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그에 대한 경험있는 사람을 쓰는 것은 그 효과를 확실케 하려는 데 지나지 않는다. 기회를 엿보아 그 의심을 풀도록 하여 줄 것을 희망한다”고 훈시한 바가 있다.

私學에 일본인 교원을 배치한 것은 1908년 사립학교령 공포 이후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1909년 6월 21일에 통감부는 30개소의 사립학교에 학교당국이 원하는 원하지 않는 강제로 일본인 교원을 배치하였다. 사학에 배치된 일본인교원은 그들 중에서도 능수능간이 있는 인물을 골라서 배치하였다. 이를테면 培材學堂에는 평균 3, 4명의 일본인 교원이 늘 있었는데 그들은 한국인의 감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세심한 주의를 하였다.

첫째로 한국인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둘째로 선교사들의 비평을 받지 않도록 하면서 그들은 서서히 한국인에게 친일사상을 피하여 보려고 힘을 썼다. 사학에 들어 보낸 일본인 교사는 한국인 교원이나 학생의 사상을 감시하는 동시에 정치적 음모의 사명도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보면 통감부의 교육방침은 결국 한국을 완전히 동화시켜 한국 민족성의 자취를 서서히 없애 버리는데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막중한 영향력을 가졌던 어느 일본인이 1906년 매켄지(A. Mckenzie)에게 아주 솔직하게 고백한 말로도 알 수 있다.

당신은 내가 당국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주기 바라오. 그러나 당신이 우리 정부의 정책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인가를 나 개인에게 묻는다면, 거기에는 한가지 결말이 있을 뿐이라고 나는 대답하고 싶소. 그것은 여러 세대가 지나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오게 될 것입니다. 한국민족은 일본인으로 동화되고 말 것이오. 그래서 그들은 우리 일본말을 쓰게 될 것이며, 우리가 사는 생활방식대로 살고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 필요한 부분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식민지 통치방법에는 오직 두 가지가 있을 뿐이오. 하나는 식민지의 사람들을 異邦人으로 지배하는 것으로, 이것은 당신들 영국인이 인도에서 취한 방법인데 이러한 방법을 썼기 때문에 당신네 나라는 더 견디낼 수가 없는 것이고, 인도는 결국 당신네의 지배를 벗어 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오. 그 다음

두번째 방법은 동화정책으로 우리들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의 언어를 가르치고 우리의 제도를 실시하여 그들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오(F. A. McKenzie, *Korea's Fight for Freedom*, Reprinted by Yonsei University Press, 1969, pp. 107~108).

이와 같이 통감부는 그 교육방침을 한국인에 대한 우민화정책, 일본어의 보급, 점진적인 동화정책, 교과를 통한 친일교육, 일본인 교원배치 등에 두고 식민지교육의 정지작업을 해 나가기 시작했다.

2) 민족사학의 발전과 설립 이념

(1) 민족사학의 발전

가. 사인 중심의 사학발전

갑오경장은 안으로부터의 자각과 충분한 기초작업 위에서 다져진 개혁이 아니라 일제로부터의 정치적 종용과 개입에 의하여 이루어진 개혁이기 때문에 알맹이 없는 혁신에 지나지 못한다. 따라서 이는 뒷날 일제의 한국침략의 발판이 되는 길이 되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갑오경장은 근대화의 요소를 지니고 있기는 하였으나 新學制의 제정도 실재상의 개혁이라기 보다는 제도상의 개혁에 지나지 못하였다. 이는 黃玹의 언급을 통해 알 수 있다.

학부에서는 학교를 세운다고 하였는데 内部에서는 혁파한다고 하여 한가지 公帖에 硃筆로 이리 고치고 훌쳐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이 현란하게 하고 있으니 …(黃玹, 《梅泉野錄》 권 6, 〈言事疏〉).

그래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공립학교보다 더 활발하게 전개된 것은 민간인 사립학교였다.

민간인사학은 기독교의 직접적인 영향의 학교라고는 말할 수 없으나 대체로 기독교선교에 의한 학교설립이라는 대세와 당시 사회의 요청인 개화열에 커다란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 개화열은 일본에서 유행되고 있던 ‘개화’, 중

국에서 유행하고 있던 ‘自強’운동에서 영향을 받았다. 당시 개화와 자강은 선진 외국기술을 받아들여 나라를 부강케 하고 文明化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개념으로 共用되고 있었던 것 같다.⁹⁾

당시 다수의 지식인들은 개화와 자강만이 나라의 힘을 키울 수 있고, 그 힘을 갖기 위해 ‘교육’과 ‘산업’을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했다. 1897년 8월 29일에 열린 독립협회 주최 제1회 토론회 주제인 〈조선의 급선무는 교육〉이라는 것도 당시 사회의 캐치프레이즈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선각적 지도자들은 이에 대한 계몽활동에 힘쓰는 한편 전국 각처에 사립학교를 세워 교육의 진흥을 꾀하였다. 물론 이 교육운동은 당시의 긴박한 정세하의 강한 정치적 요구와 결부되어 진행되었음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이는 한말에 전개되었던 우리의 민족주의가 자기발생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통하여 외부의 힘에 자극되어 일어난 非西歐型的 민족주의임을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은 자기를 방위하려는 운동이요, 다른 민족의 지배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려는 운동이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서 초보적인 교육기관이 생겼고 이를 토대로 중등교육기관이 설립되었는데, 당시 사학의 설립이 도시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방 농촌에까지 파고 들어갔음은 주목할 일이다.

이 때 독립협회와 《독립신문》은 소학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어느 정도 정착되면 중학교와 대학교를 설립해서 국민에게 고등교육을 시킬 것을 구상하였다.¹⁰⁾ 즉 《독립신문》은 전국 주요도시에 중학교·실업학교·전문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 서울에 대학교를 설립하여 학생들에게 전문교육을 시키게 되면 ‘신교육’ 실시의 제1차적 사업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같이 《독립신문》이 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까닭은 국가의 전반적 개혁을 민권의 신장에 두었으므로 국민이 신지식을 배우고 세계의 사정을 알아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朴殷植 역시 사학의 흥학을 더욱 도모하기 위하여 1905년의 《學規新論》에서 전국의 市邑鄉村에서는 소학교를 설립하도록 하고 出捐을 많이 하는 국

9) 李光麟, 《韓國開化史研究》(一潮閣, 1969), 23쪽.

10) 《獨立新聞》, 1898년 7월 6일.

민에게는 포상을 주어 이를 권장하면 사립학교의 설립이 급격히 일어날 것이며, 전국의 각 府에서는 중학교를 설립하고, 國都에는 대학교를 설립하여 학교교육의 단계적 체계를 긴급히 확립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¹¹⁾

당시 대표적 언론기관인 《皇城新聞》은 국세를 만회하는 길은 학교설립으로 교육을 진흥시켜서 실력을 양성하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가령 을사조약 체결전의 이 신문논설을 보면, 〈論法學校成立〉(1905. 2. 17) · 〈國力振興在教育發達〉(上, 下)(1905. 3. 8, 9) · 〈賀學校之鬱興〉(1905. 3. 24) · 〈愛國由於開明〉(1905. 9. 13) · 〈學部는 廢止언정 學校는 不可廢〉(上, 下)(1905. 10. 5, 6) 등이 있다.

이렇게 교육진흥문제가 압도적으로 많고, 더욱이 을사조약체결 후에는 다 음과 같이 증가하여 〈謝孫秉熙氏熱心教育〉(1905. 12. 14) · 〈賀圖書館之設立〉(1905. 12. 15) · 〈對慶北觀察使申泰休氏興學訓令警告全省〉(1906. 3. 26) · 〈對申觀察使興學訓令警告實行〉(1906. 3. 27) · 〈賀大同圖書館之設立〉(1906. 3. 28) · 〈興學詔勅函宜實行〉(1906. 3. 29) · 〈學部教科書問題〉(上, 下)(1906. 4. 5, 6) · 〈平安道學校振興事業〉(1906. 4. 7) · 〈警告于學校設立之人〉(1906. 5. 23) 등이 있다.

이처럼 신문의 논조들이 교육진흥문제에 거의 전적으로 경주하였고, 특히 경북관찰사 申泰休(조선일보사장 申錫雨의 부친)가 도내의 학교설립을 위하여 도민에게 훈령한 〈興學訓令〉은 1906년 4월 19일부터 3면 잡보란에 연 5일간 게재되고, 이어서 고종이 〈興學大詔〉를 공포하자(1906. 3. 28) 이를 대서특필하는 등 이 신문이 얼마나 학교의 설립과 발전을 중요시했는가를 알 수 있다.¹²⁾

閔永煥은 1895년 興化學校를 설립했다. 이 학교는 민영환이 34세에 特命全權公使로 미국 · 영국 · 화란 · 오스트리아 · 독일을 거쳐 페테르그라드에서 러시아황제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에 참석한 후 돌아와 외국어와 선진기술을 가르치기 위하여 세운 것이다. 여기서는 주로 영어와 일어 이외에 측량술을 가르쳤고, 科로는 尋常科 · 特別科 · 量地科를 두었다.

11) 愼鏞度, 〈朴殷植의 教育救國思想에 대하여〉(《韓國學報》1, 一志社, 1975), 75~76쪽.

12) 趙容萬, 〈日帝下의 우리 新文化運動〉(《日帝下의 文化運動史》, 民衆書館, 1970), 11~12쪽.

1900년 7월 3일자 《황성신문》에 의하면 “再昨日 2시에 홍화학교에서 방학식을 집행할 새 심상·특별·양지 三科 學員數 130여 인이라”¹³⁾ 한 것으로 보아, 상당한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잘 아는 周時經도 배재학당 보통과를 졸업하고 1906년 6월에 홍화학교 양지과(측량과)에 입학하여 동년 11월 졸업하였다. 그 때 우리 나라에서는 전국적으로 토지 측량이 되어 있지 않아서 測量師가 장차 많이 채용될 것으로 예측하고 측량술을 수학하였던 것이다.

민영환은 홍화학교 설립뿐 아니라 황실의 군악대를 창설하는 데도 크게 공헌했다. 그는 러시아황제 대관식에 참석한 후 고종에게 군대와 정치의 근대화를 상주했고 또한 군대의 사기양양을 위하여 서양식 군악대를 창설할 것을 상주하였다. 그의 이 상주가 실효를 얻어 1899년도 예산안에 軍樂隊費가 반영되었고, 다음해에는 군악대창설을 공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 지도자를 물색하던중 일본에서 다년간 음악교사로 일한 바 있고 악대도 지휘한 바 있는 독일인 프란츠 에케르트(Franz Eckert)와 교섭하여 그를 영접하였다. 그는 악기의 실기와 음악이론에 정통하여 최초의 정식 음악교육가로 일했다.¹⁴⁾

민영환이 순국한 후 홍화학교 교장에는 林炳恒, 부교장 겸 총무교사에 白象圭가 취임하였다. 백상규는 일찍이 미국의 브라운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그 후에는 연희전문학교 교수로 경제학을 담당하였다. 홍화학교와 때를 같이하여 乙未義塾(뒤에 樂英義塾)이, 1896년에는 閔泳綺가 中橋義塾을 시작하였다. 1899년에는 安昌浩가 그의 고향 江西지방으로 돌아가 漸進學校를 세웠다. 이는 西道에 민간인이 세운 최초의 사립학교인 동시에 또한 남녀 공학을 실시한 최초의 소학교이기도 하다.

1901년에는 徐光世 외 수명이 洛淵義塾(뒤에 普光學校)을 창설하여 일어를 가르치고, 잠시 사범과를 두어 교사양성에 힘쓰다가 1916년에 폐교되었다. 1902년에는 牛山學校(懿法學敎)가 설치되고, 1904년에는 尙洞教會 목사 全德基가 靑年學院을 설치하였다. 본래 전덕기는 숫장수였는데 그 후 목사가 되

13) 《皇城新聞》, 1900년 7월 13일.

14) 李有善, 〈西洋音樂·國樂〉(《韓國現代史》6, 新丘文化社, 1971), 436~437쪽.

고 애국지사로서 청년학원을 세운 것이다. 처음에 청년학원은 尙洞 攻玉學校와 기와집 건물을 같이 쓰며 낮에는 공옥학교가 사용하고 야간에는 청년학원에서 중학교 정도의 교육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켰다. 처음에는 기독교청년운동이었으나 범위를 넓혀서 누구나 배우며 애국할 수 있는 청년교육을 목표로 한 기관이었다. 강화도 개화운동의 선구자 李東輝나 수원의 朴勉洙는 청년학원에서 배우고 향리에 돌아가 교육기관을 세워 애국청년운동을 한 사람들이다.¹⁵⁾ 당시 청년학원은 애국지사들의 총집합소로서 기독교 중견인물을 위시해서 盧伯麟·安泰極·李商在·南宮憶·李東寧·李承晚·申采浩·尹致昊·金九·李儁·崔光玉 등의 인물이 모였으며 新民會의 기관학교로서 독립사상 고취에 노력하다가 1914년에 폐교당했다.

1905년 2월에는 嚴柱益이 養正義塾(오늘의 양정중·고등학교)을 창설하였다. 설립자 엄주익은 1904년 軍部協辦으로 도일하여 당시 일본의 문물을 시찰한 후 일본이 서양의 새로운 사조에 접하고 있음에 크게 감명되어, 귀국하여서는 당시 사회의 급진무가 무엇보다도 교육의 보급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리하여 여기에 찬동하는 7, 8인의 발기인과 더불어 나라를 구하는 인재를 배양하기 위해서 ‘蒙以養正’이라는 기치를 높이 들고 私財를 던져 몸소 塾長이 되어 헌신했다.¹⁶⁾ ‘몽이양정’이란 올바르게 길러서 깨우쳐 준다는 뜻이다. 설립 이후 3년이 경과되었을 때, 嚴妃는 1907년 5월 慶善宮과 英親王宮에 수속된 전라남도의 함평·무안·광양 및 경기도의 이천·풍덕 각 군 소재의 토지, 총계 약 200만평을 하사하였다.

1905년 5월에는 李容翊이 교육구국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普成學校(고려대학교 전신)을 창설했다. 이용익이 보성을 세운 것은 그가 일본으로부터 귀국한 이듬해이며, 그가 일본으로 간 것은 그들에 의하여 납치되었던 때문이다. 그는 체류중에 일본의 근대교육기관을 두루 살펴보고, 귀국할 때에는 다수의 도서와 인쇄기를 구입하여 왔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 신교육기관을 창설하고자 한 의도였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황성신문》은 아래와 같이 전하고 있다.

15) 金世漢, 《周時經傳》(正音社, 1974), 100쪽.

16) 韓基彦, 《韓國教育史》(博英社, 1963), 286쪽.

副將 李容翊씨가 일본에 유람하여 일본의 교육제도를 시찰하고 回國時에 각종 서적 3천元 가치를 購來할 계약이 있다 하고 자금을 自辦하여 漢城 내외에 普成學敎 7소를 설립할 계획으로 學部에 청원하고 학교 가옥은 처분을 奉承하여 公廳을 倍有할 터인데 우선 天然亭 앞 俄語學校를 승인하였고 교장은 丁明燮, 金重煥 제씨로 정하고 장차 교육을 크게 발달케 한다더라(《皇城新聞》, 1905년 1월 23일).

이 같이 이용익이 다수의 도서와 인쇄기를 구입한 것은 학교교재를 출판하기 위한 인쇄소설립을 이미 머리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서거한 후 손자 李鍾浩가 잠시 학교경영의 책임을 맡다가 1910년 천도교에서 학교경영을 인수했다.

그러다가 1905년 을사조약을 전후하여서는 이 땅에 수많은 私學이 세워졌다. 일반 국민들 역시 민족의 장래가 청소년의 교육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교육면의 혁신을 가져왔다. 이에 대하여 북한에서 일하고 있던 한 선교사는 이 교육실정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교육혁명의 진행중에 처하여 있다. 기독교나 비기독교 기관을 막론하고 학교들이 하루밤 새에 생기곤 한다. 관찰사가 학교를 시작하고, 군수가 학교를 세우고, 면장이 학교를 시작하고, 동장이 학교를 세우고 있다 … 선생 한 사람을 놓고 서로 빼앗아 가려 한다. 봉급이 올라 갔고, 평양 崇實學校 졸업생이 때를 만났다 … 교육관념이 크게 달라지고 초빙하는 敎員型도 변하여지니 구식 서당의 위신이 떨어지고 한문과 서양과학의 지식을 겸비한 선생들만이 자리를 차지케 되어 있는 현상은 참 흥미있는 일이다(L. G. Paik,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s in Korea*, Pyen Yong ; Union Christian College Press, 1929, pp. 391~392).

을사조약 이후 개인이 세운 사립학교를 보면 1906년 5월에는 閔泳黉가 사재를 던져 微文義塾을 설립하였다. 민영휘는 평안도관찰사를 거쳐 좌찬성에 이른 한말 관계와 제계를 주름잡던 인물로 그는 청·러시아 세력과 결탁하여 일본의 세력을 이 땅에서 몰아내려고 한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처음 교명은 廣成義塾이었는데, 휘문의숙이란 교명은 고종황제에 의한 賜名이다. 이는 그의 이름 끝자 微에다가 ‘文’자를 합쳐 명명한 것이다. 동교에서는 부대사업

으로 徽文館을 두어 교과서 및 기타 서적까지 출판했다. 1906년 7월에는 南宮億이 강원도 양양에 峴山學校를 세웠는데, 이는 지금의 襄陽高等學校의 전신이 되었다.

1906년 9월에는 普成館의 설립자인 이용익이 다시 普成中學校(오늘의 普成中·高等學校)를 설립했다. 초대 교장에 申海永이 취임하여 신입생 240명을 모집하고 동년 9월 22일 서울 中部 礪洞(現 壽松洞)에서 개교하였다. 또 이해 12월에는 中東學校가 세워졌다. 처음에는 申圭植에 의하여 漢語夜學으로 출발했으나, 뒤에 崔奎東의 경영으로 넘어가 오늘날 중동중·고등학교로 발전하였다. 중동학교의 설립 경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관립 한성한어학교 내에 설립한 漢語夜學은 지난 봄에 학부의 인가를 얻어 개막하였으나, 출석 생도가 영성할 뿐 아니라 제반사가 미비하여 개교식의 거행 없더니, 지난 달에 漢語敎官 柳光烈씨와 그 당시 班監 崔興模氏는 某某學員의 동의에 의하여 日語學 일과를 첨가하고 학원을 모집하니, 생도의 입학이 一增月加하여 출석 생도가 60여 명에 달한지라, 교무를 확장하기 위해 약학의 명칭을 고쳐 中東學校라 명명하고, 교장은 吳在昌씨로 漢語敎師는 柳光烈씨로 日語敎師는 朴在肅씨로 교감은 崔興模씨로 선정하고 지난달 28일에 개교식을 거행하였다(《大韓每日申報》, 1907년 1월 5일).

이 때 최규동은 중동학교의 설비를 갖추고 민족정신을 고취시켜 후일 독립쟁취의 토대를 닦고, 자칫하면 좌절하기 쉬운 민족의식을 이 나라 청소년들의 가슴 속에 불어넣기 위하여 1주일에 50여 시간을 가르쳤다.

그런데 1907년에 일본은 丁未 7조약으로 황제를 폐하고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하였다. 이 때 《皇城新聞》은 나와 국가의 일체감을 강력히 주장하며 나섰다.

오늘의 우리 한국은 열강에서, 諸人種에서 어떤 지위에 있는가, 위험하니 우리 동포여 분발하며 청년들은 일어나서 2천만의 입으로 세계에 큰 소리로 외쳐 4천만의 눈은 이 세태를 주시하라... 청년들은 시세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알고 힘쓰라(《皇城新聞》, 1907년 5월 13일).

바로 이해 2월에 島山 安昌浩는 미국에서 귀국하여 자아혁신과 자기개조

를 통하여 민족혁신과 민족개조를 이룩하려고 했다. 그는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며 교육 유세를 하게 되었는데, 그 강연은 아래와 같은 내용이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이제 이방인이 이 땅의 주인인 양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모두 개화한다면 그들은 이 땅을 강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도덕은 의지의 표현입니다. 勇於公戰하고 怯於私鬪하는 우리가 됩시다. 조국 回天의 妙는 덕·체·지의 三育입니다. 勇於公戰하고 怯於私鬪하는 우리가 됩시다. 여러분. 학교를 세워 務實力行하는 인재를 키워 봅시다.

안창호의 이 같은 강연을 들은 각 곳의 군중들은 저마다 교육을 통한 인격완성과 국권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지니게 되었다. 안창호는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우선 평양에 大成學校를 세우게 되었다.

대성학교 설립에는 鐵山의 吳熙源이 5천원, 평양의 金鎭厚가 3천원, 선천의 吳致殷이 2천원의 거금을 회사했다. 대성학교 개교일에는 입학생이 90여 명에 달했으며, 내빈이 1천여 명 참석했는데,¹⁷⁾ 한때는 크게 발전하여 입학 지원자가 500~600명이 몰리는 때도 있었다. 1910년부터는 夏期 師範講習所를 부설하여 그 소장을 張膺震에게 맡기고 소학교 교사들의 재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¹⁸⁾

李光洙는 그의 작품 《無情》에서 대성학교 成校長의 연설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여러분 … 여러분의 조상은 여러분과 같이 마음이 썩지 아니 하였고, 여러분과 같이 게으르고 기운없지 아니 하였소. 평양성을 쌓은 우리 조상의 기상은 웅대 하였고, 을밀대와 부벽루를 지은 우리 조상의 뜻은 컸소이다(李光洙, 《無情》 前篇, 耕眞社, 1954, 134쪽).

다시 이광수는 주인공인 형식과 세 처녀 사이의 대화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아래와 같이 강조하고 있다.

17) 《大韓每日申報》, 1908년 9월 30일.

18) 《大韓每日申報》, 1910년 1월 16일.

과학! 과학! 하고 형식은 여관에 들어와 혼자 부르짖었다. 세 처녀는 형식을 본다. 조선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과학을 주어야 하겠어요. 지식을 주어야 하겠어요 … 힘을 주어야지요! 문명을 주어야지요! 그리 하려면? 가르쳐야지요! 인도해야지요! 어떻게요? 교육으로, 실행으로 …(李光洙, 《無情》後篇, 耕眞社, 1954, 220~221쪽).

당시 대성학교 학생이었던 金滢植은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1907년 大成學校 설립의 소식이 세상에 전파되자, 이를 聲援支持하는 소리는 全朝鮮을 흔들었으며, 입학 지원자는 조수와 같이 밀리어 불시에 5, 6백 명의 청년이 모이었다 … 그 당시 학교의 과정은 중등학교라 하지마는 지금의 중등학교 보다는 훨씬 고등이어서, 4학년 과정은 어떤 전문학교의 정도와 대등하였고, 학교의 설비도 중등학교로서는 유례가 없을 만큼 완비하였었다(朱耀翰, 《安島山全書》, 三中堂, 1963, 89쪽).

이 때 李昇薰이 평양에서 안창호를 만난 것은 그의 생애의 일대 전환기가 되었다. 자기 주택을 지으려던 건축 자재를 모두 五山學校를 짓는 데 썼다. 그는 기울어져 가는 나라에 대하여 깊이 깨달은 바 있어 定州 향리로 돌아와, 우선 1907년 8월에 초등교육기관으로 講明義塾을 세웠다.

그러나 그는 강명의숙만으로 도저히 만족스런 민족교육을 전개할 수 없으리라 생각하여 중학교 건립을 목표로 활동한 결과 동년 12월에 다시 오산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다. 이승훈이 오산학교를 세우는 데는 당시 평안도관찰사 朴勝鳳의 후원이 컸다. 박승봉이 정주 일대의 유림들을 불러 향교재산을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일부를 떼어 오산학교에 기증하라고 권고하였더니 그들은 순순히 그 재산을 학교에 기부하였다. 그러나 박승봉이 그 직을 떠나게 됨에 따라 1908년 유림에서는 자기네들이 오산학교를 맡아 경영하겠다고 나섰다.

이 때 이승훈은 유림이 학교경영이 목적이 아님을 알았다. 그리하여 그는 단연 향교토지를 반환하고 자기소유 토지 전부를 내놓고 또한 동지들의 도움을 얻어 학교를 계속 경영하게 되었다. 이승훈은 어디를 가나 오산학교를 위하여 가고, 일을 하여도 학교를 위하여, 말을 하여도 학교를 위하여 꿈을

꾸게 되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學校狂·教育狂이라고까지 평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오산은 개교 2주년을 맞을 때에 학생 수가 100명에 이르렀다.

이렇게 오산학교와 대성학교는 같은 뿌리에서 내어 뻗은 두 줄기 푸른 가지였다. 대성학교는 안창호의 망명과 함께 興土團으로 모양을 바꾸었고 오산학교는 줄곧 學園으로 남아 일제의 사나운 서리와 비바람을 맞으면서 뻗어나간 것이 다를 뿐이다.

또 1907년 12월에는 李東輝에 의하여 江華邑에 중학교 과정인 普昌學校가 세워졌다. 그는 이 밖에도 강화군내에 21개의 소학교와 支校를 설립하는 한편, 開城普昌學校·長湍普昌學校·豐德普昌學校·金川普昌學校·安岳普昌學校·咸興普昌學校·忠州湖興普昌學校 등을 설립하였다. 여하튼 이동휘는 1907년 군대해산 이후 윤치호·안창호 등과 손을 잡고 개성·평양·원산 등지에 170여 교, 강화도에 만도 73개교에 달하는 학교를 세웠다.

이밖에 1907년에 설립한 사학으로 李鳳來의 鳳鳴校, 柳一宣의 精理舍, 李鍾浩의 鏡城中學校, 金九가 책임자로 있는 楊山小學校 등이 이름을 떨친 학교들이다. 이 중에서 유일선이 서울 倉洞에 세운 정리사는 수학과 물리학을 주로 가르쳤다. 이 때 周時經은 이 정리사에 입학하여 1909년 12월까지 수학과 물리학을 공부한 면학도였다. 낮이면 攻玉學校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일요일 오후에는 국어 강습회를 열고, 학부의 국문연구소에 나가면서 밤이면 정리사에 나가 배웠다. 그의 우리말의 독창적인 분석은 수리학적 두뇌의 산물이라 하겠다.

1908년 2월에는 전북 김제군에서 이 곳 출신의 선각자 金洪植의 주동으로 같은 마을 김해김씨 문중에서 뜻을 모아 新明學堂(그 뒤 교명은 致文學校)이 설립되었다. 이 학교는 뒤에 김홍식의 집안 아저씨 金致文이 2대 교장으로 취임하면서 매년 1천 5백여 섬의 소유농지 소작료수입을 운영비로 들여 항일정신과 함께 신학문을 농촌 자녀들에게 심어 주었다.

이 때 독립운동가인 金東三도 경북 안동군 임하면에서 전국 유림의 완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1908년에 協東學校를 세워 동지들의 추천으로 교감이 되었다. 이 학교는 3·1운동 때까지 유지되어 많은 인재를 길러 내었다. 한

편 김동삼은 1909년에 동지 朴重華・南亨祐・安熙載 등과 힘을 모아 비밀 청년단체인 大東靑年團을 결성하고 영남 일대의 단원가입과 교양선전에 정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한편 1908년 9월에는 張志暎・閔樞 등에 의하여 昭義學校가 설립되었는데, 그 뒤에 이 학교는 東星商業學校로 개칭되었다. 그리고 1909년에는 金鴻亮의 발의로 楊山小學校 자리에 중학교를 설치하고 교육문화운동의 진폭을 넓혀 놓으니 황해도 일대의 뜻있는 청소년들이 모두 이곳으로 모여 들었다.

이러한 私人중심의 학교 설립자나 교사는 모두 개화운동의 선각자요, 독립운동의 志士요, 애국자로서의 민족적인 긍지와 신념을 함께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오늘의 우리는 이들을 통하여 자주성과 주체의식을 배워야 할 것이다.

나. 학회중심의 사학 발전

위에서 살핀 것처럼 1905년 11월 소위 을사조약 이후에 가장 두드러지게 높아진 것이 교육열이었다. 즉 배우는 것이 힘이라는 것이 당시 지식층의 일치된 견해였다. 그리하여 사학의 설립이 곧 교육구국운동이라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민족운동을 하던 애국지사들도 직접 교육사업에 종사하거나 교육단체를 조직하여 더욱 교육열을 북돋아 주었다.

이러한 사학설립의 붐은 표면적인 정치활동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 데 따른 새로운 자주독립운동의 한 방법이었다. 이들은 학교를 설립하기 전에 우선 교육기관으로 학회를 만들었으니, 大韓自強會・西北學會(西友學會・漢北興學會)・皇城中央學會・湖南學會・嶠南教育會・大東學會・女子教育會・太極學會・大韓興學會・大韓同寅會・大韓學會・關東學會・輔仁學會・國民教育會 등이 그것이다.

당시 교육을 지도한 기관은 학회였다. 1904년 9월 국민교육회가 조직된 뒤 을사조약 후부터는 우후죽순처럼 학회가 조직되었다. 국민교육회 규칙 제3조에는 아래와 같이 교육사업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

(ㄱ) 學校를 廣設할 事.

(ㄴ) 文明的 學問에 응용할 著作을 편찬 혹은 번역하여 刊佈할 事.

(ㄷ) 本國史記와 地誌와 古今 名人傳蹟을 모집 廣佈하여 國民의 愛國心を 鼓動하고 元氣를 배양할 事.

을사조약 이후에 창립된 위의 학회들 가운데 장지연 등이 1906년 4월 헌정연구회를 개편하여 만든 대한자강회는 ‘산업과 교육’을 슬로건으로 내건 전국적인 규모이고, 그 나머지 학회들은 모두 그 지역사회의 개발과 발전을 표방하면서 조직된 학회이다.

기호흥학회—경기도·충청도

서우·서북학회—평안도·황해도

호남학회—전라도

관동학회—강원도

교남교육회—경상도

한북흥학회—함경도

이때는 또 교육을 진흥키 위하여 군 단위의 학회도 생겼다.

함남교육회—함남 永興郡 南川里

開城學會—경기도 開城郡 西部

萍北耶蘇教育會—평북 宣川邑

이들 학회의 취지는 모두 청소년의 교육을 계도·면려하여 국권을 회복하는데 두었다. 대한자강회나 서우학회의 취지문을 보더라도,¹⁹⁾ 학회를 창립하는 목적이 국권을 회복하고 인권을 신장함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특이한 존재는 1908년 3월에 조직된 輔仁學會로, 그 발기인은 현역 군인 또는 군출신의 인사들이라는 점이다. 鄭炫은 보병정 尉(대위)였고, 韓吉皓는 보병副尉(중위)였으며, 吳惟永은 보병정위로 후일 華城郡守를 지냈으며, 金敎先은 騎兵정위로 기병대장 부관이었고 金基元은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나와 공병중좌를 지낸 바 있는 퇴역군인이었다.

이들은 1907년 8월 1일 군대해산이 있은 후 간신히 남아 있게된 연대병력 시위대원들이었는데, 이 시위대는 都染洞과 典洞 두 곳에 주둔하면서 경복궁 경호의 임무만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들은 도렴동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들이었으므로 상변을 마치고 하변이 되는 공통 下番日인 매월 5일을 閑日로 삼아 친목회를 가진 것이다. 모임에서 항상 거론된 것은 ‘開明國民의 創造’라는

19) 歷史學會, 《韓國史資料選集》V(一潮閣, 1973), 222쪽.

것이였다.

이 때 韓晩容은 학회명을 ‘輔仁學會’라고 명명했는데, 이는 《論語》〈顏淵篇〉의 “會子曰 君子는 以文會友하고 以友輔仁이니라”고 한 것에서 인용한 것이다.

‘聖人の 글에 以文會友하고 以友輔仁이라’하였으니, 이 이상 아름다운 말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輔仁學會라 명명한다. 공교롭게도 輔民會와 仁友會가 서로 유대하여 구국을 꾀하고 있으니 ‘輔’와 ‘仁’이 합하면 輔仁이 되는지라, 이 어찌 기이한 일이 아니겠는가.

여기서 輔民會라 함은 보민학회를 조직하기에 앞서 만든 친목회를 말함이고, 仁友會는 한만용 등이 조직한 친목회이다. 이 같이 1908년 3월 8일 보민학회가 결성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共生社・東新社・永益社・大德社・永興社・內資社 등의 契 조직체 경제인을 위시하여 人力馬夫・기생・상인・공인・청소부・노동자 등 각계 각층 500여 명이 회에 가입하여 명예로운 輔仁學會員으로 학교설립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다.²⁰⁾ 이들 회원은 일제침략에 항거하여 조국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오직 교육구국뿐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위에 말한 학회들은 그들 학회의 부속기관으로 사학을 세우는 한편 ‘國家의 存亡은 교육에 좌우된다’는 것을 창도하니 이에 자극되어 경향 각지에서 수많은 학교가 열리게 되었다. 그 때 학회 설립에 대해서 《梅泉野錄》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關西人은 학회를 京師에 세우고, 이어서 關北人은 漢北興學會를 모두 本會를 京中에 설치하고 그 支會를 외부에 許하니, 是時에 학교와 사회단체가 國中에 가득하였다. 학교는 관서가 더욱 성하여 龍川 一郡만 하여도 二十餘區에 달하였다(黃玿, 《梅泉野錄》 권 5, 광무 10년 9월).

1906년 11월 평안도 龍川郡 光化面에 光華學校가 세워졌을 때 학생이 지은 頌祝歌에는 이런 글이 보인다.

20) 輔仁中・商業高等學校, 《輔仁七十年史》(1978), 23~26쪽.

어화 우리 學徒들은 大韓 義務生覺하세
 而今 世界 何時代노 競爭列強 大峙로다
 優勝劣敗 固然하니 箇人進就 안할손야
 自暴自棄하지 말고 自國精神 收拾하여
 敎育・殖産・工業으로 開明發達 目的일세
 (《大韓每日申報》, 1906년 12월 15일).

서북학회로 통합되기 전 西友學會는 교육구국에 있어 교사양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여, 1907년 1월 15일에 西友師範學校라는 速成師範科 夜學校를 설립하였다. 초대 교장은 朴殷植, 교감은 金達河였다.²¹⁾ 동년 3월 11일에 安昌浩는 서우사범학교 개교식에 참석하여 崔光玉과 함께 경축 강연을 했다.²²⁾ 이때 박은식은 〈師範 養成의 急務〉란 제하에 이렇게 말하였다.

今日 敎育방침에 대하여 최선 급무는 사범 양성이 是라. 蓋 학생은 국가의 기초요 蒙學은 학생의 기초라 蒙學이 無하면 완전한 학생이 無할 것이요 완전한 학생이 無하면 어찌 완전한 국가가 있으리오 惟是 완전한 蒙學을 건립코자 할진대 必先 완전한 사범을 배양할지라.

서우사범학교 졸업생들은 황해도와 평안도 각 사립학교에 교사로 派途할 계획이었지만 어느 정도의 졸업생을 배출시켰는지는 알 수 없다.

한편 1907년 1월에는 함경도 유지들에 의하여 漢北興學會가 조직되고, 이어 漢北義塾의 설립을 보게 되었다. 한북의숙의 學員모집 광고는 아래와 같다.

本회에서 함경남·북도내 敎育을 확장하기 위하여 우선 본관내에 附屬設塾하고 속성으로 교사 배양을 주의하여 이에 과정 및 개학일자를 左開 광고하오니 在京居鄕을 물론하고 屆期入學함.

연령 22세 이상 40세 이하 독서 庸學論孟歷史

작문 국한문 산수 초보

과정 속성기한은 1개년으로 함

皇城中暑麻洞 二十統 三戶 漢北興學會(《皇城新聞》, 1906년 12월 31일).

21) 朱耀翰·鄭英助, 《保護條約時期的 學會 및 團體運動》(大成文化社, 1965), 2쪽.

22) 《大韓每日申報》, 1907년 3월 16일.

그 후 1908년 한북흥학회는 서우학회와 합동하여 서북학회라 개칭했다. 이 서북학회의 개회식에 참석한 바 있는 金允植은 그의 일기에서 아래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

校洞 서북학회 개회식에 참석하였다. 처음에 평안도 사람 중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西友學會를 설립하였고, 함경도 사람 중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또한 漢北學會를 설립한 바 있었다. 이번에 양쪽 지방 사람들이 학회를 통합하여 서북학회라 하였다. 회장은 鄭雲復, 총재는 李道宰, 총무는 金達河였고 西北 사람들이 구름처럼 이 모임에 모였다. 그들은 차례로 연설을 하였는데 규모는 整肅하고 이야기는 淸亮하였다.

맨 나중에 安昌浩가 연설하였는데 數千 마디의 말을 계속하였다. 그의 말은 흥분과 감격으로 뒤섞여 있었다. 이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은 감동되어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는 미국에 유학한 지 5년이 되었고, 지금 나이는 30세라고 한다. 西北地方의 구름은 열리고 風氣는 날로 進步되어 三南地方이 깊이 잠들고 있는 상태와는 다르니 심히 훌륭하고 감탄할 만하다(金允植, 《續陰晴史》하, 권 12, 1908년 1월 10일).

이 같이 하여 서우·한북 두 학회가 경영하던 2개 학교가 통합되어 西北協成學校라고 개칭하였다. 교장에는 이종호가 취임했는데, 이 때 이동휘는 두 학회의 통합을 ‘獨立之基礎’²³⁾라고 했고, 박은식은 두 학회의 통합을 ‘전국 동포의 무궁한 복지를 가져올 단합정신’이라고 하였다.²⁴⁾

한일합병 후 서북학회가 강제 해산됨에 따라 1910년 10월 서북협성학교는 五星學校로 교명을 고쳐 부르다가 1918년 4월에 총독부로부터 폐교 조치를 받게 되었다. 그러다가 1921년 4월에 崔時俊이 五星講習所를 설치하고 1922년 3월에 崔時俊·吳熙源·許憲 등이 설립자가 되어, 다시 교명을 協成學校라 일컬었다. 오늘의 光新中·商業高等學校는 협성학교의 후신이다.

1908년 4월에 경기·충청도의 人士로 결성된 畿湖興學會는 동년 6월에 畿湖學校를 설립하였다. 《畿湖興學會月報》에 실린 기호학교 일련의 회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23) 《西北學會月報》, 1908년 2월.

24) 위와 같음.

隆熙 2년(1908) 5월 20일 임시 評議會에서 本會 총무 鄭永澤씨의 學校 設立 議案을 可受하여 同 6월 1일 특별 총회의 가결로 설립하다.

〈要旨〉 그 설립의 요지는 지방의 교육이 교사의 乏人함을 因하여 발전이 渺然함으로 本校에서 교사 자격을 양성하기 위하여 師範學科에 中等學科를 편성하다.

〈募集〉 6월 15일에 學員을 모집할 時 被選한 인원이 95인인데 시험 방법은 漢文에 宿工이 有한 者와 年 20세 이상자와 地誌・歷史・算術大概를 通曉한 자를 取하다(《畿湖興學會月報》, 1908년 8월).

위에서 말한 것처럼 기호학교 설립의 취지는 지방의 교육이 교사의 빈곤으로 인하여 발전이 미약하므로 유능한 교사를 양성함에 있었다. 초대 교장은 朴勝鳳이었고 1910년에 兪吉濬・吳世昌 등이 설립한 隆熙學校(1909)와 합동하여 교명을 中央學校(오늘날 中央中・高等學校)라 하였다.

大東學會는 1908년에 법률 교육을 목적으로 大東專修學校를, 大韓同寅會에서는 1907년에 同寅學校를 창립하였고, 輔仁學會에서는 1908년 6월에 輔仁學校(오늘의 輔仁中・商業高等學校)를 세웠다. 보인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각계 각층의 민중의 힘에 의하여 세워진 학교이면서 또한 문무정신을 갖춘 학교이었다. 그리고 女子教育會는 부속학교로서 1906년에 養閨義塾과 1907년 4월에 新學院을 설립하였다.

학회중심의 사학설립과 발전은 지방에서도 많이 이루어 졌다. 여기서 일례를 들면 1907년 8월 대한자강회가 강제 해산당한 이후 1908년 國中의 지사들이 大韓協會를 창립하여 국민들에게 독립사상을 고취시키고 정부의 매국정책을 비판할 때 心山 金昌淑은 “지금 문을 닫고 글만 읽을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대한협회 星州支部를 설치하고 아래와 같은 말을 했다.

우리들이 이 會를 설치한 것은 장차 조국을 구원하려는 것이다. 조국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옛 因習을 개혁하는 것부터 시작함이 마땅하다. 옛 인습을 개혁하고자 한다면 계급을 타파하는 것부터 시작함이 마땅하며 계급을 타파하고자 한다면 우리 會로부터 시작함이 마땅하다(金昌淑, 《國譯心山遺稿》 권 5, 甴翁七十三年 回想記上篇).

여기서 심산은 수구파 유럽의 사고에서 벗어나 개혁적인 유럽의 새로운

상을 부각시키고, 곧 뒤이어 그는 晴川書院을 개수하여 사립 星明學校를 설치하여 신교육에 이바지하게 되었다. 晴川은 그의 선조 東岡 金宇顥을 향사하는 祠院으로 고을과 도내 유림이 함께 숭앙하는 곳이었다.

당시 《대한매일신보》는 이 같은 학회중심의 사학발전을 기뻐하여 〈讚韓民之向學〉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은 바 있다.²⁵⁾ 이 사설에서 강조한 것은 물론 인재배출을 통한 문명추구와 실력양성이었다. 이 같은 사학의 설립을 통한 애국열은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우리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블라디보스톡에는 이미 1905년에 啓東·世東·新東의 세 학교가 섰고, 이 밖에 연해주 각처에 1908년까지 11개의 학교가 설립되었다.²⁶⁾

만주 東間島지방에도 사학의 설립은 활발했다. 간도와 龍井村에 한국인 최초의 교육기관인 瑞甸義塾이 李東寧과 그 곳에 먼저 가 있던 李相高·呂準 등에 의하여 1905년에 개교되었다. 서전의숙은 한국의 역사, 지리, 국제공법 등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일본 제국주의의 불의와 새로운 민족의 진로개척을 위한 방향제시에 주안을 두었다. 서전의숙은 개교와 동시에 간도는 물론 국내의 압록강 근처에서도 애국 청소년들이 모여들었다. 서전의숙이 1905년에 설립된 것을 비롯하여 2년 후에는 무려 50을 헤아리는 사학이 일어났다. 그러나 1907년 통감부 출장소가 이 곳에 생김에 따라 일제는 서전의숙을 점수하고 소위 간도보통학교를 세워 한국인의 사립학교에 대항하였다.

한편 1908년에는 서전의숙 출신인 金學淵이 和龍縣 明東村에 明東書塾을 세웠다. 이 명동서숙은 얼마 안되어 明東學校로 발전되었는데, 여기에는 徐一의 힘도 컸다. 다시 이 명동학교는 1910년 3월에 明東中學을 병설하여 김학연의 從弟 金躍淵이 교장으로 부임했다. 교세가 날로 확장되어 가자 국내에서 우수한 선생을 초빙해 왔는데, 젊은 국사학자 黃義敦, 한글학자 張志暎과 朴泰煥이 부임해 갔다. 이들이 부임해서 새로운 윤리와 역사와 철학을 본격적으로 가르치게 되니 만주 일대는 말할 것도 없고 멀리는 시베리아로부터 수백 명의 학생이 명동중학으로 모여들었다. 김학연 교장은 다시 신식교육을 더 널리 보급시키기 위하여 명동을 중심으로 여섯 곳에 야학을 세우는

25) 《大韓每日申報》, 1906년 3월 18일.

26) 李光麟, 〈韓末의 教育〉(《韓國現代史》3, 新丘文化社, 1969), 295쪽.

한편 1911년에 明東女學校를 병설하여 계몽운동에 앞장섰다.

이러한 학교설립은 교육의 백년대계를 획책하는 일로 1910년 이후 많은 망명객을 맞아 더욱 발전되어 1910년까지 만주 東間島 지방에는 무려 130여 교가 생겨 항일 교육운동의 중심지로 발전했다. 참고로 구한말에 설립된 민족사학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²⁷⁾

〈표〉

구한말 설립 민족사학

년 대	학 교 명	설 입 자	소재지
1883	元 山 學 舍	德 源 有 志	元 山
1895	興 化 學 校	閔 泳 煥	서 울
1895	樂 英 義 塾(뒤 乙 未 義 塾)	社 會 有 志	서 울
1896	中 橋 義 塾	閔 泳 煥	서 울
1897	貞 善 女 學 校	金 養 堂	서 울
1898	順 成 女 學 校	讚 揚 會	서 울
1899	漸 進 學 校	安 昌 浩	江 西
1901	文 東 學 院	申 圭 植	清 原
1901	洛 淵 義 塾(뒤 普 光 學 校)	徐 光 世	서 울
1902	牛 山 學 校	梁 在 賽	서 울
1904	靑 年 學 院	全 德 基	서 울
1905	瑞 甸 義 塾	李 相 高	龍 井
1905	養 正 義 塾	嚴 柱 益	서 울
1905	光 成 實 業 學 校	前 少 論 派	서 울
1905	漢 城 法 學 校	社 會 有 志	서 울
1905	普 成 學 校(뒤 普 成 專 門 學 校)	李 容 翊	서 울
1906	徽 文 義 塾	閔 泳 徽	서 울
1906	進 明 女 學 校	嚴 貴 妃	서 울
1906	淑 明 女 學 校	嚴 貴 妃	서 울
1906	愛 國 學 校	社 會 有 志	평 양
1906	普 成 中 學 校	李 容 翊	서 울
1906	中 東 學 校	申圭植(뒤崔奎東)	서 울
1906	峴 山 學 校	南 宮 櫟	襄 陽
1906	養 閨 義 塾	女 子 教 育 會	서 울
1906	華 野 義 塾	李 哲 鎔	抱 川
1907	新 學 院	女 子 教 育 會	서 울

27) 孫仁銖, 앞의 책, 35~36쪽.

——, 《韓國開化教育研究》(一志社, 1980), 125~126쪽.

1907	西友師範學校	西友學會	서울
1907	同寅學校	大韓同寅會	서울
1907	大成學校	安昌浩	平壤
1907	講明義塾	李昇薰	定州
1907	五山學校	李昇薰	定州
1907	普昌學校	李東徽	강화
1907	鳳鳴學校	李鳳來	서울
1907	西北協成學校 (뒤五星學校→光新商業學校)	西北學會	서울
1907	精理舍	柳一宣	서울
1907	鏡城中學校	李鍾浩	鏡城
1907	養實學院	社會有志	義州
1907	楊山小學校	金鴻亮·金九	安岳
1907	保強學校	金九	載寧
1907	長薰學校	社會有志	서울
1908	畿湖學校 (뒤에 隆熙學校와 合同하여 中央學校로 발전)	畿湖興學會	서울
1908	東媛女子義塾(뒤 同德女子義塾)	趙東植	서울
1908	養源女學校	尹高羅	서울
1908	新明學堂	金洪植	金堤
1908	協東學校	金東三	安東
1908	明東學校	金學淵	明東
1908	星明學校	金昌淑	星州
1908	普明女學校	普明女子教育會	서울
1908	養正女學校	崔誠卿	서울
1908	大東專修學校	大東學會	서울
1908	輔仁學校	輔仁學會	서울
1908	昭義學校(뒤 東星商業學校)	張志暎	서울
1909	隆熙學校	俞吉濬	서울
1909	楊山中學校	金鴻亮	安岳
1909	華山學校	閔泳祚	高山(全北)

위의 도표에 나타난 학교는 비교적 이름있는 민족사학들이다. 1908년 사립 학교령이 공포되기 전까지는 사립학교를 설치하는 데 있어 정부의 인가나 필요 없었고, 또 보고의 의무도 없었으므로 정확한 통계를 알 수가 없다.

총독부의 통계에 의하면 1908년 전국의 학교수는 서울 시내 100여 교를 비롯하여 총수 5,000여 교에 달했으며 학생수 20만에 이르렀다.²⁸⁾ 또 《매천

28) 朝鮮總督府, 《朝鮮の保護と併合》(1918), 378쪽.

야록》에 의하면 1910년 한일합병 직전까지 불과 몇 해 사이에 3,000여에 달하는 사립학교가 세워졌다고 한다. 《황성신문》에서도 1907년부터 1909년 4월까지 민중들이 세운 각종 사립학교의 수가 무려 3,000여 교에 달하였다고 보도하고 있다.²⁹⁾

이와 같은 사학의 발흥에 대하여 1907년 이후 한국정부에 일본인으로서 학부차관을 역임한 다와라는 그 원인을 아래와 같이 말해주고 있다.

日露戰爭 후 1905년 제1차 韓日協約 이래 국군의 변천에 조우한 韓人은 그 두뇌에 강한 인상을 받아 교육에 의하지 않으면 국권의 회복을 바랄 수 없다. 특히 1907년의 제2차 한일협약 체결 군대해산 후에는 교육의 필요를 절감하는 念이 激發 울흥하여 解隊의 將士들이 각지에 흩어져 혹은 폭도 草賊(의병을 말함)의 무리에 투신하였으나, 다른 일부는 職을 학교 교사에 구하여 교육열의 격증을 유발하고 그 풍조가 도도히 국내에 미만하여 마침내는 오늘과 같은 다수 사립학교의 설립을 보기에 이르렀다(國史編纂委員會, 《韓國獨立運動史》 I, 1967, 361쪽).

이처럼 일제 통치자들도 급격히 팽창되는 사립학교-신교육의 경향을 보고 “地方長官도 이 취지를 고취하고 학교설립을 촉구했기 때문에 이것이 한 기풍이 되어 산간벽지라 할지라도 한두 학교의 설립을 보지 않은 곳이 없으며, 오히려 濫設되는 경향이라”³⁰⁾ 할 정도였다. 사실 일제가 한국인들의 교육구국운동을 보고 “한국인들은 세 사람만 모이면 학교를 세운다”고 빈정거릴 만큼 이 시기에 한국인들의 교육열은 불타 올랐던 것이다.

(2) 민족사학의 설립이념

우리 나라가 역사적으로 근대화 과정에 들어선 것은 갑신정변·동학농민전쟁·독립협회·갑오경장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갑오경장은 대내적으로는 동학농민전쟁과 대외적으로는 청일전쟁 등 대내외적인 큰 사건에 뒤이어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으로서, 이것은 자율적인 것이 아니고 침

29) 《皇城新聞》, 1909년 5월 8일.

30) 1910년 7월 13일 韓國駐劄憲兵隊司令部에서 개최한 各道憲兵隊長會議席上에서의 依學部次官演說.

략적인 것으로 일제의 강요에 의해 타율적으로 시도된 內政改革이었다.

그러기에 《독립신문》은 ‘獨立’이란 낱말을 사용하며 776회에 걸쳐 논설을 게재하였는데, 이중 정치분야 271회, 사회분야 162회, 사상분야 147회, 교육분야 98회, 경제분야 59회, 문화분야 39회였다. 즉 《독립신문》의 4년간에 걸친 논설의 주안점은, 첫째 자주 독립 및 自強精神의 양양, 둘째 외세 침투의 배격 등으로 집약되었다. 독립협회 초대회장 安駟壽도 《獨立協會會報》 창간호 서문에서 그 설립목적을 ‘독립’의 성취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³¹⁾ 그러니 《독립신문》이나 독립협회가 지닌 개화사상의 다양한 合意를 한데 묶어 구조적으로 파악한다면 ‘독립’이라는 상징개념으로 수렴되는 근대 민족주의의 理念像이 가치포괄적인 최상의 목표로 부각됨을 이해할 수 있다.

바로 여기에 민족사학의 설립이념도 일제의 도전에 대한 대응책으로 나타났다. 그러기에 이 시대 사학의 흥성은 놀라웠다. 민족사학의 설립정신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선진제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려는 개화사상이었고, 다른 하나는 민족주의 정신에서 세워졌다. 말을 바꾸면 민족보전과 근대지향이라는 두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구한말에 우리가 근대지향의 개화운동을 일으킨다는 것은 동시에 민족보전의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되었다. 그러기에 항시 근대화라고 하는 경우에는 으레 그것은 민족보전이나 발전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민족의 발전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물론 근대지향이라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상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당시 사학의 설립 이념의 특이성은 이중 어느 하나만을 추구하지 아니 하고, 양자를 복합적인 일체로 보았다는 점이다.

실로 개항 이래 한국근대사는 다양한 역사적 변동의 소용돌이였으나 그 속에서 전개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운동은 근대적인 ‘국민국가’형성을 위한 민족주의운동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근대국민국가 형성을 위한 민족주의운동이란 기왕의 中華主義的 事大秩序인 천하 안에서 종속적 지위를 가진 ‘나라’를 유지, 회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력균형의 원리에 따르는 새로운 국제질

31) 《大朝鮮獨立協會會報》, 1896년 11월 30일.

서 속에서 ‘생존’을 위해 서로 경쟁하는 서구 근대국가와 같은 ‘주권국가’를 만들려는 움직임을 뜻한다.³²⁾ 따라서 이는 근대의식에 따른 자주 독립의식을 강하게 받아시켰으며 아울러 서구문명에 대한 새로운 의식과 근대화 운동의 기초역량 비축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러기에 처음에 민족사학의 설립이념은 선진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려는 개화사상에서 출발하였는데 일제하에서 점차 ‘교육구국’의 인재양성이라는 민족적 요망에서 설립되었다. 구한말의 서세동점과 일제침략, 특히 일본에 의한 청일전쟁·갑오경장·러일전쟁·을사조약 등은 각각 다른 각도에서 한국인에게 심각한 반성과 커다란 각성을 일으켰다. 이 때 뜻있는 사람들은 남의 나라 군대들이 우리 땅에서 제 마음대로 싸워도 말 한마디 못하는 無爲無能을 통탄했다. 또 허울좋은 독립과 갑오경장은 우리의 뜻에서 된 것이 아니고 일제의 손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았고, 행정기구의 개편, 신교육제도의 이면에도 일제의 마수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음을 알았다.

그러다가 19세기 말 식민지주의 및 제국주의시대를 당하여서는 개화와 독립이 같은 목표의 동전의 양면에 불과하다는 점이 인식되었다. 그 이유는 개화없이 자주독립은 이루어질 수 없고, 또 자주독립을 해야 참된 개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개화·자주독립이란 결국 국민적 자립이며 국가의 자강이다. 자강이 독립의 전제로 인식된 것임은 “자강한 뒤에라야 독립은 가능하고 자강하지 않으면 독립은 있을 수 없다”³³⁾는 주장이다. 자주가 자주독립으로 이어지듯이 자강도 자주독립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리하여 이것을 자기발전의 계기로 삼아 自守·自立을 모색하여 ‘自強的 民族主義’를 확립하려고 했다.

그들은 열강의 도전에 대항하여 이를 막고 나라의 독립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개화정책을 실시하여 자주부강한 나라를 건설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물론 그 방법은 먼저교육을 진흥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개화지식층 사이에서는 ‘교육의 힘으로 민족적 단결심을 발휘시키자’는 여론이 일어났다. 물론 여기에서의 ‘교육’은 구학문의 폐단을 지적하고 신학문의 장

32) 차기벽, 《한국 민족주의의 이념과 실태》(까치사, 1978), 176쪽.

33) 《大朝鮮獨立協會會報》, 1897년 5월 31일.

점을 내세우는 것이었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 요청에 응하여 민족사학이 설립되어 나갔다. 그리하여 초·중등 교육기관이 모두 근대교육을 빨리 펴서 젊은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것만이 나라를 개화하고 또 구국의 터전이 되는 길이라 생각했다. 대체로 1905년 소위 을사조약 이전에 설립된 사학은 개화의 요청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다시 말하면 개화라는 이름의 근대화를 실천하기 위하여 세워졌다. 그리하여 이들 학교에서는 개화된 선진제국의 문물과 기술을 습득하고, 또 부국강병의 實을 일으키는 데 목적을 두었다.

그러나 우리가 근대교육을 통해 신학문을 흡수하고 있을 무렵 뜻하지 않은 군국일본의 침략이 다가왔다. 이에 1905년 이후부터 설립된 사학은 민족자본에 의하여 교육구국의 급선무로서 인재양성이란 민족적 희망으로 이루어졌다. 이들 사학의 설립자들도 모두 근대적인 민족의식을 지닌 지도층이었다.

이는 1905년 5월에 이용익이 세운 普成學校(고려대학교 전신)와 1906년에 세운 普成中學校의 설립이념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즉 보성의 건학정신은 인재를 배양하여 국가의 기초를 완성하고 국민의 지식을 발달케 하여 기울어져 가는 국권을 바로잡으려는 데 있었다. 이용익의 생애는 철두철미 왕실의 충성과 일본세력에의 반항에 있었다. 이는 그가 1907년 1월 海蔘威에서 “我死後에 韓國主權을 회복하기 전에는 運柩以歸치 말라”고 유언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남궁억도 이 때 “國權更生の 길은 오직 하나 교육밖에 없다”³⁴⁾는 민족주의정신에서 岷山學校와 그 뒤에 牟谷學校를 설립하였다.

안창호 역시 한말의 침체된 국운 속에서 나라를 구하려는 운동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개했다. 다시 말하면 자아혁신과 자기개조를 통해 민족혁신과 민족개조를 이룩하려면 다른 무엇보다 교육이 제일 급선무라고 보았다. 그의 말을 빌면, “한국 민족전체를 개조하려면 그 부문의 각 개인을 개조하여야 하겠고, 각 개인을 다른 사람이 개조하여 줄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가 자기를 개조해야 한다”³⁵⁾고 했다. 그리하여 그는 1899년에 점진학교와 1907년에 대성학교를 세웠다.

34) 金世漢, 《翰西 南宮憶先生の生涯》(翰西 南宮憶先生記念事業會, 1960), 136쪽.

35) 安秉煜, 《民族의 스승 島山安昌浩》(興土團本部, 1971), 7쪽.

점진학교는 점진적으로 공부와 수양을 계속하여 민족의 힘을 길러야 한다
는 것이 그 설립 목적이었다. 그가 친히 지은 교가 속에도 그 정신이 잘 표
현되어 있다.

점진 점진 점진 기쁜 마음과 점진 점진 점진 기쁜 노래로
학과를 전문하되 낙심말고 하겠다 하세 우리 직무를 다
(朱耀翰, 《安島山全書》, 三中堂, 1963, 32쪽).

또 대성학교의 설립정신은 그의 민족개조론에 따른 것으로 ‘점진적으로 大
成하는 인물’을 양성하여 민족운동의 중심세력을 구축함에 있었다. 그는 민
족운동의 인재와 국민교육의 師傅를 양성할 목적으로 평양을 비롯한 서울·
대구·광주 등지에도 똑같은 대성학교를 세울 계획이었으니 평양의 대성학
교는 그 제1교요 표본교였다.

그리고 대성학교의 교육방침은 아래 네 가지에 두었다.

첫째, 건전한 인격의 함양
둘째, 애국정신이 강한 민족 운동자 양성
세째, 국민으로서 실력을 구비한 인재의 육성
네째, 强壯한 체력의 훈련
(吳天錫, 《韓國新教育史》, 現代教育叢書出版社, 1964, 205쪽)

안창호는 이 교육방침을 실천하기 위하여 평소 그의 신념대로 ‘務實力行’
과 ‘主人精神’을 강조했다. 그에 의하면 무실역행은 공리공론을 하지 말고 우
선 나 한 사람부터 성실한 사람이 됨으로써 민족중흥에 새로운 힘이 될 수
있음을 이름이다. 무실이란 實을 힘쓰자는 뜻이니 실이란 眞實·誠實·참 그
리고 거짓이 없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안창호는 대성학교 학생들에게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야 한다고 하
여 참되기를 가르쳤다. 약속을 지키는 것, 집합시간을 지키는 것이 모두 성실
공부요, 약속을 어기는 것,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은 허위의 실천이라고 보았
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거짓이 없고 참된 것이 무실이기 때문에 참의
정신·참의 실천·참의 도덕으로 우리 민족을 교육시켜 갱생시키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가 말한 역행은 行을 힘쓰자는 것이다. 역행은 힘써 행하라는 말이 아니라 행하기를 힘쓰자는 말이다. 즉 공리공론의 허식적인 명분론을 버리고 實踐窮行하기에 노력하자는 것이다. 이 실천주의는 재래의 文弱을 비판하고 강장한 기풍을 숭상하는 데까지 연장되어, 대성학교에서는 德·體·知 三育을 중히 여겼다. 덕육과 체육을 지육보다 먼저 내세운 것은 바로 이 역행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이 역행은 큰 목적이 눈 앞에 실현되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에 할 수 있는 일은 오늘에 하자는 것이다. 이를테면 자기 가정을 고치는 일, 허위를 버리는 일, 민족운동의 동지를 구하는 일 등은 모두 오늘에 할 수 있는 일이라 하였다.

그의 무실역행의 정신은 1909년에 조직된 靑年學友會의 4대정신에도 나타나 있다. 務實·力行·忠義·勤勉의 세 덕을 더 가했다. 그래서 〈靑年學友會歌〉를 지은 崔南善은 그 가사에서 “務實力行 등불 밝고 깃발 날리는 곳에, 우리들의 나갈 길이 솟돌 같도다”고 하였다.

五山學校 역시 대성학교의 정신과 같이 민족운동의 인재, 국민교육의 師傅를 양성할 목적으로 세워진 학교이다. 1907년 12월 24일 개교식 때 李昇薰은 오산학교의 설립정신을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지금 나라가 기울어져 가는데 우리가 그저 앉아 있을 수는 없다. 이 아름다운 강산, 선인들이 지켜온 강토를 원수인 日人들에게 내어 맡긴다는 것은 차마 있어서는 아니 된다… 총을 드는 사람, 칼을 드는 사람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귀중한 일은 백성들이 깨어 일어 나는 일이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 가는지 모르고 있으니 그들을 깨우치는 것이 제일 급무다. 우리는 우리를 누르는 자를 나무라기만 해서는 안된다. 내가 못 생겼으니 남의 업신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냐. 옛 聖人의 말씀에도 ‘人必自侮而後 人侮之’라고 하였다. 내가 오늘 이 학교를 세우는 것도 후진을 가르쳐 만분의 일이라도 나라에 도움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일심 협력하여 나라를 남에게 빼앗기지 않는 백성이 되기를 부탁한다(金基錫, 《南岡 李昇薰》, 現代教育叢書出版社, 1964, 90쪽).

민족사학은 처음 신문화 또는 개화의 방법으로 설립된 것이었으나 1905년부터는 그 양상을 달리하여 교육구국의 이념하에 세워졌다. 즉 그 설립이념의 공통된 점은 모두가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새 지식을 계발하여 국권을 찾

는 데 두었다. 민족사학의 교사 역시 독립운동의 지사요 애국자로서의 긍지와 신념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

3) 여자 교육의 발전

(1) 미션여학교의 설립과 교육

우리 나라 여성들이 걸어온 발자취는 한마디로 ‘人權’없는 女性史와 ‘教育’ 없는 女性教育史를 남기게 했다. 이에 따라서 초대 여선교사들의 기독교적인 사명은 곧 무지와 사회적 억압에 눌려 있는 여성들의 교육과 그 해방이었다. 다시 말하면 교육과 계몽을 통한 여성해방운동이 바로 참된 의미에 있어서의 기독교운동이며 선교사업이었던 것이다.

물론 이들의 女學校 사업은 간접적인 선교사업이다. 이는 공개적인 설교와 종교의식을 통한 직접적인 전도활동과는 구별되기 때문이다.

1885년 6월 이 땅을 밟은 감리교 여선교사 스크랜튼(Scranton)부인은 선교사업의 중요한 분야로 한국여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세울 것을 결심하고 1886년 5월경 한 여학생을 상대로 학교를 시작하였다. 이것이 바로 한국여학교의 요람이 된 梨花學堂이다.

그는 내한 즉시 女宣敎部 用地로 선교부(남자)가 소유하고 있는 언덕 위의 가옥을 1885년 10월에 매입하였다. 이 부동산은 초가집 열 아홉 채와 빈터였다.³⁶⁾ 스크랜튼부인은 이 초가집들을 수리하여 1888년 11월부터 사용하였다. 그런데 신교육의 수용과 동시에 근대학교에서 교육을 시작할 때, 남학교의 경우는 신학문에 눈이 뜨기 시작한 때라 학생을 구하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으나 여학교의 경우는 학생을 구하기가 어려워 여러 가지 난관을 겪어야 했다.

그러므로 1894년 1월부터 1897년 3월에 걸쳐 우리 나라를 네 차례나 찾아온 바 있는 영국인 비숍(I. B. Bishop)여사는 그 여행중 10세 이상의 소녀를

36) M. F. Scranton, *Woman's Work in Korea, The Korean Repository*, Vol. 3, No. 1, 1896, p. 339.

거의 본 일이 없었다고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명성황후조차도 국내 여러 곳은 물론이고 서울거리도 본 일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다.³⁷⁾ 이런 이유 때문에 초기 기독교계통의 여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의복·침식·학비가 보장된 완전 장학제도였지만 안방(閨房)에 갇혀 들어앉아 있는 閨秀들을 학생으로 끌어들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1885년 8월 이전 학교는 이미 개설되어 있었으나 동년 12월까지 입학생이 없었다. 이 사실이 황실에 알려졌던지 스크랜튼부인은 아래와 같이 보고하였다.

황제는 내가 한국에 온 목적에 대해 소식을 듣고 계십니다. 황제는 대단히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보내 주셨으며 며칠 전 그는 어떤 모임에서 연설하는 가운데 여자학교에 대해 찬성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Heathen Women's Friend*, Vol. XVIII, No. 10, 1886, p. 249).

스크랜튼부인은 1886년 5월 31일 밤 한 사람의 여성을 학생으로 맞이했다. 그가 근 1년 동안 기다리던 첫 학생이었다. 처음 양반집의 자녀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고, 결국 가난한 집 아이와 고아를 학생으로 얻었다. 당시 선교사들로서는 이들 여학생의 입학은 마치 구원을 얻은 기쁨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이화에 한하지 않고, 이 당시 설립된 女學校史 혹은 女學校誌를 읽어 보면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점이다.

뒤에 서술할 貞信女學校·崇義女學校·培花女學校 역시 이화학당과 같이 학생을 구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 평양 숭의여학교의 학생은 개교 당시 어린 소녀 10명이었다. 이 소녀들은 여선교사의 무릎에 올라앉아 배워 주는 대로 받아 읽는 것이 고작이었다. 이 어린 소녀들은 응석이 심하여 가르치는 것보다 응석을 받아 주는 일이 바로 수업이었다.

정신여학교 역시 엘러즈(Annie Ellers)가 다섯살 난 어린 여자고아 ‘정네’를 가르침으로 시작되었다. 남감리교회가 한국에 들어와 1898년 5월 처음 세운 배화여학교도 선교사인 리드부인이 두 명의 여학생과 세 명의 남학생으로

37) I. B. Bishop, *Korea and her Neighbours*, Reprinted by Yonsei University Press, 1970, p. 341.

학교를 시작하였다. 그 후 캠프벨(J. P. Campbell)여사가 이 5명의 학생들을 인계받아 학교 이름을 짓고 학생모집에 골몰하였는데 이 최초의 여학생도 선교사 리드 사택에서 수위를 하던朴씨의 딸이었다. 캠프벨 학당장이 기숙사를 돌아보는데 이부자리 위에 오줌똥을 싸 놓은 어린 소녀가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있었다 하니 그 고충이 어떠했는가를 대충 짐작할 수 있다.

이 같이 선교 초기 미션여학교에 입학한 여학생들을 보면 대개가 하류계급 자녀가 아니면 고아출신이거나 조혼을 하였다가 과부가 된 사람 또는 시집을 살지 못하고 온 여성들이었다. 그들은 그 불행을 집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감당하기가 어려워 학교라는 이름의 광장으로 탈출한 것이다. 선교사들은 이들이나마 오래 붙잡아 두려고 애를 썼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이화학당은 우리 나라 최초의 여학교가 된 것이다. 1887년 학생이 7명으로 늘어났을 때 명성황후는 스크랜튼부인의 노고를 알고 친히 ‘이화학당’이라는 교명을 지어 주고 외무독변 김윤식을 통해 扁額을 보내와 그 앞날을 격려했다. 당초에 스크랜튼부인은 專信學校(Entire Trust School)라 명명하려 했으나 명성황후의 은총 때문에 ‘梨花’로 택하였다. 당시 황실을 상징하는 꽃이 배꽃(梨花)이었는데 여성의 순결성과 명랑성을 상징하는 이름이었다. 한국의 배꽃은 프랑스의 나리꽃(百合花)이나 영국 랭커스터(Lancaster)家の 붉은 장미꽃에 닮은 꽃이다.

그 후 이화학당은 1888년 학생수가 18명으로, 다시 1893년에 30명으로 늘어났다. 1890년대 朴泳孝의 딸이 학당에 와서 스크랜튼부인과 기거하며 공부했다는 것을 보면 당시 학생은 양극의 층으로 구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³⁸⁾ 이렇게 이화학당이 설립되어 여성교육의 초석을 놓을 무렵 1893년 제1회 宣教師公議會에서 결정된 선교정책도 “부인들을 개종시키는 일과 그리스도교 신자인 소녀들을 교육하는 데 특별히 힘쓸 것, 이는 가정의 주부가 후손들의 양육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³⁹⁾고 여성교육의 시급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1894년 평양에 正義女學校가 설립되어 지방 미션여학교의 효시

38) 梨花女子大學校, 《梨花八十年史》(1967), 46쪽.

39) 郭安全, 《韓國教會史》(大韓基督教書會, 1961), 68쪽.

가 되었다. 그 후 1897년 선교부의 지방학교 설치에 관한 정책이 결정되자 전국 주요 도시마다 미션여학교가 설립되어 나갔다. 1895년 부산에 貞信女學校(東萊女子中·高等學校 전신), 1896년 평양에 崇賢女學校, 1897년 인천에 永化女學校, 1898년 서울에 培花女學校와 원산에 樓氏女學校 및 목포에 貞明女學校, 1904년 개성에 好壽敦氏女學校와 원산에 進誠女學校, 1905년 군산에 永明女學校, 1906년 선천에 保聖女學校, 신의주에 崇貞女學校와 普聖女學校, 1907년 광주에 須皮亞女學校와 대구에 信明女學校 및 전주에 紀全女學校, 1908년 성진에 普信女學校가 세워졌다. 이 밖에도 함흥에 永生女學校, 재령에 明信女學校, 회령에 普興女學校 등이 설립되었다.

이 무렵 서울에서 가장 오래되고 시설이 잘된 여학교는 북감리교 여자선교부가 경영하는 이화학당이었다. 남감리교 선교부의 培花女學校(The Carolina Institute)는 캠프벨여사가 주관하여 운영했다. 북장로교 선교부 산하의 여학교는 넷이 있었는데 그 중 제일 오랜 학교는 서울 정신여학교였다. 1907~1908년간 정신여학교는 새 교사를 짓고 새 출발을 하게 되었다. 가난한 학생들의 생활보조를 하기 위하여 시작하였던 工作部를 없애고 정식 여자중학교로 출발하였다.

平壤女子中學校는 북장로교와 북감리교의 연합기관으로 개교하였다. 이 학교는 수년간 교사가 없어서 병원으로 쓰던 집을 교사로 쓰다가 1910년에야 새 교사를 건축하였다. 세 번째 여자 중학교는 宣川 보성여학교였는데 루이스 체이스(Louise Chase)가 교장이었다. 그러나 교사와 필요한 시설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

네 번째 여학교는 부산에 있었다. 일찍이 여성교육에 헌신한 어빈(Bertha K. Irvin)여사의 노력에 의하여 시작된 이 학교는 模範女學校(Model Training School)로 발전하였다. 미국의 세브란스(L. H. Severance)와 갬블(D. B. Gamble)의 기부금을 얻어 1909년 학교건물을 신축하였다. 이로써 이 학교는 그 당시 한국장로교 선교부 소관 여학교 건물 중 ‘가장 좋은 설비를 갖춘 학교’라는 평가를 받았다.⁴⁰⁾

40) L. G. Paik,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 in Korea*, Pyen Yong : Union Christian College Press, 1929, pp. 399~400.

(2) 관립여학교의 설립과 교육

독립협회와 《독립신문》에서 남녀평등의 실현이 민주주의적 제도 수립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하고 강조한 것은 그들의 민주주의사상이 단지 정치적 측면의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좀더 넓은 사회적 측면에서의 민주주의사상이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의 민주주의사상은 사회체제의 민주화를 포함한 사회구조 전반의 개혁을 위한 민주주의사상이었다.⁴¹⁾

《독립신문》은 당시 전국적으로 정부가 설립한 여학교가 하나도 없는 것을 개탄하면서 여성 자매단체인 讚揚會가 관립여학교 설립운동을 전개하자 이를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⁴²⁾ 《독립신문》과 찬양회 부인들의 관립여학교 설립 독려가 주효하여 정부에서는 1899년도 예산에 女學校費 3,750원을 배정하고 또 학부는 동년 5월 여학교 관제 13조를 제정하여 각의에 상정시켰다.⁴³⁾

그러나 우리 나라 최초의 여학교관제는 실현되지 못했다. 당시의 학부대신은 보수파의 申箕善으로 그는 여자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남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신교육까지 반대한 인물이었다. 그는 신학문을 야만인의 학문이라 보았으니, 여자교육을 이해하였을 리가 없다. 따라서 관립여학교의 설립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1908년 정부는 칙령 제22호로 여성의 중등교육을 위한 〈高等女學校令〉을 공포하였다. 同令 제1조에 의하면 고등여학교 설립목적을 “여자에게 必須한 고등 보통교육 및 技藝를 授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천명했다. 남아를 위한 학교법규가 모두 1904년 이전에 공포된 것에 비하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동령은 신교육이 수용된 이래 처음으로 여성교육을 위한 법령으로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물론 정부가 여성의 중등교육기관을 두기로 결정하고 고등여학교령을 공포하기까지에는 기독교 선교사들이 자극이 컸다.

정부는 동령에 의하여 1908년 4월 1일 漢城高等女學校(현 京畿女子高等學

41) 愼鏞度, 《獨立協會研究》(一潮閣, 1976), 628쪽.

42) 《독립신문》, 1898년 10월 13일.

43) 《독립신문》, 1899년 5월 26일.

校)를 설립하고 초대 교장에 魚允迪을 임명했다. 이때 純宗妃는 동년 5월 20일 한성고등여학교에 아래와 같은 徽旨을 내려 격려하였다.

光武 維新 이래 국가문명이 뒤짐을 軫念하시어 신학을 홍하시고, 純宗 등국 후에도 이 뜻을 이어 학교가 蔚興하고 자제가 奮勵하나, 이는 모두 남자에게 그칠 뿐이요, 여자교육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다. 보통교육은 남녀의 구별이 없는 것이니, 여자는 시집가 남편을 돕고 집안살림을 하며, 자녀를 기르는 책임을 짊어져 한 집안의 행복을 증진하고, 이를 推하여 국운을 裨補함도 큰 것이니, 국가가 어찌 여자교육을 중요히 여기지 아니하리오(《舊韓國官報》, 1908년 5월 26일).

이는 여성교육에 대한 국가의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순종비에 의한 女學校勸興勅語가 하사된 후, 《畿湖興學會月報》에 〈女學校入學式〉이란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한성고등여학교 입학식 기사가 게재되었다.

(1908년)7월 4일 관립한성고등여학교에서 입학식을 거행하였는데 상황을 略聞한즉 일반 직원 및 학도간에 상견례를 행한 후, 교장 어윤적씨가 皇后陛下의 徽旨을 낭독하고 학부대신 및 차관이 각기 勸勉演說함에 학도 부형중 兪星潛씨가 대표로 답사하였다더라(《畿湖興學會月報》, 1908년 8월).

학교편제는 처음 豫科와 技藝專修科 및 本科로 나누어 각각 한 학급밖에 두지 않았다. 본과 및 예과의 수업은 1908년 7월 6일 시작하였다. 예과의 경우 수업연한은 2년으로 보통학교 교과과정 정도를 가르쳤다. 예과를 든 것은 당시의 사립여학교가 학년 구분 없이 교육을 했고 또 정부가 보통학교 출신의 여학생을 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관·공립 보통학교에 여자학급을 두도록 하는 한편 한성고등여학교에 예과를 설치한 것이다. 本科의 경우 수업연한은 3년으로 입학자격은 예과수료생이나 보통학교 졸업자로 규정하였다.

전문 24조로 된 학칙 제4조에 의하면 교육과정은 아래와 같다.

- ① 本科 : 수산·국어·한문·일어·역사·지리·산술·잇과·도화·가사·수예·음악·체조로 되어 있고, 단 수예 중 자수·편물·組絲·囊物·造花·割烹의 한과목 혹은 數科目을 수의 과목으로 하고 외국어(일어 제외) 및 教育大

要를 수의 과목으로 하여 보낼 수 있다고 하였다.

- ② 豫科 : 수신 · 국어 · 일어 · 산술 · 잇과 · 도화 · 음악 · 체조를 과하였다.
 ③ 技藝專修科 : 수신 · 국어 · 산술 · 재봉 · 자수 · 편물 · 조사 · 낭물 · 조화 · 할렙
 의 한 과목 혹은 數科目으로 하고, 단 일어 및 가사를 수의 과목으로 보낼 수
 있다고 하였다.

위의 교과목에서 보면 一人一技교육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입학 청원서의 양식과 보증인의 자격은 아래와 같다.

入 學 請 願 書			
住所			
姓名			
年 月 日 生			
本人의 貴校 本科 · (豫科) · (技藝專修科) 入學하기를 願하와 履歷書を 添聯請願하오니 許可하심을 望함.			
年 月 日			
姓名			印
保證人住			
姓名			印
保證人住			
姓名			印
官立漢城高等女學校長 姓名			貴下

保證人은 入學者의 父母나 尊親이나 또는 此를 代하여 監督의 責任을 擔當할 者 二人으로 하되 其中 一人은 學校附近에 住居하는 者로 함. 保證人이 其責任을 不務하거나 或은 不適當함으로 認定한 時에는 學校長이 此를 變更함을 命하며 或은 學員의 出席을 停止하는 事도 有함.

처음 학생모집은 무척 어려웠다. 이 때까지만 해도 우리 국민은 内外法에 따라 여아를 위한 신학문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그래서 어윤적 교장 자신이 손수 각 가정을 방문하여 학생을 모집하여 無償教育을 실시했다. 그러나 개교 1년 후인 1909년에 이미 본과 90명, 예과 68명, 도합 158명의 재학생 수를 기록하였다.⁴⁴⁾ 한편 당시 여성의 인권이란 보잘것없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초기 여학생들은 1909년 民籍法이 제정되기까지 자기의 이름이 없었다. 그래서 미션학교 여학생들의 이름은 선교사들이 지어 준 洗禮名

44) 高橋濱吉, 《朝鮮教育史考》(帝國地方行政學會 朝鮮本部, 1927), 284쪽.

으로 대신했다. 한성고등여학교 역시 학생들의 이름이 없어서 어교장 자신이 일일이 이름을 지어 學籍簿에 기재하였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다음으로 교육방침을 보면 초대 교장 어윤적은 ‘人材養成은 賢母의 손으로’⁴⁵⁾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魚교장은 교육목표를 부덕함양과 술선수범에 두어 현모양처를 길러내기에 힘썼다. 그리고 그는 항상 栗谷의 어머니 申師任堂을 본받으라고 가르쳤다.⁴⁶⁾ 위에 언급한 순종비 徽旨도 현모양처형이 교육적 여성상으로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소학교 規則大綱 제2조에서도 “女學生은 別로히 貞淑한 美德을 養케 함이 可함”이라 하여 독립된 인격으로서의 여성교육과는 거리가 멀었다.

(3) 민간인 사립여학교의 설립과 교육

1894년의 갑오경장이 비록 일본의 간섭이 개재된 타율성을 내포한 것이기는 하나 우리 나라 정부측에서 시도한 개혁의 실천이었다.

그러나 이는 우리 내부로부터의 주체적 시각에 근거를 둔 근대화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개화를 촉구한 일본만 하더라도 제국주의적인 침략의 야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므로 관·공립 여학교보다 더 활발하게 전개된 것은 민간인 사립여학교였다. 이는 《독립신문》의 여성교육에 대한 아래와 같은 논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세상에 불쌍한 인생은 조선 녀편네니, 우리가 오늘날 이 불쌍한 녀편네들을 위하여 조선 인민에게 말하노라. 녀편네가 사나이보다 조금도 낮은 인생이 아 닌데 사나이들이 천대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나이들이 문명개화가 못되어 이치와 인정은 생각치 않고, 다만 자기의 팔심만 믿고 압제하려는 것이니, 어찌 야만에서 다름이 있으리요 … 조선 부인네들도 차차 학문이 높아지고 지식이 넓 어지면 부인의 권리가 사나이 권리와 같은 줄을 알고 무리한 사나이들을 제어 하는 방법을 알리라. 그러기에 우리는 부인네들께 전하오니, 아무쪼록 학문을 높이 배워 사나이들보다 행실도 더 높고 지식도 더 넓혀 부인의 권리도 찾아라 (《독립신문》, 1896년 4월 21일).

45) 京畿女子中・高等學校, 《京畿女高五十年史》(1958), 3쪽.

46) 위의 책, 4쪽.

이러한 《독립신문》의 여성교육에 대한 독려에 따라 1897년경 민간인 여성
의 손으로 서울에 貞善女學校가 설립되었다. 이는 西京人으로 상경 거주하는
金(號 養堂)씨에 의하여 세워졌는데, 그는 1899년 교장으로 취임하여 1903년
3월 19일(음력) 운명할 때까지 가채를 털어 손수 여성교육에 헌신했다.⁴⁷⁾ 그
의 교육열은 임종 때 유언에서 짐작할 수 있다.

내 일개 여자로 우리 대한 여자를 외국과 같이 文明教育하기를 주야로 천지
신명께 축수하였더니 불행히 남은 명이 짧아 九泉에 돌아가니 지극 원통한 한
은 내 죽은 뒤에 학교를 누가 教育할고(《皇城新聞》, 1903년 3월 19일).

1898년 9월 25일 찬양회가 여학교 설립을 목적으로 서울 承洞 개인집에
서 공식집회를 가졌는데, 이 때 〈여학교 실시통문〉을 발표하였다.⁴⁸⁾ 이 〈여
학교 실시통문〉은 한국 근대여성사에 있어 최초의 여권선언이라 할 수 있
다. 찬양회 부인들은 1898년 12월에 학생을 모집하고 부인회 임원들이 직접
교육을 담당하였다. 학교 이름을 順成女學校라고 칭하였는데, 승동에 위치
한 관계로 承洞學校라고 부르기도 하고, 부인회 명칭도 승동부인회라 칭하
기도 하였다.⁴⁹⁾

1905년 소위 을사조약 이후에는 국민의 교육열이 급상승했다. 이는 애국열
과 직결된다. 교육구국의 인재요망은 남자교육뿐만 아니라 여자교육에까지
침투하여 비로소 여학교 설립이 활발해졌다. 여성들은 ‘배우는 것이 힘이라’는
신념에서 직접 교육사업에 종사하거나 여성 교육단체를 조직하기도 했다. 進
明婦人會・女子教育會・養貞女子教育會가 그것이다.

1905년 서울에 太平洞女學校가 설립되고 1906년 4월 進明女學校가 세워졌
는데 이는 慶善宮과 英親王宮이 회사한 토지 200만 평을 기초로 설립되었다.
교명을 ‘進明’이라 한 것은 ‘進德啓明’이라는 뜻이며 초대 교장으로 嚴俊源이
취임했다. 처음에 진명은 이화학당 출신의 황메레(黃袂禮, Mary Whang) 학감
과 서양인 교사로 구성되었다.

47) 丁堯燮, 《韓國女性運動史》(一潮閣, 1971), 30쪽.

48) 《독립신문》, 1898년 9월 9일.

49) 《韓國女性史》Ⅱ(梨花女子大學校 出版部, 1972), 300쪽.

1906년 5월 淑明女學校(초기 교명은 明新女學校)가 설립되었다. 이 역시 영친왕궁의 토지 1천여 정보의 회사를 기초로 세워졌는데 초대 교장으로 李貞淑여사가 취임했다는 것은 특기할 일이다. 처음 여학생 4명을 상대로 수업을 시작했는데 이들 여학생은 황실의 상궁이었다. 황실 안살림의 개화를 시도하고자 한 엄비의 뜻을 받은 것이다. 이 중에서 憲宗妃의 趙상궁은 숙명여학교 제1회 졸업생이 되었다. 그래서 일반 민간에서는 ‘박동학교’라고 하여 펍 부러워 하였다고 한다. 숙명은 姊妹校 진명과는 달리 설립 당초부터 일본식 교육 즉 일본의 學習院을 지향했기 때문에 일본인교사로 구성되었다.

또 1906년 7월에는 秦學新·金雲谷·金松岩·金湖山 등에 의하여 여자교육에 찬성할 의무와 부인사회의 문명을 개진할 목적으로 여자교육회가 조직되었다.⁵⁰⁾ 여자교육회는 설립 취지서를 발표하고,⁵¹⁾ 이 해에 여성의 문명을 개진할 목적으로 養閨義塾을 설립하였다.⁵²⁾ 이 학교는 뒤에 京城女子學校로 바뀌고, 다시 德壽小學校로 개편되었다.

이 때 《萬歲報》 역시 일반교육은 물론 특히 여성교육에 유의하여 여자교육 단체를 조직시키기 위한 협찬뿐만 아니라 여성 문화단체와도 밀접한 연락을 취하였다. 1906년 11월 2일자에는 아래와 같이 여성교육이 급선무임을 밝히고 있다.

우리 대한 여자가 남자 압제력을 받고 深閨에 禁錮하여 인도상 결점을 담아가진 감정을 융해하고 일반사회에 同等權制를 극복코자 할지면 첫째 교육에 있다(《萬歲報》, 1906년 11월 2일).

1907년에는 明進女學校와 女子普學院, 1908년에는 東媛女子義塾·普明女學校·養正女學校·養源女學校, 1910년에는 養德女學校 등이 세워졌다. 이 중에 趙東植이 1908년 4월에 야학으로 설립한 동원여자의숙(오늘날의 同德女子中·高等學校) 그 때 서울 苑南洞에 金仁和의 同德女子義塾이 있었는데 김영인 자신이 이를 경영해 나갈 능력이 없어서 1909년 4월 동원여자의숙과 병

50) 朱耀翰·鄭英助, 《保護條約時期의 學會 및 團體運動》(大成文化社, 1965), 16쪽.

51) 《皇城新聞》, 1906년 11월 1일.

52) 朱耀翰·鄭英助, 앞의 책, 16쪽.

합했다. 병합당시 교명으로 ‘東媛’·‘同德’ 중 동덕이 그 뜻으로도 좋고 또 여성교육에 적합한 이름이라 하여 同德女子義塾으로 재출발했다. 교명 ‘同德’은 《논어》에 나오는 ‘同門修德’에서 인용한 것이다.

물론 이들 민간인 사립여학교도 앞서 살핀 미션여학교나 관·공립여학교와 마찬가지로 각 가정을 호별 방문하여 학생을 모집하였다. 학생이 학교에 나오면 공책·연필·교과서 등을 무상으로 공급해 주어 계속 나오도록 신경을 썼다. 이 때까지만 해도 민간인 여학교의 학생 모집은 20여 년 전의 이화학당 시절과 다름이 없었다. 학교 당국은 부녀자들이 읽기 수월하게 쓴 〈勸學宣傳文〉을 휴대하였다. 그 내용은 “귀한 따님 학교에 보내십시오”, “여자도 배워야 합니다”, “무식하면 짐승이나 같습니다” 등의 표어로 서두를 시작하는 글로서 선진국 여성들의 교육실태를 예시하고 과거 우리 나라 전통적 풍습의 그릇됨을 지적한 것이다.

이 같이 당시 여학생은 구하기도 어렵고, 또 구해 놓아도 하루가 멀다 하고 빠져 나가기 일쑤였다. 힘들여 모집한 학생이라도 데려오면 도망치곤 하는 일이 어찌나 심한지 학교를 운영할 길이 없었다. 그리고 여학생들이 입고 다녔던 의복을 비롯한 쓰개치마에 대해서도 당시 신문들은 한국 여자옷이 개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 황제에게 그 개량을 진정했지만 좀처럼 고쳐지지 않았다.⁵³⁾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은 모두 학생들의 가정에서 신교육을 이해하지 못한 탓도 있지만, 그 근본은 내외법 때문이었다. 이 때까지만 하더라도 신식 여학교는 ‘기생학교’라는 이름을 들었다. 장래의 기생을 만들어 낸다는 뜻이 아니다. 현재 재학생 중에 기생이 많다는 뜻도 아니었다. 아직도 옛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네의 딸을 학교에 보내기를 꺼려 나온 말이다.

더욱이 그 때의 學齡이라는 것은 10세 이상 15세 내지 17, 18세이었으니, 그런 과년한 딸을 백주에 길에 내놓고, 더욱이 새파란 남자 선생한테 글을 배운다든가 하는 일은 가문을 더럽히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당시 이러한 내외법과 사회적인 沒後性 때문에 여학교에서는 오늘날처럼 학제를 시

53) 《帝國新聞》, 1906년 5월 31일·1907년 6월 19일.

행할 만큼 정기적으로 학생의 입학이 가능한 사회 형편이 못되었다. 그리고 요즘처럼 일정한 연중 수업시간은 없고 또 일정한 방학도 없었으며 농번기가 방학이었다. 물론 요즘처럼 수업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종소리도 없고, 하고 싶은 과목을 할 때까지 하였다. 教授法 역시 서당식이었고 또 학년과 학기의 구분이 없었을 뿐 아니라 졸업이라는 것도 없었다. 적당한 혼처가 나면 시집가는 것이 곧 졸업이었다.

4) 고등교육의 성립

(1) 민립대학의 설치운동과 경성제국대학의 설립

가. 민립대학의 설치운동

1919년 3·1 운동을 계기로 세계의 進運을 알게 된 우리 민족은 식민지적 전문학교 교육에만 만족할 수 없었다. 1922년 우리의 民度를 측정할 수 있는 출판계만 보더라도 한국인의 손에서 나오는 월간잡지 및 수양 기관지만 서울에 18종이 있었다.

당시 우리 민족은 국채보상시의 한국인이 아니오, 지방과 당파의 분쟁으로 허덕이는 민족도 아니었다. 오로지 자유와 정의를 위하여 적수공권이라도 총칼 앞에 나갈 수 있는 민족이었다. 민족적 생명이 지속하는 때까지는 민족적 자립에 필요한 학술적 근거와 시설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민족간에 民立大學 설치운동이 민족적 운동으로 일어났다.

이러한 기미를 알아차린 일본에서는 1920년 日本東洋大學 분교를 서울에, 또 1922년 日本帝國女子專門學校에서 분교를 설치해 줄 것을 사이토(齋藤) 총독에게 의뢰하였다. 또한 총독부에서도 1922년 서울에 京城帝國大學을 설립하고자 하였다.

이 무렵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서도 민족교육의 최고기관인 대학이 이 땅에 없다는 것은 민족발전에 크나 큰 손실일 뿐만 아니라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도 민립대학은 꼭 있어야 되겠다고 후원하고 나섰다.⁵⁴⁾ 그리하여 1922년

54) 《東亞日報》, 1922년 2월 3일.

11월 李商在를 대표로 발기인이 구성되어 朝鮮教育協會에서 ‘朝鮮民立大學期成會’가 결성되었다. 그리고 1923년 3월 29일에는 조선민립대학 기성회 발기총회가 3일간 개최되었다. 이 때 발표된 민립대학 발기취지서는 3·1 독립선언서에 비길 만한 정도로 우리에게 문화적·정신적인 유산을 주는 내용의 글이기도 하다.⁵⁵⁾

민립대학 발기총회에서 의결을 본 설계내용은 제1기에 자본금 400만원으로 대지 5만평을 구입하여 교실 10동과 대강당 1동을 짓고, 한편으로 교수를 양성하며 科는 法科·文科·經濟科·理科의 4과를 두게 되었다. 제2기는 300만원으로 工科를 신설하고 理科와 기타 각 과를 충실히 하는데 두었다. 제3기에 자본금 300만원으로 醫科와 農科를 설치하게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민립대학 설립운동에 전 민중이 일치단결하였으므로 이에 당황한 총독부에서는 처음에 京城醫學專門大學 분교로서 조선민립대학의 설립을 허가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결국 일제 강점자들의 압력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그 후 1926년 초 다시 민립대학 기성회 운동이 부활하였다. 당시 이에 대한 기사를 보면 아래와 같다.

최근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 운동을 부활시켜 확실한 결과를 지을 필요가 있다 하여 시내 각 방면의 유지 20여 인이 모여 계속 토의한 결과, 우선 민립대학기성회 간부 제씨와 협의하여 보기로 하고 李鍾麟·朴勝喆·崔元淳·具滋玉·韓基岳·安在鴻 제씨를 대표로 기성회의 在京한 간부 수씨를 방문하고 간단적으로 협의한 결과 동 간부측과도 의사가 대개 소통되었으므로 운동을 부활시킬 방책에 대하여 신중히 연구중이라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멀지 않아 구체적으로 실현될 터이다 하며 추후로 洪性僕·李甲成 양씨도 기초위원으로 선정되었다(《東亞日報》, 1926년 3월 6일 및 《朝鮮日報》, 1926년 3월 19일에도 이와 같은 기사가 구체적으로 보도되었음).

그러나 이 운동 역시 총독부의 압력과 자금난으로 실패로 돌아갔다. 이에 민립대학기성회 중앙집행위원이었던 李昇薰은 오산학교를 확장하여 그 곳에 농과대학을 세울 계획을 하게 되었다. 이승훈은 재단법인을 만들기 위하여

55) 《東亞日報》, 1923년 3월 30일.

宣川으로 吳致殷을 찾았다. 오치은은 安昌浩가 평양에 대성학교를 세울 때에도 많은 돈을 회사하였으며 평소부터 민족운동에 열의를 가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승훈은 백방으로 재단을 만드는데 노력하는 한편 농과대학 설립의 전제로 오산학교 과목에 농과과목을 많이 넣게 하고 학교장장을 확장했다. 그리고는 평양으로 李勳求를 찾았다. 당시 이훈구는 미국에서 농학을 연구하고 崇實專門學校 교수로 있던 때였다. 이승훈은 이훈구로부터 농과대학을 세움으로써 우리에게 이익이 있는 것과 또 학교인가를 얻는 데도 실과계통이 다른 계통보다 수월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리하여 이승훈은 1926년 총독부에 농과대학 인가를 신청했으나 이 해 일어난 6·10 만세운동으로 무위에 그쳤다.

한편 민립대학기성회 회금보관위원이었던 金性洙는 독자적으로 민립대학을 세울 뜻을 품고 1년 9개월 동안 歐美大學의 규모와 시설을 시찰하고 귀국하였다. 그러나 총독부의 기본방침이 한국인에게는 대학설치를 허가하여 주지 않는데 있었음으로, 대학설립의 허가를 포기하고 普成專門學校를 인수하여 그의 포부를 실현할 결심을 굳혔다. 당시 보성전문학교는 1926년 뉴욕 주식시장의 주식가격 폭락을 발단으로 일어난 세계적 대공황과 이에 따르는 한국농촌의 궁핍 및 사이토총독의 가혹한 수탈정책 등으로 보성재단에 참가하였던 한국인 지주들이 몰락하게 되자 보성재단은 심한 재정난에 빠져 학교경영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⁵⁶⁾ 이에 김성수는 1932년 추수 5천 석 이상 수확되는 토지를 출연하여 경영난에 봉착한 보성전문학교를 협조함과 동시에 서울 시외 안암동에 교사를 신축하였다. 또한 1935년에는 유지들의 협력을 얻어 金 3천원으로써 普成 30周年記念事業으로 대강당과 도서관을 세우는 등 보성전문학교를 민족주의의 정신을 가진 튼튼한 기반 위에 구축하였다. 그러니 김성수는 민립대학기성회에서 달성하지 못한 일을 普專에서 달성한 셈이 되었다. 다시 김성수는 1940년경에 초지를 관철하여 보성전문학교를 한국 초유의 민립대학으로 승격시킬 것을 추진했으나 총독부는 이를 허락치 않았다.

56) 普成財團의 분규 및 재정난은 1925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朝鮮日報》, 1925년 12월 3일).

나. 식민지 통제를 위한 경성제국대학의 설립

조선민립대학 설치운동은 결국 일제 강점자들의 방해 때문에 실패로 돌아갔다. 이에 대한 민심수습책과 또한 민립대학 설치운동에 자극을 받은 총독부는 1923년 5월 京城帝國大學令을 공포하고 1924년 예과를 모집하고, 1926년에는 法文學部와 醫學部를 개설하였다.

당초 총독부는 경성제국대학의 개교를 1923년에 계획했었으나 총독부에서 ‘朝鮮帝國大學’으로 일본국회에 제출한 것이 문제가 되어 1년 늦춰지게 되었다. 즉 ‘朝鮮의 帝國大學’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다 하여 결국 경성제국대학으로 인가가 났기 때문에 1924년에 개교를 하게 되었다.

경성제국대학이 개교하는 날 조선 민립대학기성회 대표였던 이상재는 청년회관(YMCA)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오늘이 우리 민립대학 개교식 날이니 같이 가세” 하였다. 모든 사람들은 의아하여 “어찌신 말씀이십니까” 하고 물었다. 이에 이상재는 “저 놈들이 우리 나라에 관립대학이냐만 만들어 둘 놈들인가. 그래도 우리가 민립대학을 만들겠다고 떠드니까 이렇게라도 만든 것 일세. 그런즉 결국 우리 민립대학의 變身이야”⁵⁷⁾ 하였다는 에피소드가 전해지고 있다.

실제로 총독부가 우리 나라에 대학설치를 하기까지에는 일본정부에서도 조야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모양이다. 이러한 당시의 사정은 한 일본인의 아래와 같은 말로도 알 수 있다.

조선에서 대학교육의 필요 유무에 관해서는 개설 당시부터 朝野間에 상당히 논의가 있었으며, 오늘까지도 不要論을 주장하는 자가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1924년에 총독부가 대학 개교에 필요한 관계 諸勅令案을 내각에 품의하였을 즈음 法制局의 일부에서도 당초에 강경한 반대 의견이 있었다고 듣고 있는바, 案이 樞密院에 부의되었을 때에는 본 회의의 벽두에 故 法學博士 穗積陳重 고문관으로부터 1870년 독일이 알자스·로렌을 병합하였을 때, 즉시로 首都 스트라스부르에 대학을 설치하고, 크게 그 문화 향상을 기하였다는 사실 등을 引例하여 조선에 대학을 개설하는 것을 시기상조라고 함은 찬성할 수 없는 일이며, 도리어 그 시기가 늦은 감이 있다고 열심으로 찬성 연설을 하였다는 말

57) 公報室, 《月南 李商在先生略傳》(1956), 146~147쪽.

을 듣고 있다. 돌이켜 조선의 사회정세를 살펴보면 … 歐美戰亂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경제계는 상당히 급격한 발전을 보게 되고 사상계에 있어서도 극단의 자유사상이 도처에 침투되어 이미 민립대학 운동까지 일어나게 된 형세이었다 (大野謙一, 《朝鮮教育問題管見》, 朝鮮教育會, 1936), 140~141쪽).

이로써 보면 민립대학운동도 이미 제기되고 있었으니 조야간에 논란이 있었지만 일제 자신들도 대학을 세우지 않고서는 대의명분이 서지 않게 되었던 당시의 정세를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학부 선정에 있어서 의학부를 둔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었으나 理工學部를 두지 않고 法文學部를 둔 데에는 여러 가지 이론이 많았다. 그들의 말을 빌면 첫째로 원래 조선민중은 법률·경제 등 정치 방면에는 관심이 많았으나 理·農·工 등 자연과학 방면은 극히 소홀한 때문에 법문학부를 둔 것이라 하였다.⁵⁸⁾ 둘째로 또 다른 이유는 법문학부는 최근의 경향에 속한 제도로써 현재 東北帝國大學에서 이미 같은 학부를 설치하였으며 九州帝國大學에도 1925년부터 설치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현재 東京·京都帝國大學의 법학부의 학생도 문학부 교수의 사회학·철학 등의 강의를 듣게 한 예가 있으므로 경성제국대학에 법문학부를 설치하였음은 機宜에 맞는 시설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법문학부와 의학부 등의 실제적인 학부를 먼저 둔 것은 식민지의 개발상 이익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원래 기계화한 의학교육이나 법학교육에는 온전한 자유주의 사상이나 민권운동이 일어날 수 없음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공학부를 두지 않은 것은 테라우치총독 때의 교육 방침처럼 한국인에게 과학과 고등기술에 관한 이론적인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려는 정책이었다. 이공학부가 설치된 것은 1938년의 일이었다. 이것은 일본이 앞으로 제2차대전 수행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과학 동원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립된 경성제국대학의 목적은 대학령 제1조에서 아래와 같이 명시했다.

58) 위의 책, 143쪽.

대학은 국가에 須要되는 학술의 이론 및 응용을 교수하고 아울러 그 蘊奧를 攻究함을 목적으로 삼고 겸하여 인격의 도야의 國家思想에 유의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특히 ‘國家’ 운운한 것은 일본을 말하는 것으로, 대학교육은 한국인에게 고등한 일본제국주의 정신을 주입시키는데 있었던 것이다. 이 대학령 제1조는 다시 식민지 말기에 와서는 아래와 같이 바뀌었다.

대학은 국가에 須要되는 학술의 이론 및 응용을 교수하고 아울러 그 蘊奧를 攻究함을 목적으로 하고, 특히 皇國의 길에 입각하여 國家思想의 함양 및 인격의 도야에 유의함으로써 국가의 柱石이 될만한 忠良有爲의 皇國臣民을 鍊成하는 데 힘쓴다.

그러니 이 때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인 학생들에 대하여 황국의 길에 입각한 황국신민을 鍊成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로써 보면 경성제국대학은 우리에게 필요한 학문적 연구를 자유롭게 할 권리를 인정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인의 자유주의 사상이나 독립사상을 경계하고 있는 데서 빚어진 것이다. 따라서 사회과학의 한 분야인 정치 및 사회에 관한 연구는 허락하지 않았다. 이리하여 경성제국대학은 식민지 대학에 급급한 나머지 ‘아카데미즘’의 최고학부로서의 사명을 스스로 말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오로지 식민지적인 대학으로서 일본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를테면 日鮮同祖論과 같은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대학으로 발전했다.

(2) 기독교계 전문학교의 대학승격운동

가. 이화학당의 연합기독교여자대학안

한국내 선교단체 연합회의에서는 초기부터 한국에 고등교육기관을 세울 경우 3개 基督教聯合大學을 설치하기로 합의를 보고 서울에 2대학(그 중 하나는 여자대학), 평양에 1대학을 세우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1911년 제1차 조선교육령에서는 대학령의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전문학교 정도로서 그 명맥을 유지하였다. 그 후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에서는 새로이 大學敎育令을

추가하였기 때문에, 이들 학교들은 당초의 계획대로 기독교 연합대학으로 발족할 준비를 하였다.

1923년 2월 25일자 《동아일보》 사설은 〈女子大學의 必要〉·〈解放과 教育〉·〈貢獻과 教育〉이라는 제목 아래 梨花學堂이 연합기독교 여자대학으로 발돋움 하려한 것을 격려했다.

우리들은 여자의 해방과 문명의 공헌은 그 교육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하며, 그 교육에 대한 기회를 충분히 제공함으로부터 실현이 되리라 하노니, 교육은 일종의 광명이요 권능이라. 그 여자의 가치를 분명히 하고 그 가진 능력을 계발 전개하는도다. 教育就中에도 고등교육 전문교육이 필요하니 보통교육 단순한 그 상식으로서 어찌 인생의 최고 능력을 발전할 수가 있으리오. 교육이 光明이요 권능이요, 이와 반대로 실로 무지가 무력무능한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朝鮮女子에게 대하여서도 충분히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더욱이 고등 전문의 교육을 제공하라. 이와 같이 하여 그 인생적 의의와 가치를 충분히 발휘케 하며, 이와 같이하여 그 완전한 해방을 완성케 하라. 실로 이는 조선여자의 행복뿐이 아니라, 민족전체의 向上이요 발전이로다. 근래 조선에 在住하는 서양 선교사간에 더욱이 구체적으로는 梨花學堂 경영자간에 조선의 여자를 위하여 대학의 완성을 계획하는 喜報를 측문한 바, 우리들은 이에 그 여자의 해방과 공헌에 대한 절실한 관계를 논하여 그 하루라도 속히 실현되기를 희망하노라 (《東亞日報》, 1923년 2월 25일).

이처럼 이화학당이 연합기독교 여자대학으로 합당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사회 여론 가운데, 홀턴(D. C. Holton)의 기록에 의하면 “한국에 감리교대학을 세울 목적은 없다. 다만 완전한 초교과적 협동으로 계획을 진행시켜 기반을 잡으면 이화학당은 연합기독교여자대학(Union Women's Christian College)으로 인식될 것이다”⁵⁹⁾라고 했다. 이와 같이 이화학당이 대학으로 발전하고 또 경성의학전문학교와 법학전문학교가 대학으로 승격된다는 여론이 분분하자 당시 총독부 학무국장은 〈專門學校 昇格運動에 대하여〉라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일반이 주지함과 같이 일본에서도 각종 전문학교가 대학으로 승격되어 금일

59) 梨花女子大學校, 《梨花八十年史》(1968), 144쪽.

에는 일본의 官立專門學校는 한 학교도 없는데, 여사한 관계상 조선도 여기에 본떠 결행함이 가하다는 설이 유함과 같으나, 일본에서도 열망하여 승격한 자 중에 곤란과 불편을 느끼는 자가 많은 모양이라. 조선에서는 크게 그 뜻이 다름을 사고치 아니함이 불가한 바이요, 또한 朝鮮大學은 전혀 별개의 것으로 대학의 계획을 진첩한 것이고 전문학교 정도를 승격케 하여 대학을 설치함과 같이 출발한 것이 아니라, 현재 전문학교는 전문학교로서 내용의 충실을 도모하여 초기의 목적을 달함에 노력치 아니함이 불가할지요, 조선의 현상에 감하여 전문학교는 더욱 필요를 느껴 존치할 바인 즉 대학설치와 관련하여 승격설을 제창함과 같은 견해가 근본적으로 어긋난 것이라 생각한다(《東亞日報》, 1923년 7월 16일).

이화학당이 대학으로 출발할 준비를 할 단계의 학무국장의 담화문은 결국 이화측의 대학안 계획을 좌절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이화학당은 1925년 3월 1일 재단법인 미국감리사 조선부인선교부 유지재단이사 홀(Miss Ada B. Hall) 명의로 이화여자전문학교로 인가 신청을 내고, 이 해 4월 23일 전문학교로서 인가를 받았다.

나. 연희전문학교 중심의 종합대학안

元杜尤(H. G. Underwood)에 의하여 설립된 延禧는 조선총독부가 1915년 3월 專門學校規則을 공포하던 바로 그 해 4월 YMCA에서 敎新學校 大學部라는 이름으로 개강되었다. 처음 延禧學園의 총독부에 대한 교섭은 대학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총독부는 한국에 대학령이 없다는 구실로 1917년 4월 7일 私立 延禧專門學校란 이름으로 인가하였다. 이 때 인가된 학과는 文科・商科・農科・神科・數學 및 物理學科・應用化學科 6과였다. 학과의 규모로 보아서 대학과 다름이 없었다.

이에 연희전문학교는 비록 전문학교로 인가를 얻었지만 당초의 계획대로 영어로는 ‘칼리지’(College)란 이름을 사용하였다. 학교의 조직구성과 과목도 대학의 체제를 이루었고 졸업생에게는 學士學位(延專學士)를 수여했으며, 또한 교수도 대학의 교원으로 조직하는 등 독자적인 발전을 다짐했다. 이러한 조직을 가지게 된 것은 물론 대학령이 생기는 때에 종합대학교로 개편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1922년 2월 제2차 조선교육령 속에 대학령이 공포됨에 따라 선교사들은 初志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연희전문학교와 세브란스醫學專門學校 및 協成神學校를 중심으로 서울에 완전한 종합대학을 설립코자 계획을 세우고 활동을 하게 되었다. 즉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를 의과대학으로, 연희전문학교를 文科 및 法科大學으로 고쳐서 이미 新村驛 부근에 매수하여 둔 부지에 기독교계통인 완전한 종합대학을 설립키로 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延專과 世醫專 양교의 교장이었던 에비슨(魚丕信, O. R. Avison)과 연전의 부교장 언더우드(元漢慶, H. H. Underwood) 양씨는 1926년 3월까지 각각 150만불의 자금모집차 1925년 미국으로 건너갔다. 이것은 당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600만원이었다. 이에 대하여 당시 《동아일보》사설에서는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자금 주선을 위하여 그 본국인 미국에 갔던 에비슨, 언더우드 양씨가 각 방면으로 활동한 결과 기부금이 이미 140만원에 달하였다고 한다. 원래 계획은 600만원이었으니 이 금액으로는 즉시 착수하기 불능하나 양씨가 조선에 돌아온 후 이 금액으로 우선 확장을 요하는 부분에 투자를 하고, 점진적으로 최초의 계획을 달성하리라고 본다. … 民立大學을 운운하고 全朝鮮을 擧하여 조선인으로 반대함을 보지 못하던 일이지만은,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우리의 수치를 하나 더 증가시킨데 지나지 못하고 있으니, 다른 것은 막론하고 이 교육사업에만 한하여서라도 우리의 성의가 진실한 데 이르지 못한 것을 스스로 책하지 아니할 수 없다(《東亞日報》, 1925년 12월 3일).

1925년 《延禧》誌에도 자금 모집을 위하여 귀국한 에비슨교장은 각 방면으로 활동한 결과 30만원의 기부를 얻었다 하며 장래에 목적하는 대학 승격도 불원간 실현되리라 하였다.⁶⁰⁾ 이 사업에 원한경부교장은 에비슨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1년간 在美 기간을 연장까지 하였다.

그러나 총독부는 일본 제국대학의 연장으로 조선통치의 고등한 정책에 의하여 설립된 경성제국대학을 제외하고는 일체 사립대학을 허가치 않는 방침을 취했다. 이에 따라 연전, 세의전, 협성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종합대학 승

60) 《延禧》5(1925).

격안은 좌절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 때의 연전·세의전 양교의 꿈은 1957년 1월 5일 延世合同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일제는 그들의 식민지 교육방침에 따라 우리에게 대학교육의 혜택을 주는 것을 원치 않았다. 다시 말하면 총독부는 그들의 선전적 효과와 정보수집의 일환으로 만들어 놓은 경성제국대학을 제외하고는 우리 민족의 민립대학과 한국내 선교단체 연합회의 기독교연합대학을 허가치 않았다. 이것은 原住民인 우리 민족의 권리신장과 자유주의사상이 발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제 통치기간중 특히 3·1운동 이후 줄곧 일어난 우리의 민립대학 설치운동과 기독교계통 전문학교의 대학 승격운동은 일본 식민지교육에 대한 민족적 반항의 표현이었으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민력과 교육수준이 대학을 가질 정도로 성장하였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다. 해방 후 몇몇 유지들에 의하여 설립된 수개 사립대학의 정신은 이 때의 민족적 기백을 바탕으로 세워졌다고 볼 수 있다.

5) 교육내용의 추이

(1) 애국교과와 훈화를 중심으로 한 교육내용

근대학교의 교육구국운동은 애국교과와 唱歌・體育에 의한 민족의식의 고취 그리고 교육실천을 통한 항일운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당시 사학에서 씌어진 애국 교과서를 보면 모두 충군애국하는 국가관념과 민족의식의 고취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일제에 저항하는 자주・독립사상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교과서 전체가 애국심을 고취하는 내용이었으며 또 젊은 학생들의 피를 끓게 하였다. 玄采의 《幼年必讀》, 張志淵의 《大韓地理》, 鄭寅平의 《大韓歷史》를 비롯하여 《越南亡國史》・《李舜臣傳》・《乙支文德傳》・《自由論》・《愛國論》 등 당대의 명저가 학생들의 교과서로 사용되었다.

漢城法學校 교장 현채는 《유년필독》의 범례에서 “우리 한인은 구습에 얽매이고 애국하는 일에 어두워, 이 책은 오로지 국가사상 환기를 주로 하고

역사으로써 총괄한다”고 하고, 〈我國我身〉이라는 제목 밑에 아래와 같은 글을 실고 있다.

우리가 此國에 났으니 차국은 곧 我國이요, 우리가 此身이 있으니 차신은 곧 我身이라, 그런즉 아국이라 함은 타국이 있는 연고요, 아신이라 함은 타인이 있는 연고며, 我의 자유라는 權은 사람마다 上天이 주신 바라, 타인이 감히 빼앗지 못할 배요. 我國도 또한 그러한지라, 타국의 간섭을 물리쳐, 自主權을 잃지 아니 하고, 독립하는 실상 힘을 지킨 후에야 아국이라 하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국을 보전치 못하고, 아국을 보전치 못하면 아신을 보전치 못하나이다(玄采, 《幼年必讀》 권 3, 〈我國我身〉).

또 《유년필독》의 제33과 〈愛國本〉이라는 글에서는 나라 사랑으로 자강할 것을, 제20과 〈獨立國自主民〉이라는 글에서는 우리 민족의 자주·자립을 강조하고 있다. 이같이 현재는 《유년필독》을 통하여 구한말의 청소년을 교육하는 데 있어 자주독립과 애국사상을 고취했다. 그리고 그는 《萬國史記》의 서문에서도 “나라 망하는 원인이 우리에게 있음”을 뉘우치도록 하고, 《波蘭末年戰史》의 발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능히 自恃한즉 자립할 수 있고, 자립하면 땅을 딛고 하늘을 마주할 수 있다. 자립의 실상은 君臣의 德을 같이하고 上下가 서로 믿음에 있으니, 임금된 자 밤낮으로 근심 근면하여 인민을 사랑하고 신하된 자는 나라 일에 짐을 지고 공을 위해 私를 잊어 나가서는 충성을 다하고 물러나서는 잘못을 바로 잡아 일호의 구차한 뜻이 그 사이에 없다면 그러한 뒤에야 內政이 바로 잡히고 外侮가 이르지 않는다.

國民教育會 편찬의 《初等小學》 권 5에서도 〈大韓帝國〉이란 단원을 설정하여 우리 나라 전국을 계시하고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임을 말하고서는 “우리가 이러한 좋은 나라에 성장하였으니, 우리가 모든 공부를 근면하여 국가를 부강케 함이 가하리오”⁶¹⁾라고 하여 부국강병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그리고 권 5에 역사상의 인물로 乙支文德과 姜邯贊을 열거하고 그들의 충성과 용맹을 본받을 것을 말해주고 있다.

61) 國民教育會編, 《初等小學》 권 5, 1907.

徵文義塾 편집부 편찬의 《高等小學修身書》에도 단원마다 애국·자주·독립사상을 말해주고 있으며, 申海永 편술의 《倫理學教科書》(상·하) 하권에서도 학생들에게 애국심의 발로를 아래와 같이 논하고 있다.

自國의 관념은 타국을 대하여 비로소 生함과 같이 자국을 愛하는 心은 외국을 대하여 비로소 각각됨이 有하니라 … 吾人의 애국하는 心은 금일에 初有함이 아니라 역사상 精來를 并蓄하여 特種 고유한 根性을 成함이리오(申海永 編述, 《倫理學教科書》하, 普成社, 1908, 62~64쪽).

장지연 역시 《愛國婦人傳》이란 변안소설을 통하여 프랑스의 애국소녀 잔다르크의 구국정신을 그렸다. 그는 여기서 “어찌 남자만 나라를 위하여 사업하고 여자는 나라를 위하여 사업하지 못할까”, “오늘 文武 재주를 배움은 정히 다른 때 국민의 亂을 구제코자 함이로다”, “국민된 책임을 다하여야 비로소 국민이라 이르지니 어찌 나라의 亂을 당하여 가만히 앉아 보고 구하지 아니 하리오”, “우리들이 오늘은 맹세코 반드시 나라와 한 가지로 죽을 것이요, 만일 나라가 망하면 우리는 단연코 살지 못하리라” 하면서 잔다르크의 구국정신과 독립사상과 희생정신을 그려 구한말의 소녀와 부인들에게 애국정신을 일깨워 주는데 큰 영향과 감동을 주었다. 장지연은 또 《伊太利建國三傑傳》의 서문에서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자주독립’에 매진할 것을 고취했다.

지금 이태리를 본다면 … 三傑이 출현하면서부터 轟轟烈烈하여 세계에 떨치게 되고 수십년 미만에 발흥하여 이 마음을 가진 자가 많아졌으니, 이 마음이란 무엇인고, 즉 소위 애국심이란 것이다. 우리 동포는 흥기하지 않을 것인가.

이 때 安國善 역시 《禽獸會議錄》에서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과 아울러 일제의 침략을 비판했다. 이 작품의 등장인물은 모두 擬人化된 짐승들인데, 이른바 표면적 의미와 잠재적 의미의 묘한 并列性을 지닌 알레고리의 형태를 근거로 한 것으로 일제의 무력적 식민지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공격을 짐승을 가탁하여 감행하고 있다. 이들 짐승들은 모두 인격성을 지니고 의인화되어 있는데 아래의 글은 《금수회의록》에 등장하는 여우의 연설이다.

나라로 말할지라도 대포와 총의 힘을 빌어서 남의 나라를 위협하여 속국도 만들고 보호국도 만드니, 불한당이 칼이나 육혈포를 가지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재물을 탈취하고 부녀를 겁탈하는 것이나 다를 것이 무엇 있오(安國善, 〈禽獸會議錄〉, 《韓國新小說全集》 8, 乙酉文化社, 1969, 19쪽).

이는 일본제국주의를 지칭하는 것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또 鄭寅琥의 《最新初等小學》을 보면 〈軍人〉이라는 글에서 “우리 학도는 장성한 후에 국가에 藩籬가 되어 賊이 침범치 못하게 할 용사 올시다”고 하여 항일 애국사상을 고취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구한말의 인문·사회 교과서는 단원마다 ‘애국’·‘자립’·‘자주독립’사상과 더불어 의식적으로 배일사상을 고취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을지문덕전》·《이순신전》·《강감찬전》·《東國名將傳》 등을 비롯하여 《泰西新史》(1897)·《波蘭末年戰史》(1897)·《法國革新戰史》(1899)·《애급 근세사》(1900)·《미국독립사》(1906)·《월남망국사》(1906)·《萬國史》(1906)·《이태리독립사》(1907)·《세계식민사》·《민족경쟁사》·飲氷室의 《自由論》 등은 정규 교과서는 아니었지만 각급 사립학교에서 정규 교과서와 같이 사용했던 책이다.

예를 들어 梁啓超의 《飲氷室全集》을 평양 大成學校에서 정규 교과서로 채택했던 사실은 漢文科의 교과서는 四書五經보다도 중국 양계초의 《음빙실문집》이었다는 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또한 《음빙실문집》에 대해서는 이런 일화도 있다.

三南 지방 출신인 유지가 島山을 찾아와 나라 일을 하고 싶는데 무엇을 하면 좋겠는지 모르겠다고 할 때에 도산은 ‘크게 용빠는 일만이 나라 일이 아니요, 양계초가 만든 《음빙실문집》이란 책이 있으니, 그것을 우선 몇 권 사서 삼남에 있는 유명한 학자에게 주어서 읽게 하시오. 그것이 나라 일이오’ 하고 타일렀다는 것이다(朱耀翰, 《安島山全書》, 三中堂, 1963, 87쪽).

위에 말한 책들은 모두 민족 주체성에 입각한 교과서이다. 어디까지나 민중을 계몽시켜 교육구국의 힘을 행사할 수 있고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한다는 민족내적 과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었다.

그러기에 이러한 교과서는 교육구국운동과 병행하여 사용된 것으로, 그 성

격이나 의의가 한결같이 자주독립과 애국심을 표방하고 있다. 말하자면 독립 사상으로 요약되는 정신적 내용면을 중요시했던 교과서이다. 따라서 교육구 국운동도 이러한 교과서가 있었기 때문에 전개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션학교도 우리 민족에게 정의와 애국심을 가르친 것이다. 이는 물론 기독교 그 자체가 불의한 자에 대한 저항의식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들 미션학교에서는 잔다르크라든가 조지 워싱턴과 같은 자유의 투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세계에서 가장 선동적인 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성서를 보급하고 또 가르쳤다. 기독교 역사의식은 역사안에 나타난 하느님의 계시를 찾고자 하는 정신 자세이다. ‘歷史 안에서의 啓示’란 명제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 주는 책이 바로 이 성서이다. 그러므로 성서는 기독교 역사의식이 어떤 것인가를 충분한 자료로써 보여준다. 그것은 성서를 기록한 사람이 신앙의 근거를 가진 역사의식을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특히 선천 信聖學校 교장 맥쿰(G. S. McCune)은 학생들에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훈화 제목으로 택하여 정의로 무장된 약자가 강대한 적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힘주어 가르쳤다. 아시아의 소국 유대가 그 뛰어난 정신력을 나타낸 일은 한 두번이 아니다. 양치기인 다윗이 巨人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유명한 이야기다. 다윗은 무력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 정신과 신앙의 힘으로 이 거인을 쓰러뜨렸던 것이다.

맥쿰의 이 훈화는 곧 일제에 대항하는 한국인은 골리앗에 맞서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다. 당시 이 땅의 모든 선교사들은 실질상의 한국 독립을 위한 열렬한 참피언들이었다. 그들은 미션학교를 통하여 일제 침략에 고민하는 한국인에게 하느님의 도움으로 ‘국권회복’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며, 독립을 위한 교도들의 단결과 열망은 반드시 하느님의 은총을 입을 것이라고 설교하였다. 또 때로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질곡에서 끌어내던 古史를 인용하여 설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설교가 얼마나 한국인에게 위안과 격려가 되었으며 감격을 불러일으켰는가는 1907년 ‘대부흥운동’ 이후 신도 수의 급증이 잘 설명하여 주고 있다. 이 위대한 종교적 각성은 정신 운동이었다.

(2) 창가와 체육을 중심으로 한 교육내용

唱歌라는 말은 신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한 초기 독일어의 ‘리이드(Lied)’, 영어의 ‘송(Song)’을 한자로 번역한 데서 유래하는데 실제로는 찬송가에서 시작된다. 구한말의 어둡고 괴롭던 시절 우리의 선배들은 스스로 창가를 지어 학생들에게 부르게 하고 민족의 가슴에 용기를 심어 주며 구국의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러기에 여기에는 우리 민족의 ‘얼’을 깨우치고 나라를 찾자는 피식된 외침의 소리가 담겨져 있다.

초기의 창가 중 이필균 작의 〈自主獨立歌〉는 이러하다.

아시아에 대조선이	깊은 잠을 어서 깨어
자주독립 분명하다	부국강병 진보하세
에야에야 애국하세	남의 천대 받게 되니
나라 위해 죽어 보세	후회막급 없이 하세

위의 〈자주독립가〉의 내용에는 자주독립·부국강병 등의 열렬한 외침이 담겨져 있다. 오늘날 國歌 대신으로 널리 불리고 있는 〈애국가〉가 이 시기에 애창되었음은 물론이요, 그 밖에도 〈少年男子歌〉와 〈少年冒險猛進歌〉 그리고 《유년필독》에 실려 있는 〈독립가〉와 〈血竹歌〉가 널리 애창되었다. 이 노래들은 모두 애국심의 고취, 국권회복 등의 사상을 담은 것이었다. 이 중에서 〈소년남자가〉를 보면 민족정신이 얼마나 팽창하였던가를 알 수 있다.

1. 무쇠 골격 돌 근육 소년 남자야

애국의 정신을 분발하여야
다다랐네 다다랐네 우리 나라에 소년의 활동시대 다다랐네
萬人 敵對 연습하여 후일 戰功 세우세
절세영웅 대사업이 우리 목적 아닌가

2. 忠烈士의 더운 피 순환 잘되고

독립군의 팔다리 민활하도다
벽력과 斧鉞이 唐前하여도
우리는 조금도 두려움 없네

3. 海戰과 陸戰의 모든 유희를

차제로 흥미 있게 승부 決하니
개신문 뚜렷이 열리는 곳에
勝戰鼓를 울려라 둥둥둥둥둥
(《皇城新聞》, 1909년 3월 21일).

이 때 자주정신과 청소년의 기개를 북돋우는 〈소년모험맹진가〉도 자주 불렀다. 이 창가는 제목부터 대단히 격렬하다. 그 내용에는 항일적 기개가 씩씩하게 담겨져 있다.

- | | |
|---------------------|--------------------|
| 1. 2천만 동포 우리 소년아 | 국가의 수치 네가 아느냐 |
| 천부의 自由松은 차가 없거늘 | 우리 민족 무삼 죄로 욕을 받는가 |
| 2. 나라 사랑하는 자 적지 않건만 | 모험맹진하는 자 몇이 되느냐 |
| 깰지라 소년들이 험한 마당에 | 조금도 사양 말고 달려 나가세 |
- (趙容萬 外, 《日帝下の 文化運動史》, 民衆書館, 1970, 254쪽).

이 〈소년모험맹진가〉는 자유와 독립을 위해 주저말고 나가 싸우라는 도전적 기개를 노래한 것이니 그 싸움의 상대는 바로 일제침략이었다. 이런 항일적 기개는 《해조신문》과 《大韓日報》의 〈運動歌〉에도 나타나 있다.

위의 노래들은 제목이 말해주듯이 倭敵들을 쳐부수어 우리 민족의 독립을 찾자는 드높은 기개와 굳은 의지가 넘치고 있는 내용들이다.

唱歌集 속에 있던 이색적인 노래로는 〈그리스도 軍兵歌〉를 들 수 있다. 기독교인들의 ‘저항 민족정신’은 각별한 것이었음을 다음을 통해 알 수 있다.

우리 大將 예수님은 전능하시니	怨讐冤鬼 무서워 말고 接戰해 보세
큰 勝戰할 때까지 앞에 나가서	앞으로 앞으로 달려나가세
앞으로 앞으로 달려나가세	魔鬼悌勢를 멸하세

미션학교와 교회는 이 노래를 강조하여 가르쳤다. 이는 기독교 신자들이 군대가 되어 일제를 공격하라고 격려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미션학교에 있어서 교육의 성격도 종래에는 算數・物理・化學・地理 등이 신기한 과목

으로 학생들의 호기심을 끌어 왔지만 1905년 이후에는 ‘국권회복’의 운동으로 창가와 체조가 주요한 학과목이 되었다. 창가는 본래 기독교의 찬송가에 기인하는 것이다. 미션학교 학생들은 그들의 찬송가에서, “믿는 사람들과 軍兵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 감시다” 또는 “그리스도 군사 앞서 나가세 십자가깃발 들고 戰場에 가듯” 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학생들의 ‘항일 민족정신’을 의미한다. 이 때는 또 전국을 휩쓸던 愛國歌・國債報償歌・獨立歌의 전성시대였다. 물론 일제통감부는 이러한 창가를 그들이 말하는 소위 ‘불온창가’라 하여 금지하였다. 당시 찬송가는 애국운동의 매개로서 이 나라 ‘내셔널리즘’의 기치가 되었고 종교적 성향과 함께 이 민족의 고동이었다.

그리하여 순수한 예배의식에서 떠나 자주독립을 표현하는 노래형태로 변모했다. 따라서 찬송가에서 시작된 창가도 역시 한말 내셔널리즘의 기치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찬송가에서 시작된 창가는 風雲과 亡國의 비통한 운명 속에서 짙은 종교적 성향과 내셔널리즘의 표현이었으며 찬송가와 함께 한말 우리 민족역사의 단편 바로 그것이었다. 그리하여 창가는 단지 ‘부르는 노래’였다기 보다 벽찬 민족의 고동이었으며 자주독립을 외치던 우리 민족의 ‘얼’이며 함성이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그 당시 근대 사학이 또 한 가지 강조하여 실시한 것은 體力의 훈련이었다. 당시의 학생들도 민족의 선각자이자 또한 독립운동의 주인공이었다. 그러기에 학교에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토론회・웅변회・운동회 같은 행사를 마련해 단체훈련을 하고 그들의 意氣를 높였다.

그리고 이 때의 체육은 단순한 스포츠를 단련한 것이 아니고, 일보 전진하여 구국운동의 일익을 담당케 했다. 운동회 때는 의례 ‘대한독립만세’란 철자 경기를 시켰으며 ‘독립가’를 부르게 했다. 특히 1907~1910년 사이에 있어서는 춘・추계로 학교연합 대운동회가 행하여 졌다. 이 운동회가 규모가 클 때는 한 道內 각 군의 학교 전부가 연합하여 대규모의 연합운동회를 행하였는데 대개 그 비용은 그 도민 전체가 부담했다. 그 당시 운동회야말로 우리 민족의 울분과 교육구국의 의지를 분출시키는 민족투지의 광장이었다. 그러기에 일제통감부 관계자들은 이 연합 대운동회에서 청년학도들이 나팔을 불고 북을 치며 行步하는 모습을 ‘武裝의 示威’로 해석하였던 것이다.

학교체육은 兵式敎鍊과 다름이 없이 강행되었다. 당시 체육 및 교련교사는 모두 무관 출신으로서 교육구국운동을 지도하던 인사였다. 그들은 을사조약 이후 각 곳에서 일어났던 의병활동을 지원하면서도 후일의 결전을 기약하기 위하여 사립학교에 배치된 구국운동의 전위대였다. 그리하여 오래 학교에서는 군대 나팔과 북으로 된 악대가 조직되어 있었고 이 악대가 나팔을 불고 북을 두드리는 가운데 학생들은 목총을 메고 군대식 훈련을 받았다. 그들은 군사훈련의 경기를 통하여 국민의 사기를 북돋고 애국심을 고취시켰는데 이를 지켜본 당시 한 선교사는 아래와 같이 보고하고 있다.

어떤 학교들은 교련과 체조에 훌륭한 성과를 보였다. 江西에서 온 학교가 평양에서 열린 4월 운동회 때 道長官이 주는 1등상을 탔다. 이 학생들은 말쑥한 복장에 十字 章을 양 어깨에 달고 성경책과 찬송가책을 군대 배낭같이 만들어 등에 지고 와서 매우 인상적이었다.

1906년 義州에서는 병식 체조교련을 받기 위해 교외를 행보하던 학도와 일본군대 사이에 충돌사태가 벌어졌으며 1908년 5월에는 의주 일본수비대와 학생간의 충돌 사건으로 4명의 학생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특히 대성학교에서는 체육시간을 제일 중히 여겨 군대식으로 학생을 교련하였다.

도산 안창호가 이렇게 대성학교에서 체육을 강조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외국이 마음대로 우리 강토에 들어와서 설치하는 것은 우리 나라에 힘이 없는 까닭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도산이 말하는 힘-실력은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국민의 실력’ 즉 民力이었다.

이 때 박은식도 학교에서의 체육교육을 강조하였다. 그는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교육이 지나치게 文弱에 빠졌다고 보고, 학교 교육에서 체육을 강화함으로써 강건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학생들에게 씩씩한 尙武精神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교육구국운동의 인재를 기르기 위함이었다.

데미(C. S. Deming) 목사는 당시 학생들의 군사훈련 상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고 있다.

학생들이 모여서 교련 시범을 보인 바, 그 정확하고 一致한 동작은 다른 어떤 군대라도 따를 수 없을 것이다. 이 체조가 끝난 뒤에 학생들은 3개 중대로 나뉘어서 한 중대는 진지를 지키고, 나머지 두 중대는 이를 공격해 왔다.

그들은 폭죽과 흰 공, 붉은 공을 무기로 사용하였다. 한참 동안 城 주위에서 棧動하는데 進功 작전, 후퇴 작전, 돌격, 점진, 적십자 활동 등을 하며 격전을 벌이면서 城을 함락시키고 대위버림으로 끝을 냈다(L. G. Paik,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s in Korea*, Pyen Yong ; Union Christian College Press, 1929, p. 329).

이 같은 체조나 운동회는 바로 교육구국운동을 말해 준다. 이에 대해 학부차관 다와라는 그 목격담을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앞서 내가 평양에 가서 목격한 평안남도 一圓의 학교연합 대운동회는 비단 그 규모가 클 뿐 아니라 함부로 나팔을 불고 북을 두드려 완전한 武裝的 시위의 운동회였다(國史編纂委員會, 《韓國獨立運動史》I, 1967, 301쪽).

이와 같이 한말 근대 사학에서 실시한 운동회 및 체육은 일제에 대한 저항세력을 양성하는 과정이었으며, 당시의 교육내용의 추이를 파악하는 단서이기도 하였다.

〈孫仁銖〉

4. 교육구국운동의 추진

1) 근대 교육의 성격

(1) 근대 교육의 성격

19세기 후반기 이후의 한국사는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국권수호 즉 자주화의 방향과 함께 한편으로는 전통사회로부터 탈피하여 새로운 근대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근대화의 방향으로 전개되는 시대상황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근대화의 성공이 제국주의 침략을 저지하고 자주국가로의 발달을 이룩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한국근대사는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민족운동이 그 주류를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19세기 후반기에서 20세기 초까지 전개된 민족의 여러 방향의 활동은 그 나름대로 국권의 수호와 근대화를 위한 민족운동이라는 의미와 성격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한국의 근대 교육은 이러한 민족의 움직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역량을 조성하는 중요한 역사적 기능을 내포하고 있다. 즉, 한국의 근대 교육은 개항 이후 밀려오는 서양의 근대문물을 수용하여 새로운 사회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동시에 외세의 침략에 저항하는 민족의 정신적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한국의 근대 교육은 민족교육이라는 역사적 성격을 갖는 동시에 근대 교육운동 그 자체가 민족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 근대 교육을 민족교육으로 인식할 때 이는 주로 1905년 이후의 사립학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1894년 갑오개혁이 진행되면서 실시된 교육개혁의 결과 성립된 관공립학교의 교육이념이 1895년 2월 발표된 교육입국조서나¹⁾ 1895년 9월 발표된 학부고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애국적이고 민족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학부고시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은 개화의 본이라 애국의 心과 부강의 術이 모두 학문으로부터 生하나니 오로지 나라의 문명은 학교의 성쇠에 달렸는지라 이제 23부에 학교를 아작다 설치하지 못하였거니와 위선 京城內에 소학교를 壯洞·貞洞·廟洞·桂洞의 네 곳에 설립하여 아동을 교육하는데 … 그 과정은 五倫行實로부터 小學과 本國歷史와 地誌등 時宜에 적응한 서책을 일체 교수하여 虛文을 버리고 實用을 尙하여 교육을 務盡케 하노니 夫 외국 학교의 규정을 보건대 兒童이 학교에 입학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父兄을 罰하는 예도 혹 있는지라 本國에는 이 규정을 아직 設學치 못하였으나 아동의 부형되는 자는 그 자제를 대동하고 本部에 來하여 許入狀을 受한 후 학교에 赴하여 학업을 務修하되 혹 나태하여 끊어짐이 없기를 바라(《舊韓國官報》, 1895년 9월 30일, 告示〈學部告示〉4호).

1) 《承政院日記》, 고종 32년 2월 2일.

《舊韓國官報》, 개국 504년 2월 2일, 조칙 1(이하 《官報》).

즉 교육이 국가발전의 기초가 됨을 말하고 있으며 관립소학교의 교육내용에서 국어와 본국사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보다 조금 앞서 발표된 소학교령과 소학교교칙대강의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는 소학교뿐만 아니라 같은 해에 설립된 한성사범학교나 외국어학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소학교교칙대강에 제시된 교과목의 요지에서 본국지리의 교수요지는 “... 그 생활에 관하는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게 하고 겸하여 애국하는 정신을 養함”이라고 하였으며, 본국역사에서는 “國體의 대요를 알게 하여 국민된 志操를 養함”이라고 하였다.²⁾

한성사범학교는 그 교육요지의 하나로 “尊王愛國의 志氣에 富함은 敎員者의 중요한 바 故로 학원으로 하여금 평소에 忠孝의 大義에 明하여 국민의 志操를 振起함을 요함”으로 규정하고 있다.³⁾

이로 보아 한국 근대 교육의 발전기인 1895년 정부에서 설립한 각종 관립학교에서 전개된 교육이 민족교육의 전개과정으로 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성격은 1906년 일제의 통감부에 의해서 교육 침략이 진행되기까지 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관공립학교에서 나타난 민족교육의 성격은 거의 같은 시기에 설립되기 시작한 사립학교에 있어서도 나타나고있다. 1906년 전반기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설립된 사립학교는 관공립학교만으로는 부족한 교육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관공립학교와 함께 민족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였다.

당시 관공립학교의 민족교육의 성격은 국어와 본국사를 중요시하였다는 것에서 단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제시한 학부고시에서도 나타난 바이지만 근대 교육 발전기에 가장 고등한 수준의 사범학교에서는 이것이 더욱 강하게 제시되고 있다.

한성사범학교에서 본국사의 교육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중요시하였다는 것은 입학시험과목에 본국사 과목이 포함되어 있었고, 또 입학자에게 필요한 서류로 제시해야 하는 學業履歷書에 역시 본국사를 이수한 사실을

2) 《官報》, 개국 504년 8월 15일, 학부령 3호 〈小學校敎則大綱〉.

3) 《官報》, 개국 504년 7월 24일, 학부령 1호 〈漢城師範學校規則〉.

기록하여야 하였던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다.

(2) 근대 민족 교육의 확대

한국의 근대 민족교육이 전개되는 과정은 1880년대부터 1910년에 이르기까지 그 정치적 정세 변화와 관련하여 세 단계로 구분되어진다.

제1단계는 1880년대초에서 1894년 갑오개혁이 진행되는 때까지이며, 제2단계는 1895년 정부에 의해 근대 교육이 제도적으로 정착되면서 발전하기 시작하여 1905년 러일전쟁으로 을사조약이 체결되는 때까지이며, 제3단계는 1906년 일제의 통감부가 교육침략정책을 실시하며 민족교육을 억압하면서 1910년 국권이 침탈당할 때까지이다.

근대 민족교육의 전개과정에서 문제의 초점이 되는 것은 제3단계에 대한 이해이다. 이 시기는 일제가 한국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식민지 침략을 준비하던 시기로서 한민족의 자주독립정신을 억압하기 위해 교육침략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시기이다. 이로 인하여 그동안 발전하던 민족교육은 큰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으며, 특히 관공립학교의 경우 민족교육이 크게 위축되거나 거의 그 의미를 상실할 단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 시기의 민족교육은 침체기이자 위축기이며 동시에 수난기 또는 시련기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통감부의 교육침략정책에 대항하여 민족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민족의 노력은 구국운동의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즉 일제의 침략에 대항하여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민족의 정신적 기반이 민족교육에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어 전국적으로 민족사립학교의 설립이 급증한 것이다.

이제 한국 근대의 민족교육은 관공립학교의 민족교육이 통감부의 식민지를 위한 준비교육으로 전락해 가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사립학교에서 크게 확대되어 갔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통감부는 사립학교령과 교과용도서 검정제도를 실시하여 사립 학교의 설립을 통제하고 나아가 교육내용을 철저히 통제하려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민족교육은 많은 시련을 겪기도 하였지만 이에 굴복하지 않고 학교의 설립과 독자적인 교육을 추진해 나갔다. 1910년 5월 말 현재 전국의

사립학교가 통감부의 인가를 받은 학교 2,250개교를 포함하여 5천여개교에 이르렀다. 학생의 수효도 20여 만에 달하였는데 이는 학교와 학생수에 있어서 관학을 능가하는 것이었다.

이들 사립학교에서는 통감부의 교육침략에 대항하여 민족정신을 배양하는데 주력하여 애국적인 내용의 교과목을 중요시하였고 통감부의 감독과 감시를 피하여 사용이 금지된 교과서를 사용하면서 민족교육을 추진해 나갔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기를 민족교육의 위축기 또는 침체기가 아니라 민족교육의 확대기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구국교육운동의 실태

(1) 사립학교의 설립

1905년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귀결되고 을사조약이 강제 체결되어 국권의 침탈 위기가 높아지면서 민족운동을 전개하던 애국적 인사들이 교육사업에 종사하거나 교육단체를 조직하여 교육운동은 구국운동의 양상으로 전개되어 갔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통감부 설치 이전에 나타나고 있었다. 1905년 嚴柱益이 養正義塾을, 李容翊이 普成學校를 세운 것도 국권수호를 위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구국교육의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교육단체로는 1904년 9월 설립된 國民教育會를 필두로 각 지역에 연고를 둔 단체들이 설립되었다. 이들 학회들은 교육을 통하여 국권을 회복하는데 그 목표를 두었다. 1906년 10월 朴殷植 등 10여명의 발기로 설립된 西友學會의 창립 취지문에서도⁴⁾ 청년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국권의 회복과 인권의 신장에 기초가 됨을 밝히고 있다.

한편 서우학회에서 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을 추진함에 있어 교사의 양성이 절실하자 西友師範學校라는 명칭으로 속성사범과 야학교를 설립하였는데 이때 초대교장으로 취임한 박은식이 사범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교육이

4) 《西友學會月報》, 창간호 〈本會趣旨書〉, 1906년 12월 1일.

국가존립의 기초임을 천명하고 있다.⁵⁾

당시 구국교육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학교를 설립하려는 애국지사들에 의하여 설립된 학회는 앞의 국민교육회나 서우학회와 함께 大韓自強會・漢北興學會(뒤에 서우학회와 통합하여 西北學會가 됨)・皇城中央會・湖南學會・嶠南教育會・大同學會・女子教育會・太極學會・大韓興學會・大韓同寅會・大韓學會・關東學會・輔仁學會 등이 대표적이었다. 이들은 지방에 지부를 설치하여 그 운동을 전국으로 확대하였으며 각 곳에서 강연회나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민을 계몽하는데 앞장섰다.

각 학회들은 기관지를 발간하여 국권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신학문을 소개하는 등 국민계몽에 노력하였다. 학회에서 발간한 기관지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는 《大韓自強會月報》・《西友》・《西北學會月報》・《畿湖興學會月報》・《大韓協會月報》・《湖南學會報》・《大韓興學會報》 등이 있다.

이들 학회들이 주력한 것은 학교를 세우는 일이었으며, 교육침략을 통한 식민지 지배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 통감부에서는 이들 학회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1908년 8월 학회령을 발표하여 구국교육운동을 막으려 하였다.

당시 학회의 구국교육활동을 전개하면서 학교경영과 교육사업 및 국권수복에 앞장섰던 상황을 일본인들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학회라는 것도 요즈음에 와서 그 설립이 점차 많아져, 그 이름은 학회이나 사실은 정치상・사회상의 운동을 주로 하며, 교육사업을 從으로 하여 정치와 교육과를 혼동하는 폐단이 심하므로 학회령을 발표하여 각각 설립 인가를 학부 대신에게 받도록 하며, 또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엄금하였다(일본외무성, 《일본 외교문서》 권 42-1, 1909년 8월 30일, 190쪽).

학회의 設學運動에 따라 각지에 학교가 설립되고 있는 상황을 黃玹은 그의 《梅泉野錄》에서 “학교와 사회단체가 나라 안에 가득하였으며 특히 관서 지방의 설학 운동이 왕성하였다”고 전하고 있다.⁶⁾ 또한 당시 《황성신문》이

5) 《大韓每日申報》, 1907년 3월 16일.

6) 黃 玹, 《梅泉野錄》 권 5, 광무 11년 3월 16일.

나 《대한매일신보》에서도 이와같은 학교의 설립이 自主獨立과 國權恢復의 길임을 주장하며 국민들이 이에 대해 물심 양면으로 협조할 것을 요청하는 기사와 논설을 자주 게재하고 있다.

《황성신문》은 우리 나라가 약해지게 된 이유를 시세의 변화에 관심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면서 유지들이 구국의 정신으로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커다란 다행이며 이를 국민들이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임을 호소하고 있다.⁷⁾

한편 《대한매일신보》에서도 교육운동을 구국운동으로 규정하면서 학교가 크게 일어나는 것은 국권회복을 위하여 귀중한 일이라고 하면서 교육을 통해서만이 나라를 다시 일으킬 수 있음을 강조하고 국가의 자유독립을 위해 학교를 많이 세워 교육을 진흥시킬 것을 호소하고 있다. 학교가 크게 일어나는 것은 국권회복을 위하여 귀중한 일이라고 하면서 학교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⁸⁾

학교 설립과 교육활동 등 사립학교의 구국교육운동을 자주 소개한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에는 거의 매일같이 학교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고 있었다. 이들 신문은 수시로 학교설립과 전국적 또는 지역별 학교 숫자를 알리고 있다. 두 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중심으로 학교의 설립상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906년에 인가를 받고 설립한 사립학교는 63개교였으며,⁹⁾ 평안북도 龜城에서는 1906년 9월 현재 학교 22개교에 학생수 1,387인, 교사는 22인이었다.¹⁰⁾ 또한 1907년 4월 학부에서 전국 각지에 설립된 관공사립학교를 조사하였는데 1896년까지 설립된 관립학교는 19개교이며, 1897년 2월부터 1904년 12월까지 공립이 51개교, 1898년 12월부터 1907년 4월까지 사립학교가 183개교라고 보도하고 있다.¹¹⁾

이와 같은 구국교육운동의 전개에 대하여 일본인들도 우려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통감부측의 일본인들은 한국인의 구국교육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사실을 주시하면서 이들 사립학교의 교육활동이 조련과 불량교과서 사용, 불온한 사상 주입, 정치와 교육의 혼동 등이 전국적으로

7) 《皇城新聞》, 1906년 3월 24일.

8) 《大韓每日申報》, 1906년 1월 6일.

9) 《皇城新聞》, 1906년 12월 19일.

10) 《大韓每日申報》, 1906년 9월 23일.

11) 《大韓每日申報》, 1907년 4월 11일.

크게 변지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었던 것이다.¹²⁾

이와 같이 학교의 설립이 크게 늘어나고 민족교육이 확대되어 가자 이를 억제하고 통제와 간섭을 강화하려는 통감부의 교육침략정책이 사립학교령의 발표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사립학교령에 의해 학교 설립을 억제하려고 하였으나 사립학교령의 규제범위 안에서라도 많은 학교들이 설립인가를 신청하고 있었다.

1908년 10월 1일 이전 학부에서 인허한 사립학교는 326개였는데¹³⁾ 1909년 5월에는 既設學校를 포함하여 인가청원 학교가 1,824개교이었다. 이 중에 인가된 학교가 337교, 거부된 학교는 930교, 나머지는 심사중이었다. 10일 후에는 신청학교 1,909개교에서 인가된 학교가 459교였으며 다시 13일 후에는 1,976교의 신청에 774개교가 인가되고 있다.¹⁴⁾ 이 숫자는 계속 증가하여 1909년 9월에는 인가학교가 1,852교가 되었으며¹⁵⁾ 1910년 7월 말 현재 한국 내의 각급 학교의 총수는 2,237개교였다.¹⁶⁾ 그러나 많은 학교들이 사립학교

12) 高橋濱吉, 《朝鮮教育史考》(帝國地方行政學會 朝鮮本部, 1927), 298쪽.

13) 《皇城新聞》, 1908년 11월 6일.

14) 《皇城新聞》, 1909년 5월 16일, 6월 9일.

15) 《皇城新聞》, 1909년 9월 21일.

16) 《官報》, 융희 4년 8월 13일과 《대한매일신보》 1910년 8월 7일에 당시 도별로 각급 학교의 통계가 다음과 같이 발표되었다.

도별	관공립학교	사립학교(종교학교포함)	계
한성부	19	94	113
경기도	19	183	202
충청북도	6	47	53
충청남도	7	86	93
전라북도	8	75	83
전라남도	14	40	54
경상북도	9	141	150
경상남도	13	98	111
황해도	9	251	260
평안남도	11	417	428
평안북도	10	367	377
강원도	9	37	46
함경남도	14	189	203
함경북도	7	57	64
계	155	2082	2237

령이 규정한 규모에 미치지 못하여 신청하지 않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신청을 하지 않은 학교도 다수 있었으므로 실제의 사립학교는 인가된 학교수의 두 배가 넘는 5천여개교나 되었다는 것이 현재 일반적인 견해이다.¹⁷⁾

1909년 11월 당시 지방의 교육실태를 충청남도의 예에서 보면 보통학교의 경우 공사립을 합하여 112개교이며 학생수는 5,472명이고 교사는 330명이었다. 특히 서당이 686개소나 되고 학생수가 4,096명이며 종래 학습하던 한문과 습자 이외에 본국사와 지지를 함께 가르치고 있었다.¹⁸⁾

당시 서당은 학교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또한 그 교육내용 가운데 근대학교에서 교육하는 과목이 포함되었고 특히 그 과목이 애국심을 기르기 위한 본국사와 지지인 것으로 보면 당시의 교육이 민족운동 또는 구국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위의 충남에서 예시된 서당의 현황이 다른 지방에서도 비슷하다면 구국교육운동의 폭이 더욱 넓게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설학취지문의 검토

이들 사립학교의 설립이 구국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학교 설립의 목적을 나타낸 ‘設學趣旨文’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설학취지문은 특히 1905년 이후 설립된 학교들의 학교 설립의 목적과 교육이념 등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이를 발표함으로서 국민들에게 나라의 형편과 일본침략의 실상을 알게 하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애국정신을 고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설학취지문이 가장 많이 발표되는 시기는 1908년으로, 이후에는 감소되고 있으나 이는 통감부가 사립학교의 설립을 통제하여 구국교육운동을 억압하기 위해 사립학교령을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1905년 이전에 설립된 학교들도 이 시기에 설학취지문을 발표하고 있다.

설학취지문은 그 명칭이 취지서 또는 취지문이라고 하였거나 단지 취지라

17) 사립학교령에 제시된 학교인가 신청에 필요한 구비요건은 다음과 같다.

학교의 목적 및 명칭, 위치, 학칙, 校地와 校舍의 평면도, 1개년의 수지예산, 유지방법(기본 재산이나 기부금에 대한 서류첨부), 설립자와 학교장 및 교원의 이력서, 교과용 도서명 등.

18) 《皇城新聞》, 1909년 11월 13일.

고 한 학교도 있다. 이미 설립된 학교를 확장하거나 증건하는 경우에 확장취지문 또는 증건취지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설학을 알리면서 학교에 나와 공부할 것을 권하는 권고서 또는 권유문으로 표현한 것도 있다.

설학취지문에 나타난 설학이념을 대체적으로 애국심의 고양, 인재의 양성, 민첩의 개발과 문명의 발달, 국권의 회복 등 네 가지로 간추릴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국권의 회복이다. 이는 당시 한민족이 전개하고 있는 민족운동의 궁극적인 지향점으로서 구국교육운동의 방향이 국권의 회복이었음은 당연한 일이었다.

국권회복의 내용 속에는 나라의 부강 또는 독립의 기초를 확립하는 의미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취지문에 제시된 표현을 보면 ‘國祚中興’, ‘國力之挽回’, ‘國權을 重恢於列強之中한다’, ‘自修自強之法은 設學에 있을 뿐이다’, ‘救國救民이 唯有教育一道耳’, ‘國勢之振이 教育에 따른다’, ‘振興國勢’, ‘回復主權하고 脫去羈絆한다’, ‘國權의 恢復과 生命의 유지’, ‘學校는 富強之礎’, ‘列強과 어깨를 겨누고 國基를 鞏固히’, ‘我韓獨立之基本이 實惟在教育’, ‘退縮된 國步와 墜失된 人權을 挽回’, ‘나라의 독립의 회복’, ‘國家富強을 이룩하고 獨立之國으로 發展’, ‘挽回我獨立之權’, ‘尊國復權’, ‘復國權之策이 教育의 發達에 있음’, ‘獨立自由自強之基礎’ 등으로 표현은 각각이나 그 의미는 비슷하다.

애국심의 고취를 강조하는 내용에서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국민의 의무라고 하면서 학교교육이 이의 바탕이 된다는 것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특히 충군애국으로 표현한 것이 많으며 학교 설립 자체를 애국의 誠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였다.

애국심의 고취에 포함된 내용에는 ‘조국의 정신을 환기시킨다’, ‘조국정신을 각성하여 뇌수에 관통시킨다’, 애국심의 고양, ‘애국정신의 고양(또는 배양)’, ‘국가정신의 고양’, ‘충군지심을 목적으로 한다’, ‘자국의 정신을 기른다’, ‘애국사상을 기른다’, ‘조국의 사상과 정신을 고취한다’ 등의 표현이 있다. 이는 당시의 교육이 애국심을 고취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당시 교육을 애국교육이라 표현한 것과 직결된다.

인재의 양성은 교육의 본질이라는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다. 즉 옛부터 국가에서는 교육을 통하여 인재를 양성해 왔으며 그러므로 당시의 역사적 상

황에서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 가야 할 인재의 양성은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하였다.

어떠한 인재를 양성하는가를 살피는 것은 당시의 시대가 요청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인재양성에 대하여 각기의 취지문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신학문을 교육받는 것이다. 서양의 나라들이 부강하게 된 것을 학교가 발달하고 신학문을 교육받은 때문으로 파악하고, 우리도 이와 같이 학교를 세워 신학문을 공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새로운 지식과 지혜를 열어 나가고 밝은 덕을 길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능을 개발하고 덕성을 함양하며 건전한 체육을 통하여 人道에 도달하며 善良完美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인재라 할 수 있고 이들이 사회를 개명하고 국가에서 필요로 할 때 쓰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한마디로 당시의 바람직한 인간상은 신학문을 배워서 새로운 지식과 지혜를 갖추고 덕성이 있으며 건전한 몸과 정신을 지닌 사람으로, 국가가 필요로 할 때 봉사하고 부강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인 것이다.

한편 인재의 양성과 함께 ‘문명의 발달’이나 ‘民智의 개발’을 함께 제시하기도 하였는데 ‘人才養成 開發新智’ 또는 ‘英才를 키우고 문명을 발달하게 함’이나 ‘培養人才 開發民智’ 또는 ‘人才의 養成 愚民의 開明’이나 ‘人才養成 民智開發’ 등의 주장은 그 예이다. 民智의 개발이나 인재의 양성도 그 궁극적 목표는 국권의 회복이지만 방법적인 의미로서 그러한 표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취지문이 국권의 회복을 중심이념으로 하면서 특히 인재양성과 애국심의 고양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설학취지문을 통해서 당시 한민족이 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념이 국권 회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당시 구국교육운동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¹⁹⁾ 한편 설학취지문은 당시 민족내부에서 나타났던 근대 교육과 전통 교육의 갈등적 측면과 함께 이의 조화를 이루려는 측면을 보여주

19) 設學趣旨文은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에 게재된 것을 대상으로 검토한 것이다. 검토 내용은 다음의 논문에 상세히 제시되었다(金興洙, 〈韓國近代民族私學의 成立과 教育內容에 關한 研究〉, 《歷史教育》 50, 1992).

고 있다. 취지문에서는 일반적으로 근대 교육을 신교육으로 표현하고 이를 新學 또는 신학문으로, 전통 교육을 舊學 또는 구학문으로 표현하였는데 대체로 그 구체적 내용은 經傳을 지칭하였으나 도덕이나 예절 또는 舊習이라고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신학은 서양에서 들어온 학문으로 時務之學이며 기술학문, 또는 실학을 의미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역사·지리·산술·이과·외국어·법률 등의 과목을 지칭하였다.

취지서 가운데에는 신교육이 필요한 이유로 서양의 여러 나라들이 부강하고 발전하게 된 것이 신교육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하여 우리가 뒤떨어진 것은 구습에 젖어 신학을 연구하지 못하니 인재가 위축되고 백성들의 지혜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는가 하면, 학교에 입학하여 당세에 쓸모있는 교육을 받아 뒷날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될 것을 말하여 신교육을 ‘當世有用之敎’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²⁰⁾

또한 아직 구습이 많이 남아 있어 신학에 대해 알지 못하니 부형된 자는 고루한 옛 생각을 버리고 개명한 신학문을 열심히 가르치라고 권고하여 구학을 고루한 것으로 나타내기도 하였으며, 구교육의 결점은 진화에 부적하고 투기에 불합하여 無用의 徒勞에 그칠 뿐이며 신교육은 만고의 학을 참고하고 만국의 장점을 취한 최신의 학문이므로 이의 교육은 피치 못할 국민의 의무라고 주장한 것도 있다.²¹⁾

이처럼 구교육을 고루하고 비실용적인 것으로 보고 세계가 발전하고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구교육에서 탈피하여 신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구교육을 배척하는 취지서가 있었으며, 이러한 계통의 사람들은 경서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교육을 그대로 실시하고 있는 私塾의 철폐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일부 유럽이나 의병이 학교 설립을 반대하거나 학교를 파괴 또는 소각하였던 일과 대립된 것으로서 근대 구국교육운동의 전개과정에서 보이고 있었던 신구교육의 갈등현

20) 《皇城新聞》, 1906년 5월 9일, 잡보 〈維校請捐書〉.

《皇城新聞》, 1907년 5월 24일, 잡보 〈樂一學校趣旨書〉.

이상 각각의 학교는 咸北 端川 維新學校와 慶北 靑松 樂一學校이다.

21) 《皇城新聞》, 1908년 6월 3일, 잡보 〈대송학교 설립취지서〉.

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당시 국내에는 아직 근대 민족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보수적인 유림을 중심으로 일부 계층의 인사들이 전통 교육을 고집하면서 교육운동을 방해하는 일이 상당히 광범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민족교육운동을 방해하는 이 유중에는 당시 근대 교육이 일본침략을 조장한다고 생각하는 애국적인 사람들이 일본의 침략을 막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근대 교육을 방해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이와 함께 학교의 재원을 둘러싸고 관계자 사이에 이해가 대립되어 나타나는 분쟁도 비일비재 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 설립을 명분으로 기부금을 강요하는 일도 있었다. 또한 학교 재원으로 귀속된 마을의 공동재산을 학교 관계자가 유용하여 분쟁과 소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은 통감부가 사립학교를 간섭하는데 좋은 구실을 주어 마치 사립학교 설립이 기부금 재원을 유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파악하기에까지 이르렀다.²²⁾

한편 학교 설립을 반대하고 이를 방해하는 움직임은 일부 의병부대에서도 이루어졌다. 즉 신교육의 추진을 일제의 침략으로 이해하는 일부 보수적 경향의 의병의 행동이 있었다. 南宮櫛이 1906년 강원도 양양에 세운 현산학교에 의병들이 진입하여 학교를 불태웠으며, 1907년에는 충북 단양군에 있는 사립보통학교의 교감 오면상을 살해하였고, 경북 순흥군에는 의병 5~6백명이 소흥학교의 건물과 집기를 불태운 적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당시 한국사회의 격변기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반침략적 민족운동과 근대 민족교육의 전개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신구사회이념의 갈등현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반교육적 움직임은 시대적 흐름으로 전개된 근대 민족교육의 구국교육운동으로의 확대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신구교육을 名과 實 또는 表와 裏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양자를 잘 조화시켜 교육의 성과를 크게 해야 한다는 취지서도 있다. 즉 신

22) 이는 사립학교령 발표 직후 지방 시찰에 나선 당시 학부대신 李載崐이 “학교 설립을 빙자하여 재단에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이를 유감으로 여기는 바”라고 언급한 데서 알 수 있다(《황성신문》, 1908년 11월 15일).

교육이 구교육과 크게 다른 것이 아니라 교육이란 다만 옛날의 가르침에 더하여 사람의 지혜를 개진하게 하는 것이므로 옛 성현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여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현실에 맞도록 신교육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²³⁾ 또한 新과 舊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이며 舊가 있어야 新이 있고, 新이 있어야 舊가 있는 것이면서, 舊學은 新學의 근본이며 신학은 구학을 보다 발전시킨 것이니 신구학은 서로 표리가 되고 명과 실이 되어야만 학문이 될 수 있고 문명교육의 본뜻을 얻게 된다고 하여 신구교육을 같이 이끌어 나갈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²⁴⁾

이처럼 신구교육을 대립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상호보완 및 협조적인 차원에서 통합하여 교육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은 신구교육의 대립적 내지 갈등적 표출로 일어날 수 있는 민족 내부의 분열을 막아 일본의 침략에 대항하고 민족의 역량을 증대시키려는 민족적 자각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으로는 서양의 문명을 수용하여 문명부강해야 되고 이를 바탕으로 국권을 수호할 수 있다는 인식이 그 바탕이 되었다.

이와 같이 신구교육의 조화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근대 민족교육의 내용 속에 전통교육의 요소가 남아 있으면서도 신문명을 수용하는 교육내용이 구성되어 민족교육의 전통이 형성되었으며, 구국교육운동의 전개에 있어 민족적 추진력을 더할 수 있었다.

(3) 간도지역의 민족교육운동

국내에서 전개된 구국교육운동은 당시 일제의 침략에 대항하여 국권수호 내지 민족독립운동의 기지로서 한민족 이주민의 중심지로 성장해 간 간도지역, 그 중에서도 특히 延吉과 龍井에서도 왕성하게 전개되었다.

19세기 후반 이후에 계속된 흉년과 과중한 징세를 피하여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이주해 온 한국인들은 연길과 용정 일대에서 간도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벼농사를 시작하였다.²⁵⁾

23) 《皇城新聞》, 1907년 8월 31일, 잡보 〈관동학교 취지서〉.

24) 《皇城新聞》, 1907년 9월 22일, 잡보 〈壽昌學校 趣旨書〉.

25) 《조선족약사》(연변인민출판사, 1989), 13~15쪽.

이러한 경제적 조건으로 한국인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이주하는 숫자가 많았으며 이는 1905년 이후 민족독립운동 지도자들이 독립운동의 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 되었다. 그리하여 1905년 이후 한국으로부터의 이주민이 단순한 경제적 이유에서가 아니라 민족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이주가 계속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연길과 용정은 간도지역의 한민족 거주지의 중심이면서 민족독립운동의 근거지가 되었던 것이다.

연길과 용정지역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은 구국교육운동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연변지역에서 한국인 근대학교가 출발한 것은 1905년 대한제국정부에 의해 개교한 北鰲島公立小學校이다. 즉 1905년 3월 학부에서 吳在英·金容洽·金聲振·崔定鉉·朴秉輝·盧承龍·李南燮·金重經 등 8명의 부교원을 북간도공립소학교에 임용하였다.²⁶⁾

당시 국내에서도 각지의 공립소학교에 해당지역의 인사로 부교원을 임용한 것으로 미루어 북간도공립소학교에 임용된 부교원도 현지에 이주하여 살고 있는 한국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북간도공립소학교가 개교한 사실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 이는 당시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관찰권을 둘러싸고 청국정부와 대한제국정부 사이에 마찰이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대한제국이 간도지역에 대해 주권을 행사하려는 의지와 관련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²⁷⁾

한국인의 근대학교가 설립된 일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일본인들이 1906년 초 통감부에서 간도파출소를 두었으며, 간도파출소의 일본인들이 李相高이 설립한 용정 瑞甸書塾의 애국교육을 방해하기 위해 그 터를 사서 이 곳에 1908년 간도공립보통학교를 설립하였다는 정도이나²⁸⁾앞에서 본

26) 《官報》, 광무 9년 3월 17일.

27) 당시 대한제국정부에서는 이 지역 한국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1902년 李範允을 시찰원으로 파견하였으며, 이범윤은 이주한국인의 실태를 파악하고 한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군대의 필요성을 고종황제에게 상주하기도 하였다. 군대파견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1903년 대한제국정부에서는 鰲島管理使를 설치하기로 하고 이범윤을 관리사로 임명하였다. 이범윤은 한인으로 군대를 조직하고 이를 훈련시켰다. 이에 청국정부는 한국의 간도관리사를 소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 문제는 양국 사이의 외교문제로 확대되었다. 이 문제는 쉽게 종결이 나지 않다가 러일전쟁 때문에 잠정적으로 보류되게 되었다.

바와 같이 정부에서 관계된 공립학교로는 북간도공립소학교가 1905년에 이미 개교한 바가 있다.

북간도공립소학교는 일제의 침략에 대항하여 민족독립운동을 전개하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또한 청국으로부터 한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권행사의 의미가 있는 학교로서 연변지역 최초의 근대민족교육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다. 북간도공립소학교의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으나 이 지역에 거주하는 한민족의 역사적 성격으로 보아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역사와 지리 등 애국교과가 중시되었을 것이며, 이는 구국교육운동의 태두리에서 설립되는 서전서숙과 明東學校의 교육내용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²⁹⁾

이 지역에서 전개된 구국교육운동은 한국에서 이주해 온 반일애국지사들이 중심이 되어 사립학교를 설립하면서 크게 발전하였다. 한국인들은 이주하여 정착이 이루어지면 후세들의 교육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학교를 설립하였다. 처음에는 서당형태의 사숙으로 그 규모도 작고 교육내용도 옛날식의 한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점차 근대적 교육으로 바뀌어 갔다. 또한 망명해 오는 애국지사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하게 되면서 본국에서 전개되는 구국교육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신과 애국정신을 고취시켜 항일투쟁의 역군을 키우는데 주력하였다.

(4) 역사교육의 확대

사립학교의 구국교육운동에서 두드러진 것은 교육내용에서 통감부가 관공립학교를 통하여 축소 또는 폐지하고 있었던 본국사 등 애국교과의 교육이었다. 학교의 설립이 일제의 침략을 막아 내고 국권을 수호할 수 있는 자주독립정신을 기르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본국사교육이 중요시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으며, 이는 또한 이 시기의 사립학교교육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1906년 이후 관공립학교에서 역사교육이 축소되거나 삭제되고

28) 《延邊文史資料》 권 5(연변조선족자치주위원회, 1988), 3쪽.

29) 金興洙, 〈중국 연변조선족의 근대민족교육에 관한 연구〉(《國史館論叢》 64, 國史編纂委員會, 1995).

있었던 것과 비교될 수 있다.

역사 특히 본국사교육을 중요시하고 이를 강조한 《황성신문》은 1908년 3월 20일자에 ‘朝鮮魂이 稍稍遠來乎’라는 제목으로 논설을 게재하여 국사와 함께 본국지지와 국문을 국가 또는 민족의 혼으로 보고 이의 교육을 통해 國魂을 길러 나라의 독립부강을 이룩할 수 있다고 하였다.

교과목의 명칭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관립학교에서는 역사로 표시하고 있었으나 많은 사립학교에서는 본국사, 만국사 또는 외국역사 등으로 표시하였으며 실제로 사용하는 교재이름을 과목의 명칭으로 나타낸 곳도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과목명칭은 역사로 표시하면서도 학년별로 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개 특정지역이나 특정시대의 역사로 세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몇 개 학교의 예로 들어 보면, 배재학당에서 1908년 3월 당시 시간표에 1학년에서 한국역사, 2학년에서 동양역사, 3학년에서 세계역사, 4학년에서 한국역사를 배정하였다. 이화학당에서는 1908년 중등과에서 본국역사, 고등과에서 만국역사·근세사·상고사·영국사로 분과하여 교수하였으며, 1903년에서 1909년 사이에 정신여학교에서는 “신앙인의 사표를 길러 내기 위하여 성경에 주력하였고, 일반인의 모범이 될 정신교육에 치중하기 위해 역사를 중히 여겼다”³⁰⁾고 하였다. 1908년 대성학교에서는 예비과에서 東國史略, 1학년에서 동서양역사(상), 2학년에서 동서양역사(하), 3학년에서 역사과목으로 표시하였다.³¹⁾ 1910년 경신중학교에서는 1학년에 본국사, 2학년에서는 중국, 일본과 인도를 포함한 동양사, 3학년에서는 서아시아와 그리스, 로마의 상고사, 4학년에서는 유럽의 상고사와 근세사를 그 내용으로 하였다.

사립학교에서 역사과목이 중요시된 것은 한국인의 자주독립정신을 양성하는데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관공립학교는 일본인 교사들이 배치되어 일을 필수과목으로 교수하였으므로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일본인을 의심하여 관공립학교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³²⁾

사립학교에서의 역사교육에 대한 관심은 각급학교의 입학시험과목에 역사

30) 《貞信75年史》(1962), 118쪽.

31) 《大韓每日申報》, 1908년 10월 6일.

32) 李萬珪, 《朝鮮教育史》하(을유문화사, 1947), 85쪽.

과목이 포함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1906년 이후 사립학교의 입학시험에서 역사과목의 명칭으로 제시된 것을 보면 역사·본국역사·내외역사·내외국역사·동국역사·내국역사·본국지지역사·본국역사지리 등이다.

사립학교의 입학시험에서 역사과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관립학교인 고등학교나 사범학교에서 입학시험과목에 역사과목이 제외된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관공립학교의 입학시험에 들어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데 반하여 사립학교 중 상당수의 학교에서 들어가 제외되었던 것과 비교가 되는 것이다.

초등학교의 교과목의 명칭은 대부분 보통학교령에 규정된 교과목과 거의 같다. 학교마다 가르치는 교과목이 동일하지는 않으나 사립학교의 경우 역사 또는 동국역사로 교과목을 표시한 학교가 상당수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사립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역사교과서의 간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1906년 이후 관공립초등학교에서 사실상 역사시간이 삭제되었으며, 통감부에서 간행하는 교과서에 역사교과서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에서 개인의 손으로 역사교과서가 간행되었다. 1906년부터 통감부가 교과용도서 검정제도를 실시하게 되는 1908년까지 2년 동안에 민간에서 간행된 역사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교과서명	편저자	간행연도
동국사략(중등교과)	현 채	1906년 10월
대동역사략	국민교육회	1906년 6월
신정동국역사	원영의, 유근	1906년 12월
대한력스	오성근, Hulbert	1908년 1월
초등본국역사	유 근	1908년 4월
대동역사략	유성준	1908년 4월
초등대한역사	정인호	1908년 7월
초등대한력스	조종만	1908년 8월

물론 이들 교과서는 교과용도서 검정제도가 실시되면서 검정무효 또는 학부 불인가도서로 분류되어 어느 학교에서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를 받았으며 발매와 반포금지 도서로 압수되기도 하였다.

사립학교의 역사시간에 역사교과서만 사용된 것은 아니었다. 특히 소학교

과서는 역사교과서의 대용이 되었다. 이는 1906년 통감부에서 제정한 보통학교령시행규칙에 보통학교에서 역사시간은 따로 정하지 않고 독본시간에 교수한다고 하였으므로 소학교과서가 역사교과서를 대신하기도 한 것이다. 이 소학교과서를 대표하는 것이 1907년 6월 玄采가 지은 《幼年必讀》이었다.

《유년필독》은 당시 사립학교에서 역사교육이 구국교육운동의 방안이었음을 알려 주는 대표적인 책이다. 2책 4권으로 된 본서는 국한문 혼용이지만 한자 옆에는 한글을 병기하여 남녀노소 누구라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초등용으로 편찬되었으나 그 내용은 다른 초등용 교과서에 비해 수준이 높은 편으로 이는 초등용 교과서뿐 아니라 일반인도 읽게 하려는 편찬자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³³⁾

1908년 통감부에서 그 동안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고 있는 구국교육운동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과용도서 검정제도를 실시하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은 본국사교과서가 애국교육 및 민족교육의 일환으로 사립학교에서 구국교육운동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교과서를 교육현장에서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의 구국교육운동의 주요 내용이었던 역사교육은 역사인식과 역사서술의 방법론에서 아직 전시대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면은 있으나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민족의 애국심이 국권수호의 가장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도록 그 기반을 제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는 1907년 당시 일본의 중의원 의원이었던 오다케(大竹貫一)의 한국교육에 대한 다음과 같은 논평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오늘의 한국교육의 실정이 어떠한가 하면 한국의 언어로 소학교 교과를 만들고 있다. 그뿐인가 그 내용은 대단히 재미있는 내용이 많이 있다. 즉 충군이니 애국이니 자주독립이니 하는 말이 진지하게 교육되고 있다(《帝國會議誌》 2510, 1907년 2월 3일, 大竹貫一의 발언).

이는 당시 사립학교의 교육 실정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통감부의 교육침략

33) 玄采, 《幼年必讀》 권 1, 凡例.

은 바로 이러한 면을 그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1908년 제정한 사립학교령은 바로 사립학교의 역사교육에서 강조된 애국교육을 막으려는데 주안점이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은 사립학교령을 제정할 당시 통감부의 사립학교에 대한 방침을 설명하기 위하여 당시 일본인 학부차관 다와라 마고이치(倭孫一)가 한성부내 사립학교 및 학회 대표자를 소집한 자리에서 행한 다음과 같은 연설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학교교과서에 부적당한 것이 많이 있다. 다수의 사립학교의 경우를 보건대, 그 사용하는 교과서에 부적당한 것이 적지 않다. 심한 경우에는 유해한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수가 많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무슨 까닭으로 이것을 유해하다고 하는가. 이제 그 일례를 든다면, 교과서 가운데 현시의 정치문제 또는 사회문제를 편찬한 것이 많음을 본다. 즉 한국 정부의 상황을 분개하는 기사를 편찬하고, 현시 한국정부의 상태를 변경하려면 각인이 피로써 이와 싸우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과 같은 문자를 散見한다. 이것이 학교 교과서로서 과연 적당한 것이라고 하겠는가. 한국의 장래를 위하여 과연 무해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학부, 〈學部次官演說筆記〉, 1908, 5~13쪽).

통감부의 일본인들은 사립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가 한국의 현실정치 사회문제를 다룬 내용이 많고, 이는 학생들이 학문연구에 지장을 줄 뿐이며 한국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한국의 발전을 위하여 이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제의 침략으로 국권이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한민족으로서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서 이를 논의하는 것은 역시 필연적인 것이었다.

일제는 한국학생들의 활동을 소요라고 하면서 浮華輕佻하고 불평을 일삼는 것으로 규정짓고 있으며, 결국 이의 원인이 교과서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학부차관 다와라는 사립학교령이 교과서를 규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있다.

새로 중점을 교과서에 두었다. 사립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 가운데 심히 불량한 것, 한국의 현상에 비추어 심히 위험한 것이 매우 많다. 이에 대하여 사립학교령은 상당히 취체를 엄중히 하여 한국의 國是, 國情 또는 進運에 부합되지 않는 교과서는 절대로 구속하고 학부 편찬 또는 검정 이외의 도서에

대하여는 사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되게 하였다…(학부, 〈學部次官演說筆記〉, 1908년, 5~13쪽).

결국 일제는 숫적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사립학교에서 그들의 침략정책에 반대하고 한민족의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교과서의 사용을 중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민족의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애국심을 배양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던 역사교과서는 대부분 사용이 금지되거나 또는 압수, 소각되는 피해를 보게 되었다.

(5) 체육교육의 보급과 운동회의 개최

한국에 근대적인 체육교육이 시작된 것은 1895년 정부가 근대학교를 설립하여 한국 근대 민족교육이 발전하게 되는 시기이다. 체육은 體操라는 과목 명칭으로 한성사범학교와 소학교의 교과목으로 등장하였으며 이후 설립되는 각급 학교에 빠지지 않고 포함되었다.³⁴⁾

소학교교칙대강이 제시한 체조과목의 요지는 “신체의 성장을 균제건강케 하며 정신을 쾌활강의케 하고 겸하여 규율을 지키는 습관을 기른다”는 것으로 그 내용은 최초에는 적의한 유희를 하게 하고 점차로 보통체조를 가하되 편의한 兵式체조의 일부를 가르치고(심상과), 이후 병식체조를 주로 가르치도록(고등과) 하였다. 한성사범학교규칙에서는 그 정도를 ‘보통체조 및 병식 체조’라고 밝혀 놓았다. 보통체조와 병식체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이 없어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체조가 중요시되었음은 한성사범학교의 교육요지에서 알 수 있다.³⁵⁾ 한성사범학교의 교육요지는 1895년 2월에 발표된 교육입국조서에서 德養・體養・智養을 교육의 綱紀로 삼는다고 한 것과 연결되고 있다.³⁶⁾

34) 《官報》, 개국 504년 7월 24일, 학부령 1호 〈漢城師範學校規則〉・〈漢城師範學校附屬小學校規程〉.

《官報》, 개국 504년 8월 15일, 학부령 3호 〈小學校校則大綱〉.

35) 《官報》, 개국 504년 7월 24일, 학부령 1호 〈漢城師範學校規則〉 13조.

36) 《承政院日記》, 고종 32년 2월 2일.

즉 체육은 신체의 건강과 함께 몇몇한 기상을 기르며, 어려움을 참고 근면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정신력을 기르는데 목표를 두었다. 이와 같은 체육교육의 목표는 각급 학교의 체조시간이 국민체력을 증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족운동의 추진과 민족의 단결을 이룩한다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더욱이 애국지사들 가운데는 나라의 쇠약이 문약에 의한 것이라는 판단아래 부강한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씩씩한 尙武的 기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체조시간에 군대식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이것이 병식체조로 불리어졌다. 이러한 군대식 체조교육은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에서 전개된 것으로 체조교사는 무관학교에서 양성하였으며,³⁷⁾ 1904년에는 陸軍研成學校에서 6개월의 이수과정으로 체조검술과를 부설하여 학교병식체조의 지도자를 양성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육군연성학교 교장은 뒷날 독립운동에 투신한 대한제국 육군 正領 盧伯麟이었다.

당시 학교의 체조시간을 통해 전개된 체육의 성격은 《西北學會月報》에 게재된 내용에서 잘 알 수 있는데, 서북학회 회원인 李鐘滿이 ‘체육이 국가에 대한 효력’이라는 제목에서 체육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다.³⁸⁾ 결국 국가의 자강하는 길은 국민의 체육을 통한 건강한 신체가 그 필수 요인이라는 것이며, 더욱이 필자는 체육은 智育이나 德育에 앞서고 국가에 대한 효력이 이와 같으니 당국은 국가를 위하여 체육을 국민교육화하여 의무적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湖岩 文一平도 체육의 필요성을 특히 강조하여 체육은 덕육과 지육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는 신체가 있는 다음에 정신이 나오는 것으로, 마치 신체는 뿌리이고 정신은 가지라고 비유하였고 체조의 목적은 신체를 단련하여 정신을 발전시키는데 있으므로 체조는 개인의 정신에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운명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³⁹⁾ 이와 같은

《高宗實錄》，高宗 32년 2월 2일.

《官報》，개국 504년 2월 2일, 조칙 〈教育에 關한 件〉.

37) 1896년 1월 11일 정부에서는 武官學校官制를 공포하여 군대의 훈련과 함께 체조교사를 양성하고자 하였다.

38) 李鐘滿, 〈體育이 國家에 대한 效力〉(《西北學會月報》2-15, 1908. 8), 27쪽.

39) 文一平, 〈體育論〉(《太極學報》2호, 1908. 5).

체육교육에 대한 인식은 朴殷植에게서도 보이고 있다. 그는 우리 나라의 전통교육이 지나치게 문약에 빠져 있었다고 하면서 학교에서 체육을 강화하여 강건한 인재를 육성할 것을 강조하였다.

당시 대표적인 민족언론인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에서도 학교의 체육교육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다수의 논설을 게재하고 각 학교의 체육교육에 대한 기사를 소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로 보아 당시 학교의 체육교육이 국가자강의 길로서 인식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의 체조시간은 단순히 율동을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씩씩한 기상을 기르는 수단으로 군대에서 훈련하는 것과 같이 교사의 호령에 따라 전체 학생들이 질서있게 움직이고 행진하는 것이 유행이었다.

체육교사들은 무관출신으로서 의병운동에 참여하기도 한 사람들이 포함되었다. 학생들의 체조시간은 군대훈련의 일부로 인식되었으며 학교마다 군대에서 사용하는 나팔과 북으로 구성된 악대가 있어 이들이 나팔을 불고 북을 두드리며 학생들은 목총을 메고 군대식 훈련을 받았다. 때에 따라서는 학생들의 이러한 훈련이 길거리로까지 나와 많은 행인들의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였다. 교외로 훈련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과 일본군대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일도 발생하였다.

사립학교에서 체조시간을 학생의 정신력과 단결력을 기르는 것으로 운영한 구체적 사례를 대성학교와 오산학교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오산학교에서는 눈이 쌓인 겨울에 기숙사의 학생들을 소집하여 눈위를 뛰도록 하였으며, 대성학교에서는 더운 여름날 띄약별 아래서 공부를 시키기도 하고 밤중에 비상소집하여 험한 계곡을 찾기도 하였다.⁴⁰⁾

체육교육을 통한 건강한 인재를 기르고 국민의 단결력을 키워 국가자강의 길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은 학교 내부에서 체조시간에 병식훈련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학부형과 주민들이 함께 참가하는 대운동회나 여러 학교가 모여 연합대운동회를 개최하는 일로 발전하였다. 운동회는 보통 일년에 봄·가을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는데 연합운동회는 지역별로 가까운 학교끼리 모여

40) 朱耀翰, 《安島山全書》(三中堂, 1963), 89쪽.

서 실시하거나 또는 한 道內 각군의 학교가 모두 참가하는 큰 규모의 운동회가 열리기도 하였다. 그 경비는 주로 주민들의 성금을 모아 충당하였다. 인천의 각 학교가 모여 개최한 연합대운동회에는 주민들은 물론이고 술장수와 노동자나 심지어 기생들까지 운동회 경비를 스스로 부담하였다. 이와 같이 연합운동회는 민족의 정신적 단결과 구국교육의 의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행사였던 것이다. 연합대운동회는 사립여학교에서도 개최되었다. 1907년 5월 서울 장충단에서는 진명여학교의 嚴俊源 교장의 발기로 첫 번째 여학교연합대운동회가 열렸다.⁴¹⁾ 한편 서울에서는 사립학교뿐만 아니라 관립학교도 포함된 연합대운동회가 연례행사로 열렸다.

학교의 운동회는 학교별이든 연합운동회든 ‘대한독립만세’라는 구호를 제하고 독립가를 운동회 노래로 합창하였다. 운동회가 학생들의 정신적 단결과 애국정신을 북돋우고, 한민족의 애국열정을 분출하는 구국운동의 성격이 뚜렷이 나타나면서 통감부에서는 운동회의 개최 자체를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서울의 관립과 사립학교가 함께 모여 열리던 연합대운동회는 1909년 4월 대운동회를 끝으로 통감부가 재정난을 내세워 폐지시켰다. 1908년 5월 친일 학부대신 李完用은 관찰사회의에서 운동회가 수업을 폐하고 경비부담으로 학부형이 괴로움을 당하는 등 교육에 해가 된다는 내용의 훈시를 하기도 하였다.⁴²⁾

일본인 학부차관 다와라는 평양에서 열린 연합대운동회를 보고 그 심정을 토로하면서 학생들이 나팔을 불고 북을 치며 행진하는 것을 ‘무장적 시위’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통감부에서는 학교의 체조시간에 나팔을 불고 북을 치며 때에 따라서는 거리를 행진하기도 하고, 또는 야외연습이나 대운동회를 열어 많은 사람이 모이게 하는 것은 치안상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우려하면서 이를 문제삼기도 하였다.⁴³⁾ 한국의 민족교육을 억압하기 위해 통감부가 1908년 8월에 발표한 사립학교령에서 민족사학을 억압하는 구체적 내용 속에는 사립학교의 체육교육이나 연합운동회를 그 통제대상의 하나로 지목하고 있었다.⁴⁴⁾

41) 《韓國女性史》(이화여대 출판부, 1972), 319쪽.

42) 高橋濱吉, 앞의 책, 137~138쪽.

43) 學部, 《韓國教育의 現狀》(1910), 44쪽.

44) 高橋濱吉, 앞의 책, 307쪽.

이와 같이 학교의 체육교육이나 운동회가 민족을 단결시키고 국권회복을 위한 민족정신을 키우는데 커다란 영향을 발휘하게 되면서 이러한 민족체육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체육단체의 조직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체육단체는 1905년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1906년 3월 大韓體育俱樂部의 조직을 시작으로 皇城基督教青年會 운동부, 1907년 大韓國民體育會, 1908년 會同俱樂部를 비롯하여 大同體育俱樂部와 광학俱樂部 및 무도기계체육부, 1909년 대한홍학회 운동부를 비롯한 사공회와 소년광창체육회 및 체조연구회, 1910년 청강체육부 등이 대표적인 단체들이다.

이들 체육단체들은 학생이나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체육활동을 보급시키고 학교체육이나 운동회 등을 후원하는 일을 하였다. 학회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지원도 활발하였으니 대표적으로 서우학회나 서북학회는 서북지방을 비롯하여 서울이나 경기도지방에까지 학교의 운동회나 연합운동회에 필요한 상품을 제공하거나 기타 행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였다.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전개된 구국교육운동의 주요한 흐름인 민족체육운동은 만주 각지의 한민족사회에서도 전개되었다. 신흥무관학교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한민족 사립학교에서는 군사훈련과 다름없는 체육교육이 실시되었으며, 이는 독립군 전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6) 애국가와 독립가의 보급

학생들을 중심으로 불려진 여러 가지의 애국가와 독립가는 일제의 침략에 저항하는 한민족의 민족의식을 북돋아 주었으며 이 시기의 민족사립학교의 구국교육운동의 전개에 있어 커다란 흐름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사립학교 학생들이 체육 또는 체조시간에 학교 안에서나 또는 길거리에서 행진을 할 때 노래를 함께 불러 발을 맞추어 나갔다. 이 때 부른 노래들은 애국가나 군가 또는 독립가였다. 운동회에서 이들 노래들은 응원가로서 불리워졌고, 애국가나 독립가를 부르는 것은 불운한 국가의 운명에 대한 울분을 토로하는 방법이었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일반인에게도 전달되었다.

한국의 근대학교에서 음악이 교과목으로 나타나는 것은 1906년 통감부 설치 이후이다. 그 이전에는 일부 선교계 사립학교의 교과목에 음악이 있었다.

예를 들어 1895년~1903년 貞信女學校의 교과목은 성경·한문·역사·지리·산술·도화·습자·체조·음악·가사 등으로⁴⁵⁾ 음악이 포함되어 있다. 선교계 학교에서는 성경이 교과목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찬송가가 불려졌을 것이다. 그리하여 실제로 교과목에 음악이 포함되지 않았어도 찬송가를 통하여 새로운 서양음악이 유행되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각지에 세워진 교회에서 불려진 찬송가는 학생들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새 음악이 유행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선교계 사립학교의 교과목에 음악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는 것은 《독립신문》의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즉 독립협회에서 독립문의 기공식을 거행하는데 그 식순 가운데 배재학당 학생들이 독립가를 부르도록 되어 있었다.⁴⁶⁾ 학생들이 부른 노래에 대하여 조선가 또는 애국가라고 하였는데 다른 기사에서도 조선가를 부르고 또 식순에 따라 애국가를 불렀다고 하였다.⁴⁷⁾ 이 기사를 보면 1896년 당시 이미 학생들에게 불려지던 조선가와 애국가라는 노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배재학당 학생들이 독립가나 애국가 또는 조선가를 불렀다고 하였으나 1895년 이후 설립된 각급 관공립학교에서 교과목에 음악이 보이지는 않는다. 이를 보면 음악은 아직 정식 교과목으로 가르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배재학당 등 선교계 사립학교에서 또는 교회에서 찬송가를 합창하게 되면서 찬송가곡에 맞추어 가사를 만들어 불렀을 것으로 본다. 1896년의 《독립신문》에는 많은 독립가 또는 애국가의 가사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들 가사들이 주로 8·8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에 맞는 곡으로 부른 노래들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⁴⁸⁾

45) 《貞信75年史》(정신여자고등학교, 1962), 83쪽.

46) 《독립신문》99호, 건양 원년 11월 21일.

47) 《독립신문》100호, 건양 원년 11월 24일.

48) 최일수, 《언론 학예 투쟁》(민족문화협회, 1980)에는 당시의 창가를 찬송가의 번역시를 서양곡에 맞추어 부른 것, 8·8조의 애국가와 경축사, 민요와 가사, 매국노에 대한 격분과 애국심을 고취한 것, 저항적인 경제적 풍자시와 타령조, 민족혼의 고취와 교훈적인 내용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독립신문》에는 각지에서 보내 온 독립가 또는 애국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관리가 지은 것도 있다. 이들 독립가나 애국가의 내용은 애국충군과 부국강병 또는 애민애족을 나타낸 것이 대부분으로서 당시의 사회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① 대조선 자주 독립 애국하는 노래(《독립신문》 15호, 건양 원년 5월 9일)

아세아의 대조선이 자주 독립 분명하다 애야 애야 애국할세 나라 위해 죽어 보세 분골하고 쇠신토록 충군하고 애국하세 우리 정부 높여 주고 우리 군면 도와주세 깊은 잠을 어서 깨여 부국강병 진보하세 남의 천대 받게되니 후회 막 급 없이하세 합심하고 일심되어 서세동점 막아보세 사농공상 진력하여 사람마다 주유하세

남녀없이 입학하여 세계 학식 배워보자 교육하여 개화되고 개화하여 사람되네 팔괘고기 높이 달아 육대주에 횡행할세 산이 높고 물이 깊게 우리 마음 맹세하세

② 인천 제물포 전경택 애국가(《독립신문》 19호, 건양 원년 5월 19일)

봉축하세 봉축하세 아국 태평 봉축하세 즐겁도다 즐겁도다 독립 자주 즐겁도다 꽃피어라 꽃피어라 우리 명산 꽃피어라 향기롭다 향기롭다 우리 국가 향기롭다 열매 열라 열매 열라 부국강병 열매 열라 열심하세 열심하세 충군애국 열심하세 진력하세 진력하세 사농공상 진력하세 빛나도다 빛나도다 우리 국기 빛나도다 영화롭다 영화롭다 우리 만민 영화롭다 높으시다 높으시다 우리 임금 높으시다 만세 만세 만만세는 대군주 폐하 만만세 장성한 기운으로 세계에 유명하여 천하각국 넘볼세라

위와 같은 노래들은⁴⁹⁾ 1905년 을사조약이 강제 체결되고 본격적인 구국교

49) 이밖에도 《독립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가사들을 소개하고 있다.

양주 이중원 동심가(《독립신문》 22호, 1896년 5월 26일).

금강 이교익의 글(《독립신문》 25호, 1896년 6월 2일).

남서 순검 허일의 노래(《독립신문》 25호, 1896년 6월 2일).

경무학도들 노래(《독립신문》 44호, 1896년 7월 6일).

양성 김석하 독립문가(《독립신문》 44호, 1896년 7월 6일).

경상도 봉화 신영택의 성절송축가(《독립신문》 65호, 1896년 9월 3일).

평양학당 김종섭 애국가(《독립신문》 66호, 1896년 9월 5일).

배재학당 학도 최영구 애국독립가(《독립신문》 67호, 1896년 9월 8일).

평양 보통문안 이영언 애국가(《독립신문》 68호, 1896년 9월 10일).

농상공부 기사 김철영 애국가(《독립신문》 70호, 1896년 9월 15일).

인천 김기범 경축가(《독립신문》 71호, 1896년 9월 17일).

육운동이 전개되면서 더욱 널리 보급되었다. 창가라고도 불린 이들 애국가 또는 독립가는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크게 애창하였으며 운동회에서도 응원가로 크게 유행되었다. 사립학교 학생들이 체조시간에 행진할 때는 군가를 부르며 정신을 통일하고 용기를 기르는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하였다.

한편 윤치호가 지었다고 전해지는 애국가는 스코틀랜드 민요곡에 붙여 불렀는데 대한제국 이래로 행사가 있을 때는 물론 학생들이나 의병들이 가장 많이 부르던 노래로서 현재에 부르고 있는 애국가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⁵⁰⁾

1. 성자신손 천만년은 우리 황실이요 산고 수려 동반도는 우리 본국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기리 보전하세(후렴)
2. 애국하는 열혈의기 북악같이 높고 충군하는 일편단심 동해같이 깊어
3. 이천만민 오직 한맘 나라 사랑하여 사농공상 귀천없이 직분만 다하세
4. 우리 나라 우리 님군 황천이 도우사 국민동락 만만세에 태평독립하세

이들 노래들은 애국심을 고취하거나 국권회복 등의 사상을 담은 것이거나 청소년의 기상을 불러 일으키고 자주와 독립을 달성할 것을 호소하는 내용들이었다.

1907년 玄采에 의해 간행된 《幼年必讀》에는 학생들의 자유와 독립의 정신을 고취하는 〈獨立歌〉와 閔泳煥의 순국정신을 기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血竹歌〉가 실려 있어 이와 같은 노래가 유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⁵¹⁾

〈독립가 1〉

독립하세 독립하세 우리 나라 독립하세 우리 청춘 소년들아 우리 나라 독립하세
슬프고 분하다 우리 대한 나라 어이하여 이지경 노예자취 이지경
슬프고 분하다 우리 대한 나라 어이하여 이지경 卑屈自甘 이지경
슬프고 분하다 우리 대한 나라 어이하여 이지경 淸俄민다 이지경

농상공부 주사 최병헌 독립가(《독립신문》 90호, 1896년 10월 31일).

50) 안창호는 윤치호가 지은 애국가의 후렴을 그대로 두고 가사를 고쳐 애국가를 지었는데, 후에 안익태가 곡을 붙인 것이 현재의 애국가라고 전해지고 있다.

51) 玄采, 《幼年必讀》 권 3·4.

슬프고 분하다 우리 대한 나라 어이하어 이지경 世事全昧 이지경 슬프고 분하다 슬프고 분하다 우리 대한 나라

〈독립가 2〉

독립하세 독립하세 우리 나라 독립하세 슬프고 분하다 우리 대한 나라
어이하어 이지경 君臣相忘 이지경 슬프고 분하다 우리 대한 나라
어이하어 이지경 학정하다 이지경 슬프고 분하다 우리 대한 나라
어이하다 이지경 依附하다가 이지경 슬프고 분하다 우리 대한 나라
어이하어 이지경 사람없어서 이지경 슬프고 분하다 우리 대한 나라
어이하어 이지경 愚蠢하여서 이지경

〈혈죽가〉

슬프도다 슬프도다 우리 국민 슬프도다 國恥民辱 至今生存 우리 무리 무슨 面目
슬프도다 슬프도다 우리 국민 슬프도다 저버렸네 저버렸네 민충정공을 저버렸
네 한칼로 殉國하던 精忠大節 그 靈魂 九原冥冥 저 가운데 우리 국민 굶어보네
슬프도다 슬프도다 우리 국민 슬프도다 국치민욕 우리 무리 일점보답 무엇인가
자유 국권 뺏기었소 금일 노예 이 아닌가 이 나라 무슨 나라 파란과 애급이지
이 나라 무슨 나라 인도와 월남일세 슬프도다 슬프도다 우리 국민 슬프도다
四叢九幹 저 대보소 三十三葉 완연하이 청청한 저빛 또있는가 우리국민 경계로
세 정혈이 모였네 천지조화 忠憤이 이로다 신인감동 만국이 同淚하고 세계가
掀動일세

이러한 노래들은 당시 사립학교의 교가로 많이 애창되고 있었는데 이의 대표적인 것으로 〈育英學校의 唱歌〉에서 찾아볼 수 있다.

太極肇判하온 후에 海東朝鮮 생겼어라 삼천리 강산이요 이천만 생령이라
육대주가 羅列중에 대한 이름 당당하다 어화 우리 학도들아 대한 二字 생각하세
英法美德 서에 있고 露西亞가 북에 있네 大和國이 동에 있고 우리 대한 其中일세
슬프다 우리 대한 독립 二字 어데 간고 독립이여 독립이여 우리 동포 양식일세
可憐도다 우리 동포 양식없이 어이 살고 찾아가세 찾아가세 독립 독립 찾아가세
(《大韓每日申報》, 1907년 7월 17일).

또한 독립가나 애국가와 함께 소년들의 민족정신과 항일 적개심을 기르려는 노래로 불리어진 〈少年男子歌〉도 있다.

무쇠골격 돌 근육 소년 남자야 애국의 정신을 분발하여라
 다다랗네 다다랗네 우리 나라에 소년의 활동 시대 다다랗네
 萬人 敵對 연습하여 후일 戰功 세우세 絶世영웅 대사업이 우리 목적 아닌가
 (《皇城新聞》, 1909년 3월 21일).

독립가와 애국가류의 노래들 이외에도 청년학생들에게 널리 애창된 노래 가운데는 부지런히 공부할 것을 권고하는 〈勸學歌〉가 있었다.

학도야 학도야 젊은 학도야 벽상의 패종 소리 들어 보시오
 한 소리 두 소리 가고 못 오니 인생의 백년 가기 주마갈도다

한편 1895년 이후 일제의 침략에 무력으로 대항하여 나라를 지키기 위한 의병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여 1907년 8월 1일 군대가 강제 해산된 이후에는 해산된 군대의 일부가 의병에 합류하면서, 의병부대가 조직화 되고 또는 무장화되어 보다 강력한 의병전쟁으로 전개되어 갔다.

이와 같이 의병전쟁이 전개되면서 학생들에게 〈의병의 노래〉가 널리 불리어져 학생들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의병전쟁의 정신을 고취하였다.

오라 오라 돌아오라 倡義所로 돌아오라 만 만일 오지않고 왜적에 종사하여
 불행히도 죽게되면 황천에 돌아가서 무슨 면목 가지고서 성황 선조 뵈옵소나

이 때 불려진 노래로는 의병장 柳弘錫의 머느리로서 여자의 몸으로 직접 의병전쟁에 뛰어들어 싸웠던 尹姬順이 지은 〈안사람 의병 노래〉가 여러 곡 전해오고 있다.⁵²⁾

이상과 같이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불려진 애국가나 독립가는 점차 일반국민들에게도 확산되어 갔으며, 의병항쟁이 전개되면서 의병들은 독립가나 애국가와 함께 의병가도 불렀다.

52) 〈안사람 의병 노래〉 가운데 대표적인 가사를 들어본다.

아무리 왜놈들이 포악하고 강성한들 우리도 못처지면 왜놈잡기 쉬울세라
 아무리 여자인들 나라 사랑 모를쏘냐 남녀가 유별한들 나라없이 소용있나
 의병하러 나가보세 의병대를 도와주세 금수에게 붙잡힌들 왜놈시정 받을쏘냐
 우리 의병 도와주세 우리 나라 성공하면 우리 나라 만세로다 안사람들 만만세라.

이 시기에 창가로 불린 이러한 노래들은 구국교육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물론 일반국민들에게 애국심과 독립심을 고취시키는데 커다란 힘이 되었다. 이에 대해 《대한매일신보》는 다음과 같은 논설에서 이러한 노래를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룰 것을 내세우고 있다.

然卽 학교의 用歌가 단지 일시의 정신을 유쾌하게 하며 혈기를 通暢케 할뿐 아니라 抑亦不知不識間에 기질을 변화하며 심지를 전이하는 대능력을 具有한 자인즉 此도 역시 교육자의 주의할 바이다(《大韓每日申報》, 1908년 7월 11일).

그러나 1906년 이전에는 극히 일부를 제외한 학교에서는 음악이나 창가를 배우는 교과목이 아직 편성되지 않고 있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부르게 되었으며 일반인에게 번져 갔던 것이다. 1896년대 《독립신문》에 발표되었던 독립가나 애국가가 각지의 학생이나 관리 또는 일반인이 스스로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이를 설명하고 있다.

1906년 민족교육을 억압하기 위하여 교육침략정책을 추진하던 통감부는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애국가와 독립가를 부르는 것을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조치의 하나가 학교에서의 음악교육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이는 1906년 이후 통감부에 의해 관공립학교의 관제가 새로 제정되면서 각급 학교의 교과목에 빠짐없이 음악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도 알 수 있다.

1906년 8월 27일 일제히 발표된 각급 학교의 시행규칙에 나타난 교과목에서 음악교과의 명칭과 그 요지 및 학과 정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사범학교

음악 : 가사 악보 중에 高雅純正하여 교육상에 裨益이 있는 것으로써 연습케 하고 겸하여 음악의 명칭과 기호의 요약과 가사의 의의를 知得케 한다.

(본과의 학과정도) : 단음창가와 악기 사용법

(예과의 학과정도) : 단음창가

(속성과의 학과정도) : 단음창가 및 악기 사용법

2. 고등학교

음악 : 가곡을 창함을 지득케하여 美한 興韻을 感發하고 심정을 고결케 하며 겸하여 덕성 함양에 資賴케 함을 요함이라.

(본과의 학과정도) : 단음창가, 單音復音

(예과의 학과정도) : 단음창가

3. 보통학교

창가 : 평이한 가곡을 창케하여 미감을 양하고 덕성의 함양을 資함으로 요지를 함이다.

(학과정도) : 단음창가(《官報》, 1906년 8월 31일, 9월 3일 · 4일)

4. 고등여학교

음악 : 음악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득케하여 미감을 양하고 심정을 고결케 하며 겸하여 덕성의 함양에 資케 함을 요함.

(학과정도) : 음악은 단음창가를 교수하고 편의로 輪唱歌와 복음창가를 交하여 악기 사용법을 교수함이 가함(《官報》, 1908년 4월 10일)

이들 학교들의 학교령이 1909년 4월에 일제히 개정되고 7월에 시행규칙이 다시 발표되는데 이 때의 교과목명과 교수요지 및 그 정도를 나타낸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사범학교

음악 : 음악에 관한 지식기능을 득케하여 미감을 양하며 덕성 함양에 資함으로써 요지로 함.

(학과정도) : 음악은 단음창가를 위하고 가사 악보가 고아하며 교육상 비익이 유한 자에 就하여 연습케 하며 또한 악기 사용법을 교수함이 가함.

(본과의 학과정도) : 단음창가 및 악기 사용법

(예과의 학과정도) : 단음창가

(속성과의 학과정도) : 단음창가

2. 고등학교

창가 : 가곡을 창함을 득케하며 미감을 양하여 덕성을 함양함에 資함으로써 요지로 함.

(학과정도) : 창가는 단음창가로 하되 고아하여 교육상 비익될 가사 악보를 택하여 교수함이 가함.

3. 고등여학교

음악 : 음악에 관한 지식기능을 득케 하며 미감을 양하며 심정고결히 하고 겸하여 덕성 함양에 資함으로써 요지로 함.

(학과정도) : 음악은 단음창가를 위주하여 교육상 비익이 유한 가사 악보를 택하여 교수하고 또 편의로 복음창가를 가하며 악기 사용법을 교수함이 가함.

(본과의 학과정도) : 단음창가와 복음창가, 악기 사용법

(예과의 학과정도) : 단음창가

4. 보통학교

창가 : 평이한 가곡을 창함을 득케 하고 미감을 양하며 덕성 함양에 資함으로
써 요지로 함.

(학과정도) : 창가는 단음창가를 교수하되 가사 악보는 평이 雅正하여 학도의
심정을 쾌활 순미케 할 자를 요함(《官報》, 1909년 4월 20일, 7월 9일).

이상의 각급 학교의 음악과목의 실태를 보면 1906년에는 교과목명을 보통
학교는 창가로 하고 사범학교와 고등학교 및 고등여학교는 음악으로 하였는
데, 1909년 개정된 것을 보면 사범학교와 고등여학교는 음악이었으나 고등학
교와 보통학교는 창가로 되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 교과목명을 음악에서 창
가로 바꾼 것이 특이하다. 이는 당시 교과목의 명칭으로 음악이나 창가가 같
은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음악교육의 요지를 대개 ‘美感을 기르고 德性을 함양하며 고결한 심성을
갖게 한다’로 정리되는데 이는 당시 학생들에게 번지고 있던 애국심이나 항
일민족의식을 차단하기 위하여 애국가나 독립가 및 의병가 등을 부르지 못
하게 하기 위한 명분이었던 것이다.

실제로 통감부의 일본인들은 학생들이 애국가와 독립가를 부르는 것을 학생
들의 반일사상을 표현하며 국권회복의 정신이 깃들든 것으로 받아 들여 사립학
교에서 부르는 이와 같은 노래를 ‘불량의 창가’로 규정하여 단속을 하였다.

〈金興洙〉

5. 근대적 교과서의 편찬

1) 근대 교육 성립기의 교과서

한국의 근대 교육의 발전은 교과서의 역사에서도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
가 되었다. 본격적인 새로운 교과서의 편찬과 사용은 1895년 정부에 의해 신
교육제도가 발표되고 이에 따른 각급 학교가 설립되면서부터이다. 이에 따라
당장 교과서를 새로이 준비해야 되는 일이 닥치게 되었다.

이에 앞서 1880년대 한국 근대 교육의 성립기에 설립된 민간학교나 또는

선교계통의 학교에서도 각각 신교육의 내용에 맞는 교과서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 시기에 설립된 학교에서 교육내용과 관련된 교과서의 편찬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이는 당시 학교의 교육활동이 교육과정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며 일정한 편제에 의한 학교운영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전통 교육에서 탈피하여 근대 교육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과거의 교육기관에서 사용되어 온 교재가 아닌 새로운 교재는 필요하였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아 교과서를 새롭게 편찬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시기의 교과서 사용은 다음의 특징을 찾을 수 있다. 그 하나는 당시 중국이나 일본에서 수입되어 서양의 신문물을 소개하는 도서들 그 자체가 교과서의 역할을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주로 서양인 교사들이 소지한 도서나 직접 그들이 작성한 노트를 교과서로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1883년 설립된 元山學舍는 문예반과 무예반으로 편제되어 각각 經義와 兵書を 필수과목으로 하고 時務의 긴요한 과목을 공통으로 부과하였는데 산술·格致·機器·農桑·鑛探 등이 그것이었으며, 이러한 과목의 교재로 비치된 도서는 《瀛志》·《聯邦志》·《奇器圖說》·《日本外國語學》·《法理文》·《瀛環志略》·《萬國公法》·《農政新編》 등이었다.¹⁾ 이들 도서들이 원산학사의 교과서에 해당되는 도서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1886년 설립된 育英公院은 한미수호조약이 체결된 후 보빙사로 미국에 갔던 閔泳翊이 미국문물의 발전된 것을 목격하고 고종에게 학교의 설립을 건의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미국에 교사파견을 요청하여 길모어(G. W. Gilmore), 벙커(D. A. Bunker), 헐버트(H. B. Hulbert) 등 세 사람의 교사가 1886년 7월에 도착 9월말에 수업을 시작하였다.²⁾

육영공원의 設學節目 속에 들어 있는 〈每日學習次第〉에는 譯書·습자·學

1) 愼鏞廈, 〈우리나라 최초의 近代學校의 설립에 대하여〉(《韓國史研究》 10, 한국사연구회, 1974).

2) 李光麟, 〈育英公院의 설치와 그 변천에 대하여〉(《韓國開化史研究》, 일조각, 1974), 109쪽.

解字法·산학·寫所習算法·지리·學文法 등이 있으며, 〈所學諸條〉에는 大算法·각국언어·諸般學法·捷經易學者·格致萬物(의학·지리·천문·화훼·초목·農理·機器·禽獸), 各國歷代政治(與各國條約及當國用兵之術) 등이 있다.³⁾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보아 이에 필요한 교재는 특별히 거명되지는 않았지만 앞의 원산학사에서 보인 도서들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국인 교사들이 직접 저술하여 교과서로 사용된 도서들이 있다. 이 가운데 육영공원의 교사 헐버트가 교과서로 사용하기 위해 순 한글로 《스민필지》를 저술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서양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에 호응하여 세계의 역사와 지리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후에 한문으로 번역되기도 하였으며 많은 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아 한국 최초의 근대적인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스민필지》의 저자인 헐버트는 지리학자인 동시에 역사학자였으므로 이 책의 내용을 통해 세계에 대한 소식에 접할 수 있었다.

선교계통의 사립학교에서는 우선 성경이 공통적인 교과서로 사용되었을 것임은 당연하다. 또한 서양소식을 알리는 것이 대표적인 교육내용으로서 이에는 자연히 지리와 역사에 관한 것이 우선되었다. 이는 당시 선교계통의 사립학교에서 가르친 과목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는 培材學堂에서 “... 수학이며 내외지리, 역사 등의 신학문을 수학하였는데 ... 그 때 한국말로 교수한 과목은 한문과 세계역사와 지리문답이었다”⁴⁾라고 한 것이나, 梨花學堂에서도 1892년의 교과목이 성경·반절·한문·영어·수학·지리·역사·과학이라고 하였고,⁵⁾ 貞信女學校에서도 성경·산술 두 과목 이외에 역사이야기를 구술하였다고⁶⁾ 한 것으로 알 수 있다.

당시 배재학당에서 역사를 가르친 한국인 교사들은 한문으로 번역된 《셰필드의 세계역사》(Sheffield's Universal History)를 교과서로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한문으로 번역된 책이 이 책뿐이었기 때문이었으며 이화학당에서는

3) 李光麟, 위의 책.

4) 배재고등학교, 《培材80年史》(1965), 103쪽·147쪽.

5) 이화여자고등학교, 《梨花80年史》(1966), 65쪽.

6) 정신여자고등학교, 《貞信75年史》(1962), 19쪽.

1890년에 《千名の 偉人傳》 2권과 3권이 교과서로 사용되었다.

또한 당시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실태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으로 이화학당의 예를 들어보면 “... 처음서부터 1904년까지는 초청되는 선생에 따라 새로운 과목이 첨가되는 형편이었다. 말하자면 교과과정이 짜여져 각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를 초빙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오는 교사가 가르칠 수 있는 과목이 새로 시작되었다...”⁷⁾라고 하였으니 이런 실정에서 일정하게 교과서가 정해져 있을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교과서는 재직하는 교사들이 번역한 책이나 저서를 사용하였다. 정신학교의 경우 “교과서는 선생님만 가지고 있었다. 미국에서 쓰는 어린이들의 교과서를 앨리즈가 한국말로 번역하여 친히 펜으로 적어 놓은 것을 교과서로 썼다”⁸⁾라고 한 것은 이를 잘 설명해 준다.

2) 근대 교육의 발전과 교과서

(1) 근대학교의 교육내용 <교과목>

1895년 5월 이후 정부에 의하여 각급 관립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학교의 관제 또는 학교령이 발표되고 뒤이어 시행규칙이 제정되었으며, 여기에 각 학교의 교과목과 함께 교육내용이 제시되었다. 이들 학교에서는 대부분 학교 재학중에 교과서는 학부가 공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었으며, 따라서 교과서의 편찬은 이들 학교의 교과목의 편성과 관련지어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당시 편찬되는 교과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교과서 편찬의 기본 전제가 되는 각급 학교의 교과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학교의 설립 순서대로 학교별 교과목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한성사범학교

<한성사범학교 본과의 교과목과 정도>

교과목	정	도
수 신	인륜도덕의 요지 및 그 교수법	
국 문	강 독	

7) 이화학자고등학교, 앞의 책(1866), 68쪽.

8) 정신여자고등학교, 앞의 책(1962), 59쪽.

한 문	강 독
교 육	내외교육의 연혁 및 저명한 교육가의 전기로부터 교육 및 교수의 원리 원칙을 교수하고 부속소학교에 나아가 실지 수업의 방법을 연습
역 사	본국 및 만국역사
지 리	본국 및 만국의 정치 지리와 地文의 초보
수 학	산술 및 대수·기하의 초보와 그 교수법
물 리	물리상의 긴요한 현상 및 定律
박 물	동식물의 생리와 위생
화 학	普通化學上の 현상, 긴요한 원소 및 무기화합물의 성질
습 자	楷行草의 삼체 및 그 교수법
작 문	일용서류 記事文 및 논설문
체 조	보통체조 및 兵式체조

〈한성사범학교 속성과의 교과목과 정도〉

교과목	정 도
수 신	인륜도덕의 요지 및 그 교수법
국 문	강 독
한 문	강 독
교 육	내외교육사 및 저명한 교육가의 傳記로부터 실지 수업의 방법을 연습함
역 사	본국역사 및 만국역사大要
지 리	본국지리 및 만국지리大要
수 학	산 술
이 과	大 意
습 자	楷行草의 삼체 및 그 교수법
작 문	일용서류 記事文 및 논설문
체 조	보통체조

나. 외국어학교

1. 해당 외국어의 독본 · 書取(받아쓰기) · 작문 · 번역 · 회화
2. 보통학(수신 · 산술 · 이과 · 체조)
3. 한문의 독서와 작문
4. 본국역사 · 지지

다. 소학교

과 목	요 지
수 신	교육에 관한 조직의 취지에 기초하고 아동의 양심을 계도하여 그 덕성을 함양하며, 人道를 실천하는 방법을 중
독 서 와 작 문	近으로 由하여 遠에 미치며 簡으로 由하여 繁에 취하는 방법에 따라 먼저 보통의 언어와 일상 須知의 문자·문구·문법의 독법과 의의를 알게 하고, 적당한 언어와 자구를 사용하여 정확히 사상을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며, 知德을 계발함
습 자 산 술	통상 문자를 쓰는 법을 알게 하고 運筆을 연습하여 익히게 함 일용계산에 연습하여 익히게 하고, 사상을 정밀하게 하고, 또한 생업상에 유익한 지식을 중
본국지리	본국지리 및 외국지리의 대요를 교수하여 생활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게 하고 애국하는 정신을 양함
본국역사	國體의 대요를 알게하여 국민된 志操를 기를
이 과 도 화	통상의 천연물과 현상의 관찰을 정밀하게 하고 인생에 대하는 관계의 대요를 이해하게 함 눈과 손을 연습하여 통상의 형체를 看取하고 바르게 그리는 능력을 기르며, 意匠을 훈련하고 형체를 분별하여 알게 함
체 조	신체의 성장을 바르고 건강하게 하며 정신을 쾌활하고 씩씩하게 하여 규율을 지키는 습관을 기를
재 봉 외 국 어	눈과 손을 연습하여 통상의복의 縫法과 裁法을 익힘

라. 경학과

교 과 목	내 용 및 정 도
삼경사서	강독 및 이해
사 서	左傳·史記·綱目·續綱目·宋·元·明史 등
역 사	본국 및 만국역사
衍文(地誌)	본국 및 만국지지
작 문	일용서류·기사·논설·經義
산 술	가감승제·比例差合

(시의에 따라 다른 經典 및 史文을 부과한다).

마. 중학교

심상과 : 윤리 · 독서 · 작문 · 역사 · 지지 · 산술 · 경제 · 박물 · 물리 · 화학 · 도화 · 외국어 · 체조 · 외국어

고등과 : 독서 · 산술 · 경제 · 박물 · 물리 · 화학 · 법률 · 정치 · 공업 · 농업 · 상업 · 의학 · 측량 · 체조

(시의에 따라 각각 1~2개 교과목의 증감이 가능하다).

바. 의학교

동물 · 식물 · 화학 · 물생 · 해부생리 · 약물 · 진단 · 내과 · 외과 · 안과 · 婦嬰 · 위생 · 法醫 · 종두 · 체조

(시의에 따라 1~2개 과목을 증감할 수 있다).

사. 농상공학교

본국역사 · 본국지지 · 만국역사 · 만국지지 · 화학 · 물리학 · 경제학 · 산술 · 도화 · 외국어 등

(2) 정부의 교과서 편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895년 교육개혁이 추진되고 각급 학교가 설립되어 본격적으로 교육활동이 전개됨에 따라 필요해진 것이 교과서였다. 정부가 교과서를 편찬한 과정을 살펴보면 이미 1894년 갑오개혁으로 관제가 개편될 때 학부에 교과서 편찬을 담당할 편집국을 만들었으며, 군국기무처회의에서 학무아문으로 하여금 소학교 교과서의 편찬을 속히 추진할 것을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아⁹⁾ 갑오개혁 초기부터 교과서의 편찬이 계획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제도적으로 국가에서 교과서 편찬을 위한 기구를 설치한 최초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과서 편찬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1895년 4월 한성사범학교의 관제가 공포된 이후이다. 처음으로 교과서를 편찬하는 일이었기에 그 참고가 필요하여 1895년 5월 초 정부에서는 외부대신 金允植의 이름으로 駐日公使

9) 《舊韓國官報》, 1894년 7월 28일, 草記(이하 《官報》).

館事務署理 韓永源에게 훈령하여 “금번 학부에서 관립사범학교 및 소학교교사의 교육서를 편찬하는 바 이에 참고하기 위하여 일본 尋常師範學校와 高等師範學校의 교과서 및 참고서 각 1부를 구득하여 보내라”라고 지시하였다.¹⁰⁾

1896년도에 처음으로 정부의 예산액이 공표되었는데 학부예산 총액이 126,752元이며 이 중에서 교과서인쇄비로 계상된 금액이 5천원이었으며 이 금액은 요구액의 절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¹¹⁾ 이는 전년도인 1895년에 교과서의 인쇄가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실제로 1895년 8월부터 교과서가 편찬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8월 설립된 서울관립소학교의 교육에 당장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1895년 7월과 8월에 걸쳐 《國民小學讀本》과 《朝鮮歷史》가 간행된 이래 1896년 2월 《新訂尋常小學》 3책이 간행되었는데 이 때까지 학부 편집국에서 간행된 교과서는 앞의 《신정심상소학》을 포함하여 모두 18종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위의 책 권 3의 권말에 소개된 ‘學部編輯局 開刊書籍 定價表’를 통해서 알 수 있다.

萬國地誌	夙惠記略
萬國略史 上・下	輿載撮要
朝鮮歷代史略(漢文) 3책	地球略論
朝鮮歷史 3책	東輿地圖
國民小學讀本	近易算術 上・下
朝鮮略史	簡易四則算術
朝鮮地誌	士民必知(漢文)
小學讀本	四禮須知
牖蒙彙編	

한편 1897년 6월에 학부에서 간행된 《泰西新史攬要》 하권 끝 부분에 실려 있는 학부간행 교과서 광고를 보면 위의 도서 이외에 한문과 국문으로 각각 따로 편집된 《小地球圖着色》(2책)과 《公法會通》(3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1897년 6월까지 역시 한문과 국문으로 각각 따로 나온 《泰西新史攬要》(2

10) 《舊韓國外交文書》3, 日案 3623호, 고종 32년 5월 1일.

11) 《官報》, 1896년 1월 20일.

책)를 포함하여 3종의 도서가 더 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교과서 가운데 일부는 소학교에서 학습하는 것이 아닌 경우도 있었으나 소학교용이 단연 다수를 차지하였고 특히 역사 및 지리교과서와 현재의 국어교과서에 해당하는 소학교과서가 많았다. 소학교과서는 국어교과서에 해당하지만 당시 소학교의 교과목 가운데 국어과목이 없고 修身과목이 있는데 소학은 이 수신과목의 교과서이다.

1897년 이후 1905년까지 학부에서 간행된 교과서를 연도별로 보면 다음과 같은데 이들 도서들도 역시 대부분 역사교과서이다.

萬國史記 (1897)	大韓歷代史略 (1899)
中國略史合編 (1898)	精通算學 (1900)
俄國略史 (1898)	中等萬國地誌 (1902)
種痘新書 (1898)	歷史輯略 (1905)
東國歷代史略 (1899)	

(3) 민간인에 의한 교과서 편찬과 실태

1895년 후반 이후 관공립학교와 함께 사립학교가 각지에 설립되어 가면서 교과서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으나 학부에서 편찬한 교과서만으로는 수요에 충분히 응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부족한 교과서를 확보하기 위해 교과서 편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여론이 일어났다. 당시 유일한 민간언론기관이었던 《독립신문》에서는 민간이 회사를 설립하여 출판사업을 벌여야 한다는 논설을 게재하고 있다.¹²⁾

즉 몇몇 사람이 합자해서 출판사를 세우고 교과서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고용하여 서양의 책을 번역하여 보급하면 개인사업도 되고 국가의 문화발달에 기여하리라는 주장으로서 출판사업을 나라의 문명개화의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위기에서 점차 민간인에 의한 교과서의 간행이 진행되었다. 특히 황성신문사에서는 신문사 안에 출판사를 별도로 설립하여 교과서를 편찬 간행하였다. 황성신문사에서 교과서를 간행하기 시작한 것이 1899

12) 《독립신문》, 1896년 6월 2일.

년부터인데 이 때부터 각종의 교과서가 민간에서 출판되어 나왔다.

한편 일본과의 왕래가 활발해지면서 일본에서 출판된 도서가 유입되어 한국인 교사와 학생 및 일반인들에게도 보급되고 있었으며 선교사들에 의해 교회에서 간행된 도서 및 중국에서 출판된 도서 등도 다수 보급되었다. 이들 외국인이나 외국에서 출판된 도서들은 당시 국내의 부족한 교과서사정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 주는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교과서의 부족은 특히 사립학교에서 더욱 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공식적으로 학부가 사립학교에 교과서를 공급하기 시작하는 것이 1905년이 나 되어서야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1895년 漢譯版으로 간행한 《土民必知》가 일부 사립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되기는 하였지만 1905년까지는 사립학교에 학부편찬 교과서가 공급되지 못하였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공립학교에 교과서 사정이 원활하였던 것은 아니었다. 교과서의 문제는 수요에 필요한 공급부족이라는 문제 이외에도 내용상에 있어서도 자리가 잡히지 않은 상태였다. 학부편찬 교과서가 학교에서 학년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간행된 것도 아니었고, 학교별로 교과목이 통일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교과서 사용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 이는 당시 한국 근대 교육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었다.

이러한 사정은 사립학교 그 가운데서도 지방의 경우는 더욱 심하였다. 교과서를 공급받을 수 없었으며 따라서 과목을 정하는 일조차 할 수 없었다. 때문에 각 학교에서는 학부에 교과서의 공급을 청원하는 한편 교과서를 구입하여 교과서에 맞추어 교과목을 설정하는 형편이었다.

1897년부터 1905년까지 민간인이 편찬하거나 또는 외국인이 저술한 교과서를 간행연도별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897년)

新編倫理學教科書(井上哲次郎・高山林次郎 공저)

新撰教育學(木村知治 저)

국문정리(리봉운 저)

(1898년)

初等幾何學教科書(菊池大麓 저)

萬國新地誌(佐藤傳藏 저)

(1899년)

- 普通教科東國歷史(玄采 著) 中東戰記(玄采 譯)
 美國獨立史(金嘉鎮 譯) 波蘭末年戰史(魚塔善 譯)
 大韓地誌(玄采 著)
- (1900년)
- 法國革新史(澁江保 著) 算術教科書 上·下(李相高 譯)
 算術新書(上野清氏 著) 中等畫本(白濱徵, 本多佑補 共著)
 日本文法教科書(大槻文彦 著)
- (1901년)
- 農桑實驗說(金嘉鎮 著) 山上寶訓(漢口聖教書會 간)
 實用新教授法(狩野鷹力 著) 學校模範(尹重海 著)
 Penmanship(神田乃武 著)
- (1902)
- 국문독본(조원시 著) 中等修身教科書(井上哲次郎 著)
 東史輯略(金澤榮 著) 修訂中國史教科書(有賀長雄 著)
 산술신편 1(필하와 著) Self-help(Samuel Smile 著)
- (1903년)
- 中等地理課本(辻武雄 著) 初等物理教科書(陳熙星 著)
 近世小化學(関大植 著) 改正普通體操法(坪井玄道 著)
 言文一致商業一般(富山房編輯部 編) 經濟學綱要(天野爲之 著)
 Dialogue Readers(岸本能武太 著)
- (1904년)
- 牖蒙天字(G. S. Gale 著) 幾何學初步教科書(菊池大麓 著)
 初等幾何學教科書(菊池大麓 著) 格物質學(潘愼文 譯)
 中學化學教科書(池田菊苗 著) 小學校教師用手工教科書(日本文部省 編)
 中等日本臨畫帖(白濱徵 著) 動物界新教科書(後藤嘉之 著)
 聖綱鑑小路(香港主教 編)
 English Grammar for Beginners(新田乃武 著)
 Kanda's New Series of English Readers(新田乃武 著)
- (1905년)
- 進明彙編(金相天 著) 歷史輯略(金澤榮 著)
 大東歷史(崔景煥 著) 大東歷史略(鄭喬 著)
 埃及近世史(張志淵 譯) 邁爾通史(黃佐廷口 譯)
 大韓疆域考(丁若鏞 著) 近世世界全圖(伊藤政三 著)
 小學地理(日本文部省 編) 산술신편 2(필하와)
 高等女學校用代數學教科書(伊藤豊十 著) 近世物理學教科書(本多光太郎 著)
 普通教育物理學教科書(田丸卓郎 著) 近世化學教科書(池田菊苗 著)

普通教育化學教科書(龜高德平 著)	尋常小學讀本(日本文部省 編)
法學通論(兪星濬 著)	增訂法學通論(兪星濬 著)
農政新編(安宗洙 編)	初等商業教科書(川濤恭 著)
약물학 상(무기질)(에비슨 著)	약물학(에비슨 著)
望洗問答(大英國聖教會 編)	德慧入門(淸國聖教會 編)
Useful Knowledge on Popular Science(龜井忠)	

이상의 교과서를 보면 한국인에 의해 간행된 것은 국어와 수신과 국사와 지리에 집중되어 있으며, 과학계통과 경제와 산업과 의학 및 예능 등 신문물에 관한 분야는 거의 외국인에 의해 저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한국인 교과서 관계자들이 신학문에 대한 학문적 기반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국 근대의 학교교육에서 강조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알려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전체적으로 일본인에 의해 저술된 교과서가 거의 모든 교과에 걸쳐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시간이 흐를수록 일본인의 교과서가 점점 증가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실적으로 일본을 통해 새로운 문물이 주로 전해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편찬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일본인이 저술한 교과서가 필요했었던 것도 당시의 실정이었다.

(4) 교과서의 내용

처음 학부에서 교과서를 편찬할 때 내용구성과 편찬 일반에 대한 기술축적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인들을 고빙하여 이 일을 맡긴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과서편찬에 참고하기 위하여 외교관을 통해 일본교과서를 보낼 것을 훈령한 사실에서도 엿볼 수 있겠거니와 일본인이 교과서편찬의 실무를 맡았기 때문에 일본의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보여진다.

갑오개혁이 진행되면서 그 실무에 경험있는 외국인이 고용되었는데 일본인들이 대부분이었다. 학부에도 일본인이 고용되어 특히 교과서편찬업무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근대 교육개혁을 위한 충분한 기반이 미비된 상황이었고 새로운 제도의 실시를 따르는 근대적 지식이 축적되지 못하였으

므로 일본의 것을 모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교과서의 간행에 있어서도 이는 같은 상황이었다. 이는 특히 1896년 2월에 간행된 《新訂尋常小學》에 잘 나타나고 있다. 서문은 교과서 편찬의 필요성과 함께 일본인이 참여한 사실 그리고 국문으로 작성한 이유 등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배우는 자는 전혀 漢文만 숭상하여 옛것을 배울 뿐 아니라 시세를 헤아려 國文을 參互하야 또한 지금의 것도 배워하여 지식을 넓힐 것이니 아국의 세종 대왕께로서 하시되 세계 각국은 다 국문이 있어 인민을 배움을 열어 깨우치도록 하나하니 아국은 홀로 없다 하사 특별히 訓民正音を 지으사 민간에 광포하심은 婦孺와 輿대라도 알고 깨닫기 쉬운 연고라 이제 만국이 교호하여 문명의 진보하기를 힘쓰는 교육의 한 가지일이 목하의 급무라 이에 일본인 보좌원 高見龜와 麻川松次郎으로 더불어 소학의 교과서를 편집할새 천하만국의 문법과 시무의 적용한 자를 의거하여 혹 물상으로 비유하며 혹 화도로 형용하여 국문을 상용함은 여러 아해들을 우선 깨닫기 쉽고자 함이오 점차 또 한문으로 진계하여 교육할 것이니 무릇 우리 못 어린이들은 국가의 實心으로 교육하심을 몸 받아 恪勤하고 면려하여 材器 속성하고 각국의 형세를 암練하여 并驅 자주하여 아국의 기초를 태산과 반석같이 조치하기를 날로 바라노이다. 건양 원년 2월 上澣(현재의 문법에 맞추어 옮김).

이를 보면 교과서의 체제나 내용 등에서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정심상소학》에 들어 있는 삽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교과서의 삽화는 이 책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삽화의 분위기나 인물의 의상에서 또는 동물의 표현양식에서 일본풍을 보여주고 있다. 내용 가운데서도 ‘욕심많은 개’·‘가마귀와 여우의 이야기’·‘포도밭’·‘사슴 이야기’ 등의 이솝우화라든지, ‘日本人 居留地の 地’라는 내용을 남산 일대의 지도와 함께 소개한 것, 일본인을 주인공으로 한 내용이 있는 것 등은 일본인의 의견이 개입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교과서의 내용에서 기저를 이루는 것은 과학 등의 신 지식과 새로운 문명에 대한 소개, 우리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 효와 충 등 전통윤리에 대한 강조 등을 통해 우리 나라의 문명을 발전시키고 지식을 보급하여 국민의 애국심과 민족의식을 고취하려는 것이었다. 자주독

립국가로 발전하는 기반을 확립한다는 국가의 의지를 강하게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학부에서 간행된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다. 특히 처음 출판된 본국사 교과서나 소학교과서의 내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3) 통감부하의 교과서

(1) 일제의 교육침략정책

1904년 8월 제1차 韓日協約이 체결됨에 따라 이른바 고문정치가 시작되어 정부 각 부처에 일본인이 배치되었는데 학부에는 시테하라(幣原坦)가 學部參與官의 명칭으로 교육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다. 일본인은 이미 갑오개혁 당시부터 정부에 고빙되어 학부의 교과서 편찬에 깊이 관여하였으나 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교육침략정책을 주도하게 되었다.

시테하라는 1906년 4월 초까지 근무하다 귀국하였고 뒤이어 미쓰치 츠조(三土忠造)가 부임하였으며,¹³⁾ 4월 말일 參與官附事務官으로 小彬彦治가 도착하였다.¹⁴⁾ 또한 다와라 마고이치(俵孫一)가 통감부 서기관으로 근무하는 학부 촉탁으로 배치되더니 1907년 韓日新協約이 체결된 후에는 학부차관이 되어 한국 교육행정의 실권을 잡고 교육침략에 앞장섰다.

통감부의 교육정책은 한민족의 자주독립정신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국인이 일제의 침략과 관련된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근원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실용적 교육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통감부는 우선적으로 학제를 전면 개편하였으며 일본어시간을 늘리는 대신 애국교과를 삭제 또는 축소시키고 각급 학교에 일본인 교사를 배치하였다.

교사의 부족을 보충한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일본인 교사의 배치는 처음에는 관공립학교에 국한하더니 점차 사립학교에까지 강제로 배치하기에 이르렀다. 1906년 3월 통감부가 설치된 직후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이 학부참여관 시테하라와 각 학교의 일본인 교사를 일제히 초견하였는데,¹⁵⁾ 이를 보면 통

13) 吳天錫, 《韓國新教育史》(현대교육총서출판사, 1964), 123쪽.

14) 《皇城新聞》, 1906년 5월 4일.

15) 《皇城新聞》, 1906년 3월 27일.

감부 설치 이전에 이미 일본인 교사가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1906년 2월 통감부가 설치된 이후 본격화되었다.

통감부는 1906년 13도 관찰부 소재지의 공립보통학교에 일본인 교사를 배치하고 1907년부터는 기타 각 지역의 보통학교에 배치하기로 하였다.¹⁶⁾ 1907년 4월 현재 지방 각 공립보통학교에 25명의 일본인 교사가 배치되었다.¹⁷⁾

1908년 이후에는 보통학교의 교감이 임명되고 있다. 이들 일본인 교사들은 학교의 실권을 장악하고 일본어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민족교육을 억압하고 식민지교육의 기반을 잡아 나갔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이를 교육의 모범을 보여 한국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학부 차관 다와라는 말하기를

1교에 반드시 1인의 교원을 두어 교감으로 하며 … 제반 경영의 主腦로 삼아서 韓人 교원을 지도한다(學部, 《韓國教育의 現狀》, 1910).

라고 하여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일본인 교사들은 학교운영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 대한 감시나 한국인 교사들의 감시자 역할도 하였다. 특히 학생들에 대한 감시는 민족주의운동을 억압하고 일제 침략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었다. 이는 일본인 교감회의에서 이토통감이 한 연설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의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교사되는 자는 정치와 종교의 일에 관해서는 피차 평론하지 않는 일이다. 실사 사회의 풍조가 여하하건 一意專心 교육에만 진력하면 되는 것이다(학부, <보통학교교감회의록>, 1908).

학교교육이 현실문제에 관여하지 못하게 감시하고 감독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16) 《大韓每日申報》, 1906년 9월 8일.

17) 《皇城新聞》, 1907년 4월 3일.

일본인 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다음과 같다—울산군, 의주군, 군산항, 동래부, 회령군, 원산항, 나주군, 홍주군, 길주군, 강릉군, 정주군, 마산포, 청주군, 황주군, 경주군, 강경포, 안성군, 개성군, 성주군, 원주군, 상주군, 북청군, 경성군, 서울의 校洞과 安洞.

(2) 학제의 개편

통감부의 교육침략은 광범위한 학제개편으로 나타났다. 학제의 개편은 당시 일제침략에 대항하는 민족교육운동이 확대되고 있는데 대한 일제침략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의 교육을 재정비할 필요성에 의한 것이었다.

1906년 이후 발표된 각급 학교에 관한 법령과 그 시행규칙 및 교과서 검정규정 등은 다음과 같다.

법령	연도	구분 및 호수
사범학교령(개정)	(1906) · (1909)	칙령41호(51호)
고등학교령(개정)	(1906) · (1909)	칙령42호(52호)
외국어학교령(개정)	(1906) · (1909)	칙령43호(53호)
보통학교령(개정)	(1906) · (1909)	칙령44호(55호)
사범학교령시행규칙	(1906) · (1909)	학부령20호(3호)
고등학교령시행규칙	(1906) · (1909)	학부령21호(4호)
외국어학교령시행규칙	(1906) · (1909)	학부령22호(5호)
보통학교령시행규칙	(1906) · (1909)	학부령23호(6호)
고등여학교령(개정)	(1908) · (1909)	칙령22호(54호)
고등여학교령시행규칙	융희2 (1908)	학부령9호(2호)
관립고등여학교학칙	융희2 (1908)	학부령10호
사립학교령	융희2 (1908)	칙령62호
학회령	융희2 (1908)	칙령63호
사립학교보조규정	융희2 (1908)	학부령14호
공립사립학교인정	융희2 (1908)	학부령15호
교과용도서검정규정	융희2 (1908)	학부령16호
학부편찬교과용도서발매규정	융희2 (1908)	학부령18호
실업학교령	융희3 (1909)	칙령56호
실업학교령시행규칙	융희3 (1909)	학부령1호
관립한성고등여학교규칙	융희3 (1909)	학부령17호

위의 표를 보면 각급 학교의 학교령이 1906년에 1차로 발표되고 곧 이어 시행규칙이 발표되었으며 1909년에 다시 개정되어 학교령과 시행규칙이 발표된 것을 알 수 있다. 1909년 개정된 학교령의 내용은 교과서 사용에 대한 규정으로서 1908년에 발표된 교과서 검정규정에 따라 교과서의 검정을 실시

하면서 각급 학교의 교과서 사용을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개편된 학제에 따라 바뀌어진 각급 학교의 교과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보통학교

소학교를 보통학교라고 바꾸어 부르게 되었다. 보통학교는 심상과와 고등과를 구별하지 않고 수업연한이 4년이었으며 교과목은 일본어가 포함되고 실업관련 교과목이 추가되었다. 보통학교의 교과목은 다음과 같다.

수신 · 국어 및 한문 · 일본어 · 산술 · 지리역사(1909년, 지리 · 역사) · 이과 · 도화 · 체조 · 수예 · 창가 · 수공 · 농업 · 상업

* 지리 · 역사는 특별한 시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어독본과 일어독본의 내용으로 교수한다. 이는 실제로 지리 · 역사시간이 삭제되었음을 뜻함.

나. 한성사범학교

사범학교는 본과 · 예과 · 속성과 세 과정으로 편제되었고, 별도로 강습과가 개설되기도 하였다. 수업연한은 본과가 3년, 예과 · 속성과 · 강습과는 1년이였다. 사범학교는 당시로서는 가장 수준이 높은 학교로 교과목의 체제도 잘 정비되었다. 각 과정별 교과목은 다음과 같다.

〈본과〉

수신 · 교육 · 국어 · 한문 · 일어 · 역사지리 · 수학 · 물리화학 · 박물 · 도화 · 체조 · 음악 · 농업 · 상업 · 수공

* 농업 · 상업 · 수공은 세 과목 중 한 과목 선택임.

〈예과〉

수신 · 국어 · 한문 · 일어 · 역사지리 · 수학 · 이과 · 도화 · 체조 · 음악

〈속성과〉

수신 · 교육 · 국어 · 한문 · 일어 · 역사지리 · 수학 · 이과 · 도화 · 체조 · 음악

다. 고등학교

1900년에 개교한 중학교는 1906년 고등학교로 개편되었으며 중학교는 폐지되었다. 고등학교는 본과 · 예과 · 보습과 등 세 과정으로 편제되었으며 수업연한은 본과가 4년 예과와 보습과는 1년이였다. 각 과정별 교과목은 다음과 같다.

〈본과〉

수신 · 국어한문 · 일어 · 역사지리 · 수학 · 박물 · 물리화학 · 법제경제 · 도화 · 음악 · 체조

* 1909년 개정된 규칙에는 외국어가 추가되었으며 음악이 창가로 바뀌었다.

〈예과〉

수신 · 국어한문 · 일어 · 역사지리 · 산술 · 理化 · 박물 · 도화 · 음악 · 체조

〈보습과〉

수신 · 국어한문 · 일어 · 역사지리 · 수학 · 이화 · 박물 · 도화 · 체조

라. 외국어학교

외국어학교는 日語科 · 英語科 · 法語科 · 德語科 · 漢語科 다섯과로 편제되었다. 관립한성외국어학교의 교과목을 참고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각과의 어학 전공과목 : 각국어별로 해석 · 회화 · 쓰기 · 번역 · 작문과 문법 등

일반과목 : 수신 · 국어 및 한문 · 역사지리 · 이과 · 체조 · 제2외국어

*일어과에는 부기 · 법제 및 경제 추가. 제2외국어는 일어과는 영어 · 다른 과는 일어로 함.

마. 고등여학교

고등여학교는 1908년 정부에 의해 설립된 최초의 여자중등교육기관이다. 고등여학교는 본과와 예과로 편제되고 수업연한은 본과가 3년이고 예과는 1년이다. 영에 의거 설립된 한성고등여학교 본과의 교과목은 다음과 같다.¹⁸⁾

수신 · 국어 · 한문 · 일어 · 역사지리 · 산술 · 이과 · 도화 · 가사 · 수예 · 음악 · 체조 · 교육 · 제2외국어

(3) 통감부의 교과서 통제

가. 통감부의 교과서 편찬 방향

1906년 2월 설치된 통감부는 교육침략정책을 추진하여 학제를 개편하고 교육통제를 강화하면서 교과서 편찬에 직접 관여하였다. 이들의 교육방침은 식민지 지배의 준비단계로서 이른바 ‘順良化’를 정하고 한민족의 자긍심을 없

18) 《官報》, 융희 2년 6월 3일, 學部告示 4호 〈官立漢城高等女學校豫科本科科程及每週教授時數表〉.

에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통감부의 교과서 편찬의 기본방침은 일본인을 교과서편찬위원회에 임명하고 이들로 하여금 일본어로 교과서를 편찬하는 일이었다. 이에 앞서 학부에서 교과서 편찬업무를 담당한 일본인은 학부참여관 시데하라(幣原坦), 학부참여관 부통역관 우에무라(上邨正巳), 교과서편집 촉탁 와다세(渡瀬常吉), 교과서편집 촉탁 타카하시(高橋亨) 등이었는데 통감부설치 직후 시데하라의 후임으로 부임한 미쓰치(三宅忠造)는 교과서편찬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과서 편찬위원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교과서 편찬을 시작하였다.

이들이 중심이 되어 일본어로 교과서를 편집하는 것은 그 동안 전개되어 온 민족교육을 억제하고 한민족의 민족정신을 말살하려는 방향에서 진행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민족적 반향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통감부의 교과서정책을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대표적인 민족언론인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였다. 《황성신문》은 시데하라가 앞장선 일본인의 교과서 편찬에 대해 비판하면서 일문은 일본어교과서에, 다른 교과서는 일문으로 편찬하지 말 것과 한편으로는 국가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 역사와 지지를 교육하는 것을 제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¹⁹⁾ 또한 《황성신문》은 교과서가 일본인에 의해 편집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祖國之精神’이 제대로 배양되지 못할 것을 걱정하는 논설을 게재하기도 하였다.²⁰⁾

통감부는 개학일까지 완본이 나오기 어려워 假綴해서 보급할 정도로 교과서 편찬과 보급을 서둘렀음을 보여준다. 이 때 편찬된 교과서 가운데는 그 동안 중요시되어 왔던 과목인 역사나 지리교과서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1909년 5월 보통학교용 수신서 4책·국어독본 8책·일어독본 8책·한문독본 4책·이과서 2책·도화입본 4책·습자첩 4책·산술서 4책이 편찬되었으며 더 이상 다른 교과목의 교과서는 편찬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통감부의 교과서정책은 한민족의 국민정신을 훼손시키는 것으로 인식한 《황성신문》은 일본의 정책에 대응하여 국민정신을 배양하는 길로 본 국사연구강화를 주장하면서 본국사연구를 소홀히 하였던 학문풍토를 비판하

19) 《皇城新聞》, 1906년 4월 5일.

20) 《皇城新聞》, 1906년 5월 30일.

면서 즉 국사를 통해서 人智를 키우고 國性을 배양할 수 있으며 국사연구는 나라가 망하는 것을 막고 나라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길이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나. 교과서사용규정의 제정

1906년 통감부가 실시한 학제개편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한민족의 자주독립정신을 고취하여 온 민족교육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일본인 교사를 임명하고, 일본어 사용을 각급 학교에서 의무화하고 역사 등 애국 교과와 교수를 축소 또는 삭제하는 것이었다. 또한 일본어로 교과서를 편찬하였고 교육내용도 그들의 침략정책에 유리하게 일본인이 작성하였다.

교육을 통제하는 직접적이며 간편한 방법은 각급 학교에서 교과서를 일정한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통감부는 1906년 각급 학교의 학교령을 발표하고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교과서의 사용규정에 새 조항을 포함시켰다.

교과서 사용에 관한 규정은 이미 1895년에 발표된 <소학교령>에도 “소학교의 교과용도서는 학부에서 편찬한 것 이외에도 학부대신의 검정을 거친 것을 사용함”²¹⁾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구체적 교과서검정이 실시되지 않았고 학부나 민간에서 편찬된 교과서가 그대로 사용되어 왔었다.

1906년 개편된 학제에 따라 제정된 각급 관공립학교의 학교령시행규칙에 제시된 교과서 사용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보통학교 : 보통학교의 교과용도서는 학부에서 편찬된 것을 사용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아 학부편찬 이외의 도서를 사용함.
2. 고등학교 : 교과서를 정하고자 할 때는 학교장이 학년 초부터 2개월 전에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음.
3. 사범학교 · 고등여학교 : 고등학교와 같음.

이를 보면 학부에서 편찬한 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보통학교뿐인데 이는 1906년 당시 학부에서 보통학교용 교과서만 편찬하였기 때문이다. 학부에서는 학부편찬 교과서를 보통학교 1학년 학생에게 지급하였는데 2학년 이

21) 《官報》, 개국 504년 7월 22일, 칙령 145호 <小學校令> 15조.

상의 학생들도 1학년 학생의 교과서를 사용함이 유익하다고 판단될 때는 학생수와 교과서 종류 및 수요를 청구하라고 지시하고 있다.²²⁾

보통학교에서 학부편찬 이외의 도서를 사용할 때와 고등학교·사범학교·고등여학교에서 교과서를 정할 때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아직 이에 대한 세칙이 마련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전국의 대부분의 학교들은 사립학교를 포함하여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어 자유로이 교과서를 사용하였다. 교과서는 이전 학부에서 편찬한 것이거나 재직교사가 직접 저술한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민간이나 교육단체에서 편찬한 것이었다. 학교에 따라서는 학교내에 출판시설을 갖추고 교과서를 편찬하기도 하였다.

특히 사립학교의 교과서 사용을 통제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 사립학교령을 통한 교과서사용규정이었다. 사립학교령은 민족구국교육운동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핵심 내용은 교과서 사용의 통제였다. 통감부는 사립학교령을 발표한 직후 교과용도서검정규정을 제정하고 교육내용에 대한 통제를 시작하였다. 교과용도서검정은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나 모든 교과용도서가 학부대신의 검정을 받도록 한 것이었으므로, 사립학교뿐만 아니라 관공립학교의 교과서사용규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리하여 1909년 각급 학교의 학교령을 일제히 개정하였는데 그 개정 내용은 교과서사용규정이었다. 개정된 각급 학교의 교과서사용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보통학교 : 보통학교의 교과용도서는 학부에서 편찬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학부에서 편찬한 것이 없을 때는 학부대신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도서 또는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은 다른 도서를 사용할 수 있다.

22) 《大韓每日申報》, 1907년 6월 29일.

《官報》, 광무 11년 7월 9일, 학부령 7호 〈學部編纂普通學校教科用圖書發售規程〉. 공립보통학교 혹은 사립학교에서 本部 편찬 보통학교교과용도서를 학도에게 사용코자 할 때에는 당해 학교장이 다음 사항을 갖추어 본부에 청원하여야 한다.

1. 학교 규정의 학과목과 그 정도 및 수업연한
2. 학도 총수와 교과서를 사용할 학도와 학년별의 수요
3. 교과서의 종류와 그 학년별의 배정
4. 교과서를 사용할 학과의 담임 교원 이력서

2. 고등학교 : 고등학교의 교과용도서는 학부에서 편찬한 것이나 또는 학부대신의 검정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아 앞의 도서 이외의 도서를 사용할 수 있다.
3. 사범학교 : 사범학교의 교과용도서는 학부에서 편찬한 것이나 또는 학부대신의 검정을 받은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앞의 도서가 없을 때와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학교장이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아 기타의 도서를 사용할 수 있다.
4. 고등여학교 · 외국어학교 : 고등학교와 같음.

이상의 각급 학교의 교과서사용규정을 보면 교과서 사용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제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학부에서 편찬한 것.

둘째, 학부대신의 검정을 받은 것.

셋째, 이상에 해당되는 도서가 없을 경우에 학교장이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아 다른 도서를 사용할 수 있음.

개정된 내용의 특징은 보통학교 이외의 학교에서도 학부편찬의 도서를 사용하도록 한 것이며 어느 학교나 학부편찬 이외의 모든 교과용도서가 검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아 다른 도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한 다른 도서는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교과서는 학부편찬, 학부대신의 검정을 받은 것,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은 것 세 가지로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정된 학교령에 뒤이어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개정시행규칙에서는 교과서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적인 절차를 만들어 학교에서의 교과서 사용을 엄격하게 통제하게 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통학교 : 학부편찬 이외에 학부대신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학교장이 도서의 명칭, 著譯者名 및 발행년월일을 갖추어 학부대신에게 보고하며, 기타의 도서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해당 도서의 명칭, 책수, 사용교자 하는 학년, 지역자명 및 발행년월일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2. 고등학교 : 교과용도서를 정하고자 할 때는 학교장이 도서의 명칭, 저역자명 및 발행년월일을 갖추어 학부대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부편찬이나 학부

검정 이외의 도서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해당 도서의 명칭과 책수, 사용하고 자 하는 학년, 저역자명 및 발행년월일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3. 사범학교·고등여학교·외국어학교 : 고등학교와 같음.

이처럼 통감부는 각급 학교에서 교과서는 학부편찬 교과서와 학부대신의 검정 또는 인가를 받은 교과서만 사용하게 하였다. 이러한 교과서사용규정은 새로 설립되는 실업학교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으며,²³⁾ 모든 사립학교에도 적용되었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령에 이와 같은 교과서규정을 포함시켰다.

다. 교과용도서검정의 실시

통감부가 설립된 이후 학부에서 일본인들이 중심이 되어 교과서를 새로이 편찬하였으나 그 종류가 국어·일어·한문·수신 등 일부 과목에 불과할 뿐 아니라 그것도 보통학교용에 그쳤다. 따라서 대부분의 교과서는 개인이나 학회 또는 학교나 신문사에 부설된 출판사에서 간행되었고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자체에서 제작한 교과서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들 교과서들은 대부분 애국심을 강조하고 자주독립을 주장하는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전국적으로 설립되고 있는 사립학교에서는 이들 교과서들이 사용되고 있었다.

통감부는 새로 제정된 각급 학교의 시행세칙에서 교과서사용에 관해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만든 이후 사립학교를 통제하기 위해 사립학교령을 발표하고 교과서검정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교과서검정규정을 발표하기 이전부터 실시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검정은 교과서뿐 아니라 한국에서 출판되는 모든 도서를 검정하였다.

그것은 교과용도서검정규정이 제정되기 전의 다음과 같은 신문 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교과용도서뿐만 아니라 각종 서적을 학부에 照檢한 이후에 편찬하여야 함으로 각 관청·사찰·개인·가정 등지에 소장된 관공·사유 각종 서적동판을 조

23) 《官報》, 융희 3년 4월 26일, 칙령 56호 〈實業學校令〉.

《官報》, 융희 3년 7월 5일, 학부령 1호 〈實業學校令施行規則〉.

사하되 經史子傳·文集·稗史小說 등 빠뜨리지 말 것, 활판인쇄소도 일체 조사하고 末月로 不報이면 무효임(《大韓每日申報》, 1907년 9월 1일).

이 기사는 내부대신이 발표한 것으로 교과서검정이 다만 교과용도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이미 간행된 모든 서적 또는 문서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는 결국 한국의 정신문화를 파괴하려는 정책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학교에서 사용되던 교과용도서는 교과서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교과용도서검정규정이 발표되기 이전 이미 검정이 실시되고 있었음은 兪吉濬이 《東洋史》수권 질을 발간하여 학부의 검열을 받았으며,²⁴⁾ “유길준이 幼年必讀書를 학부에 검정을 요청하였으나 이의 검정이 허가되지 않으므로 未妥한 조건은 장차 개정하여 학부에 검정을 청할 것임”²⁵⁾이라는 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교과용도서검정규정이 공포된 것은 1908년 8월 28일이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²⁶⁾

제1조 교과용도서의 검정은 그 목적하는 학교의 학원 학도용 또는 교원용에 적당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제2조 도서를 발행하던지 또는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검정을 학부대신에게 청원하여야 한다.

외국에서 발행한 도서는 발행자가 본 규정에 의하여 그 검정을 학부대신에게 청원하되 이 경우에는 한국내에 대리인을 두어야 한다

제3조 검정청원자는 제1호 서식의 원서 검정료 및 도서와 그 稿本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검정료는 도서 1종에 대하여 그 목적하는 학교 1종마다 도서 정가의 20배이다.

제4조 검정을 받은 후에 도서의 명칭·책수·정가·목적하는 학교 및 학과의 종류와 도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때는 검정의 효력을 잃는다.

제5조 앞의 경우에 다시 검정을 청원하는 자는 제2호 서식의 원서 및 도서 혹은 고본 2부를 학부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검정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한다.

검정료를 납부한 후에는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이를 환불하지 않는다.

24) 《大韓每日申報》, 1908년 6월 25일.

25) 《大韓每日申報》, 1908년 7월 25일.

26) 《官報》, 융희 2년 9월 1일, 학부령 16호 〈教科用圖書檢定規程〉.

제7조 검정한 도서는 학부에서 관보에 그 명칭·책수·정가·목적하는 학교 및 학원 학도용 또는 교원용의 구별·발행 및 검정년월일과 해당 도서에 서명한 저자 역자 및 발행자의 주소 성명을 공고한다.

제8조 도서발행자는 도서에 서명한 저자 역자 또는 발행자의 주소 성명에 변경이 있을 때는 그 사항을 학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검정을 받은 도서에는 매 책의 잘 보이는 위치에 제7조에 기재된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10조 稿本으로 검정을 받은 자는 발행 후 3일 이내에 해 도서 2부를 학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전항의 도서가 그 지질·인쇄 또는 제책이 조악하여 교과용도서에 부적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상당히 변경함을 면할 수 있다.

제11조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는 학부대신이 도서의 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제9조·제10조의 규정에 위배된 경우
2. 제10조의 변경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검정을 받은 도서로 학부에 납부한 도서보다 지질·인쇄 또는 제책이 조악한 경우

제12조 검정을 받지 아니한 도서 또는 검정의 효력을 잃은 도서에 학부검정 기타 이와 유사한 문자를 기재하여 발행한 자는 5환 이상 50환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를 알고 수탁 판매한 자도 역시 같은 벌에 해당한다.

제13조 본 규정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14조 본 규정 시행 전에 검정한 도서는 본 규정에 의하여 검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 본 규정 시행 전에 검정을 받은 도서로서 이미 발행한 것은 발행자가 본 규정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9조의 게재사항을 인쇄한 도서 2부를 학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기일내에 도서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장래에 해당 도서의 효력을 상실한다.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 생략

이상의 검정규정을 발표한 통감부는 학부로 하여금 모든 교과용도서의 검정정원을 접수하게 하였다. 학부 편집국에서는 1908년 12월 16일까지 ‘可成의 査閲事務’를 마치고 허가 혹은 불허를 결정하여 통보하기로 계획하였다.

한편 교과용도서를 검정하기 위해 학부에서는 검정내규를 제정하고 이 내규에 준하여 검정을 실시해 나갔다. 검정내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一) 검정청원한 도서는 다음의 요항에 준하여 사열함.

甲, 학원학도용도서

1) 분량

당해 과목의 실제 교수시수와 평균 1시간의 교수와 진도에 적합함을 요함.

2) 내용

가. 목적인 학과와 학과의 종류에 적합함을 요함.

나. 목적인 학교와 교수요지(보통학교령 시행규칙 및 고등학교령 시행규칙에 제시)에 적합함을 요함.

다. 학원학도의 지식 정도에 적합함을 요함.

라. 조직에 관하여 다음의 항에 적합함을 요함(교재의 취사선택, 기재사항의 순서배당, 기술의 繁簡詳略).

마. 語句・用字・事實・理論 등에 관하여 착오가 없을 것. 특히 지리・이과・산술 등 知的 科目에는 주의를 요함. 수신은 물론 한자・국어・역사 등도 다른 과에 비하여 일상에 자제 덕성의 함양을 유의함인즉 어구・용자의 偏僻奇矯에 흐르지 않도록 함.

바. 문제 및 기사는 일반이 용인하기 어려운 嫌이 없어야 함. 예를 들어 헛된 이론에 치우쳐 舊慣을 무시하는 신설이나 연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사. 인구・물산 등의 概數記載는 불가함이 없으나 해마다 변동이 있는 통계적 수량은 기재하지 말아야 함. 고등학교 정도의 도서로 필요부득한 경우에는 그 조사년월일을 표시할 것.

아. 동일인으로 여러 종류의 검정을 청원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간에 조화를 유의하여 聯給 통일을 기하되 기사의 중복을 피할 것. 그 聯給을 요하는 과목은 국어・한문・수신・국어・한문・역사・지리・이과・산술 등이다.

3) 문법

문장 및 용어는 평이하고 간명하여야 함.

4) 제책 및 인쇄

가. 지질과 제책은 적어도 1학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인쇄는 선명하여야 함.

다. 활자의 대소와 字行的 간격은 상당하여야 함.

라. 문자의 誤落이 없으며 삽화가 적당할 것.

乙, 교원용 도서

1) 학원학도용열요항 중 교원용에도 불가결한 자는 일체 주의할 것.

2) 주석・부연・응용・주의 등 사항을 가하여 교수상 유감이 없게 하여 학원학도용도서에 비하여 그 분량이 많거나 기술이 상세하여도 무방함.

(二) 수정을 불요하고 검정을 허가할 경우나 검정을 불허할 경우에는 청원자에

게 지령함.

- (三) 수정을 가한 후에야 검정을 허가할 경우에는 먼저 청원자나 대리인을 소환하여 수정할 부분을 지시함.

단, 이 경우에는 학부에서 지정한 기간내에 수정을 가하여야 함.

- (四) 학부는 검정청원자의 편리를 위하여 도서의 稿本도 受理하나 만약 해당 도서로 검정 허가를 받을 경우 인쇄·제책 후에 간본 2부를 학부에 제출하여 다시 사열한 후 지령을 대기한다. 만약 지령을 대기하지 않고 제작 간행하였다가 학부에서 사열한 결과 적합하지 않아 전부 개작을 지령하는 경우에는 시간과 노력과 급전을 낭비하기에 이르니 청원자는 이 점에 주의함을 요함.

- (五) 검정청원의 규칙은 학부령 제16호로 반포된 교과용도서검정규정에 준거할 것이며 청원자 가운데 왕왕 이 규칙을 생략하여 쓸데없이 무용의 공력과 시일을 허비함이 많으니 청원자는 이 규칙에 유의할 것.

라. 교과서검정의 성격과 교과서검정의 실태

(가) 성격

교과서를 검정하는 일은 주로 통감부의 일본인들이 담당하였다. 그들은 한국인의 민족정신을 제고하는 내용이나 일제침략에 비판적인 내용 또는 자주·독립·애국 등의 용어가 사용된 도서에 대해서는 검정을 불허하였다. 당시의 상황은 1907년 일제의 강압으로 한국군대가 해산되고 고종황제의 퇴위와 함께 신조약에 의거 일본인 次官이 한국의 내정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등 그 침략이 본격화되어 감에 따라 이에 대항하는 한민족의 민족운동이 각지에서 격렬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활동 양상이 의병투쟁과 함께 사립학교에 의한 민족교육운동이었다.

교과용도서검정은 바로 이러한 민족교육운동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 대상은 사립학교의 교육내용이었다. 교과용도서검정규정과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사립학교령, 학회령, 사립학교보조규정, 공립·사립학교 인정에 관한 규정, 사립학교령 시행에 관한 건, 서당관리에 관한 건 등이 동시에 만들어진 것은 사립학교의 민족교육운동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였다.

특히 교과용도서검정규정은 사립학교령의 사립학교교과용도서사용규정을 실시하기 위한 것임은 당시 일본인 학부 차관이었던 다와라(俵孫一)의 언행

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는 사립학교령이 발표된 직후 한성부내 사립학교와 학회의 대표자를 소집한 석상에서 통감부의 사립학교에 대한 방침을 행정·교육·정치 세 측면에서 설명하였는데 교과서문제는 정치적 측면에 포함시켜 말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의 교과서에 부적당한 것이 많이 있다. 다수의 사립학교의 경우를 보건대 그 사용하는 교과서에 부적당한 것이 적지 않다. 심한 경우에는 유해한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수가 많음에 놀라게 된다. 무슨 까닭으로 이것을 유해하다고 하는가. 이제 그 일례를 든다면, 교과서 가운데 현시의 정치문제·사회문제를 가지고 편찬한 것이 많음을 본다… 무릇 정치와 교육과를 혼동하는 것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자못 해로운 것이다. 우리 동양인은 다 같이 종래에 학문은 소위 경세의 학으로서, 학문을 한다는 것은 관리가 되기 위함이다. 관리가 되지 않으려면 학문이 필요가 없다는 오해의 관습이 있으니 이것이 동양인의 통폐로서 오늘에 이른 것이어서, 사람이 한번 입을 열면 정치문제를 부르고 사회문제를 말하여 소위 이 〈蠹〉를 죽이면서 천하지사를 논하는 것으로써 영웅의 본령을 삼는다. 즉 정치의 취미는 생명을 유지하는 음식물의 기호와 다를 것이 없다. 그런데 학문이란 무엇인가. 고래 우주의 삼라만상을 다루어 그 원리를 연구하는 데 있다. 그 일은 비록 중요하지만 고생이 많은 학문연구보다도 취미가 많은 정치문제나 사회문제를 토의하는 것은 누구나 즐기는 바다. 세상의 청년자제가 근로를 참고, 연찬을 쌓아 학문에 뜻을 두는 소이가 만일 타일 정권에 붙어 정치를 논하는 데 있다고 한다면 이제 당장 이러한 노고를 쌓지 않고 곧 정답을 放吟할 수 있을 것이니 누가 구태여 修學에 각고하겠는가… 이러한 것은 청년자제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 설립의 목적이 아닌 것이다. 한국 학교에서 이러한 교과서를 사용할 때 그 결과로 이 나라의 전도가 어떠할 것인가. 정치문제나 사회문제와 같은 흥미있는 문제를 가지고 청년학도로 하여금 토론·橫議·放漫·自在케 한다면 그들은 학예의 연찬을 등한히 하며 지덕 수양상 조금도 얻는 것이 없어 결국 쓸데없이畸矯한 인물이 되고 말 것이다. 나라 안이 모두 浮華경조한 인물로 가득차 버린다면 무엇으로써 나라의 부강을 이룩할 수 있겠는가. 청년자제의 무리가 공연히 정치문제에 광분할 것이면 일종의 정치광, 큰 불평객이 속출하게 되어 이 나라는 더욱 소요의 와중에 빠지는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위의 연설내용은 한국의 사립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가 한국의 현실정

치와 사회문제를 다룬 내용이 많으며 이는 학생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한국이 발전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이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한국의 청년학생들이 국권이 침탈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관심과 논의를 소요이고 부화경조의 불평이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원인이 교과서의 내용에 있고 이러한 교과서로 교육을 실시하면 한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사립학교령을 공포하는 이유를 다음의 성명에서도 밝혔다.

그 중점을 교과서에 두었다. 사립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 가운데는 심히 불량한 것, 한국의 현상에 비추어 심히 위험한 것이 매우 많다. 이에 대하여 사립학교령은 상당히 취체를 엄중히 하여 한국의 國是・國情, 또는 進運에 부합하지 않은 교과서는 절대로 구속하고 학부 편찬 또는 검정 이외의 도서에 대하여는 사용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교과서검정이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민족교육 내지 구국교육에 대한 억압정책의 일환임을 밝히고 있다.

(나) 교과서검정의 실태

교과용도서의 검정규정을 발표한 일제는 본격적으로 검정을 실시하면서 1909년 각급 관공립학교의 학교령을 개정하여 관공립학교에도 교과서사용규정을 만들었다. 통감부는 검정을 실시하면서 검정의 기준과 검정 조사의 착안점 및 검열의 개황 및 검정의 방침을 내규로 정하였는데 이를 통해 구체적인 검정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ㄱ. 착안점

(정치적 방면)

1. 한일관계와 아울러 양국친도를 저해하고 비방함이 없는가.
2. 한국 국시에 어긋나며 질서안녕을 해하고 국리민복을 무시하는 듯한 설은 없는가.
3. 한국 고유한 국정에 어긋나는 기사는 없는가.
- 4.奇矯하고 편협한 우국심을 고취함이 없는가.
5. 배일사상을 고취하고 또 한국인이 일본인이나 외국인에 대한 악감정을 품

게하는 기사 및 어조는 없는가.

6. 기타 언론이 시사평론에 관계됨이 없는가.

(사회적 방면)

1.淫畏 혹 풍속을 괴란하게 하는 듯한 언사 및 기사가 없는가.

2. 사회주의와 기타 사회 평화를 해하는 듯한 기사가 없는가.

3. 妄誕無稽한 미신에 속하는 듯한 기사가 없는가.

(교육적 방면)

1. 기재사항에 오류가 없는가.

2. 정도·분량 및 재료의 선택은 교과서에 목적인 사건에 적응하는가.

3. 편술의 방법은 적당인가.

이상의 착안점에 의하여 청원한 교과용도서 가운데 부적당한 판정을 받은 도서에 대한 검열의 개황은 다음과 같다.

ㄴ. 검열의 개황

(교육적 방면)

1. 기사에 오류가 많다.

2. 재료의 선택과 서술의 체제가 적당하지 못함이 많다.

3. 편술의 조직이 적당하지 못하다.

4. 분량·정도가 적당하지 못하다.

(정치적 방면)

교과서 가운데 정치적 의미를 함축한 것이 많은 바 이는 한국인이 정치와 교과의 구별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거나, 고의로 어떤 목적에 이용하려는 것으로 특히 국어·수신·한문·역사 등 교과서에서 그러한 것이 많다.

1. 한국의 현시상태를 통론한 것.

2. 과격한 문자를 써서 자주독립을 설하여 현상을 파괴하려는 정신을 고취한 것.

3. 외국의 사례를 인용하여 한국의 현 정세를 풍자한 것.

4. 설화를 巧說하여 한국의 현정세를 풍자한 것.

5. 국가론·의무론을 게재하여 분개적 언사를 사용한 것.

6. 편협한 애국심을 설한 것.

7. 일본 및 기타 외국에 관계가 있는 역사사실 가운데 장렬한 인물의 사적을 과장하여 암연히 일본과 기타 외국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한 것.

8. 한국에 고유한 언어·풍속·습관을 유지하고, 외국을 모방함이 불가하다고 설하여 배외사상을 고취한 것.

9. 비분한 문자로 최근 한국사를 서술한 것.

(이상 정치적 방면의 개괄)

1. 음으로 양으로 자주독립을 설하여 한국의 현상파괴를 창도한 것.
2. 배일사상을 고취하여 한일 양국의 친교를 저해하려고 한 것.
3. 편협한 애국심을 도발하여 자제를 그릇되게 할 염려가 있는 것.

ㄷ. 검정의 방침

금일 급한 일은 국민으로 하여금 속히 이용후생하는 길을 알게 하며 근면취업하는 풍을 기르게 하며, 또한 온건착실한 사상을 뿌리내려 민력의 발전과 국부의 충실을 기함에 있을 뿐이니 이것이 진정한 애국심이라. 고로 항상 식산업에 근면하기를 게을리하는 것이 불가함에도 이상의 정치적 사함을 揭한 교과서는 어느 것이나 자유를 창하고 독립을 꾀하며 막연히 충군애국하는 사상을 불러 일으키려 하되 근면하고 충실하게 산업에 힘쓰는 일이 충성 애국에 이르는 길임을 상술치 않고, 왕왕 국가변란의 때에 이상한 사적을 謗解한 것이 있어 어린 학도들이 무모한 행동을 하게 하니 이로써 애국충렬의 행위라는 誤見을 품을 염려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실로 충군애국의 진의를 오해하여 사리의 본말을 판지하지 못하는 자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무릇 국가의 존립은 국민의 부강에 있고 국민의 부강은 불가불 근면으로 기대할지니 청년으로서 헛되이 대언장담으로 자패하고 입으로 정범을 논하는 자만이 있고 손으로 낫을 잡는 자가 없으면 누구에 의하여 국가의 존립을 얻을 수 있으리오. 저들 교과서에 說한 애국심과 같은 것은 건진치 못하다 할 뿐 아니라 반대로 국가로 하여금 擾亂疾弊에 빠져 영구히 흥국하는 기초를 열지 못할 것이라 말할지니 이와 같은 위험한 서적은 하루라도 존재를 許할 것이 아니어든 하물며 한국 헌정의 파괴를 고취하고 또 한일 양국의 친선한 관계를 저해하는 것이리오. 이는 명확히 국시에 반한 것이니 존호라도 假借할 여지가 없다… 이들 위험한 교과서가 이미 학생간에 유포한 것이 불소하여 그 결과로 국가를 위하여 우려할 만하니 요컨대 현시 교과서검정에 있어서 그 교육적 방면의 심사는 크게 관대하게 할지라도 그 사회적 정치적 방면에는 아주 엄밀하게 심사함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상의 교과서검정의 착안점과 검열의 개황 및 그 방침을 살펴보면 한국의 자주독립과 일제침략, 한국국권의 위험함을 말하는 것은 현실을 파괴하는 것이고 한국과 일본의 친선관계를 저해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일제의 침략적 상황이 마치 國是인 것처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민복을 내세워 부지런히 생산에 종사하는 것이 충군애국이라며 청년들이 이에 힘쓰고 현 정치·사회적 현실에 대한 관심을 막으려 한 것이었다.

(4) 구국교육운동과 민간의 교과서 편찬

1906년 일본이 통감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한국의 국권을 침탈하려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한민족의 대항운동이 다방면으로 전개되었으며 그 흐름은 대체로 의병항쟁과 애국계몽운동의 방향으로 나타났다.

통감부의 교육침략정책이 그 동안 발전하여 온 민족교육을 크게 억압하고 통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데 대항하여 민족교육은 보다 더 활발하게 추진되어 갔으며, 애국계몽운동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운동이었다. 민족교육운동은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로 인식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구하는 일로 받아들여졌다.

각지에 많은 민족사립학교가 설립된 것은 물론이고 교육회 및 여러 학회가 조직되어 보다 체계적인 민족교육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로 인해 교과서의 수요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교과서를 편찬하는 일이 필요하게 되었다. 통감부는 처음 초등학교의 교과서만을 편찬하였으므로 다수의 사립학교에서 필요한 교과서를 민간에서 편찬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04년 9월 설립된 國民教育會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그 설립목적은 “일반 국민의 교육을 勉勵하여 지식을 발달케 하되 泥古의 폐습을 草莽하고 쇄신의 규모를 확립할 것”에 두고 이를 위한 사업으로 “학교를 설립하고 문명적 학문에 응용할 서적을 편찬 혹 번역하여 刊佈하고, 본국사기와 지지와 古今名人傳蹟을 수집·광포하여 국민의 애국심을 鼓動하고 원기를 배양할 일”을 추진하였다.²⁷⁾

당시 이와 비슷한 취지로 설립된 학회인 서북학회(서우학회와 한북흥학회가 합침)·호남학회·기호흥학회·교남교육회·대동학회·여자교육회·태극학회·대한흥학회·관동학회·보인학회 등은 교육을 통하여 국권을 회복하는 데 그 목표를 두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를 설립하고 교과서를 편찬하는 일에 앞장섰다. 사립학교 가운데는 학교 안에 출판부를 두고 교과서를 간행하기도 하였다.

교과서의 수요 증가에 따라 일본인이 지은 교과서 또는 일본에서 편찬된 교과서도 국내에 수입되어 널리 사용되었다. 1896년에서 1905년 사이에 편찬

27) 《皇城新聞》, 1904년 9월 19·20·21일, 〈國民教育會規則의 大要〉.

된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1906년 이후의 교과서도 수신·국어·한문·역사·지리에 관한 교과서는 한국인이 주로 저술하였으나 다른 과목의 교과서는 일본인을 비롯하여 외국인의 저술이 많은 편이다.

(5) 교과서의 실태

교과용도서검정제도는 결과적으로 학교에서의 교육내용을 통제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었다. 검정이 실시되는 1908년 이후 한국인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용도서는 엄격한 통제를 받게 되었다. 통감부의 교과용도서에 대한 통제는 검정제도의 실시와 함께 내부대신의 이름으로 이른바 출판법을 제정하여 모든 출판물에 대한 검열을 실시하면서 이중으로 진행되었다.²⁸⁾

출판법의 내용은 관청의 문서·도서·연설문, 강의의 필기물·인쇄물, 사립학교와 회사 및 기타 단체에서 출판하는 문서·도서·서간·통신·보고·광고 등의 출판·발매 또는 반포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문서와 도서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의 고본을 첨부하여 지방관을 경유해서 내부대신에게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출판법 시행 전에 이미 출판한 저작물을 재판하고자 할 때에도 적용되었으며 내부대신은 출판법 시행 전에 출판된 저작물으로써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壞亂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그 발매 또는 반포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版·印本을 압수하도록 되었다.

출판법으로 그 동안 사립학교에서 자체 편찬하여 사용하던 교과서나 민간에서 제작하여 사용하던 모든 교과용도서와 함께 일반출판물도 검정에 앞서 내부대신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처럼 교과용도서에 대한 통제는 1907년부터 구체적으로 나타났으며, 통감부에서는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과서와 사용할 수 없는 교과서를 분류하여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서는 ‘學部編纂 教科用圖書’·‘學部檢定 教科用圖書’·‘學部認可 教科用圖書’로 제한되었으며, ‘學部不認可 教科用圖書’나 ‘檢定無效 및 檢定不許可 教科用圖書’, 그리고 출판법에 의거한 ‘內部大臣 發賣頒布禁止圖書’는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였다.

28) 《官報》, 융희 3년 2월 26일, 법률 6호 〈出版法〉.

검정제도 실시 이후 분류된 교과서의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학부편찬 교과용도서

통감부가 설치된 후 학부에서 편찬한 교과서는 1907년 7월 보통학교용으로 국어독본(4권)·일어독본(4권)·한문독본(2권)·수신서(2권)·圖書臨本(2권) 등 5종 14권이 편찬되었으며,²⁹⁾ 1909년 12월 보통학교용 교과서는 일단 편찬이 끝나고 고등학교용 교과서의 편찬이 진행되어³⁰⁾ 1910년 8월까지 완료되었다. 이들 교과서는 관공립학교는 물론 사립학교에서도 사용할 수 있었으며 사립학교에서 사용할 경우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었다.

1910년 7월 1일 현재 학부편찬 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수신서 (4권) 보통학교(학생용)	국어독본 (8권) 보통학교(학생용)
일어독본 (8권) 보통학교(학생용)	한문독본 (4권) 보통학교(학생용)
理科書(日文)(2권) 보통학교(학생용)	도화임본(4권) 보통학교(학생용)
습자첩 (4권) 보통학교(학생용)	산술서 (4권) 보통학교(교원용)
보통교육창가집1집 (1권) 보통학교 및 고등정도의 여러 학교(학생과 교원용)	
보통교육학 (1권) 사범학교 및 여러 학교(학생과 교원 참고용)	
학교체조교수서(1권) 보통학교 및 고등정도의 여러 학교(학생 참고용)	
한국지리교과서(1권) 고등학교 및 같은 정도의 여러 학교(학생용)	

나. 학부검정 교과용도서

교과용도서의 검정이 진행됨에 따라 학부에서는 이에 필요한 인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편집관 2명과 편집관보 3명을 신설하였다. 1908년 8월 사립고등학교용으로 俞鉦兼이 지은 《東洋史教科書》(1책)를 검정한 것을 시작으로 《萬國地誌大要》(安鍾和)·《國語語典》(김희상)·《算術教科書》(이교승)·《小博物學》(유성준)·《東洋史教科書》(유성준) 등이 1908년 12월 말 검정이 끝났다.

교과용도서검정규정이 제정된 후 1909년 3월까지 9종이 검정되는 등 검정의 진행이 더딘 편이었으나 1910년 5월까지의 33종, 1910년 8월까지의 모두 15개 교과에 걸쳐 41종의 교과서가 검정되었다. 이들 도서를 사립학교에서

29) 《官報》, 광무 11년 7월 9일, 학부령 7호 〈學部編纂普通學校教科用圖書發售規程〉.

30) 《皇城新聞》, 1909년 12월 14일.

사용할 경우에는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다만 사립학교규칙 제10조 1항에 의거 신고하였다. 이들 김정교과서를 교과별로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³¹⁾

교과목	도서명(책수)	저작자	발행년월일	사용대상학교
수 신	초등수신(1)	朴晶東	1909. 7. 12	사립초등
	보통교과수신서(1)	閔大植	1910. 4. 5	사립초등
	초등수신교과서(1)	安鐘和	1910. 6. 20	사립초등
국 어	초등국어어전(3)	金熙祥	1909. 3. 20	사립초등
	신찬초등소학(6)	玄 采	1909. 10. 20	사립초등
한 문	大東文粹(1)	휘문의숙	1907. 6. 5	고등학교
	字典釋要(1)	池錫永	1909. 7. 30	
	보통교육한문신독본(4)	李琮夏	1910. 2. 22	사립초등
	한문초학(4)	黃漢東	1910. 4. 30	사립초등
일본어	고등일본독본(3)	朴重華	1910. 6. 18	사립고등
	일어大成(1)	鄭雲復	1910. 6. 20	사립고등
교 육	신찬보통교육학(1)	金祥演	1908. 6.	사립고등
지 리	초등본국지리(2)	朴晶東	1909. 10. 10	사립초등
	초등만국지리대요(1)	安鐘和	1909. 2. 22	사립초등
	초등대한지리(1)	安鐘和	1910. 3. 15	사립초등
	초등외국지리(1)	俞鉦兼	1910. 8. 27	사립초등
지 문	신찬지문학(1)	閔大植	1907. 7. 15	고등학교
역 사	동양사교과서(1)	俞鉦兼	1908. 8. 10	사립고등
	초등대동역사(1)	朴晶東	1909. 8. 12	사립초등
	초등본국약사(2)	朴晶東	1909. 11. 15	사립초등
	초등본국역사(1)	安鐘和	1909. 12. 10	사립초등
	서양사교과서(1)	俞鉦兼	1910. 3. 30	사립고등
	신찬초등역사(3)	柳 瑾	1910. 4. 7	사립초등
	산술교과서(2)	李敎承	1908. 7.	사립고등
수 학	신찬대수학교과서(1)	李敎承	1910. 8. 15	사립고등
이 과	중등광물계교과서(1)	閔大植	1907. 8. 31	고등학교
	신찬소박물학(1)	俞星潛・金相天	1907. 11. 20	사립초등

31) 학부편집국, 《教科用圖書一覽》增補 5판(1910. 7).

조선총독부, 《教科用圖書一覽》改訂 6판(1912. 1).

	신편동물학(1)	申海容	1908. 6.	사립초등
	초등식물학(1)	鄭寅曉	1908. 8. 15	사립초등
	중등생리위생학(1)	任璟宰	1908. 10. 5(재판)	사립고등
	초등생리위생학대요(1)	安鐘和	1909. 9. 30	사립초등
	초등위생학교과서(1)	安鐘和	1909. 11. 25(재판)	사립초등
	개정중등물리학교과서(1)	閔大植	1910. 6. 20	사립고등
	초등용간명물리교과서(1)	崔在學	1910. 1. 20	사립초등
	생리학初卷(1)	安愛理	1909. 2. 15	사립고등
	개정신찬이화학(1)	朴晶東	1910. 2. 5(재판)	사립초등
	신찬실험이화학교과서(1)	李觀熙	1910. 5. 10	사립고등
	최신박물학교과서(1)	李觀熙	1910. 8. 25	사립초등
경 제	최신경제교과서(1)	俞鈺兼	1910. 5. 30	사립고등
농 업	농업대요(1)	李覺鍾	1910. 3. 7	사립고등
체 조	최신체조교과서(1)	森山美夫	1909. 7. 5	보통학교

한편 교과용도서검정규정은 1910년 8월 29일 국권침탈 이후에도 적용되어 1년 후인 1911년까지 다음 5종의 교과서가 검정되어 간행되었다.³²⁾

朝鮮語對譯國語會話入門(2책)	成田忠良	1911. 12. 14	사립초등
最新朝鮮分道地圖(1책)	玄公廉	1911. 7. 18	사립학교
中程대수학교과서(1책)	柳一宣	1910. 10. 23	사립고등
신찬농업교과서(2책)	金大熙外	1911년 6월7일	보통학교 · 同보습과
The Step in English Spelling and Reading(1책)			
G. Russell, Frampton	고등학교 및 동정도학교		

다. 학부인가 교과용도서

학부인가 교과용도서는 사립학교에서 사립학교령에 의거하여³³⁾ 학부에 사용인가를 청원한 것 중 인가된 도서이다. 그러나 인가도서를 사용할 수 있는 효력은 인가를 받은 학교에만 있으므로 다른 사립학교가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로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하였다. 인가도서의 총수는 1910년 7월 1일 304종에 달하고 있다.³⁴⁾ 이들 인가도서는 1911년 12월 28일

32) 조선총독부, 《教科用圖書一覽》改訂 6판(1912. 1).

33) 《官報》, 융희 2년 9월 1일, 칙령 62호 <私立學校令> 6조.

269종으로 줄어들었는데³⁵⁾ 이는 그 동안 인가도서 가운데 불인가도서로 분류된 것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들 가운데는 1895년 이래로 학부편집국에서 발행한 교과서가 대부분 속해 있었으며, 일본의 문부성에서 발행한 것과 일본의 출판사에서 발행한 것도 있다. 또한 각종 종교서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기독교계통 학교에서 사용하는 종교계통의 교과서는 거의 외국인(서양인)의 저작이다. 1910년 7월 1일 교과목별 인가교과용도서의 종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수신 : 2	교육 : 5	심리 : 1	가정 : 2
국어 : 9	한문 : 20	일어 : 4	지리 : 15
지도 : 12	지문 : 2	역사 : 4	산술 : 33
대수 : 9	기하 : 6	삼각 : 1	측량 : 3
박물 : 1	동물 : 5	식물 : 6	물리 : 13
화학 : 14	理化 : 7	이과 : 1	생리 : 3
위생 : 1	생리위생 : 3	광물지질 : 5	법률 : 6
경제 : 6	농업(축산원에 포함) : 31	상업 : 6	부기 : 7
도화 : 10	습자 : 2	수공 : 1	체조 : 4
영어 : 14	창가 : 1	예수교서 : 19	불교서 : 4

한편 학부에서 편찬한 도서로서 인가도서로 분류된 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교과목	도서명(책수)	저작자	대상학교
수신	소학독본(1책)	黃必秀	사립초등
한문	擊蒙要訣(1)		사립고등
	고등교과古文略選	呂圭亨	사립고등
지리	만국지지(1)		사립고등
	중등만국지지(3)		사립고등
지도	대한여지도(1)		사립고등
역사	만국약사(1 또는 2)		사립초등
산술	신정산술(3)		사립초등
	산술신서(2)		사립초등

34) 학부편집국, 《教科用圖書一覽》增補 5판(1910. 7).

35) 조선총독부, 〈教科用圖書一覽〉改訂 6판(1912. 1).

	정선산학 상(1)	사립초등
물 리	소물리학(1)	사립초등
이 화	신편이화학(1)	사립고등
경 제	경제통론(1)	사립고등

라. 학부불인가 교과용도서

이들 도서들은 사립학교에서 학부에 청원한 도서들 가운데 허가하지 않은 것이다. 불인가도서들은 대부분 1906년 통감부가 설치된 이후부터 교과용도서검정제도가 실시되기 직전까지 개인이 저작하여 발행한 것으로서 많은 사립학교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도서들이며 여기에는 일본인이 저작한 도서도 포함되어 있다. 1908년 사립학교령이 발표되고 각급 학교의 교과서사용규정이 만들어 지자 이에 의거하여 그 동안 자유롭게 사용하던 교과서의 사용허가를 청원한 것인데 불허한 것이다. 불인가도서들은 수신·국어·역사·지리·한문·영어 등의 문학 또는 인문·사회 계통으로서 자연과학계통의 도서는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

1910년 8월 이후에는 불인가도서가 늘어났는데 이는 과거 학부에서 편찬하여 어느 학교나 사용하던 교과서 가운데 내용상 문제가 있다고 하여 불인가도서로 분류된 것도 있으며, 학부대신 인가도서로 인정되었다가 사용이 금지된 도서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 도서들은 어느 학교든지 절대로 사용하는 것이 허가되지 않았다.

1910년 7월 1일 현재 학부불인가 교과용도서는 다음과 같다.

교과목	도서명(책수)	저작자	발행년월일
수 신	초등소학수신서(1)	柳 瑾	1908. 5. 30
	고등소학수신서(1)	徽文義塾 編輯部	1907. 8. 31
	중등소학수신서(2)	上同	1906. 9. 25
	중등수신교과서(5)	井上哲次郎	1902. 12. 12 초판
	여자수신교과서(1)	盧炳善	1909 2.
	삼강행실		
윤 리	초등윤리학교과서(1)	安鐘和	1907. 9. 10
	윤리학교과서(2)	申海永	1908. 1. 15

	신편윤리교과서(3)	井上哲次郎, 高山林次郎	1897. 4.17	초판
교 육	신정천자문(1)	李承喬	1908. 7. 1	
	사범교육학(1)	尹泰榮	1907. 6. 28	
	신편소학교수법(1)	陳熙星	1907. 10. 10	
국 어	실용신교수법(1)	狩野鷹力	1901. 3. 31	
	초등소학(4)	國民教育會	1906. 12. 20	
	최신초등소학(4)	鄭寅琥	1908. 7. 20	
	유년필독(2)	玄 采	1907. 5. 5	
	유년필독釋義(2)	玄 采	1907. 6. 30	
	국문독본(1)	미이미교회	1902. 초판	
	국문課本(1)	원영의	1908. 5.	
	유몽천자(4)	기 일	1907	
	녀자독본(2)	장지연	1908. 4. 5	
	고등소학독본(2)	휘문의숙 편집부	1906. 11. 30	
일 어	실지응용작문법(1)	최재학	1909. 1. 20	
	국한문簡牘	김우균		
	유학字聚(1)	윤치호	1909. 1. 20	
	婦幼독습(2)	강화석	1908. 6.	
	日話독습(1)	손봉구	1907. 6.	
	독습일어정칙(1)	정운복	1907. 9. 20	
	정선일어대해(1)	박중화	1909. 2. 15	
	再訂중등국문 전(3)	三土忠造	1899. 4. 16	초판
	중학작문교과서(5)	古谷知新	1906. 1. 15	
	수정일본문법교과서(2)	大槻文彦	1900. 11. 10	초판
	독습신안일한대화(1)	일어잡지사	1906. 8. 9	초판
	일어잡지(5)	渡瀬常吉		
	일한통화	國分國夫	1908. 10. 1	增訂6판
한 문	몽학한문초계(1)	원영의	1908. 4.	
	속성한자과본(1)	휘문관	1909. 3. 20	
	소학한문독본(2)	원영의	1908. 2.	
	보통교과한문독본(1)	휘문관		
	德慧입문(1)	楊格非		
지 리	음빙실문집(2)	양계초		
	자서조동(5)	상해미화서관	1899. 3판	
	진명회론(1)	김상천	1905. 10.	
	최신초등대한지지(1)	정인호	1909. 1. 5	

	최신고등대한지지(1)	정인호	1909. 1. 5
	대한지지(2)	현 채	1909. 12.
	대한신지지(2)	장지연	1907. 6. 15
	신편대한지리(1)	김건중	1907. 7. 12
	문답대한신지지(1)	박문서관 편집부	1908. 12. 10
	사민필지(1)	헬버트(김택영 역서도 있음)	1909.
	대한강역고(1)	정약용	1905. 1.
	만국신지지(1)	佐藤傳藏	1898. 7. 25 초판
	세계전도(1매)	(학부인쇄)	1896.
역 사	초등대한역사(1)	정인호	1908. 7.
	신정동국역사(2)	원영의 · 유근	1906. 12. 5
	보통교과동국역사(20)	현 채	1899. 9.
	중등교과동국사략(1또는2)	현 채	1906. 6. 10
	대동역사략(1)	유성준	1908. 4.
	대동역사	정 교	1906 2.
	역사집략(3)	김택영	1905. 10.
	동서양역사(2)	현 채	1907. 5. 12
	만국사기(14)	현 채	1905.
	중등교과서양역사(1)	瀬川秀雄	1905. 12. 6 초판
	수정중학국사교과서(2)	有駕長雄	1902. 12. 25 초판
	최근지나사(5)	石村貞一, 河野通之	1899. 7. 27 초판
	동국역대사략(3)		
음 악	국어문전음악(1)	주시경	1908. 11. 6
경 제	경제원론	김우균	
상 업	상업범론(2)	김대회	1907. 7. 12

1910년 7월 이후 인가도서 가운데서 불인가도서로 바뀌거나 또는 새로이 불인가도서로 분류되는 도서가 늘어나 1년 6개월이 지난 1911년 12월 28일 불인가도서의 숫자는 배 이상이 늘어났다. 이들 새로이 불인가도서로 분류된 도서들은 국어·한문·역사·지리 교과서가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역사와 지리교과서는 거의 모두 불인가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통감부나 총독부가 실시한 교육정책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인가도서로서 ‘시세 변혁의 결과에 따라 불인가도서로 된 도서’³⁶⁾는 다음과 같다.

동몽수신서(이덕무 · 이풍호)	간명교육학(유옥검)
교육학(최광옥)	신찬보통교육학(김상연)
학교관리법(한면우)	한문가정학(下田歌子)
신편가정학(현공림 · 박영무)	세계독본(池邊義象)
명치서한문대전(內山政如)	대한문전(최광옥)
대한문전(유길준)	국어문법(주시경)
정선일한언문자통(송헌석)	초학첩경(한승곤)
정선국문첩경(한승곤)	국어철자첩경(한승곤)
초학언문	정선국문첩경 一,二合本(한승곤)
국문첩경(한승곤)	문장지남(최재학)
초등작문법(원영의)	고등교과고문약선(여규형)
한문학교과서(여규형)	초등대한지(안중화)
대한지리지교과서(대동서관)	신정중등만국신지(김홍경)
최신세계지리(정운복)	초등지리교과서(국민교육회)
만국지(학부)	만국지(황윤덕)
중등만국지(주영환 · 노재연)	소학지(일본문부성)
중등외국지(유옥검)	신정중등만국지(송헌석)
신찬외국지(진희성)	초학디지(야소교서회)
신정분도대한제국지도(현공림)	한문지구전도(伊藤政三)
대한제국지도(현공림)	분도상밀한국신지도(靑木恒三郎)
대한여지도(학부)	분방상밀만국대지도(嵩山堂)
근세세계전도(伊藤政三)	초등본국역사(유근)
정선만국사(김상연)	중등만국사(유승검)
만국약사(학부)	신정산술(이교승)
산술신서(이상설)	간이사칙(현공림)
중등산술교과서(현공림)	중등교과산술신서(이상설)
소물리학(학부)	법학통론(주정균)
경제학강요(天野爲之)	농학초계(황윤덕)
농학입문(보서관편집부)	상업대요(유완종)
상업학(장지연)	응용상업부기학(김대희)
심상소학창가(佐佐木吉三郎, 納所辨次郎, 田村虎藏)	

마. 검정무효 및 검정불허가 교과용도서

이들 도서는 검정규정이 발표되기 이전 간행되었으나 검정규정 부칙 제15

36) 조선총독부, 《教科用圖書一覽》改訂 6판(1912. 1).

조에 의하여 검정이 무효로 되었거나 교과용으로 부적당하다고 하여 검정규정에 의하여 불허가된 것이다. 이들 도서도 교과서로 사용할 수 없는 도서로 분류하였다. 그렇지만 다수의 사립학교가 여전히 이를 사용하자 통감부에서는 학부불인가도서에도 포함시켜 사용을 금지하였으므로 대부분이 학부불인가도서와 중복되고 있다. 검정무효(6종) 및 검정불허가도서(7종)는 다음과 같다.

〈검정무효도서〉 : 6종	〈검정불허가도서〉 : 7종
고등소학수신서(휘문의숙 편집부)	보통교과국민의범(진희성)
중등수신교과서(휘문의숙 편집부)	초등소학수신서(유근)
고등소학독본(휘문의숙 편집부)	신정천자문(이승교)
대한신지지(장지연)	최신고등대한지지(정인호)
중등산학(이원조)	최신초등대한지지(정인호)
아학편(정약용)	초등대한역사(정인호)
	대동역사략(유성준)

바. 내무대신 발매반포금지도서

통감부에서는 교과용도서검정규정을 제정하여 학교의 교과서사용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한편 별도로 출판법을 앞세워 통제를 실시하였다. 1909년 5월 5일 내무대신은 출판법 제16조에 의거한 고시³⁷⁾를 발표하여 다음 도서의 발매·반포를 금지시켰다.

유년필독 1·2권(현재)	국문월남망국스 1책(리상익)
유년필독석의 상·하(현재)	20세기조선론 1책(김대희)
중등교과동국사략 2책(현재)	금수회의록 1책(안국선)
월남망국사 1책(현재)	우순소리(笑話) 1책(윤치호)

출판법 제16조의 내용은 “내무대신은 본법 시행전에 이미 출판된 저작물로 안영·질서를 방해하거나 또는 풍속을 괴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도서의 발매 또는 반포를 금지하고 版本과 印本을 압수한다”로

37) 《官報》, 융희 3년 5월 7일, 내부고시 27호.

되어 출판된 도서뿐만 아니라 그 판·인본까지 압수하여 철저히 탄압하였다. 1909년 5월 5일에 금지도서를 발표한 통감부는 교과용검정제도가 처리되면서 검정무효 및 검정불허가도서들을 이에 포함시켜 학교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읽지 못하게 하였다.

초등대한역사 1책(정인호)	보통교과동국역사 2책(현재)
신정동국역사 2책(원영의·유근)	대동역사략 1책(유성준)
대한신지지 2책(장지연)	대한지지 2책(현재)
최신고등대한지지 1책(정인호)	문답대한신지지 1책(박문서관 편집부)
최신초등대한지지 1책(정인호)	최신초등소학 4책(정인호)
고등소학독본 2책(휘문의숙 편집부)	국문과본 1책(원영의)
국민소학독본 1책(학부)	초등소학 4책(국민교육회)
소학한문독본 2책(원영의)	녀자독본 2책(장지연)
부유독습 1책(강화석)	고등소학수신서 1책(휘문의숙 편집부)
초등윤리학교과서 1책(안종화)	초등소학수신서 1책(유근)
중등수신교과서 2책(휘문의숙 편집부)	독습일어정칙 1책(정운복)
정선일어대해 1책(박중화)	실지응용작문법 1책(최재학)
음빙실문집 2책(양계초)	국가사상학 1책(정인호)
민족경쟁론 1책(유호식)	국가학강령 1책(안종화 역)
음빙실자유서 1책(전환기 역)	준비시대 1책(중앙總部)
국민須知 1책(김우식)	국민자유진보론 1책(유호식)
20세기의 대참극 제국주의 1책(변영만)	세계삼피물 1책(변영만 역)
강자의 권리경쟁 1책(유문상)	대가론집 1책(유문상 역)
청년입지론 1책(유문상 역)	남녀평등론 1책(최학소)
片片奇談 경세가 1책(홍중은)	소아교육 1책(임경재)
애국정신 1책(이채우 역)	애국정신담 1책(이채우 역)
몽건제갈량 1책(유원표)	乙支文德 1책(신채호)
을지문덕 1책(신채호)	이태리건국삼걸전 1책(신채호)
喝蘇土傳 1책(이보상 역)	華盛頓傳 1책(이해조)
波蘭末年戰史 1책(역자불명)	미국독립사 1책(현은)
애급근세사 1책(장지연)	
정치소설瑞士建國誌 1책(대한매일신보사)	정치소설서사건국지 1책(김병현)

(1911. 7. 10. 금지 도서)

이상의 발매 및 반포금지도서들은 그 초판 간행연도가 대부분 1908년 이

전이며, 학부불인가도서 또는 검정무효 및 검정불허가된 도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도서들은 그 내용으로 보아 역사교과서, 각국의 흥망사 및 독립사, 영웅·위인의 전기, 민족의식을 고취한 도서, 세계정세를 주제로 한 도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공통적인 것은 애국정신을 강조하고 일제의 침략이 진행되는 현실을 비판 또는 풍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도서 가운데 청년들이 즐겨 읽던 책은 각국의 흥망사나 독립사 또는 영웅과 위인의 전기 등이었는데 일제는 이들 도서들을 발매 및 반포금지시키고 이를 압수하여 수십만 권을 불사르기도 하였다.³⁸⁾

(6) 교과서 사용 실태

통감부가 설치된 후 편찬한 교과서는 보통학교용 일부와 중등학교용 일부 뿐이어서 특히 사립학교 교과서의 공급은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립학교는 통감부 설치 이전 학부가 간행한 교과서나 또는 개인이나 학회에서 편찬한 교과서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이 자유롭게 교과서를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교과서의 부족이었다. 이화학당에서는 1908년에 이르러서야 정부에서 공급하는 교과서의 사용이 가능하였으며 그 동안에는 주로 재직하는 교사들의 공저 또는 譯著로 대신하였고, 보성학교에서는 교과서를 자체 생산하여 공급하였다. 이와 같은 예는 다른 학교도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 바, 서울의 경우가 이렇다면 지방의 경우는 교과서 준비가 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지방에서도 학교 자체에서 교과서를 구비하거나 교사들이 준비하기도 하였으며 학교 설립자들이 교과서를 구하기 위하여 학부에 교과서 공급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한편 서울이나 지방의 각급 학교들이 운동회나 졸업식 등의 학교행사를 치루면서 또는 시험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수여하는 상품으로 교과서가 대표적인 것이었다. 또한 다수의 교과서를 학교에 기증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1906년~1910년간의 학교정황을 비교적 자세하게 보도하였던 《대한매일신보》와 《황성신문》의 기사나 광고를 통해 알 수 있다.

38) 李萬珪, 《朝鮮教育史》하(을유문화사, 1947), 172쪽.

교과서는 학교당국이나 군수 등 지방의 유지 또는 교과서의 집필자 자신이나 교과서를 취급하는 서점에서 제공하였다. 교과서를 상품으로 주고 받는 것은 이 당시 가장 인기있는 일이었다. 당시 상품으로 수여되는 교과서 가운데는 통감부에 의해 그 사용이 금지된 것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다수의 사립학교나 일반인들이 통감부당국에 의해禁書로 지정된 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가 허다하였음을 말해준다.

학부에서는 교과서 편찬의 담당자 및 관계자들을 자주 지방에 파견하여 교과서 사용을 감독하였다. 이들의 지방파견에 대한 명목은 지방의 학사시찰이었지만 실제로는 교과서 사용의 실태를 감독하고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교과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었다. 한편으로는 지방행정기관이나 경찰조직을 통하여 학교의 교과서 사용을 감독하기도 하였다. 이 때 지방의 다수 사립학교에서는 허가되지 않은 교과서를 사용하다 압수당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金興洙〉